

연구보고 2018-09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연구

유해미 외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8-09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유 해 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 윤 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박 은 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8-09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연구**

발행일 2018년 11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786-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65-7 93330



머 / 리 / 말

지난 10여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지원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2013년 이후 0~5세아 보편적 보육교육 지원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돌봄 공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영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된 초등 방과후 돌봄의 경우는 사각지대가 보다 광범위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부모들의 돌봄지원 요구는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져서 정부지원만으로는 온전히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돌봄망을 구축하여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아가 부모들의 다양한 돌봄지원 요구에도 부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아동 돌봄을 위한 민관 협력이 반드시 요구된다.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온종일 돌봄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도 지역사회내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은 핵심적인 과제라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전국지역에서 민관 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및 네트워크 운영자를 대상으로 민관 협력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지역 특성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은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 등에 응해주신 전국지역의 공무원과 돌봄서비스기관의 운영자, 그리고 자문회의 등에서 고견을 주신 전문가들께도 감사를 전한다. 끝으로 보고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18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목 차

요약	1
I.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내용	13
3. 연구 방법 및 분석틀	14
II. 연구의 배경	23
1. 돌봄서비스 분야의 민관 협력 운영 원리와 모형	25
2. 돌봄공동체 접근의 요소와 유형	37
3.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및 지원 현황	44
III. 아동 돌봄 분야의 서비스 공급 및 연계 현황	55
1. 돌봄서비스 유형별 사업내용 및 연계	57
2. 유관 기관의 사업내용 및 연계	79
3. 돌봄서비스 및 유관 기관의 공급 현황 및 지역유형화	90
4. 소결	103
IV. 지역 중심 돌봄공동체 지원 및 운영 사례	113
1. 사례 유형 1	116
2. 사례 유형 2	132

3. 사례 유형 3	136
4. 사례 유형 4	142
5. 사례 유형 5	152
6. 소결	156
V.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의 민관 협력 실태 및 요구	161
1. 지역중심 돌봄지원 체계 구축 및 개선 요구	163
2. 돌봄서비스 운영 시의 민관 협력 및 지원 요구	182
3. 소결	206
VI. 정책 제언	209
1. 기본 방향과 운영 원리	211
2.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214
참고문헌	229
Abstract	233
부록	235
부록 1. 돌봄서비스 및 유관 기관 수/아동 수	237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사업 담당자용	247
부록 3. 심층면담 질문지: 실무자용	250
부록 4. 심층면담 질문지: 부모용	253
부록 5. 설문조사표: 공무원용	256
부록 6. 설문조사표: 실무자용	265

표 목차

〈표 I-3-1〉 설문조사 내용_공무원 대상	15
〈표 I-3-2〉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_공무원 대상	15
〈표 I-3-3〉 설문조사 내용_실무자 대상	16
〈표 I-3-4〉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_실무자 대상	16
〈표 I-3-5〉 사례조사 대상 기관 및 운영사항	18
〈표 I-3-6〉 사례조사 내용	18
〈표 I-3-7〉 사례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성_사업담당 공무원	19
〈표 I-3-8〉 사례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성_돌봄센터 운영자/실무자	19
〈표 I-3-9〉 사례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성_공동육아 참여부모	20
〈표 I-3-10〉 간담회 및 자문회의 실시 일정 및 내용	20
〈표 II-1-1〉 전달체계 관계 모형의 특징 비교	30
〈표 II-2-1〉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과 관료제적 접근	38
〈표 II-2-2〉 사회적 돌봄에서 지역성이 고려되는 유형	40
〈표 II-2-3〉 사회적 돌봄에서 돌봄이용자의 참여성 유형	40
〈표 II-3-1〉 부처간 사업연계 시 지원사항	45
〈표 II-3-2〉 실무분과 구성 예시	53
〈표 III-1-1〉 시간제보육 이용대상 및 지원내용	58
〈표 III-1-2〉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단가	60
〈표 III-1-3〉 지역돌봄협의체 운영체계	63
〈표 III-1-4〉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지역사회 자원 종류(예시)	65
〈표 III-1-5〉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영역	67
〈표 III-1-6〉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추진체계	69
〈표 III-1-7〉 지역아동센터 운영 시간	70
〈표 III-1-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 내역	72
〈표 III-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추진체계별 역할	73
〈표 III-1-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의 기능 및 절차	73
〈표 III-1-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분야별 지역 자원	75

〈표 III-1-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자원봉사자 활용 업무내용 및 절차	76
〈표 III-1-13〉 영아종일제/보육교사형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77
〈표 III-2-1〉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내용	80
〈표 III-2-2〉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사업(2018)	83
〈표 III-2-3〉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사업(2018)	83
〈표 III-2-4〉 사회복지관 사업내용	88
〈표 III-3-1〉 전국 시·도별 돌봄서비스/유관 서비스 기관 공급 현황	91
〈표 III-3-2〉 전국 시·도별 돌봄서비스/유관 서비스 기관 공급률	92
〈표 III-3-3〉 대도시 지역의 돌봄서비스/유관 서비스 기관 공급률	94
〈표 III-3-4〉 중소도시 지역의 돌봄서비스/유관 서비스 기관 공급률	97
〈표 III-3-5〉 군 지역의 돌봄서비스/유관 서비스 기관 공급률	100
〈표 III-4-1〉 지역유형별 평균 돌봄서비스/유관 서비스 기관 공급률	103
〈표 III-4-2〉 대도시 지역 중 돌봄서비스 공급 상위 10% 지역 현황 1	104
〈표 III-4-3〉 대도시 지역 중 돌봄서비스 공급 상위 10% 지역 현황 2	105
〈표 III-4-4〉 대도시 지역 중 돌봄서비스 기관 공급 하위 10% 지역 현황	106
〈표 III-4-5〉 중소도시 지역 중 돌봄서비스 공급 상위 10% 지역 현황 1	107
〈표 III-4-6〉 중소도시 지역 중 돌봄서비스 공급 상위 10% 지역 현황 2	107
〈표 III-4-7〉 중소도시 지역 중 돌봄서비스 공급 하위 10% 지역 현황	108
〈표 III-4-8〉 농어촌 지역 중 돌봄서비스 공급 상위 10% 지역 현황	108
〈표 III-4-9〉 농어촌 지역 중 돌봄서비스 공급 하위 10% 지역 현황	110
〈표 IV-1〉 사례조사 지역의 돌봄서비스 및 유관서비스 공급 현황	115
〈표 IV-1-1〉 서울 S구_온종일 돌봄망 구축 전략 및 목표	118
〈표 IV-1-2〉 서울 S구 ‘별별재미난교실’ 운영체계	125
〈표 IV-1-3〉 서울 N구 월계문화복지센터 부설 다함께돌봄센터의 서비스 내용	129
〈표 IV-1-4〉 서울 N구 월계문화복지센터 부설 다함께돌봄센터 인력 배치	130
〈표 IV-2-1〉 서울 M구 ‘친한친구 공동체 방과후’ 인력 배치 현황	134
〈표 IV-3-1〉 G시 마을돌봄나눔터 운영 현황(2017. 12)	138
〈표 V-1-1〉 아동 돌봄의 공백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164
〈표 V-1-2〉 아동 돌봄서비스 연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기구 또는 조직 운영 여부	164
〈표 V-1-3〉 아동 돌봄서비스 연계 및 네트워크 운영 및 애로사항_광역시	166

〈표 V-1-4〉 아동 돌봄서비스 연계 및 네트워크 운영 및 애로사항_중소도시	166
〈표 V-1-5〉 아동 돌봄서비스 연계 및 네트워크 운영 및 애로사항_군 지역	167
〈표 V-1-6〉 아동 돌봄서비스 연계 및 네트워크 미운영 사유_광역시	169
〈표 V-1-7〉 아동 돌봄서비스 연계 및 네트워크 미운영 사유_중소도시	170
〈표 V-1-8〉 아동 돌봄서비스 연계 및 네트워크 미운영 사유_군 지역	170
〈표 V-1-9〉 아동 분야 돌봄 네트워크 및 협의체 구성 위원 및 사유	171
〈표 V-1-10〉 지역 내 돌봄서비스 기관 연계에 적합한 기관	173
〈표 V-1-11〉 지역 내 돌봄서비스 연계에 적합한 기관	175
〈표 V-1-12〉 지역 내 돌봄센터 활용 공간 충분 정도	176
〈표 V-1-13〉 지역 내 돌봄센터 인력 활용 충분 정도	176
〈표 V-1-14〉 지역 내 부모참여 돌봄센터에 대한 부모 수요 정도	177
〈표 V-1-15〉 부모참여 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수요층	177
〈표 V-1-16〉 부모참여 돌봄센터의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요구	178
〈표 V-1-17〉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시 중앙정부의 역할	179
〈표 V-1-18〉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시 지방정부의 역할	180
〈표 V-1-19〉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시 공공 부문의 역할	181
〈표 V-1-20〉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시 민간 부문의 역할	181
〈표 V-2-1〉 위탁기관의 역할과 운영 시 애로사항	183
〈표 V-2-2〉 지역중심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요구 및 개선 과제	184
〈표 V-2-3〉 지역 내 아동 돌봄 분야의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 현황 및 애로사항_전반	185
〈표 V-2-4〉 지역중심 돌봄서비스 연계 및 네트워크 기관의 주요 역할	186
〈표 V-2-5〉 아동 돌봄 분야의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 구성 및 애로사항_광역시	186
〈표 V-2-6〉 아동 돌봄 분야의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 구성 및 애로사항_중소도시	188
〈표 V-2-7〉 아동 돌봄 분야의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 구성 및 애로사항_군 지역	189
〈표 V-2-8〉 돌봄 네트워크 미운영 사유_광역시	190

〈표 V-2-9〉 돌봄 네트워크 미운영 사유_중소도시 지역	191
〈표 V-2-10〉 돌봄 네트워크 미운영 사유_군 지역	191
〈표 V-2-11〉 아동 돌봄 분야 돌봄 네트워크 및 협의체 구성 위원 및 사유	192
〈표 V-2-12〉 지역 내 돌봄서비스 연계에 적합한 기관	194
〈표 V-2-13〉 돌봄서비스 지원에 적합한 기관	195
〈표 V-2-14〉 지역 내 돌봄센터 활용공간 충분성	196
〈표 V-2-15〉 아동 돌봄 공간 활용 기관	196
〈표 V-2-16〉 아동 돌봄 분야 서비스 연계 현황_사회복지관	198
〈표 V-2-17〉 아동 돌봄 분야 서비스 연계 현황_지역아동센터	199
〈표 V-2-18〉 아동 돌봄 분야 서비스 연계 현황_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3
〈표 V-2-19〉 지역중심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기관 역할_사회복지관	203
〈표 V-2-20〉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지원 시 적합한 기관의 역할_지역아동센터	204
〈표 V-2-21〉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기관 역할_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5
〈표 VI-2-1〉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기구의 구성	217
〈표 VI-2-2〉 지역유형별 특성 및 민관 협력 운영 방식	222

그림 목차

[그림 I-3-1] 연구 절차 및 분석틀	21
[그림 II-1-1] 지방자치단체 유형화	31
[그림 II-1-2] 시군구 유형과 민관 협력기구 모형 연계	32
[그림 II-2-1] 돌봄 및 방과후 학교 마을협력 모델 구성요소	39
[그림 II-2-2] 마을중심 모델: 양천구 마을교육공동체 실행 프로세스	41
[그림 II-2-3] 교육청_단위학교 협업 모델	42
[그림 II-2-4] 지방자치단체_교육청 협업 모델	43
[그림 II-3-1] 온종일 돌봄체계의 특징	47
[그림 II-3-2] 다함께돌봄사업 추진체계	49
[그림 II-3-3]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분과 포함), 읍면동 협의체 간 예시	54
[그림 III-1-1] 시간연장형 보육의 개념	59
[그림 III-1-2] 초등방과후 돌봄 지역돌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모형	62
[그림 III-1-3] 교육지원청 주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운영 절차(예시)	66
[그림 III-1-4] 단위학교 주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절차(예시)	66
[그림 III-1-5] 지역아동센터 이용 절차	69
[그림 III-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 연계를 위한 업무절차	75
[그림 III-2-1]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달체계	81
[그림 III-2-2] 건강가정지원센터 추진체계	85
[그림 III-2-3] 다문화가족사업 추진체계	86
[그림 III-4-1] 돌봄 수요와 지역 내 자원에 따른 지역 유형화	111
[그림 IV-1-1] 서울 S구_개별 아동·학교·마을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모델	119
[그림 IV-1-2] 서울 S구_돌봄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조직개편(안)	120
[그림 IV-1-3] 서울 S구_아동청소년센터 조직도	121
[그림 IV-3-1] G시_마을돌봄나눔터 운영체계	139
[그림 IV-3-2] G시_마을돌봄나눔터 협의기구	140
[그림 IV-4-1] GM시 아이안심돌봄터 협력체계	146
[그림 IV-5-1] 충북 D군 아이키움마을사업 협력체계	154

[그림 VI-2-1] 아동돌봄 분야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요소	215
[그림 VI-2-2] 아동돌봄 분야 민관 협력기구 추진체계	217
[그림 VI-2-3] 모형 1-①: 대도시_사회적경제형	223
[그림 VI-2-4] 모형 1-②: 대도시_다가능센터형	224
[그림 VI-2-5] 모형 2: 대도시_협동조합형	225
[그림 VI-2-6] 모형 3: 중소도시_주민참여형	226
[그림 VI-2-7] 모형 4-①: 중소도시_지자체 주도+민간참여형	227
[그림 VI-2-8] 모형 4-②: 중소도시_부모주도형	227
[그림 VI-2-9] 모형 5: 군_지방자치단체+지역아동센터형	228

부록 표 목차

〈부록표 1-1〉 전국지역의 돌봄서비스 및 유관 기관 수/아동 수	237
〈부록표 1-2〉 대도시 지역의 돌봄서비스 및 유관 기관 수/아동 수	238
〈부록표 1-3〉 중소도시 지역의 돌봄서비스 및 유관 기관 수/아동 수	241
〈부록표 1-4〉 군 지역의 돌봄서비스 및 유관 기관 수/아동 수	244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난 10여 년 간 저출산 대응 등을 위한 아동 돌봄 분야의 재정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은 대상층을 영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확장하고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한 지역중심의 돌봄지원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아동 돌봄의 공백을 해소함과 동시에 부모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돌봄 욕구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나. 연구 내용

-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민관 협력의 개념, 운영 원리, 그리고 다양한 파트너십 유형을 파악함.
- 돌봄서비스 기관 및 유관 서비스 기관의 사업내용 및 서비스 연계 내용을 검토하고, 서비스 모형별 공급 수준을 파악하여 지역 특성을 모형화함.
- 돌봄 분야 민관 협력 관련 담당 공무원과 돌봄서비스 기관 및 유관 서비스 기관의 운영자와 네트워크 운영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돌봄 네트워크 운영 현황, 운영 시 애로사항 및 지원요구를 파악함.
-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지원 및 운영의 민관 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민관 협력체계 및 운영 방식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아동 돌봄 분야 민관 협력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민관 협력 방식과 민관 협력기구 설치·운영 방안을 제시함.

다. 연구 방법 및 분석들

□ 주요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 설문조사, 사례조사임.

- 전국 지역의 복지거버넌스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총 107명과, 돌봄서비스 기관 및 유관 서비스 기관(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운영자와 네트워크 담당 실무자 총 2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지역규모별로 광역시 4개 지역(서울 S구 1, 2, N구, M구), 중소도시 3개 지역(GM시, G시, S시), 군 단위 1개 지역(충북 D군)을 각각 선정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함.

□ 연구 절차 및 분석들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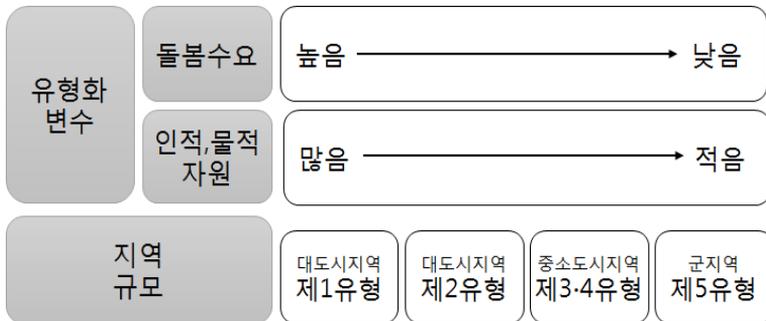
분석 절차	분석 내용
이론적 배경	- 민관 협력의 개념과 운영원리 - 지역특성별 민관 협력 모형 및 운영체계
지역중심 돌봄지원 사업 현황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및 지원 현황
돌봄서비스 기관의 사업내용 및 연계 현황	아동 돌봄서비스 기관/유관 서비스 기관의 사업내용 및 지역사회 연계 → 돌봄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내용 파악
지역별 서비스 공급 현황	↓ 서비스 기관 도출 돌봄서비스 및 유관 서비스 기관의 공급 현황 분석 → 지역별 특성 및 모형화
지역기반 돌봄체계 구축 운영사례 분석	↓ 사례분석 지역 선정 대도시/중소도시/군 지역 → 지역모형별 시사점 도출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 실태 및 요구	민관 협력 담당 공무원/운영자 및 실무자 → 민관 협력 현황 및 애로사항, 개선 요구 파악
↓ 정책 방안 도출 (민관 협력의 기본 방향 및 운영 원리/민관 협력 운영 모형 및 지원체계)	

2. 연구의 배경

- 돌봄서비스 분야의 민관 협력 운영 원리와 모형
- 돌봄공동체 접근의 요소와 모형
-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및 지원 현황

3. 아동 돌봄 분야의 서비스 공급 및 연계 현황

- 지역규모별로는 도시 지역 특히 대도시 지역의 공급 수준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반면, 군 지역의 돌봄서비스 공급 수준은 전국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나, 지리적 접근성은 낮아 도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돌봄 공백이 우려됨.
- 유관 서비스 기관의 경우는 군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공급 수준이 낮은 반면, 대도시 지역에는 기관모형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여 다양한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이 용이한 지역 환경으로 진단됨.
- 각 지역의 돌봄서비스 수요와 지역 내 자원(물리적 공간, 인적 자원)에 따라 민관 협력 방식을 구분하여 제시하면 이하와 같음.



4. 지역중심 돌봄공동체 지원 및 운영 사례

- 사례 모형 1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전담부서 및 인력을 배치하고, 민간 부문의 다양한 돌봄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사례임.
- 사례 모형 1-①은 사회적경제조직이 돌봄센터의 중간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지역과 같이 지역 내 다양한 서비스 기관이 부족한 경우는 유용함.

- 사례 모형 1-②는 공공 복합복지시설내에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구립 복합복지시설에 돌봄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해당 시설내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 사례 모형 2는 공동육아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이 주도하여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협동조합 방식의 지역사회 돌봄센터 운영은 지역 내 다양한 인적 자원의 부족에도 참여성에 기반하여 사업 확장이 가능함.
- 사례 모형 3은 지역주민 등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돌봄나눔터 운영위원회에는 시청 담당자 이외에도 아파트 입주민, 주민자치단체, 주민센터, 학부모 대표위원회가 포함됨.
- 사례 모형 4-①는 주민 참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지역 내 아파트는 공간과 공과금을 지원하고, 운영위원회에는 부모, 아파트 관계자, 시 담당 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관내 초등학교장이 포함됨.
- 사례 모형 4-②는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지원 사업에 대한 별도 위탁운영이 없이, 공동육아를 추구하는 부모들이 주도하는 방식임.
- 사례 모형 5는 자자체가 지역아동센터에 위탁운영하는 방식임.

5.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의 민관 협력 실태 및 요구

- 아동 돌봄 분야에 서비스 기관의 연계 및 네트워크 또는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절반 수준에 그치므로, 필요 시 관련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내 아동 돌봄서비스의 연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와 인력을 반드시 배치하여 운영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함.
- 민관 협력기구의 활성화 정도는 지역 역량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다양한 지원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지역중심의 돌봄 인프라의 지원대상은 초등학생과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를 모두 포괄함.
- 지역중심 돌봄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중앙정부는 재정지원(리모델링비, 돌봄교사 인건비, 운영비, 차량운영비 등), 중앙부처(보건복지부, 교육

부, 여성가족부)간 협력체계 마련함

-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사업 계획을 마련하며, 해당 사업을 전담할 부서와 인력을 배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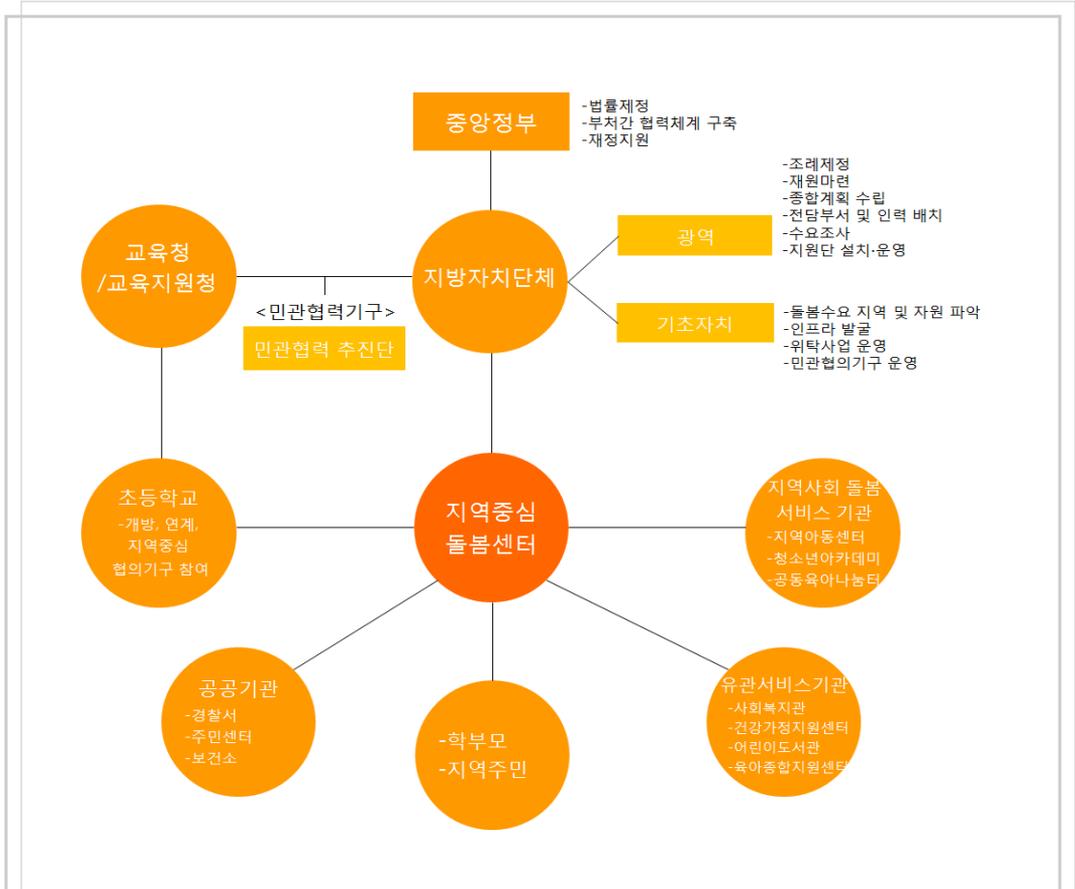
6. 정책 제언

가. 기본 방향 및 운영 원리

- 국가 주도의 돌봄지원 만으로는 온전히 해소될 수 없는 돌봄 사각지대와 긴급 돌봄 공백을 지역성과 당사자 참여를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이므로, 민관 협력의 명분 하에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소지가 모호해지면 안됨.
- 아동 돌봄 분야 민관 협력의 일차적인 목표는 1) 아동 돌봄의 공백 해소와 2) 다양한 돌봄 수요에의 대응임.
- 아동 돌봄 분야 민관 협력의 운영 원리는 지역 내 돌봄서비스의 공급 및 이용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와 네트워크를 핵심 요소로 하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간의 상호의존성과 동시에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

나.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 민관 협력기구의 구성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초등학교를 반드시 포함하고, 돌봄서비스 및 유관 서비스 기관 이외에도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해당 기구의 운영주체를 명료화하기 위해 전담부서 및 담당자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함.
 - 이에 더하여 아동 돌봄 분야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각종 컨설팅 및 지원을 담당하는 추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음.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광역 단위의 법적 근거에 따라 관련 사업의 전담조직과 인력을 배치하고, 조직개편과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함.
- 법적·제도적 추진 기반을 토대로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를 제시하면 이하의 그림과 같음.



□ 민관 협력기구의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기구를 관할하는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담당자를 배치하며, 민간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담당자 중에서 전담자를 배정함.
-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 유관 기관과의 협력사항에 대한 지표를 포함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추가함.
- 돌봄 분야의 공동사업을 기획, 추진하여 실질적인 협업이 가능토록 함.
- 민관 협력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편성하고, 해당 운영비는 서비스 기관간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차량 이동을 위한 비용을 포함하여 책정함.
- 민관의 기본적인 역할에 기반하여 각 소속 위원의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협력 사항을 명료화함.

□ 민관의 역할 분화

- 중앙정부는 지역중심 돌봄사업에서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해당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부처간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다양한 부처간 사업들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함.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법적 근거에 따라 지역 내 돌봄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지정 및 인력을 배치하며, 이를 위해 관련 조례의 제정과 이에 따른 조직 개편을 추진함.
- 공공 부문에서는 돌봄서비스의 제공, 이를 위한 인력 배치 및 프로그램 개발, 수요자 발굴 및 연계, 홍보 등을 담당함
- 민간 서비스 기관은 돌봄사업의 수행, 돌봄 인프라 제공, 돌봄 관련 정보 공유 및 교류, 서비스 연계 및 협력기구 참여 및 운영을 담당함.

□ 지역유형별 민관 협력체계 및 운영 모형

- 대도시 지역에 속하는 모형 1-①은 마을 및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민관 협력의 경험이 축적된 지역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협력기구가 중간지원 기관으로 적극적으로 기능하는 방식임.
- 대도시 지역에 속하는 모형 1-②는 모형 1-①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기능 복지시설이 돌봄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방식임.
- 대도시에 속하는 모형 2는 돌봄서비스 공급 수준이 낮아 지역중심 돌봄지원의 수요가 높고 유관 서비스 기관의 공급 수준도 낮으나, 공동육아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이 주도하는 방식임.
- 중소도시 지역에 속하는 모형 3은 돌봄서비스 공급이 낮으나, 지역 내 유관 서비스 기관의 공급 수준이 높아 해당 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돌봄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지역 내 자원 즉 아파트 돌봄공간을 활용하고 지역주민이 운영지원에 적극 참여하는 방식임.
- 중소도시 지역에 속하는 모형 4-①은 돌봄서비스 공급이 부족하여 지역중심 돌봄지원 수요가 높고, 지역 내 활용가능한 자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민간이 일부 참여하는 방식임.
- 중소도시 지역에 속하는 모형 4-②는 모형 4-①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만 지원하고, 운영 전반은 부모주도 방식임.

- 군 지역에 속하는 모형 5는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지역중심 돌봄지원 수요가 높으나, 지역 내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이외 서비스 기관이 부족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가 협력하는 방식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 방법 및 분석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10여 년 간 저출산 대응 등을 위한 아동 돌봄 분야의 재정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는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우려된다.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등은 물론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에서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부처간 연계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자원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된다(관계부처 합동, 2017b: 2). 기존의 돌봄서비스는 주로 취약계층 중심이어서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자녀 돌봄의 공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영유아에 비해 초등 방과후 돌봄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관계부처 합동, 2017b: 3). 이에 더하여 가족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부모들의 자녀돌봄 지원 수요는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들 수요에의 통합적 접근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사회적 돌봄은 종전의 영유아 대상 어린이집 위주에서 그 적용대상의 범위를 초등학생까지 확장하고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지원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서 부각되고 있다. 이를테면 여성가족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a: 19). 여기서는 공동육아나눔터 등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자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마을생활권 단위로 나눔터 공간을 확산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민간그룹과

의 업무 협약을 추진하여 연간 30억원씩 3년간 90억 원을 들여 맞벌이 가정 초등 학생 자녀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150개소 설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여성가족부, 2018b: 2-3). 또한 올해는 국정과제로 제기된 바와 같이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이 1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2018. 2. 28. 인출).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돌봄공동체 구축 방안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협업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올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다함께돌봄사업을 실시한다(보건복지부, 2017: 7). 동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공동체 자원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민간 중심의 지역맞춤형 돌봄생태계 구축 사업이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은 범부처간의 연계 및 협력은 물론 지역 내의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요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성의 진정한 개념은 정부에 한정되지 않고,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공공성의 재구성이 요구된다고 주장된다(정영모, 2018: 38). 즉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육아는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개별 가족 특히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성불평등한 구조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가, 가족(개인)에 더하여 지역사회(공동체)가 함께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송다영, 2018: 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동 돌봄의 공백을 해소함과 동시에 부모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돌봄 욕구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 및 세부 전략을 수립하되, 특히 각 지역별 돌봄서비스의 공급 수준과 민간 부문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민관 협력 시 운영 방식의 차별화가 요구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2 연구내용

첫째, 아동 돌봄 분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돌봄 사각지대와 다양한 돌봄 수요로 인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특히 지역 기반의 돌봄공동체와 민관 협력체계와의 관계를 논의한다.

둘째, 사회서비스 분야 민관 협력의 개념화, 핵심 운영 원칙 및 원리를 파악한다. 즉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를 개념화하고, 협력체계의 특성 및 범위, 정도 등에 따른 다양한 파트너십 유형을 검토한다.

셋째, 돌봄 분야 서비스 제공기관 및 유관 기관의 사업내용 및 서비스 연계내용을 검토하고, 서비스 유형별로 민관 협력의 내용 및 범위를 규명한다. 이때 돌봄 서비스 기관으로는 영유아 돌봄과 초등 방과후 돌봄을 구분하고, 유관 기관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넷째, 돌봄서비스 및 유관 서비스 기관의 공급 수준을 분석하고, 지역규모 등 지역 특성별로 유형화한다.

다섯째, 돌봄 분야 민관 협력 관련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 내 돌봄 네트워크 운영 현황, 운영 시 애로사항 및 지원요구를 파악한다. 이때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돌봄 분과 또는 지역돌봄협의체 등 지역 내 돌봄 네트워크 또는 협력기구의 운영 실태 및 개선 요구를 포괄한다.

여섯째, 돌봄서비스 기관의 운영자와 유관 서비스 기관의 네트워크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민관 협력의 내용과 협력 시 애로사항, 그리고 지원 요구를 파악한다.

일곱째,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지원 및 운영의 민관 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지역특성 및 운영 방식에 따른 민관 협력의 세부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아동 돌봄 분야 민관 협력의 기본 방향과 지원체계를 제시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민관 협력 방식과 민관 협력기구 설치·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3 연구 방법 및 분석틀

이 연구의 연구 방법 및 분석틀을 살펴보면, 연구방법에는 문헌연구, 설문조사(공무원/돌봄서비스 및 유관 서비스 기관의 운영자와 실무자), 사례조사, 심층면담이 진행될 예정이며 분석틀은 뒤에 제시할 그림 I-3-1과 같다.

가.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민관 협력(사회복지사업법 등)과 지역 돌봄 인프라 조성 관련 법률(건강가정기본법 등)과 관련 주요계획(건강가정기본계획 등)의 추진내용을 조사하여 방향성을 파악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등 민간협력 관련 정부 지침을 검토한다. 또한 아동 돌봄서비스 기관(지역아동센터 등) 및 유관 서비스 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운영 지침을 통해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사항을 조사한다.

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 내용과 협력 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가) 설문조사 1: 공무원 대상

조사대상 및 규모는 전국 지역의 지역사회복지, 복지거버넌스, 협치, 민간자원 활용, 마을공동체 또는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담당하는 총 107명이다.

조사내용은 1) 지역 내 돌봄 분야 민관 협력 추진 여부 및 추진내용, 2) 지역 기반 돌봄공동체 사업 추진 여부, 추진내용, 3) 관련 민간협력기구 여부 및 주요 기능, 운영 방식(위원 구성 등), 4) 민관 협력 사업 및 민관 협력기구 운영 시 애로사항 및 개선요구 전반 등이다.

표 I-3-1 설문조사 내용_공무원 대상

구분	조사 내용
지역 내 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실시 여부 및 세부내용 • 재정지원내용 및 수준/사후관리 • 사업 담당자 및 위탁기관 • 돌봄 인프라 유형 • 향후 사업 실시 계획 및 세부내용 • 아동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및 해당내용
지역사회 돌봄네트워크 및 협력기구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돌봄서비스 기관 연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의 기구 여부 및 주요 역할 • 돌봄네트워크 또는 협의기구 구성 위원 • 돌봄네트워크 또는 협의기구 운영 시 애로사항 • 돌봄네트워크 또는 협의기구 포함 기관
아동 돌봄 분야 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 및 지원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발굴 돌봄 인프라 유형 • 지역 내 해당 사업 수행에 적합한 기관, 인력 • 부모참여 돌봄센터의 지역 내 수요 • 주체(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서비스 기관/민간 서비스 기관/부모)
응답자 일반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 최종학력 등

표 I-3-2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_공무원 대상

단위: %(명)

구분	비율(사례수)	구분	비율(사례수)
거주지역1_시도		거주지역2_지역규모	
서울	3.7(4)	광역시	28.3(30)
부산	10.3(11)	중소도시	34.0(36)
대구	8.4(9)	읍면지역	37.7(40)
인천	2.8(3)	연령	
광주	0.9(1)	20대	11.3(12)
대전	4.7(5)	30대	22.6(24)
울산	2.8(3)	40대	37.7(40)
경기	12.1(13)	50대	28.3(30)
강원	13.1(14)	성별	
충북	6.5(7)	남성	24.3(26)
충남	6.5(7)	여성	75.7(81)
전북	4.7(5)	최종학력	
전남	2.8(3)	고졸	0.9(1)
경북	8.4(9)	전문대졸	10.3(11)
경남	11.2(12)	4년대졸	80.4(86)
제주	0.9(1)	대학원 이상	8.4(9)
계(수)		100.0(107)	

나) 설문조사 2: 돌봄서비스 및 유관 기관의 실무자 대상

조사대상 및 규모는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네트워크가 주된 기능으로 명시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총 218명이다.

조사내용은 1) 아동돌봄 관련 사업내용, 돌봄 분야의 지역사회 연계 또는 서비스 연계 현황, 2) 민관 협력 기구 참여 여부 및 참여 시 역할, 3) 지역 기반 돌봄 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의향, 협력 및 지원 사항 등이다.

표 I-3-3 설문조사 내용_실무자 대상

구분	조사 내용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실시 여부 및 세부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담당 업무 및 위탁 운영 시 애로사항 돌봄 인프라 유형/서비스 내용
지역사회 돌봄네트워크 및 협력기구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참여 여부 해당 기구의 위원 구성 및 역할 위원 기관 중 도움 정도/포함 기관 및 사유
아동 돌봄 분야 서비스 연계 및 협력과 지원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적합한 수행기관 및 서비스 연계 및 협력내용 지역 내 유휴 돌봄 공간 수준 및 기관 지역 내 유휴 돌봄인력 부모 수요 인식 및 해당 가구 특성 지역 내 서비스 연계 기관 및 협력내용/애로사항 지역사회돌봄체계 구축 시 기관의 적합한 역할
응답자 일반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연령, 최종학력 등

표 I-3-4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_실무자 대상

구분	비율(사례수)	구분	비율(사례수)
거주지역1_시도		거주지역2_지역규모	
서울	22.0(48)	광역시	39.4(86)
부산	7.8(17)	중소도시	31.7(69)
대구	2.3(5)	읍면지역	28.9(63)
인천	4.1(9)	연령	
광주	1.4(3)	20대	12.4(27)
대전	3.2(7)	30대	28.4(62)
울산	2.8(6)	40대	28.9(63)
세종	0.9(2)	50대	27.1(59)

(표 1-3-4 계속)

구분	비율(사례수)	구분	비율(사례수)
경기	16.5(36)	60대	3.2(7)
강원	2.3(5)	성별	
충북	4.1(9)		남성
충남	4.1(9)	여성	74.3(162)
전북	8.7(19)	최종학력	
전남	7.3(16)		고졸
경북	6.0(13)	전문대졸	22.0(48)
경남	4.6(10)	4년대졸	57.8(126)
제주	1.8(4)	대학원 이상	19.3(42)
기관유형			
사회복지관	27.5(60)		
지역아동센터	67.4(14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5.0(11)		
계(수)			100.0(218)

3) 사례조사

사례조사는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 방식의 주요 특성 및 원리를 파악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화 등 민관 협력 방식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조사대상 및 규모

사례조사 대상은 지역중심 돌봄공동체 사업을 추진 중인 총 8개의 시군구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때 사업 추진의 주체를 다양화하여 중앙정부(온종일 돌봄 시범 지역, 다함께돌봄사업), 광역 단위(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원사업을 포함하였다.

이와 동시에 지역규모별로 광역시 4개 지역(서울 S구 1, 2, N구, M구), 중소도시 3개 지역(경기 GM시, G시, S시), 그리고 군 단위 1개 지역(충북 D군)을 각각 선정하였다. 광역시 지역의 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 온종일 돌봄의 컨트롤 타워 구축 사례(서울 S구 1)를 우선 다루고, 그 다음으로 운영 주체 및 핵심 연계 기관을 다양화하여,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 다기능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포괄하였다.

표 I-3-5 사례조사 대상 기관 및 운영사항

구분	1	2	3	4	5	6	7	8
소재지	서울 S구(1)	경기 GM시	경기 G시	충북 D군	서울 M구	경기 S시	서울 S구(2)	서울 N구
돌봄 센터명	틈새교육	아이안심 돌봄터 (다함께 돌봄센터)	마을돌봄 나눔터	온마을 육아 나눔터	우리동네 키움센터 (별별재미 난교실)	공동육아 (맘오니)	우리동네 키움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정원	10명	25명	33명	20명	25명	없음	45명	35명
대상연령	초등학생	초등 1-3학년	초등학생	초등학생 (저학년)	초등학생	영유아~ 초등학생	초등학생	초등학생
담당교사	2인	2인	2인 (1인보조)	1인	2인 (1인보조)	부모	3인 (2인보조)	3인 (2인보조)

□ 조사 내용

조사내용은 1) 돌봄공동체의 실태 및 운영의 배경 및 목표, 2) 참여대상 및 운영 체계, 주요 사업내용, 3) 정부와의 협력 및 지원, 4) 지역사회 유관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여부 및 세부내용과 운영체계, 5) 민관 협력기구 참여 여부 및 도움 정도, 6) 돌봄공동체 운영 시 애로사항 및 지원요구 등이다.

표 I-3-6 사례조사 내용

사례조사 내용
<사업담당 공무원> - 사업 추진 배경 및 기대효과 - 사업 내용 및 추진체계 - 지역 여건과 사업내용의 차별화 -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 -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에 관한 의견 전반
<돌봄센터 운영자 및 참여 부모> - 활동 배경 및 근무여건 - 지역 중심 돌봄공동체 참여 동기 및 필요성 - 운영자 역할 및 운영체계 - 활동 시 애로사항 - 개선 및 요구 사항
<돌봄센터 참여 부모> - 돌봄공동체 참여 동기 - 서비스 병행 이용 여부 - 이용시간 및 이용비용 - 참여 내용 - 지역 내 서비스 연계 및 정부와의 협력 요구사항

표 I-3-7 사례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성_사업담당 공무원

구분	지역	담당부서	직위	재직 기간	사업담당 기간	학력	성별	연령
1	서울 S구	교육아동 청소년담당관	주무관	3년4개월	3년4개월	대학원 이상	여	만44세
2	경기 GM시	여성가족과	팀장	18년	2년4개월	대졸	남	만45세
3	경기 GM시	여성가족과	행정 7급	9년6개월	3개월	대졸	여	만37세
4	경기 G시	사회복지과	행정 9급	1년2개월	1년2개월	대학원 이상	여	만31세
5	충북 D군	보건소	보건 7급	11년	3년	대졸	여	만34세
6	서울 S구	마을사회적 경제과	사회적경제 특구추진단 부단장	2년2개월	2년 2개월	대졸	남	만47세

표 I-3-8 사례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성_돌봄센터 운영자/실무자

구분	지역	총 경력	학력	성별	연령	재직 기간	근무시간	자녀현황
1	서울 S구	14년 2개월	대졸	여	만50세	14년 2개월	주 5일 /9시간 30분	없음
2	경기 GM시	2개월	대졸	여	만48세	2개월	주5일 /9시간	1명
3	경기 G시	5년	대학원 이상	여	만36세	5년	주5일 /9시간	1명
4	충북 D군	1년5개월	대졸	여	만37세	1년5개월	주5일 /9시간	3명
5	서울 M구	1년 10개월	대졸	여	만53세	1년 10개월	주5일 /8시간	없음
6	서울 S구	1년9개월	고졸	여	만39세	1년9개월	주5일 /9시간	2명
7	서울 N구	3개월	대졸	여	만31세	3개월	주5일 /9시간	1명

표 I-3-9 사례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성_공동육아 참여부모

구분	지역	취업여부 및 근로형태	자녀 현황	학력	성별	연령	공동육아		
							참여 기간	참여 시간	참여 자녀
1	서울 M구	전일제, 노조상근자	2명	대졸	여	만48세	2년6개월	주5회 /6시간	1명
2	서울 M구	전일제, 공무원	2명	대졸	여	만42세	5년9개월	주5회 /6시간	2명
3	경기 S시	전업주부	2명	고졸	여	만30세	5년	월2회	2명
4	경기 S시	전업주부	3명	대졸	여	만39세	-	월2회	3명
5	경기 S시	전업주부	2명	대졸	여	만45세	1년	월4회	2명

5) 간담회 및 자문회의

학계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및 그 타당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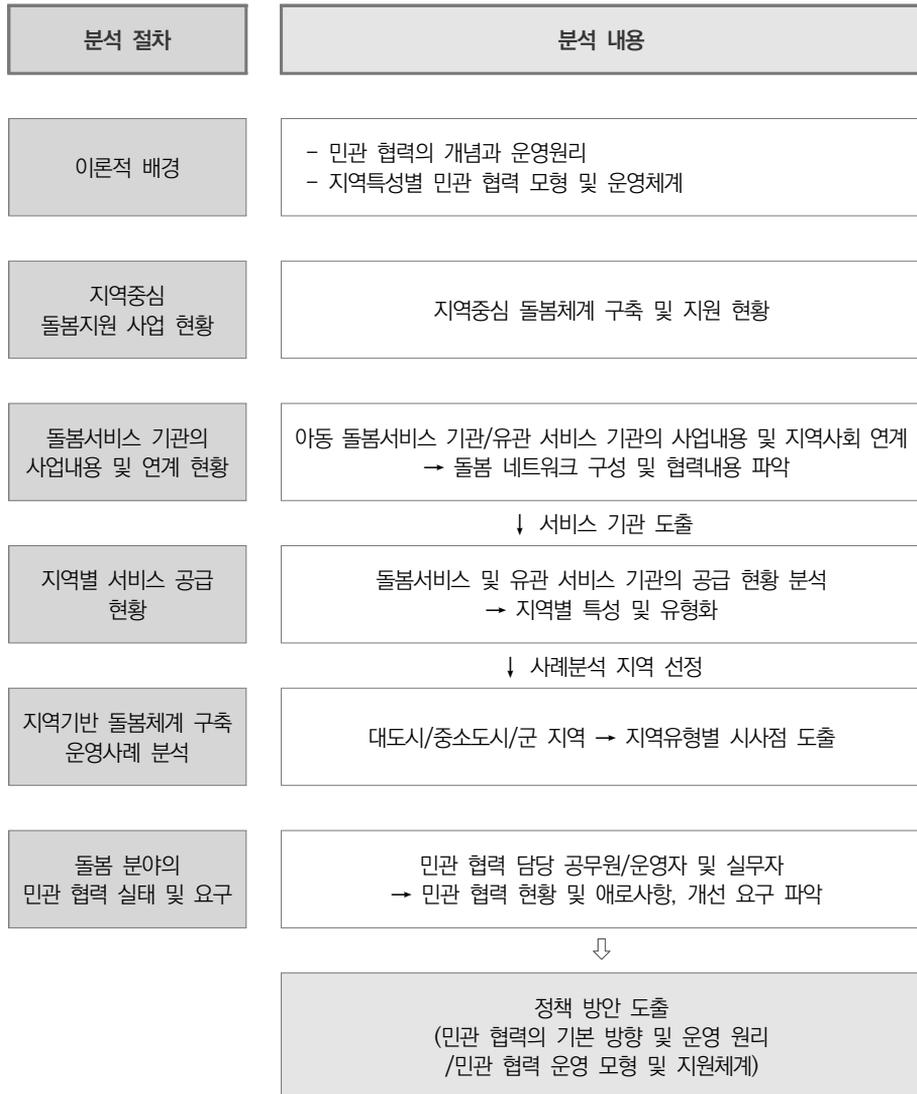
표 I-3-10 간담회 및 자문회의 실시 일정 및 내용

개최 일자	참석자/인원	주요 안건
2018. 2. 27	학계 전문가/3인	- 연구 설계 및 연구 방향 설정
2018. 4. 18	학계 전문가/3인	- 아동 돌봄분야 민관 협력의 범위 및 유형화 - 연구방법 및 분석틀 관련 자문
2018. 5. 23	방과후학교 전문가 1인 /지역아동센터 전문가 3인	-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연계 및 협력 - 돌봄체계 구축의 운영 원리와 요구
2018. 10. 22	돌봄서비스 및 유관서비스 운영자 3인 /돌봄네트워크 관리자 1인	- 돌봄네트워크 운영 및 효율화 방안 - 서비스 기관별 연계 및 네트워크 현황
2018. 11. 20	돌봄협의체 운영자 2인	- 돌봄협의기구 운영 방식 및 추진체계 - 돌봄협의기구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나. 연구 분석틀

이상의 연구 내용 및 방법에 따른 연구 절차 및 분석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3-1 연구 절차 및 분석틀



II

연구의 배경

1. 돌봄서비스 분야의 민관 협력 운영 원리와 모형
2. 돌봄공동체 접근의 요소와 유형
3.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및 지원 현황



II. 연구의 배경

이 장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민관 협력의 필요성 및 요건, 민관 협력기구의 운영 모형, 돌봄공동체의 함의 및 운영 모델에 관한 선행연구를 다루고,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과 지역 돌봄 인프라 확충 관련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1 돌봄서비스 분야의 민관 협력 운영 원리와 모형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민관 협력은 공공만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며, 그 관계 양상은 각 자원의 수준에 따라 다양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기구 운영 모형은 지역특성별로 다양하다.

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민관 협력의 개념화와 운영원리

1) 복지 분야 민관 협력의 필요성 및 요건

민관 협력은 정부 혹은 공공이 모든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보다는 사회의 구성단위인 시장, 시민사회 영역과 협력하여 국정을 관리하는 형태의 거버넌스 형식을 의미한다(홍영준, 2017: 139). 보다 구체적으로 민관 협력은 시책 결정의 자문이나 심의 등 지역사회 내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의 형태에서 민과 관 사이의 단순한 정보 수집, 자원 활용에 대한 협의, 업무 협조, 위기집단에 대한 관리 등을 일컫는 연계망 형성(네트워크킹)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개념화된다(김필두·권오철·이태수·안혜영·양창모, 2008: 34). 따라서 민관 협력은 지역사회내의 의사결

정에 대한 참여와 네트워킹의 형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김필두 외, 2008: 34). 또한 민관 협력은 기본적으로 민간과 관의 동반적 관계(partnership)를 전제로 한다(김필두 외, 2008: 35).

복지 분야에서 민관 협력은 복지욕구의 폭증을 공공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과 더불어 자원 확보와 서비스 전문성 등 민간의 장점을 충분히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강조되어왔다(홍영준, 2017: 139). 민관 협력의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배경 하에 제기된다(김필두 외, 2008: 8).

첫째, 중앙정부에 의해 복지정책의 대부분이 결정되는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역내의 시민사회 및 지역주민들에 의한 복지정책의 기획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진입하였다. 둘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복지정책이 결정되는 추세가 강해질수록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참여욕구가 제고됨으로써 민관의 협치(governance)에 의한 정책결정 과정이 강조된다. 셋째, 복지 부문에서 지방분권이 진척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주체성을 살려나가는데 민간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넷째, 자원의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상호주체성을 인정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전제로 한 협력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이러한 민관 협력체계는 정부가 민간 비영리조직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을 피하면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이인희, 2012: 68). 정부는 민간비영리조직과 계약을 통한 서비스 매입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접근이 곤란한 집단이나 소수집단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조직들이 지닌 각종 자원과 전문지식에 의존함으로써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보다 특수집단의 상황에 더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민관 협력체계는 민·관 부문과 개인 및 단체가 상호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협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이인희, 2012: 68). 즉 이는 정부, 기업, 비영리단체, 시민이 자원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체계로서, 연결망, 조정, 협조, 제휴, 계약, 협력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현장에서는 협력관계의 특성과 범위,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파트너십이 가능하다. 원만한 민관 협력체계가 구축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네트워크상의 상호작용 및 상호의존성과 더불어 각 부문 간 독립성 보장, 행

위주체간 대화의 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즉 각 행위 주체간의 정보공유 노력, 접촉 정도, 공무원의 능력 등이 전제되어야 상호협조가 가능하다(이인희, 2012: 68).

2) 민관의 특성과 관계 모형

가) 공공과 민간 부문의 개념화와 특성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는 크게 공공과 민간 부문으로 구분된다. 공공 부문(public sector)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역할과 활동을 포함한다.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주체는 공공이나 민간 중 누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각기 어떤 영역과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그 관계유형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등이 논의의 핵심을 이룬다(김영중, 2004: 1-2).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 주체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분담의 형태는 국가마다 다양하나, 대체로 지방정부가 서비스 생산자로서 활동하며, 중앙정부가 재정을 분담하거나 서비스 조정권을 지닌다(박수지·박세경·이태잔·김가희, 2013: 16). 민간 부문은 비공식 부문과 공식 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공식 부문은 비영리 부문과 영리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수지 외, 2013: 16). 이처럼 민간 부문은 영리와 비영리 부문을 포괄하는 비공공 주체들의 역할과 영역을 포함하나(김영중, 2004: 4),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민간이라 함은 주로 비영리 조직 민간주체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비영리조직이나 비정부조직으로 일컬어지며, 정부나 시장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독립부문(independent sector) 혹은 제3섹터(the third sector)로도 불리운다(김영중, 2004: 4).

한편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관계를 통한 서비스 공급 방식이 복지국가의 대안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정부와 시장, 비영리 부문의 독자적인 실행에서 비롯되는 한계 때문이다(김영중, 2004: 5). 공공 부문은 본질적으로 대규모적이고 관료적이어서 획일성과 비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의 문제를 나타내는 이른바 정부의 실패라고 불리는 한계를 지닌다. 다시 말해 국가가 특정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정부가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일 경우에는 시민들의 다양하게 변화하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된다(박수지 외, 2013: 21).

반면에 민간-영리 부문은 사회서비스라는 공공재를 시장 기능에 맡기게 될 때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 시장의 실패라고 불리는 한계를 안고 있다. 민간 비영리 조직에 대한 기대는 대개 이러한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데서 비롯된다. 크레이머(Kramer)는 자원(voluntary sector) 부문, 즉 민간-비영리 부문은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다음의 네 가지 역할을 맡는다고 제시한다(김영중, 2004: 5). 구체적으로 1) 첨병 역할_혁신적이고 선도적인 프로그램 시도, 2) 개선자 역할_공공의 역할에 대한 감시나 비판을 통해 서비스의 확대와 개선을 도모, 3) 가치 및 보호자 역할_특정 소수의 특별한 이익을 보호하고 가이드 하는 역할, 4) 보충 역할_공공의 서비스를 보충적으로 제공이 그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비영리 민간 부문에 위한 서비스 제공은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프로그램이 혁신적이고 시민의 자원봉사 정신을 함양하며 시민을 대변하여 변화를 주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박수지 외, 2013: 22). 그러나 비영리 부문은 재원이 자발적이고 자선적인 기부자의 동기에 의지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안정하고 불충분하다는 점과 기부자의 요구나 가치가 수혜자에게 반영되는 온정적 간섭주의, 특수주의로 인한 보편적 자원 활용의 어려움, 재원의 한계로 인해 전문성이 낮은 점 등이 우려된다(김영중, 2004: 6).

이와 같이 민간과 공공 부문의 주체들은 각각 나름의 장점과 한계를 지니므로, 아동 돌봄 분야의 공공과 민관, 보다 좁게는 공공과 비영리_민간 부문의 협력관계는 각 주체간의 장점과 한계를 상호 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점에서 어느 한 가지 주체에만 의존하는 독점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양한 주체들의 한계를 보완하는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이 대안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박수지 외, 2013: 24). 나아가 민관 협력체계 구축의 핵심은 서비스 생산비용을 누가 부담하며, 그 비용은 어디서 조달하는가 그리고 다원화된 복지공급체계를 어떻게 규제하며,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관한 이슈들이 제기되어 왔다(박수지 외, 2013: 24).

나) 비영리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의 관계 유형

비영리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과의 관계는 다양한 분석기준에 의해 유형화 될 수 있다(김영중, 2004: 4). 대표적으로 기드론(Gidron) 등은 자원 부담의 주체와

서비스 공급의 주체를 기준으로 4가지 관계 모형을 유형화하고 있다(김영중, 2004: 4 ; Gidron et al., 1992). 정부가 재정 부담과 서비스 공급의 주체를 모두 맡는 정부주도 모델과 반대 경우인 비영리 주도 모델이 양 극단에 위치하며, 정부와 비영리 부문이 재정과 서비스 공급을 각기 분담하는 이중모형(dual model)과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고 서비스 공급 주체는 비영리부문이 맡는 협조 모형(collaborative model) 가운데 위치한다(김영중, 2004: 4). 보다 구체적으로 이중모형에는 보충형과 보완형이 포함된다(김영중, 2004: 4). 보충형 이중모형은 정부와 민간이 유사한 영역에서 활동하나, 정부의 기반 위에 민간이 추가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확장사다리 모형과 유사하고, 보완형 이중모형은 민간과 정부가 각기 다른 영역의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로 평행봉 모형에 일치하는 것이다(김영중, 2004: 4). 또한 협조모형은 다시 대행자 모형과 파트너 모형으로 나뉘는데,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민간이 재원공급자인 정부와의 관계에서 자율성과 협상 능력을 확보하는 정보에 따라 구분된다(김영중, 2004: 4). 단순대행자 혹은 종속적 대행자에서부터 동등한 위치의 파트너쉽 관계 설정으로의 전이가 민간 비영리 부문에서는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왔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과 민간, 양자의 관계유형에 있어 순수한 공공 지배 모형과 민간지배 모형을 제외하면, 4가지 형태의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 관계가 제시된다(김필두 외, 2008: 15).¹⁾ 이들 각각의 특징을 감안하면, 현재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의 여건상 병행보충 모형과 협동동반 모형의 장점을 각기 활용하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된다(김필두 외, 2008: 2). 즉 우리나라 복지자원은 현실적으로 민간이 제공하는 자원의 양이 결코 적지 않고 이들 민간자원의 제공과 중간자 역할이 크므로 민간 자원과 기관의 역할을 일정하게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관의 역학 관계는 공공 부문에 대해 자율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협동대리 모형보다는 상호간의 쌍방적 관계가 기본이 되는 협동동반 모형에 기반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된다. 그런데 이들 모형을 구

1) 병행보완 모형은 공공과 민간이 각각 재원을 조달하고 급여의 대상은 다른 경우임(김필두 외, 2008: 15~18). 병행보충 모형은 공공과 민간이 각기 재원을 조달하고 급여 대상도 같지만, 서로 상이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임. 협동대리 모형은 공공은 재원조달의 책임을 맡고, 민간은 급여의 책임을 맡음. 협동동반모형은 공공이 재원조달의 책임을 맡고, 민간이 급여를 맡는다는 점에서 앞의 세 번째 모형과 동일하나, 공공과 민간의 관계가 쌍방적이라는 점에서 다름.

사할 시에는 민간의 참여에 대해 인센티브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이에 대한 다양한 방식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김필두 외, 2008: 20).

표 II-1-1 전담체계 관계 모형의 특징 비교

비교항목	모형	병행보완모형	병행보충모형	협동대리모형	협동동반모형
재원조달 책임		공공, 민간			공공
급여제공 책임		공공, 민간			민간
공공과 민간의 급여대상(예시)		다름 (공공: 법정대상 민간: 사각지대)	동일		-
공공과 민간의 급여내용(예시)		같음	다름 (공공: 현금급여 민간: 서비스)		-
공공과 민간의 관계		급여의 대상에 대해 상호보완적	급여의 내용에서 상호보완적	민간은 정부의 대리인	상호 쌍방적 영향

자료: 김필두·권오철·이태수·안혜영·양창모(2008). 시군구 유형별 민관 협력체계 실태 및 발전모형에 관한 연구. 기획예산처한국지 방행정연구원. p. 21.

3) 민관 협력기구의 필요성 및 지역별 유형

가) 민관 협력기구의 필요성 및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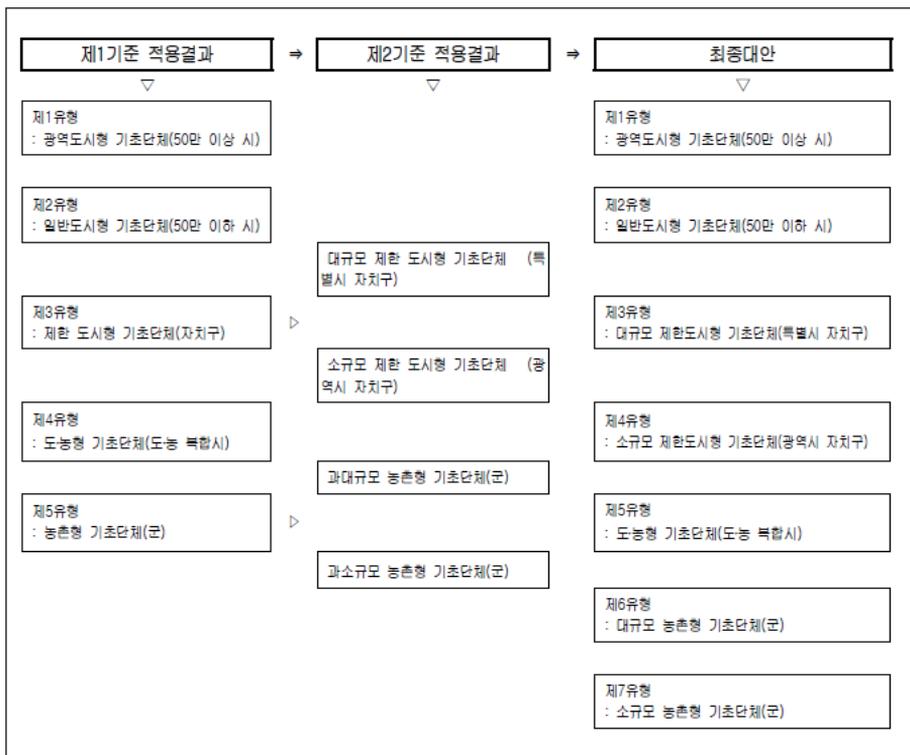
민관 협력기구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앙정부에서 지역사회로 중심축이 이동함에 따라 민관의 협치(governance)가 필요하고, 자원의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된다(김필두 외, 2008: 35-37). 구체적으로 민관 협력기구는 급여의 사각지대와 중복의 스크리닝(screenoing)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민과 관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주민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반영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 한마디로 말해 수요자 중심의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 민관 협력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김필두 외, 2008: 9-10). 이에 따라 민관 협력기구의 운영은 민관 협력체계의 다양한 쟁점들을 제기한다(김필두 외, 2008: 35-37). 첫째,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주민생활 민관 협의체’와 「사회복지사업법」상 의무화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과 기

능의 유사성 및 상이성을 둘러싼 논쟁, 둘째, 지역사회의 자원 분포 정도와 민간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민간협력기구의 모습이 어떻게 차별적/단계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가, 셋째, 민관 협의기구의 구성 시 민관의 주체성 확보와 관의 공적 책무의 충돌 가능성이 그것이다.

나) 지역 유형화와 민관 협력기구 모형간의 관계

시군구 특성의 반영은 현재 시군구의 환경 요건 및 수요가 각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민관 협력 및 이를 위한 민관 협력기구의 모형을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김필두 외, 2008: 101).

그림 II-1-1 지방자치단체 유형화



자료: 김필두·권오철·이태수·안혜영·양창모(2008). 시군구 유형별 민관 협력체계 실태 및 발전모형에 관한 연구. 기획예산처·한국지방행정연구원. p. 105.

사군구의 유형화를 위한 변수는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된다(김필두 외, 2008: 102). 첫째, 민간협력기구에 대한 수요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점이며, 둘째, 민간 협력기구 구성을 위한 동원 가능한 인적 자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수요는 도시화 정도, 즉 도시 기능, 농촌기능, 도농복합 기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동원 가능한 인적 자원의 규모는 인구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김필두 외, 2008: 105).

나아가 사군구 유형에 따라 민관 협력기구 모형을 적용한 바는 다음 그림 II-1-2와 같다.

▮ 그림 II-1-2 ▮ 사군구 유형과 민관 협력기구 모형 연계

유형화 변수	도시수요	주민서비스형 ←————→ 복지우선형		
	인적자원	많음(수, 유형) ←————→ 적음		
자치단체 유형	도시특성	대도시적 특성	중소도시적 특성	농촌적 특성
	유형	제1유형, 제3유형	제2유형, 제4유형, 제5유형	제6유형, 제7유형
민관기구모형	병존형 (민관협력체중심 통합형, 혼합형) 지역사회복지협체중심 통합형			

- 제1유형 : 광역 도시형 기초단체(50만 이상 시)
- 제2유형 : 일반 도시형 기초단체(50만 이하 시)
- 제3유형 : 대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단체(특별시 자치구)
- 제4유형 : 소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단체(광역시 자치구)
- 제5유형 : 도·농형 기초단체(도·농 복합시)
- 제6유형 : 대규모 농촌형 기초단체(군)
- 제7유형 : 소규모 농촌형 기초단체(군)

자료: 김필두·권오철·이태수·안혜영·양창모(2008). 사군구 유형별 민관 협력체계 실태 및 발전모형에 관한 연구. 기획예산처한국지방행정연구원. p. 112.

우선 이들 간의 연계는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민관 협력기구의 수요나 구성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김필두 외, 2008: 110). 우선 수요는 경제적 수준과 도

시화 등에 좌우되는데, 이들 수준이 낮은 경우 일반적 주민서비스 보다는 복지서비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인적 자원은 농촌형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의 수나 유형에 있어 도시형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을 지닌다(김필두 외, 2008: 110). 구체적인 연계 모형으로는 다음이 제시된다(김필두 외, 2008: 110-111).

병존형은 지역 내 인적 자원의 유형이나 수가 풍부한 대도시형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가능하다. 둘째 민간협업체 중심 통합형은 대도시나 농촌지역 보다는 중소도시에서 보다 적실성을 갖는 모형이다(김필두 외, 2008: 11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 통합형은 복지우선적인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고, 지역 내 인적 자원 역시 상대적으로 적은 소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보다 우위를 갖는 모형으로 고려될 수 있다. 혼합형은 통합형이 적용 가능한 지역(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가운데 지역적 특성에 의해 양 기구의 병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 유용한 모형으로서 제시된다.

4) 민관 협력의 방향 및 개선과제

공공과 민간협력체계의 방향 및 과제로는 다음이 제시된다. 우선 바람직한 협력모델에 대한 논의에서 전제되어야 할 바는 협력체계라는 명분 하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 소재를 흐릿하게 만드는 효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다(김영중, 2004: 21).

첫째, 협력관계의 모색은 종속적 대행자 관계에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즉 공공과 민간의 명확한 책임 소재를 전제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된다(김영중, 2004: 22). 동반자적 관계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영중, 2004: 23).

둘째, 서비스 전달체계의 제도적 규범 변화를 들고 있다. 즉 전형적인 관계 제도적 통제시스템을 지양하고, 신뢰 시스템, 즉 공공과 민간간의 상호신뢰에 기반해야 한다(김영중, 2004: 24). 이때 핵심 자원과 책임성의 공유,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자원에 대한 일방(주로 공공)의 지배를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때 공공의 재정자원 배분과정에 민간이 어떤 형태로

든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된다. 단적으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공기관이나 그 보조금을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민간 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셋째, 민간서비스 조직들의 역량 강화이다. 개별 민간서비스 조직들이 공공 부문과의 관계에서 대응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원동원 역량에서 대등해지는 것이 일차적으로 요구된다(김영중, 2004: 25). 그리고 네트워크화된 민간조직 연합_개별 민간서비스 조직들이 안고 있는 파워의 열세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연합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된다(김영중, 2004: 27). 연합전략을 안정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연합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며, 이들 네트워크 조직화를 적절히 활용하여 지역사회서비스 기획에 필수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개발 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고 논의된다(김영중, 2004: 28).

또한 박수지 외(2013)는 사회복지 분야의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공공이 개입하는 파트너십의 형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 단위의 협력체계의 구축, 공공 전달체계 개편에 조응하는 체계의 구축을 제시한다(박수지 외, 2013: 207-208)

첫째, 공공이 개입해야 하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단위의 협력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복지사업의 기획과 집행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주민들의 생활권을 기초로 한 공공과 민간의 전달체계가 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업의 기획부터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민간부문의 네트워크를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부적인 정책과제로서 지역단위 민간협력기구의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자원이 포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박수지 외, 2013: 209-211).

마지막으로 이인희(2012)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관 협력체계의 필요성으로 첫째, 공급 중심의 복지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로 전환함에 따라 효율적인 대응기제가 요구되고, 둘째, 수요자 욕구의 다양화와 복잡화에 따른 공동대응의 수단이 요구되며, 셋째,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서비스 효과성 제고 등을 강조하면서(이인희, 2012: 73), 이에 따른 민관 협력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사회 공동체 운동의 강화로서, 이른바 ‘마을회의 모형(town meeting model)’이 제시된다. 이는 자원복지활동과 같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민의 활동을 관리 지원하고 협력하는 방식이다(이인희, 2012: 74). 이 모형에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역할은 주민포럼이나 타운 미팅이 매일 조직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하며, 민간자원 복지 그룹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둘째, 주민참여 활성화로서, 이때 공동협력적 주민참여는 관과 주민·민간단체가 상호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정부는 서비스 전달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의 권위를 존중한다(이인희, 2012: 74-75).

셋째, 지역사회복지의 정책네트워크 활용으로, 그 핵심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리 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 시도 지방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이 보다 확대되고 적극적이며 활성화되어야 한다(이인희, 2012: 75-76).

넷째, 공공과 민간의 지역사회복지 연계 체계 구축으로, 이는 서비스 이용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각 기관장 위원회, 서비스지원위원회, 소비자 대표 위원회, 그리고 실무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킨다(이인희, 2012: 76). 이들 연계체계의 구체적인 기능은 지역단위 대상자 및 서비스에 대한 조사, 지역사회복지관련 계획의 수립, 지역 내 관련 서비스 기관의 역할 정립 및 조정, 지역의 복지관련 정보 수집 및 수정, 지역사회의 자원 동원 및 배분, 교육 및 홍보 등이다.

다섯째, 민관 협력을 위한 역할 정립으로, 각 부문이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이인희, 2012: 77). 즉 중앙정부는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에 주력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의 조정 및 동원과 민관 자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민간 부문은 각 기관별로 활동 영역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그 밖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민관 협력의 성공 요인은 획일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민관 협력의 목적 비전, 전략 및 과정, 노력 행위자 갈등 성과 관리 등 다양한 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접근할 것인가에 의해 좌우된다(김윤권·김정해·임성근·윤선영·권경환, 2016: 25). 민관 협력을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방향은 구체적으로 다음이 제시된다(김윤권 외, 2016: 109-113).

우선 민관 협업 추진의 준비로는 첫째, 민관 협업의 미션 즉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협업으로 추진하기에 유리한 목적을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설정해야 하며, 기대효과나 시너지에 대한 예측과 이를 통한 win-win 방안도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민관 협업에 참여하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명확한 역할이 정립되어야 한다. 양 부문은 조직의 목적, 과정, 절차, 수단, 결과 등에서 이질적인 차이를 지니므로 각자의 속성에 따른 명확한 역할 분화가 요구된다. 공공 부문의 경우는 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검토하고 예산 동원의 가능성 여부, 투입 인력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셋째, 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관리할 필요가 있다(김윤권 외, 2016: 110).

다음으로 민관 협업의 과정 및 관리 차원에서 요구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김윤권 외, 2016: 110-113).

첫째, 민관 협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설정한 목적을 실현해 가는 과정이므로 협업이 성립된다면 의사결정에서부터 집행과정 그리고 성과관리에 이르기까지 공동의 업무수행 절차를 미리 설계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절차를 위해서는 필요성, 비전, 목적, 관련 제도, 조직유형, 행위자 역할, 자원(조직, 인력, 예산, 법령, 정보·기술, 시간 등), 협업 수준(소통, 조정, 협력, 협업), 장애요인, 문제 해결 방안, 협업갈등 관리, 협업 성과, 성과 평가, 인센티브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협업은 쌍방 혹은 다수 행위자(개인, 팀, 부서, 기관, 부처, 중앙, 지방, 공공기관, 기업 등 민간부문 등)가 참여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참여자들이 각자 갖고 있는 자원을 투입 해야 한다. 공공 부문의 자원과 민간 부문의 전문적이고 특정한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더 큰 시너지를 도출할 수 있다. 각자 우월한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공공조직이나 민간조직 자체가 갖지 못하는 혹은 조달할 수 없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민관 협업의 결과나 성과는 참여자가 투입하는 자원이나 노력에 합당한 성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경쟁적이고 성과 평가 중심여서 협업을 활성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성과 평가에서 협업 관련 지표와 가중치를 높여 반영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인사관리 등)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2 돌봄공동체 접근의 요소와 유형

사회적 돌봄의 측면에서 돌봄공동체는 돌봄 사각지대의 해소는 물론, 국가와 가족의 관계를 연계하고, 나아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지속가능한 돌봄의 기반으로서의 함의를 지니며, 그 유형 및 운영 모형은 운영 원리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하다.

가. 사회적 돌봄과 돌봄공동체의 함의

아동 돌봄에서 지역주민의 공동체 방식의 돌봄에 대한 강조는 우리나라의 돌봄 정책이 주로 가족에서 국가로의 돌봄 사회화에 집중되어, 돌봄의 권리 측면에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돌봄 사각지대를 야기하는 등 한계를 지니므로 이를 극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강조된다(송다영, 2018: 21). 즉 가족-국가정책 사이의 돌봄 연계의 사각지대를 메꾸어 줄 수 있는 제3의 대안으로 자발적인 주민결사체나 공동체가 매우 미흡하여 공동체에 기반한 안전망 또는 연계망이 형성되지 못하였다고 지적된다(송다영, 2018: 20).

또한 새로운 정부의 돌봄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수요자 중심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공동체성이 강조된다(문영희, 2018: :31). 즉 일·가정 양립 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돌봄을 넘어서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돌봄은 ‘주민참여·가족친화공동체 문화’로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민관 협력형 돌봄공동체가 제시된다(문영희, 2018: 33). 이때 민은 돌봄 공간 기부, 주민운영위원회를 통한 돌봄기관의 직접 운영, 주민대상 인력 채용, 시설비 및 운영비 보조, 운영 매뉴얼 안내 등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고 주장된다.

이와 유사하게 돌봄 욕구에 대해 현재와 같이 표준화된 제도적 서비스의 공급 확대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공동체적 접근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언급된다(김은정, 2015: 154) 기존의 사회정책은 대상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공급(provision)할 것인가 하는 공급체계의 구축에만 초점을 두었으나(김은정, 2015: 158), 현장의 욕구는 매우 복합적이므로 이들 욕구의 통합과 융통의 장으로서 지역공동체는 사회적 돌봄에서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된다(김은정, 2015: 158). 지역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이

를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환경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사회적 돌봄의 기반으로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다(김은정, 2015: 158).

마을공동체에서 공동육아를 모티브로 하는 상호부조적인 연대의 삶에 대한 경험은 가정내 여성에게만 보살핌을 전가하는 성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여 육아 및 보살핌의 문제를 지역사회 및 국가라는 시민적 삶과 연계시킬 수 있는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언급된다(정영모, 2018: 40). 이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는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 단순히 육아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된다(정영모, 2018: 44).

나. 돌봄공동체의 특성과 운영모형

1) 돌봄공동체의 특성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의 관점에서 돌봄공동체 접근은 관료주의적 접근과는 명확히 대비된다(김은정, 2015: 160). 즉 관료제적 방식에서는 돌봄수혜자가 소비자(대상자)로 규정되고 서비스 공급의 전문성과 정확성이 중시되는 반면, 공동체적 접근에서는 돌봄수혜자가 생산과 소비의 주체(당사자)로 규정되고 이들의 참여가 가장 핵심적 가치가 된다(김은정, 2015: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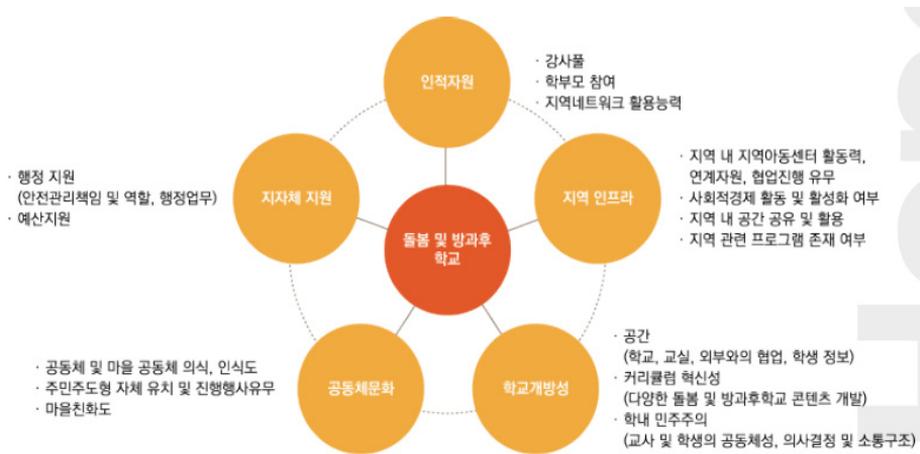
▣ 표 II-2-1 ▣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과 관료제적 접근

구 분	← 공동체적 방식 관료제적 방식 →
돌봄생산	- 수평적 거버넌스 형성 - 수직적 전달구조 확보
(공급) 구조	- 통합적이고 융통적인 돌봄생산 강조 - 자발적 돌봄공동체 기반(community-based) - 선규격화, 표준화된 서비스전달강조 - 공식적 돌봄서비스 공급기관 기반(social agency-based)
돌봄주체 간 관계성	- 돌봄생산/소비주체 간 공동생산 강조 - 돌봄관계자간 상호수평관계성 전제 - 돌봄공급/대상자의 역할분리 강조 - 돌봄공급/대상자 간 수직관계성 전제
돌봄수혜자 성격	돌봄당사자 돌봄대상자
돌봄생산성 결정 가치	돌봄당사자의 참여성 돌봄공급자의 전문성, 합리성, 정확성

자료: 김은정(2015).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에서 공동체적 접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p. 160.

한편 마을교육공동체의 발생 초기부터 과정을 분석하여 돌봄 및 방과후 돌봄의 마을돌봄공동체 모델의 구성 요소를 제시한 바는 이하 그림과 같다(강현주, 2017: 12).

|| 그림 II-2-1 || 돌봄 및 방과후 학교 마을협력 모델 구성요소



자료: 강현주(2017). 돌봄 및 방과후 학교 마을협력 연계 방안. p. 12.

2) 돌봄공동체의 유형 및 운영모형

가) 돌봄공동체 유형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동체적인 접근 방식의 핵심은 지역성과 참여성으로 제시되며,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다음이 제시된다(김은정, 2015: 161).

우선 돌봄 활동의 장으로서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는 특정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은정, 2015: 162). 이때 특히 지역사회내 기관들은 돌봄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기 보다는 돌봄당사자들의 주체적 돌봄 생산 중간지원자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며, 해당 사업이 안정적으로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특히 초기 단계에 지원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된다(손문금, 2012: 60). 지원기관은 주민운동을 촉발하고, 체계화하는 단계에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단계별로 적절한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과 자원 연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회적 돌봄에 대한 접근에서 공동체로서 지역을 고려하는 또 다른 관점은 “돌봄 역량 보유의 주체”로서 지역공동체를 규정하는 것이다. 통합적인 사회적 돌봄 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기반 강화가 핵심이므로 마을만들기, 구성원 네트워크 형성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표 II-2-2 사회적 돌봄에서 지역성이 고려되는 유형

유형		내용	정책설계 방식	주요 특성
공동체 기반으로 지역성 고려	돌봄 생산 기반	당사자 돌봄생산 지원서비스	- 주도: 정부/민간 - 강조: 중간지원 - 대상: 자발조직	- 행재정적 중간지원 강조 - 구성원 돌봄조직화 촉발 서비스 등 - 예) 지역 돌봄공동체 형성 지원
	돌봄 역량 기반	지역공동체 돌봄역량 강화서비스	- 주도: 정부/민간 - 강조: 환경기반 - 대상: 지역(공동체)	- 지역간 지역돌봄 역량 격차 해소 - 공동체 네트워킹 강화, 환경개선 등 - 예) 마을 만들기, 장 만들기

자료: 김은정(2015).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에서 공동체적 접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p. 165.

다음으로 참여성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에서는 돌봄 당사자의 참여성이 강조된다(김은정, 2015: 163). 참여 유형은 참여의 자발성 수준, 제도적 서비스와의 관련성, 그리고 이용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1) 제도 내부 비자발적 참여, 2) 제도 내부 중간자발 참여, 3) 제도 외부 완전자발 참여로 구분된다(김은정, 2015: 167-170).

표 II-2-3 사회적 돌봄에서 돌봄이용자의 참여성 유형

참여성 유형	주요 내용	대표적 사례	자발성 수준	이용자 성격
제도 내부 비자발 참여	공식적 절차로 서비스 공동생산	- 돌봄서비스 계획서 작성 -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낮음	대상자
제도 내부 중간자발 참여	제도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감시적 참여	- 품질감시자 역할 - 옹호자로 의사 개진 등	중간	대상자 /당사자
	제도프로그램 내 돌봄당사자 참여	- 지역복지기관 품앗이, 두레 프로그램 참여 등		
제도 외부 완전자발 참여	제도적 장 활용 돌봄당사자 참여	- 돌봄나눔터 참여 - 마을사랑방 참여 등	높음	당사자
		돌봄생산/소비 전과정 자발성 기반		

자료: 김은정(2015).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에서 공동체적 접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p. 168.

나) 방과후 돌봄공동체 운영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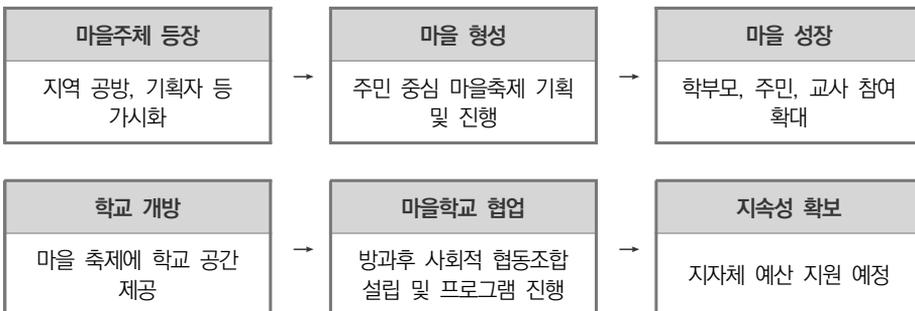
마을 중심의 방과후 돌봄공동체 운영 모형으로는 다음이 제시된 바 있다. 우선 강현주(2017)는 앞서 논의된 돌봄공동체의 핵심 요소인 지역성과 참여성에 따라 3가지 마을협력 모델 즉 1) 사회적 경제조직 및 비영리기관 중심 모델(기관 중심 모델), 2) 마을중심 모델, 3) 학교중심 모델을 제안하였다.

첫째, 기관중심 모델은 지역 내 교육공동체, 교육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센터 등이 주도하여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여 돌봄 및 방과후 학교 활동을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원 하에 진행하는 경우를 말한다(강현주, 2017: 13).

둘째, 마을중심 모델은 지역주민 혹은 학부모, 학교 교사 등이 주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공동체 활동과 공동체 문화 구축 및 마을관련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여 실행하는 등 지역사회내 마을주민들의 활동이 극대화된 방식이다.

셋째, 학교중심 모델은 학교의 유휴공간을 지역사회 공유공간으로 개방함으로써 돌봄 및 방과후 학교와 마을의 연계를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모델이다(강현주, 2017: 16).

■ 그림 II-2-2 ■ 마을중심 모델: 양천구 마을교육공동체 실행 프로세스



자료: 강현주(2017). 돌봄 및 방과후 학교 마을협력 연계 방안. p.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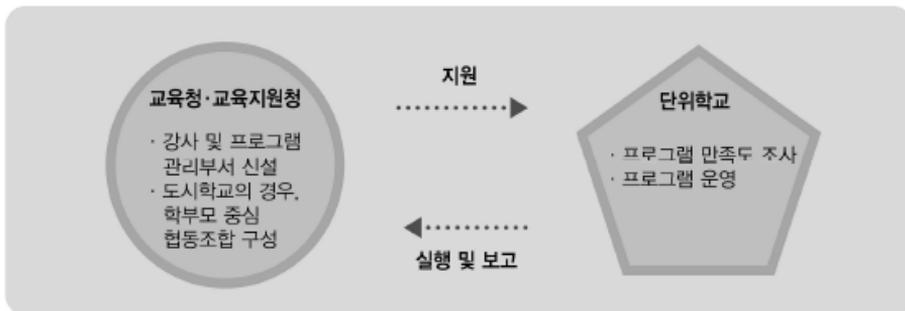
다음으로 임선일 외(2017)는 초등돌봄 및 방과후 학교에 대한 명확한 법·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임선일·전호성·이선영, 2017: 5),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의 운영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단위학교 모델이다. 농촌학교는 도시지역이나 도농 복합지역에 비해 현

직교사를 제외하면 이외 인적 자원을 조달하기 어려우므로 마을 단위의 사업 추진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 반면에 도시지역은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학부모 중심의 협동조합 구성을 추동하고 학교와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임선일 외, 2017: 53).

둘째, 교육지원청-단위학교 협업 모델이다. 교육지원청-단위학교 협업 모델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적 자원과 재원을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지역교육지원청은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단위학교가 필요한 강사 초빙 시스템, 강사비 등 제반 경비를 담당하며, 단위학교는 프로그램의 실행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임선일 외, 2017: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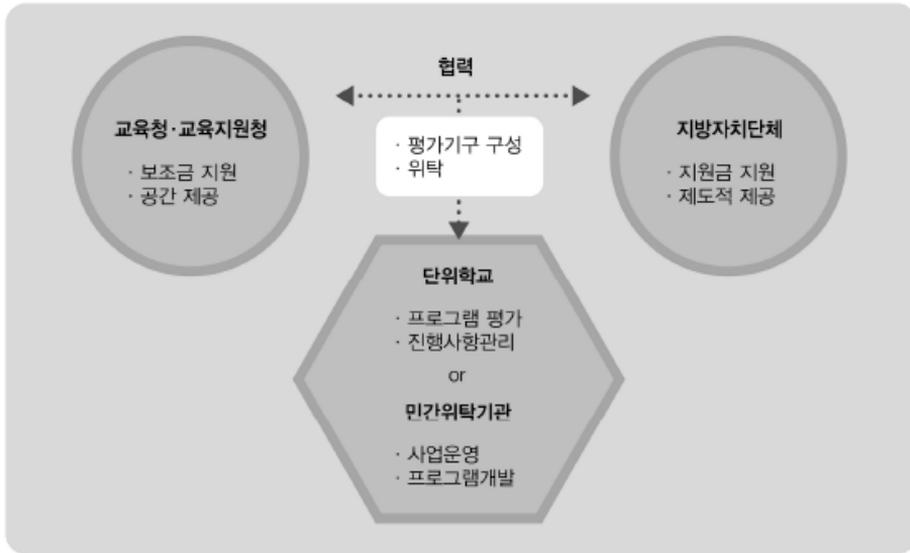
■ 그림 II-2-3 ■ 교육청_단위학교 협업 모델



자료: 임선일·전호성·이선영(2017).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모델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p. 45.

셋째,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업 모델이다. 이 모델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의 업무협약 계약을 통해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고 공간은 교육청 산하의 학교가 제공하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공도서관이나 주민센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강사 모집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교육청은 학교나 유관기관을 개방하며, 돌봄교실에 관한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방과후 학교는 교육청이 전담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도 가능한데, 이때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평가기구를 구성하여 민간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임선일 외, 2017: 56).

|| 그림 II-2-4 || 지방자치단체_교육청 협업 모델



자료: 임선일·전호성·이선영(2017)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모델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p. 57.

넷째, 교육지원청-민간위탁 모델(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이다. 이 모델은 교육지원청이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며, 위탁기관이 모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때 프로그램의 질과 강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몇 개의 학교가 연합하여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각 학교의 방과후 학교 담당교사와 학부모, 교육지원청 담당자,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담당할 수 있다(임선일 외, 2017: 58).

마지막으로, 교육청(지원청)-지방자치단체-민간협업 모델(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이 있다. 이 모델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교육 부문(방과후학교)과 돌봄 부문(지역아동센터)을 통합하여, 이를 민간(지역사회)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과 민간의 인력이 협업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반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양 기관의 업무협조를 위한 협력기구 구성과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 각 단위학교의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의 프로그램 질과 강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임선일 외, 2017: 60).

3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및 지원 현황

중앙정부는 국가 중심의 돌봄지원을 강화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지원 및 체계 구축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 협의기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가.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관련 정책 현황

1) 지역기반의 돌봄공동체 및 돌봄 인프라 확충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의 조성을 강조하고, 자녀돌봄 부문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을 점차 강조해왔다. 2016년에 수립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에는 돌봄지원의 방향으로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가 제시된다. 즉 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더불어 가족, 지역사회의 돌봄 책임의 분담과 연계, 그리고 다양한 돌봄 수요에 따른 지원방식의 다양화가 제시된다(관계부처 합동, 2016: 10). 특히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돌봄공동체 및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여 이웃 간 돌봄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추구한다.

동 계획에서는 기존의 보육·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긴급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돌봄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관계부처 합동, 2016: 43) 이웃 간 품앗이를 통해 자녀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방과후 돌봄 및 연계 강화 방안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과 더불어 지역 돌봄서비스 기관의 학교 내 운영 등 지역 돌봄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활성화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 47). 또한 돌봄 부담의 해소를 위해 자녀돌봄의 지역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된다(관계부처 합동, 2016: 49). 즉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소유시설 중 유휴공간을 활용

하며, 아파트 건설 시에 주민공동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 노후된 공동육아나눔터의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시에는 운영비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 내 자발적인 육아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며, 관련 정보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공동육아(육아포맷이)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 49).

올해는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를 뒷받침하고, 증가하는 맞벌이 가정의 방과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를 3년간 150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마련하였다(여성가족부, 2018b: 3). 즉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민간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연간 30억 썩의 3년간 90억원을 들여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b: 2).

그 밖에도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시에 자녀돌봄지원사업 이 포함된 사업 계획에 가점을 부여하고,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뉴딜사업 선정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육아나눔터 또는 다함께돌봄을 신청할 경우 우선 선정 하고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관계부처 합동, 2018C: 1). 해당 사업간의 연계 사항으로는 다음이 제시된다.

표 II-3-1 부처간 사업연계 시 지원사항

구분	기존 지원사항	사업연계 시 주요 지원사항
도시재생 뉴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관계부처사업 연계한 지방자치단체에 가점 부여 (1~3점) • 연계한 부처사업의 미지원 항목에 대한 사업비 지원 • 참여주체 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 교육프로그램으로 선정시 운영비 지원 •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재생사업 구성 시 단 위사업모델로 제시하고, 적극 추진 권장	도시재생사업지 내 유휴공간을 확보하여 돌봄공간 마련 • 돌봄사업 지방자치단체 참여 독려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반영 - 돌봄사업설명회 개최 등
공동육아 나눔터 (여가부)	• 전담인력 배치, 포맷이 모임 운영,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연 4천만원)	• 도시재생사업지 우선선정 • 공간조성(장난감 등 기자재 구입 포함) 시 비용 추가 지원(5천만원)
다함께 돌봄 (복지부)	• 관리자 및 돌봄교사 배치, 공간 리모델링, 냉난방기기·CCTV설치, 집기류 구비 등 (최대 1억원)	• 도시재생사업지 우선선정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c. 보도자료(2018. 5. 28): 아이돌봄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부처간 힘 모은다. p. 2.

2) 범정부 연계·협력을 통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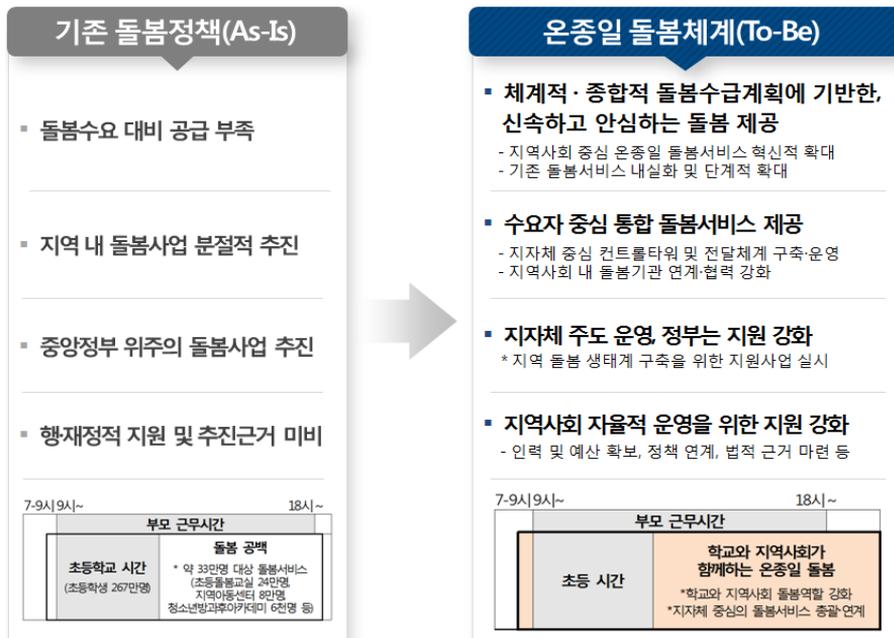
지난해 9월에는 방과후 아동 및 청소년이 나홀로 방치되는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 국정과제로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이 제시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7a). 방과후 돌봄 관련하여 2012년에는 중앙부처 ‘중앙돌봄정책협의회’가 구성·운영되었으며, 2013년에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 시범 운영과 전국 교육지원청(시·군·구) 단위의 지역돌봄협의체가 구축되어 운영되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범정부 공동추진단이 설치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영유아에 비해 초등돌봄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고 지적하고, 각 부처간 연계 미흡과 초등돌봄교실 확대의 한계점이 지적된다(관계부처 합동, 2017a: 3). 기존의 지역돌봄협의체는 교육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관간 정보공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범정부 공동수요조사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및 협력이 미흡하여 돌봄 대상자의 선정과 돌봄기관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된다. 게다가 초등학교는 행·재정적 부담으로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된다(관계부처 합동, 2017a: 3). 특히 신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공간 부족, 예산 부족 등으로 돌봄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온종일 돌봄체계의 구축과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연계 및 협력이 강조된다(관계부처 합동, 2017a: 3). 이에 덧붙여 이 계획에는 지역사회 기반의 방과후 교육·돌봄서비스 모델 발굴 및 확산, 방과후 학교·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7a: 4).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의 세부 추진 전략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방과후 온종일 돌봄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교육공동체(평생학습관, 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등)를 활용하며 지역 또는 학급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돌봄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며, 부처간, 교육청-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돌봄 수요조사 체계를 구축한다고 제시된다(관계부처 합동, 2017a: 5).

한편 국정과제 “온종일 돌봄”은 정규교육과정 이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

계 연계,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서비스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해 운영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개념으로 제시된다(관계부처 합동, 2017b: 1). 이는 그간의 돌봄사업이 중앙-지방-돌봄기관 간에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도 미흡하여 수요자(아동) 중심의 돌봄서비스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되 수요자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및 지역사회 차원의 방안으로 제기되었다.

■ 그림 II-3-1 ■ 온종일 돌봄체계의 특징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7b), 보도자료(2018. 12. 28): 학교 안팎의 촘촘한 돌봄을 위해 범부처가 나섰다. p. 4.

온종일 돌봄체계는 종전의 방과후 돌봄과 비교하여 다음의 특징을 지닌다. 운영주체는 학교-교육청, 마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학교,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며, 인프라는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학교 및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 활용하며, 지방자치단체 중심 돌봄 컨트롤타워 및 전달체계를 통해 돌봄 공급 및 기관별 역할을 조정한다(관계부처 합동, 2017b: 2-3).

한편 2018년 4월에 발표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계획’에서는 학교, 학

교돌봄과 마을돌봄의 두 축으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제시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1). 민관 협력이 강조되는 마을돌봄의 확대는 다함께돌봄을 통해 9만 명,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1만 명을 추가적으로 돌봄 계획을 마련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3).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마을돌봄은 3,560억 원을 들여 1,817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4).

또한 올해 5월에는 총 80억 원을 들여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모델의 발굴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수요자(아동)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10개 지역의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공모를 추진한 바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b: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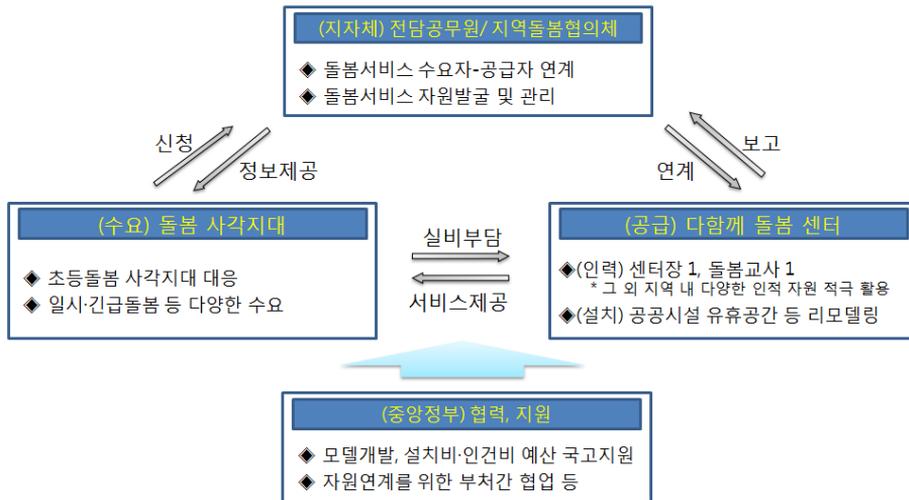
2018년 4월에 발표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이 강조된다(관계부처 합동, 2018a: 10).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내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지역 내 돌봄서비스 총괄·조정 등 핵심 역할 수행하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 돌봄공급 배정·조정 및 정보 공유 등을 담당하는 읍·면·동 단위 또는 생활권역 중심의 마을돌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제시된다. 또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초돌봄협의회 운영 계획에 따라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에 적극 참여하고 정보교류 및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은 광역 돌봄협의회의 경우 시·도교육청, 시·도, 기초돌봄협의회 대표단 등 10명 내외, 기초 돌봄협의회의 경우 교육지원청, 시·군·구, 돌봄제공기관, 관련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서 구성하며, 마을돌봄협의회의 경우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제공기관이 그 예로 제시된다(관계부처 합동, 2018a: 10).

3) 다함께돌봄사업

보건복지부가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추진 중인 다함께돌봄사업은 지역 내 유휴공간 및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중심)에게 돌봄서비스 제공한다(관계부처 합동, 2018c: 8).

그림 II-3-2 다함께돌봄사업 추진체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c). 보도자료(2018. 5. 28): 아이돌봄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부처가 힘 모은다. p. 8.

서비스 내용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중심)에게 지역여건,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제공한다. 이를테면 시간제 돌봄,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돌봄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제공을 실시한다.

운영시간은 아동별로 개인일정 등에 따라 자유로운 출입, 탄력적 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단 이때 아동별 등·하원(출입) 시간 기록·관리 및 부모알림(문자) 서비스 병행되어야 한다.

서비스 공간은 지역 내 접근성 높고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 등 리모델링하며, 운영 방식은 지자체 직영, 공동운영, 위탁운영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이를테면 지역복지재단 등 지자체 소속법인, 향후 설립되는 사회서비스원 등이다.

인력은 센터장 및 돌봄교사(각 1명, 돌봄자원 연계 업무) 인건비 지원, 그 외에도 지역 내 다양한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운영한다.

다음으로 지자체의 역할로는 다음이 제시된다(관계부처 합동, 2018b: 7).

첫째, 돌봄서비스 총괄·연계로서 지역 돌봄 수요와 지역자원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초등 저학년은 필수), 서비스 내용(일시·긴급 돌봄, 등·하원 지원, 간식 제공

등), 사업추진 방식(직영, 위탁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둘째, 사업 추진은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민·관참여협의체(지역돌봄협의체 등)를 활용하여 사업 방향 설정하고 자원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지자체 돌봄 수요자 규모·특성 및 돌봄 인프라 파악·관리, 사각지대 진단 및 다함께돌봄 제공 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돌봄 공급을 위한 공간 확보 과정에서 관계자(주민자치회 등)와의 협의·조정 등을 추진한다.

넷째, 사업관리 및 지원으로, 욕구조사·자원연계·정보제공·안전관리·홍보·교육·관련예산 집행 등 사업관리 및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지정·리모델링(안전중점) 지원,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 자원봉사·재능기부 등 지역자원 연계 지원, 돌봄인력의 질 관리 등이 제시된다.

나. 사회보장의 민관 협력 관련 규정 및 협의체 운영

사회보장 급여의 주요 공급주체인 국가, 시장, 비영리민간, 비공식부문은 각자의 장점을 보유함과 동시에 한계를 지니므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관 협력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과거 중앙부처의 기획을 집행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계획 수립·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과 자원 발굴연계 기능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보건복지부, 2017a: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의 제정으로 중앙부처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가 정비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보건복지부, 2017a: 3).

1) 법적 기반 및 관련 규정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서 양자 간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며(동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6조). 특히 2012년 이후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의 역할은 보다 강조된다(동법 제19조).²⁾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 부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여건 조성의 의무, 정책 시행에 있어 민간부문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면서 해당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27조3)). 이러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며(동법 제28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동법 제29조 제 3항).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체는 국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으로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4조 제4항). 또한 동법에서는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사업 중요 사업을 심의하거나 건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다(동법 제7조의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의 사안에 집중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역할과 유사한 것을 수행하는 기구로 기능한다.

그 밖에도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돌봄서비스 부문의 지역사회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지역사회의 역할

2) 사회복지장기본법 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②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 ③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복지장기본법 제27조(민간의 참여)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2. 사회복지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을 강조하여(동법 제15조 및 제17조) 동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관계 공공기관, 사회단체, 민간기업체 장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여 3자간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동법 제18조).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의 민관 협력의 중심점으로서 사회보장 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호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으로 민관 협력의 공간범위가 마을 또는 생활권역으로 축소되고 복지사각지대 및 자원발굴연계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지역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자본 증대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17a: 5-6).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실무분과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기반을 제공하므로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는 실무분과를 반드시 구성한다. 구성은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게 대상별, 지역별, 기능별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실무분과 구성·운영의 목적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실무분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간사(또는 총무)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분과장의 역할은 분과 회의, 분과 공동사업 등 분과 운영을 총괄하며, 총무(간사)는 분과 회의록 작성, 분과소속 위원의 연계 강화를 위해 분과장과 협력하여 분과를 운영한다(보건복지부, 2017a: 35).

위원 구성의 경우 공공부문 실무위원(임명직)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민간부문 분과위원(위촉직)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시설·단체 중

에서 지역의 복지욕구를 대변하는 종사자와 현장에서 주민과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 또는 연계하는 실무자(팀장급 또는 담당자)로 구성한다. 실무분과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상별 분과 즉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대응하여 구성한다(다문화가족 분과, 여성가족 분과, 노인 분과 등).

그러나 농어촌 등 사회보장 분야의 인적·물적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대상별 분과 운영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지역별 분과 즉 읍·면·동 또는 소생활권 단위의 분과 구성이 가능하다. 산악권 도시, 도서지역을 포함한 지역 등 대상별, 기능별 분과의 구성이 어려울 경우, 소생활권 형태의 지역단위로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II-3-2 | 실무분과 구성 예시

대상별	기능별	지역별
영유아 아동·청소년 여성 청년 노인(어르신) 장애인	고용·주거(자활고용/주거환경) 마을분과 문화·체육(문화환경/ 교육문화) (통합)사례관리 자원관리개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00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00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00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00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료: 보건복지부(2017a).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p. 38.

그 밖에도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욕구와 기능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분과 구성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서비스 분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사회보장 분야 확대 영역을 반영하여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체육 등을 구성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7a: 3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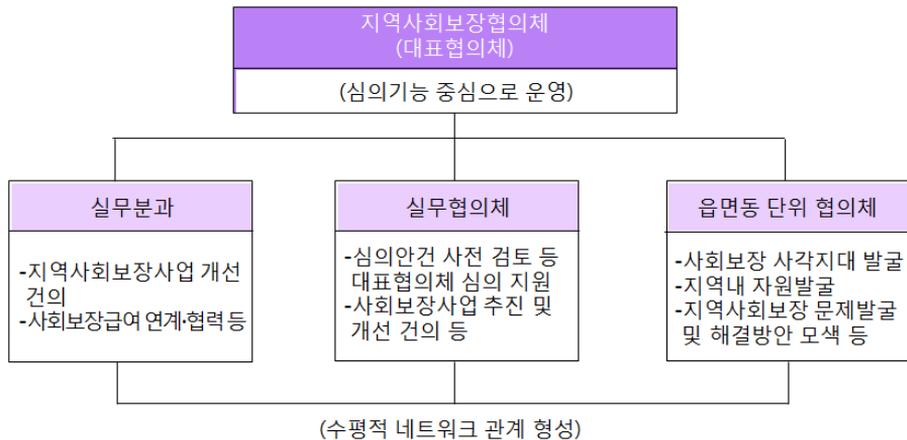
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근거하여 구성된다. 동 기구는 읍면동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민관 협의체가 보다 촘촘한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보건복지부, 2017a: 39).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 포함)-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또는 실무분과)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거나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들로 구성된 실무분과의 대표를 대표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하여 시·군·구-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한다. 시·군·구 단위에서 운영되는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포함)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읍면동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및 초기 정착을 위해 교육·훈련, 모니터링,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7a: 42).

■ 그림 II-3-3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분과 포함), 읍면동 협의체 간 예시



자료: 보건복지부(2017a).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p. 42.

III

아동 돌봄 분야의 서비스 공급 및 연계 현황

1. 돌봄서비스 유형별 사업내용 및 연계
2. 유관 기관의 사업내용 및 연계
3. 돌봄서비스 및 유관 기관의 공급 현황 및 지역유형화
4. 소결



Ⅲ. 아동 돌봄 분야의 서비스 공급 및 연계 현황

이 장에서는 지역사회내 아동 돌봄 분야의 서비스 및 유관 기관의 서비스 내용과 연계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민관 협력 사항을 검토하고, 전국지역의 이들 서비스 인프라의 공급 수준을 분석하여 유형화함으로써 민관 협력체계 구축 시의 지역성을 규명하였다.

1 돌봄서비스 유형별 사업내용 및 연계

영유아 대상 틈새보육 및 돌봄 공백에 주목한 시간제보육과 시간연장형보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초등 방과후 돌봄의 경우는 서비스 연계 및 네트워크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 밖에도 돌봄 관련 서비스의 연계체계를 도출하기 위해 각 서비스 기관의 전달체계를 파악하였다.

가. 시간제보육

1) 사업 배경 및 목적

시간제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에 근거하여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근로자, 병원 이용, 외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보건복지부, 2018d: 3).

시간제보육의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임의적인 운영 요일 및 시

간 변경은 불가하다(보건복지부, 2018d: 12).

시간제보육 사업은 제공기관과 관리기관으로 구분되는데, 제공기관은 시·군·구로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며, 관리기관은 사업에 참여하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이다(보건복지부, 2018d: 3).

2) 지원대상 및 내용

시간제보육의 지원대상은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의 영아이다. 단, 유아반(36개월 이상~만5세)의 경우는 일부 기관에서 시범운영 중이다(보건복지부, 2018d: 3).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4천원)으로 이용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8d: 111). 시간제보육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양육수당 자격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시간은 월 80시간 이내이다(보건복지부, 2018d: 12). 보육료는 정부에서 시간당 3천원이 지원되며 부모는 시간당 1천원을 부담한다.

표 III-1-1 시간제보육 이용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세부 내용
이용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유아반(36개월 이상~만5세)의 경우, 일부기관에서 시범운영 중
지원시간		월 80시간
보육료	정부지원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1천원

주: 1)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

2)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 지원(16일 이후 변경 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2018d). 2018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p. 12.

나. 시간연장형 보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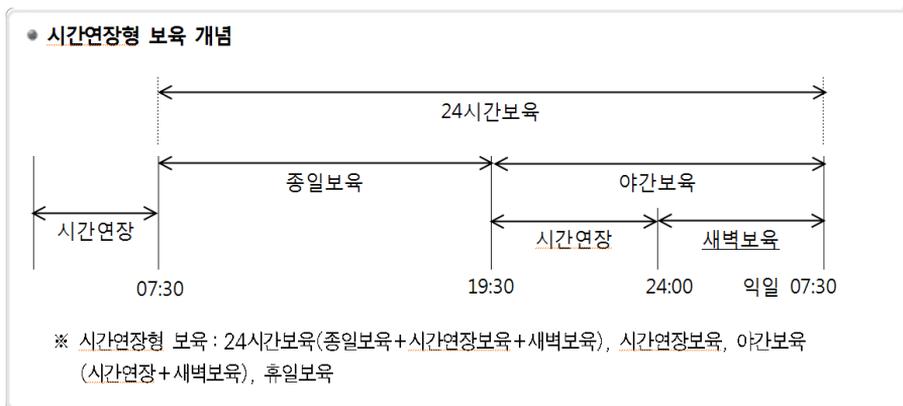
1) 사업 배경 및 목적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8a: 73). 즉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12시간(07:30~19:30),

토요일에는 8시간(07:30~15:30)을 운영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이처럼 연중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휴가 사용 등을 이유로 임시휴원(일명 ‘방학’)은 불가하다. 따라서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 구성,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 수요조사를 거쳐야 하고,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당번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8a: 74).

시간연장형 보육은 기존 보육시간을 경과하여 최대 24시간 까지 연장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24시간보육(종일보육+시간연장보육+새벽보육),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시간연장+새벽보육), 휴일보육을 칭한다(보건복지부, 2018a: 373).

■ 그림 III-1-1 ■ 시간연장형 보육의 개념



자료: 보건복지부(2018a).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p. 373.

2) 지원대상 및 내용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기존 보육시간을 경과하여 최대 24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3시 30분부터 24시까지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로서, 국공립 및 정부지원 비영리법인시설은 부모의 취업 등으로 1명 이상의 보육시간 연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간연장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18a: 373).

지원 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지원단가는 표 III-1-2와 같다.

표 III-1-2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단가

(단위: 원)

구 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3,000	180,000	기준액×100%
장애아동	4,000	240,000	기준액×100%

자료: 보건복지부(2018a).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p. 341.

24시간보육은 오전 7시반부터 익일 오전 7시반까지 제공되며, 야간보육은 오후 7시반부터 익일에 제공된다(보건복지부, 2018a: 342).

휴일어린이집은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로서, 휴일 어린이집은 원래 시설 정원과는 별개로 휴일보육 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8a: 381).

다. 초등돌봄교실

1) 사업 배경 및 목적

초등돌봄교실(이하 돌봄교실)은 별도 시설(전용 또는 겸용교실 등)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활동을 말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3).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은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3~6학년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학생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2개 이상 참여하면서,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돌봄활동을 말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3).

2) 지원대상 및 내용

초등돌봄교실은 2013년까지는 주된 돌봄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인 초등 1~2학년 학생이었다(장명림·김성희·김옥자·채명숙, 2015: 19). 취약계층이나 지역 학생들을 무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맞벌이 가정, 저소득 가정, 한부모 가정의 저학년 학생들이 주로 참여해 왔다(장명림·김성희·김옥자·채명숙, 2015: 19). 그러나 2014년부터는 가정 여건에 관계없이 초등돌봄을 희망할 경우 모두 오후 돌봄에 참여토록 하고 2015년부터는 1~4학년으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2016년

부터는 초등 1~6학년 모든 학년으로 그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기에 이르렀다(장명립 외, 2015: 19).

이에 따라 초등 1~2학년 중심의 돌봄교실에는 외부강사와 교원이 학년 특성에 맞는 놀이와 안전 등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매일 1개 이상 무상으로 지원하며, 초등 3학년 이상의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서는 자원봉사, 교육기부 등의 다양한 인력에 의해 학생 출결 관리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독서와 운동 등의 틈새 프로그램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교육부, 2017: 2).

방학 중 돌봄 운영은 학기 중 오후 또는 저녁까지 운영되는 돌봄교실이 방학 등 휴업일에도 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오전부터 적극적인 운영이 권장된다.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은 학부모의 수요와 학교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59). 방학 중 돌봄 프로그램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유관기관 등의 무료프로그램, 교육기부 및 지역사회, 대학생 봉사캠프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등이다.

3) 운영관리 사항: 담당 및 참여인력

초등돌봄 전용교실 및 겸용교실에는 한 교실 당 한 명의 돌봄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학생 생활지도, 급·간식 제공, 개인활동 관리, 안전 귀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장명립 외, 2015: 20). 초등돌봄교실에는 돌봄전담사, 학교교사,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인력이 활동하며, 돌봄전담사에는 보육교사, 초중등교사, 유치원 교사 등 자격증을 갖춘 자를 채용해야 하나,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는 학교장 재량에 따른 채용이 가능하다(장명립 외, 2015: 23). 다양한 보조인력의 활용을 위해 대학 봉사활동 과목과 돌봄교실의 연계, 대학생 멘토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규정된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96). 또한 교육기부 등을 통해서 도시 외각지역 등 보조인력이 필요한 학교에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이 참여하는 지역 내 협의회 구성원(기관·단체)의 지원 요청 및 지역 내 각종 사회·봉사단체의 참여를 유도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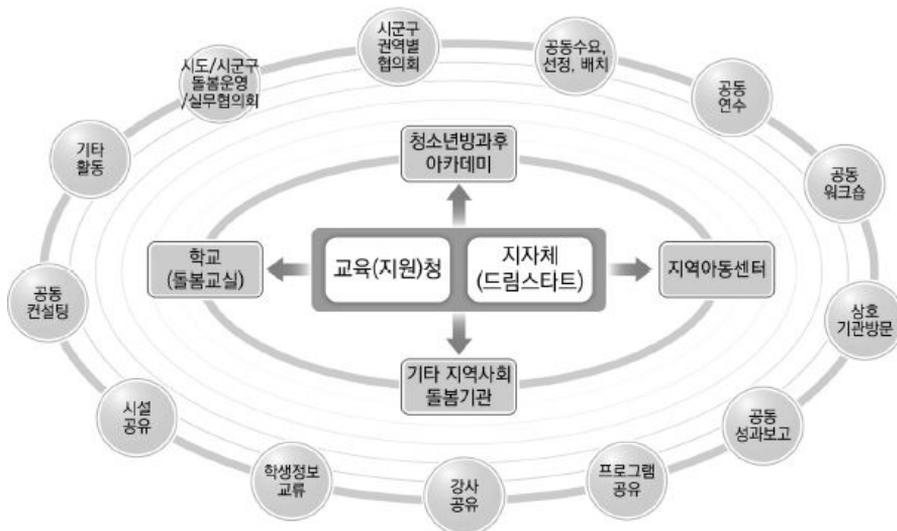
4)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가) 부처간 협력 및 돌봄네트워크 구축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돌봄기관과 협력 및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101). 지역사회에는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지원) 등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서비스 연계의 기본 방향은 학교 및 지역 돌봄기관의 다양한 연계 및 협력을 통해 학부모·학생에게 지역 돌봄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101).

다음으로 지역돌봄협의체를 통한 협의 및 돌봄기관의 자발적 참여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102). 지역 돌봄기관의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돌봄협의체를 통해 연계 방안을 협의하고, 학교 및 지역돌봄 기관은 권역별 협의회를 활용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상호 간 돌봄서비스 연계를 추진하며 돌봄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한다.

❑ 그림 III-1-2 ❑ 초등방과후 돌봄 지역돌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모형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p. 102.

한편 지역돌봄협의체 운영체제는 이하 표 III-1-3와 같이 제시된다. 구체적으로 돌봄지원협의회는 시·도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 및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하고 돌봄운영협의회·권역별협의회의 지원을 강화하는 체계이다. 돌봄운영협의회는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및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하고, 미배정 학생 돌봄 지원 방안 등 지역돌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권역별 협의회는 지역에 대한 돌봄기관을 적정 권역으로 묶어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 협력망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103).

이를 위해 연계기관 간의 이동 시는 안전, 연계된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 내 안전, 귀가 시 안전 등 학생 안전 확보를 전제하며, 돌봄기관 간 업무협약 및 계약 추진 시 보험 등 학생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항을 명료화하고, 상시 소통 채널 확보를 통해 학생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105).

▣ 표 III-1-3 ▣ 지역돌봄협의체 운영체계

행정단위	주관	주요기능·업무	관련 부처·기관
시·도 돌봄지원협의회	시·도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내 돌봄협의회 컨설팅 등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돌봄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운영 • 돌봄전담사 대체인력풀 구성 협조 	광역자치단체 유관단체
시·군·구 돌봄운영협의회	교육 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돌봄운영계획 수립·운영 • 돌봄기관 안내자료 제작 • 돌봄 관계자 대상 지역 단위별 공동교육 • 학부모 대상 돌봄서비스 홍보 • 돌봄기관 간 우수사례 발굴 • 돌봄전담사 대체인력풀 구성 협조 	기초자치단체 (드림스타트) 유관단체
단위돌봄기관 권역별 협의회	단위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기관 공동설명회 개최 • 돌봄기관 간 정보 공유 • 돌봄기관 상호 방문 • 저녁돌봄 연계 및 프로그램 공유 • 돌봄전담사 대체인력풀 구성 협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드림스타트)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p. 103.

나) 돌봄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 운영

돌봄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초등돌봄교실’ 간, ‘초등돌봄교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간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단,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게 다양한 연

계 운영 모델을 적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105).

‘지역아동센터-초등돌봄교실’ 연계는 첫째, 프로그램 및 시설·장소의 연계가 가능하다. 돌봄기관별로 강점을 지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각 돌봄기관의 시설·장소 및 프로그램 강사를 공동으로 활용한다. 둘째,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을 지역아동센터에 위탁할 수도 있다. 학교가 지역아동센터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하고 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하거나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활용하여 돌봄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겸 시설장⁴⁾은 상근의무(「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초등돌봄교실 위탁 운영을 위한 별도 종사자(관리책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105). 셋째, 시간대별 연계가 가능하다. 학교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돌봄교실 이용 후 지역아동센터를 시간대별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운영 방식은 시간대를 달리하여 다른 기관을 이용하려는 학생을 연계하고, 돌봄기관 간 이동 시에 아동의 안전조치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차량운행이 가능한 돌봄기관을 중심으로 연계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106).

다음으로 ‘초등돌봄교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계는 첫째, 학교 내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학교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숙제 지도, 보충학습, 청소년활동 및 특기적성, 귀가 지도 등 모든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한다. 학교장에게 시설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 외 학생 지도 및 보호의 책임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위탁기관장이 맡는다. 둘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방과후 학생차량 이동, 숙제 지도, 보충학습, 급식, 특기적성 프로그램, 귀가 지도 등 모듈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위탁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위탁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기관장에게 운영의 책임이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106).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지역 돌봄기관과 연계할 경우, 지역돌봄협의체를 통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방안을 마련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106). 지역아동센터 운영 시간 중 정원에 포함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연계가 가능하다.⁵⁾ 교육청 및 학교회계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예산 지원, 정산 등은 탄력적으

4) 대표자 겸 시설장은 초등돌봄교실 근무 불가(한국교육개발원, 2017: 105).

로 운영할 수 있다.

다)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

다양하고 질 높은 돌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며,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내 다양한 자원의 발굴·연계를 통한 참여가 요구된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108).

인적, 물적, 프로그램, 그리고 정보 부문에서 연계 및 활용이 가능한 지역사회의 자원으로는 이하의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109).

표 III-1-4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지역사회 자원 종류(예시)

종류	세부 내용
예산	•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인적자원	• 프로그램 지도강사, 생활지도 및 안전지원 인력 등 • 기업인, 대학교수, 학부모, 대학생, 연구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자원
물적자원	• 교육·체험 장소,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물품(예: 악기), 교통 수단 등
프로그램	•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이나 단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돌봄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	•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이 가지고 있는 돌봄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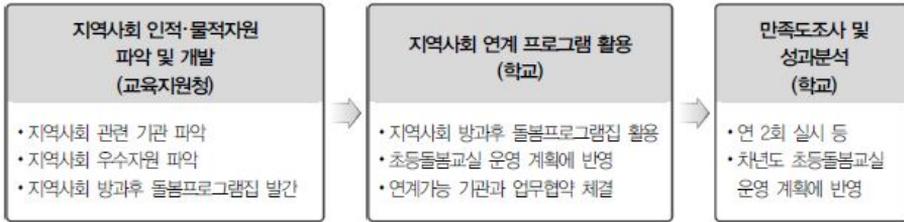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p. 109.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지역사회 기관이나 단체에서 돌봄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을 통보 시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학교가 직접 지역사회 기관이나 단체, 인사 등 돌봄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단위학교에서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과후학교나 돌봄, 평생교육, 사회교육, 사회복지 관련 업무 담당자 등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시·도별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창의체험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109).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그림 III-1-3과 같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111).

5) 「2015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운영 매뉴얼」 참조(한국교육개발원, 2017: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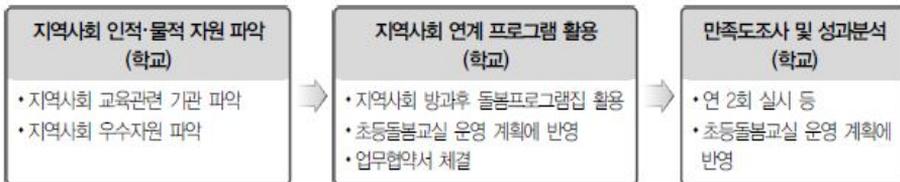
|| 그림 III-1-3 || 교육지원청 주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운영 절차(예시)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p. 111.

또한 단위학교가 주관하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111). 지역 내 유관기관(인적·물적 자원)과 학교가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는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다(그림 III-1-4 참조). 그 밖에도 초등돌봄교실은 마을 공부방, 기관, 교육기부, 협동조합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협력할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113).

|| 그림 III-1-4 || 단위학교 주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절차(예시)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p. 112.

라. 지역아동센터

1) 사업 배경 및 목적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와 제54조~제75조에 근거하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8b: 3).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에 아동복지 시설로 법제화된 이후 양적으로 증가하고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2018b: 4),

2) 지원대상 및 내용

가)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의 지원대상은 기존의 맞벌이 가정 등의 지역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지역사회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그 대상이 확대, 보편화되었다(보건복지부, 2017b: vii).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재학 중인 아동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보건복지부, 2017b: 3). 이에 따라 지원아동 이용기준은 기존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지역사회 방과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였으나, 2018년 부터는 지원대상 기준이 보다 강화되었다.

나) 서비스 내용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 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과 사후 연계를 담당한다(보건복지부, 2018b: 3).

세부 프로그램은 기본과 특화 프로그램을 구분된다(보건복지부, 2018b: 51). 기본 프로그램은 보호·교육·문화·정서지원 지역사회 영역으로 구성되며, 특화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특수성 및 주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영역별 세부 프로그램 및 예시는 표 III-1-5와 같다.

■ 표 III-1-5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영역

영역 (대분류)	세부영역 (중분류)	세부프로그램 (소분류)	프로그램 예시 (시설별 선택 운영)
보호	생활	일상생활관리	센터생활적응지도, 일상생활지도, 일상예절교육, 부적응아동지도 등
		위생건강관리	위생지도, 건강지도 등
		급식지도	급식지도, 식사예절교육 등
	안전	생활안전지도	저녁돌봄 등
		안전귀가지도	안전귀가지도, 생활안전지도 등
		5대안전의무교육	교통안전, 실종유괴예방, 약물오남용예방, 재난 대비, 성폭력예방 등

(표 III-1-5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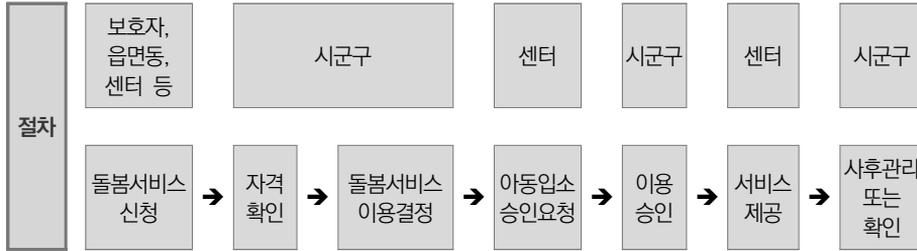
영역 (대분류)	세부영역 (중분류)	세부프로그램 (소분류)	프로그램 예시 (시설별 선택 운영)
교육	학습	숙제지도	숙제지도, 학교생활관리 등
		교과학습지도	수준별 학습지도, 온라인교육(IPTV 학습 등), 학습부진아 특별지도 등
	특기적성	예체능활동	미술, 음악, 체육지도 등
		적성교육	진로지도, 적성교육(독서, 요리, 과학 등) 등
	성장과 권리	인성·사회성 교육	인성교육, 사회성교육 등
		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	자치회의, 동아리 활동 등
문화	체험활동	관람·견학	공연 및 연극 관람, 박물관 등 견학 등
		캠프·여행	체험활동, 캠프 및 여행 등
	참여활동	공연	공연 등
		행사(문화/체육 등)	전시회, 체육대회 등 등
정서지원	상담	연고자 상담	부모 및 가족상담, 연고자 상담 등
		아동 상담	아동상담 등
		정서지원 프로그램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가족지원	보호자교육	보호자교육 등
		행사·모임	부모소모임, 가정방문 등
지역사회 연계	홍보	기관홍보	기관홍보 등
	연계	인적 연계	자원봉사활동, 인적결연후원, 후원자관리 등
		기관 연계	지역조사와 탐방, 전문기관 연계 복지단체 연계 등

자료: 보건복지부(2018b). 2018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p. 52.

3) 추진체계 및 운영관리 사항

이용 등록은 읍면·동장 또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돌봄서비스 희망 아동에 대해 해당 보호자가 작성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를 받아 시·군·구에 접수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18b: 35). 특히,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 사회복지기관, 학교 등과 적극 협력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필요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18b: 35).

그림 III-1-5 지역아동센터 이용 절차



자료: 보건복지부(2018b). 2018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p. 35.

한편 방과후 돌봄 연계 공동수요조사 아동의 등록은 드림스타트(드림스타트가 없는 경우 지역아동센터 담당부서)는 시·군·구 돌봄운영협의회(공동수요조사)에서 조사된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수요자 명부를 송부 받고, 지역아동센터 업무 담당은 해당 보호자로부터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신청서”와 기타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확인 서류 등)를 받는다(보건복지부, 2018b: 38).

또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추진 시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를 연계·조정하고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은 중앙부처 방과후 돌봄서비스 업무 지원, 홍보, 민간 자원 개발 및 연계 지원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업무를 담당한다(보건복지부, 2018b: 6).

표 III-1-6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추진체계

추진주체		기능 및 역할
보건 복지부	아동 권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계획 수립, 지침 마련, 법령·제도 개선 등 사업 총괄 국고보조금 지원, 아동복지교사 예산지원사업 총괄 및 평가 사업운영 지도·점검, 평가총괄 및 표준화 모델 개발보급 시설정보시스템 개편 및 관리 총괄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사자 교육기획,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등 시설운영 지원 시도지원단 사업 조정·평가 및 아동복지교사 운영지원 시설정보시스템 관리지원 및 중앙지원단전산관리시스템 구축·관리 연구 개발 및 시설 평가사업 운영 홍보, 민간자원 개발·연계 지원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중앙부처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업무 지원 등
시·도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의 검토·조정 및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 관할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 아동복지교사 시도별 사업총괄 및 지도점검 시·도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

(표 III-1-6 계속)

추진주체		기능 및 역할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컨설팅 등 시설운영 지원 • 시설정보시스템 관리 평가사업·아동복지교사 교육 등 지원 • 사도 특성화 사업 개발 • 홍보, 정보 관리, 민간자원 개발연계 지원 등 네트워크 구축 • 사도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업무 지원 등
	시·군·구 담당부서 또는 드림스타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군구 지역아동센터 관리, 예산지원 등 운영 • 사군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이용·종결 관리 • 아동복지교사 예산집행, 운영관리(채용·계약, 배장·노무, DB관리 등) •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후원금 내역 관리 • 사군구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
아동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조 등

자료: 보건복지부(2018b). 2018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p. 6.

한편 센터 운영시간은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18b: 50). 지역아동센터는 상시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시 등에는 종사자의 순번제 하계휴가 계획을 수립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8b: 50). 기본 운영 시간은 학기 중에는 오후 2시부터 7시이고, 방학 중에는 12시부터 오후 5시로 규정된다(보건복지부, 2018b: 50).

▣ 표 III-1-7 ▣ 지역아동센터 운영 시간

<p>▶ 필수 운영 시간(기본 운영 시간 8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 중 : 14:00~19:00(필수 운영 시간) • 방학(단기방학 포함) : 12:00~17:00(필수 운영 시간) <p>※ 필수 운영 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함</p>
--

자료: 보건복지부(2018b). 2018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p. 51.

4)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지역아동센터 중앙 및 시·도 지원단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전달체계 효율적 운영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체계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b: 97). 구체적으로 중앙 지원단은 중앙 및 시도 지원단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운

영관리, 지역아동센터 현황 통계 및 종사자 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역아동센터 평가,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운영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보건복지부, 2018b: 97). 지역아동센터 시·도 지원단은 시·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시·도 지역아동센터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지원을 수행한다(보건복지부, 2018b: 97).

또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는 지역아동센터 신고정원 및 운영시간에 맞춰 지역돌봄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초등돌봄교실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요구된다(보건복지부, 2018b: 46). 전자는 센터의 시설기준과 이용아동 신고정원 내에서 저녁 돌봄 연계시간대(16~19시)에 초등돌봄교실 이용아동을 충원하고, 연계 아동의 소득기준에 따라 우선보호 아동, 일반아동으로 분류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후자는 지역사회돌봄협의체를 통해 상세 지원내용(운영비, 프로그램 교구 등)을 협의해야 한다.

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 사업 배경 및 목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며 사교육비 절감 및 방과 후 비행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된다(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8: 9). 이와 더불어 여성의 경제 참여 지원, 저소득가정 사교육비 절감, 나홀로 청소년의 범죄·비행 노출 예방 등의 목적을 두고 있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www.youth.go.kr/yaca/index.do> 2018. 6. 3. 인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 46개소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2006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에서 2018년 기준으로 26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www.youth.go.kr/yaca/index.do> 2018. 6. 3. 인출).

2) 지원대상 및 내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지원대상은 초등 4학년부터 중학 3학년까지이며, 우

선지원 대상은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3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이다.

동 기관은 일 4시수, 주 5~6일 운영(일요일, 공휴일, 휴일 권장)되며, 주중활동은 1주 20시수 이상(1주 20시수 기준, 주중자기개발 2시수와 급식 5시수 의무 포함, 주중 전문체험활동 및 학습지원 활동은 재량 편성)이다. 단, 급식 시수 30분~1시간 내 탄력운영이 가능하다. 주말활동은 월 1회 5시수 이상(급식 포함)이며, 단, 주말 자기개발 활동은 수요조사에 의한 재량운영(월 최대 3회)하며, 운영시 1일 2시수 이상 운영된다(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8: 9).

특히 청소년들이 체험을 통해 건강한 놀이·문화를 체험하고 실천하고, 정규교육으로 부족한 청소년들의 인성 및 창의성을 개발 하도록 지원하고, 보호자·청소년·지역사회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한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www.youth.go.kr/yaca/index.do> 2018. 6. 3. 인출).

【 표 III-1-8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 내역

구분	세부내용	
전문체험 활동 과정	주중체험활동과정 (주 4시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습형태가 아닌 체험활동 위주로 청소년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예술체험활동, 과학체험활동, 직업개발활동, 봉사활동, 리더십개발활동 등) 주말체험활동과정 운영 시 외부활동 권장
	주말체험활동과정 (월1회 4시수)	
학습지원 활동 과정	보충학습지원과정 (주 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숙제, 보충학습지도, 독서지도 등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 전문 강사진의 교과학습 중심의 학습지원
	교과학습과정 (주 4시수)	
자기개발 활동 과정	주중자기개발활동과정 (주 2시수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활동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 각 운영기관에서 자유롭게 편성하여 운영하는 과정
	주말자기개발활동과정 (필요시 주 2시수이상)	
생활지원 과정	급식, 상담, 건강관리, 귀가지원(차량), 생활일정 관리(메일링서비스) 등	
특별지원 과정	청소년캠프(방학), 보호자교육, 초청인사 특별강의, 발표회 등	

자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홈페이지(<http://www.youth.go.kr/yaca/index.do>) 2018. 6. 3. 인출.

3) 추진체계 및 운영관리 사항

동 사업은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및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8: 10)(표 III-1-9).

즉 다양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사회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의 물품지원 및 후원,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 활용하고 있다(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8: 10).

표 III-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추진체계별 역할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지도·점검, 컨설팅 총괄 사업운영 평가 계획 수립 국고보조금 교부 및 관리 운영모델 개발·시범운영 방과후돌봄서비스 중앙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사업총괄 사업계획 수립·검토·조정 운영기관 선정 및 지도 감독 등 수행 보조금 집행 및 지도점검 관내 돌봄서비스 기관간의 연계·조정 등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협조) 국고보조금 교부 및 관리
운영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운영 계획, 운영 지도안 등) 대상 청소년 발굴·지원 예산집행 및 정산결과 보고 지역 내 돌봄서비스 기관간의 연계·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운영 계획 수립 운영전담 인력 교육(신규실무자 교육 및 직무연수 등) 현장 점검 및 컨설팅 지원 운영매뉴얼 제작 및 교육·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홍보, 민간자원 개발·연계 지원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범부처 공동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지원 등

자료: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8). 2018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매뉴얼. p. 11.

표 III-1-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기능 및 절차

주요기능	내 용
심의 및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대상 청소년 결정, 졸업자, 중도포기 및 탈락자 결정 등 참여 청소년에 대한 결정 기타 주요 현안사항 심의 및 결정
지역연계 및 협력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운영 및 현안사항과 관련한 직접 지원 및 후원 지역자원 연계 지원
사업 자문과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실행에 대한 자문 제공 지역사회 내에서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널리 알리고 긍정적 여론 형성 지원

자료: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8). 2018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매뉴얼. p. 132.

한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요 사안의 심의·결정과 지역 연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기관 및 인력이 참여하는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8: 132)(표 III-1-10 참조).

4)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가) 지역사회 자원봉사 인력 발굴 및 연계

지역 대학교와 연계하여 대학생 자원봉사인력을 발굴 및 활용한다. 자원봉사 인력에 대해서는 교통비 및 식비 명목으로 일비 수준(1일 20,000원 이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단, 행정운영비에서만 지급 가능). 지역 내 기업·공공기관·사회단체·군부대·경찰 등과 협력하여 자원봉사 인력을 발굴 및 활용한다(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8: 18-19).

또한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활동 기록관리, 정기적인 평가 등을 실시한다. 자원봉사 영역별 인력풀 구성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계획을 마련한다. 학습, 귀가지도, 급식지도, 상담지원, 건강지원, 특강분야 등과 기본공통과정 중 보충학습 지원 과정(숙제, 독서 등) 및 자기개발활동 과정은 실무 지도자(담임)가 담당하거나 지역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운영전담 인력 및 강사 등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한다. 신규 인력 및 강사 등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는 필수이며, 기존 운영인력 및 강사 등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를 최소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8: 18-19).

나)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협의회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주요 사안의 심의를 결정하고, 지역연계 및 협력 지원, 자문 및 사업홍보를 담당한다(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8: 19-20). 동 기구의 위원 구성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직·간접적 지원과 조언 등을 할 수 있는 지역 관계자 10명 내외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운영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필수), 지역 내 학교 관계자, 보건소장, 지역사회 청소년·사회복지·돌봄서비스 관련 기관·단체의 장, 언론사,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다.

다) 지역자원 연계 및 관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있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콘텐츠 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8: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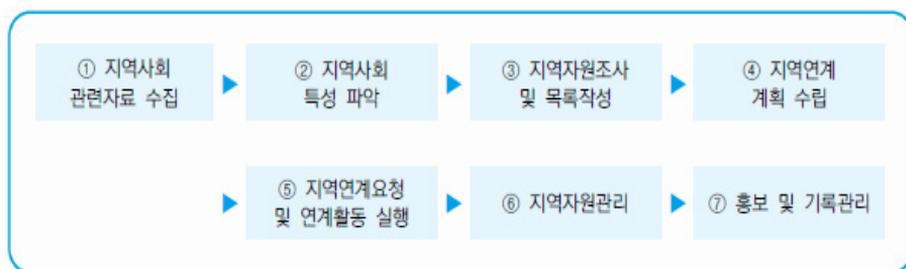
표 III-1-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분야별 지역 자원

영역	지역자원 종류
보건/복지분야	복지시설, 보건소, 병원, 한의원, 약국 등
교육분야	유치원, 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직업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등
행정기관	시·군·구청, 지방의회, 경찰서, 법원, 검찰청, 주민센터 등
경제산업분야	금융기관, 기업, 쇼핑센터, 자영업(미용실, 제과점 등) 등
문화분야	종교시설, 문화예술시설, 체육시설, 박물관, 전시관, 역사유적지 등
언론분야	방송사, 지역신문사 등
청소년분야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단체, 동아리 등
기타 사회단체	다양한 분야의 각종 사회단체

자료: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8). 2018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매뉴얼. p. 135.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의 지역 연계를 위한 업무절차는 그림 III-1-6과 같다.

그림 III-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 연계를 위한 업무절차



자료: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8). 2018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매뉴얼. p.136.

즉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역의 현황과 지역의 인적자원, 물적 자원, 콘텐츠자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이때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범위까지 포괄하여 지역홍보책자, 지역신문, 인

터넷, 관공서 방문, 지역 소식지, 자원봉사센터, 학교교사 연구모임, 도서관 내 동아리 모임, 동호회 모임, 지역시민단체 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자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8: 136). 다음으로는 경제적,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복지적, 인구구성 등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며, 지역자원 연계를 위해 조사한 기관 연락처와 연계 분야 등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DB화하여 관리해야 한다(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8: 137). 또한 연계가 필요한 분야와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고, 자원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 설정하여 연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자원봉사자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현실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청소년들에게 더불어 사는 삶을 직접 체험하게 해주는 중요한 인적자원이다(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8: 140).

▮ 표 III-1-12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자원봉사자 활용 업무내용 및 절차

업무절차	주요내용
1. 자원봉사자 수요 파악 및 운영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시 필요한 자원봉사자 수 파악 • 자원봉사자 활용 운영 계획 수립
2.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자원봉사자 관리 및 면담 실시
3.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활동참여 전 필수교육 실시 • 자원봉사자 담당업무와 시간 확정후 배치
4. 자원봉사자 활동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활동 기록관리 • 자원봉사자 대상 정기평가 모임 개최
5. 활동인정 및 감사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활동의 공식적 인정과 감사 표시 • 자원봉사 사례집 제작

자료: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8). 2018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매뉴얼. p. 140.

바. 아이돌봄지원서비스

1) 사업 배경 및 추진 경과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출장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돌봄에 대한 수요는 보육시설로는 대응하기 어렵고, 2세 이하 영아를 둔 취업 부

모든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개별보육을 선호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추진되었다(여성가족부, 2018a: 7). 2010년에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사업이 신규로 실시되었고(여성가족부, 2018a: 8), 2012년 8월 2일 「아이돌봄지원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 지원대상 및 서비스 내용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유형으로 나뉘는데,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 돌봄’과 만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돌봄’으로 구분된다(여성가족부, 2018a: 9).

▮ 표 III-1-13 ▮ 영아종일제/보육교사형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월 156만원, 200시간 기준)		보육교사형 (월 171.6만원, 200시간 기준)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이하 (2,712천원)	117만원 (75%)	39만원 (25%)	117만원	54.6만원
나형	85%이하 (3,841천원)	85.8만원 (55%)	70.2만원 (45%)	85.8만원	85.8만원
다형	120%이하 (5,423천원)	54.6만원 (35%)	101.4만원 (65%)	54.6만원	117만원
라형	120%초과	-	156만원 (100%)	-	171.6만원

주: 괄호 속 비율은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본인부담 비율임.
 자료: 여성가족부(2018a). 2018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 11.

‘시간제 돌봄’의 지원시간은 1회 이용 시 2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간 600시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서비스 이용 중인 가정이 기 이용 시간 내에서 시간제 돌봄서비스 아동을 추가할 경우, 1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의 지원 시간은 1일 1회 최소 4시간 이상 사용하고, 월 120시간에서 200시간 이내에서 정부지원이 이루어진다(여성가족부, 2018a: 9).

이용요금은 기본 단가가 1시간에 7,800원이며, 영아종일제 돌봄은 1시간당 7,800원이고, 보육교사형은 1시간당 8,580원, 시간제 돌봄은 1시간당 7,800원, 종합형은 1시간당 10,140원이다(여성가족부, 2018a: 10). 지원대상자는 양육 공

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이며,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8a: 11).

3) 추진체계 및 운영관리 사항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 작성, 국고보조 및 홍보 등 사업을 총괄한다. 시·도에서는 사업 전반과 아이돌봄미 양성 교육기관을 지정 및 관리하며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에서는 예산 지원 및 사업량을 조정하며 사업에 관한 관리 감독을 담당한다. 읍·면·동에서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서비스 안내 및 신청, 접수와 유형을 결정한다(여성가족부, 2018a: 13).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한다.

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1) 사업 배경 및 목적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은 전통적 돌봄 지지 체계의 약화로 개별가정의 돌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돌봄서비스와 가정내 육아 전담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적서비스 제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추진되었다(여성가족부, 2018b: 196). 즉 공적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양육의 어려움을 양육친화적 지역사회 문화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주민자치적 시스템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여성가족부, 2018b: 196).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와 물리적 환경 개선, 상시 프로그램, 공동육아나눔터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b: 196).

2) 지원대상 및 서비스 내용

공동육아나눔터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위한 돌봄공동체를 추구하며, 맞벌이, 한부모 등 돌봄 공백을 우려한 가족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추구한다(여성가족부, 2018b: 196).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의 부모-자녀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하며 가족품앗이 그룹 활동 모임 장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상시 프로그램은 주 2회 이상 공동육아나눔터에서 같은 요일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프로그램 내용 및 시간은 변경이 가능하다.

3) 운영관리 사항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본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연장운영은 기본 운영시간 앞·뒤로 2시간이며, 토요일에만 운영한다. 또한 평일 저녁 및 주말 연장운영은 이용자들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토요일 연장운영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장 승인 후 월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연장운영 시에는 유급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고, 가족품앗이 활동,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공간 제공만 연장운영에 포함한다.

다음으로 동 사업은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담당 실무자, 지역 리더 및 이용주민 간, 기업 등과의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한다(여성가족부, 2018b: 197).

2 유관 기관의 사업내용 및 연계

지역돌봄공동체 등 지역 기반의 돌봄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유관 서비스 기관의 연계 및 협력이 중요하므로 해당 기관들의 주요 사업내용과 서비스 연계 및 협력 사항들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내 거점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며,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보육교직원·부모상담 등을 통해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8a: 433).

1) 사업내용

사업내용은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기타 사업으로 구분된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상담, 정보제공, 보육교직원 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8a: 440).

가정양육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채용 영유아 가정 및 가정 내 양육을 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양육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8a: 440).

기타 사업은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보육 프로그램 및 양육 콘텐츠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유관기관과 연계사업 등이 포함된다(보건복지부, 2018a: 440-441).

표 III-2-1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내용

구분	사업
어린이집 지원	표준보육과정 교육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이용 등에 관한 상담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대체교사 지원 및 관리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및 상담 등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영양·안전 교육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지원 보육교직원 구인·구직 정보 제공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 대한 교육 열린어린이집 운영 지원 어린이집 채용 영유아를 위한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정 양육 지원	부모에 대한 상담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운영 육아콘텐츠 개발 및 지원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및 놀이공간 제공 도서·장난감 등의 제공 또는 대여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부모소모임 등 교류 공간 제공 영유아 발달에 관한 검사 그 밖에 가정양육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표 III-2-1 계속)

구분	사업
기타 사업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보육프로그램 및 양육 콘텐츠 제공 정보지, 자료집 발간 등 보육 및 양육관련 홍보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유관기관과 연계사업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 관련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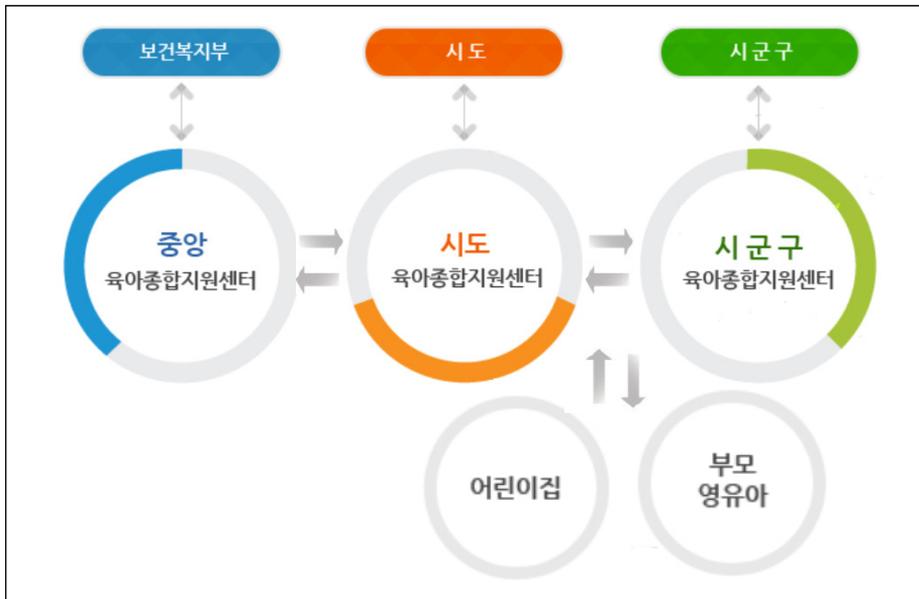
- 주: 1) 사업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실비 수납 가능
 3)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보육과정컨설팅(교사+보육과정컨설팅)에 필요한 소모임 등 지원 비용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에서 활용 가능함.

자료: 보건복지부(2018a). 2018년 보육사업안내. pp. 440-441.

2) 추진체계 및 네트워크 운영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전반을 지원해야하며, 이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그 밖의 정부 보육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그림 III-2-1 ■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달체계



자료: 보건복지부(2018a). 2018년 보육사업안내. p. 438.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해 지역특성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 2018a: 438)(그림 III-2-1 참조). 이를 위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국 단위 보육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DB를 구축·제공하며, 전문강사 인력풀 관리 및 전국 공통사업 매뉴얼·자료 제작 등을 통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의 보육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며 지역특성을 고려한 보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보급함과 동시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참여하여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보건복지부, 2018a: 439).

나.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여성가족부, 2018b: 122).

1) 사업내용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도 센터 사업과 시·군·구 센터 사업으로 구분된다. 시·도 센터는 시·군·구 센터 지원에 중점을 두되 센터 직원 및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 사업을 실시하는데 중점을 둔다(여성가족부, 2018b: 140). 특히 활동가, 가족봉사단 및 품앗이 리더, 기타 자원활동가의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시·도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특성화 사업 및 정책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이에 덧붙여 광역 단위 업무 협의회와 유관기관 연대 사업을 통해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군·구 센터 사업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고, 이용자의 참여 확대를 통한 가족기능을 지원하며,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등 가족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8b: 136)(표 III-2-3 참조).

이들은 공통사업으로 모두가족 봉사단, 모두가족 품앗이,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돌봄 프로그램,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남성대상교육, 가족(집단)상담, 가족사랑의 날, 가족친화문화 프로그램, 지역사회 협의체와의 협약 및 연계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표 III-2-2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공통사업(2018)

구분	시·도 센터 공통사업	세부 내용
인적자원 역량강화 (교육지원)	시·군·구 센터 직원 교육	광역단위 상담직원 교육, 직원 워크숍 등 연간 5과목 또는 30시간 이상
	시·군·구 센터 활동가 교육	센터에서 활동하는 인력 교육 연간 5과목 또는 30시간 이상
특성화 사업 및 정책지원 (사업지원)	시·도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광역 단위 특성에 맞는 시범사업 운영 및 매뉴얼 개발
네트워크 활성화 (연계)	광역단위 업무 협의회	중앙과 시·군·구 센터의 연계 역할, 시·군·구 센터 지원방문, 모니터링 등
	유관기관 연대 사업	유관기관의 발굴과 사업 연계
홍보	광역단위 홍보	캠페인성 홍보사업 등
	시·군·구 센터 홍보지원	시·군·구 연계홍보 활동, 홍보매체 개발 및 활용

자료: 여성가족부(2018b). 2018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p. 142.

표 III-2-3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공통사업(2018)

구분	시·군·구 센터 공통사업	세부 내용
가족돌봄 나눔 (*3가지 사업 중 2가지 선택)	모두가족봉사단	기존 가족봉사단 활동내용을 '돌봄'을 주제로 전환하여 운영
	모두가족 품앗이	전업주부와 맞벌이 주부가 함께 운영하는 품앗이, 남성이 참여하는 품앗이 등 다양한 그룹 운영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돌봄 프로그램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돌봄프로그램 운영
가족교육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부모, 부부, 조부모, 자녀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다양한 교육 예비/신혼기·중년기·노년기·부부교육 등 예비부모교육, 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등
	남성대상 교육	아버지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남성대상 자기돌봄 교육 등
가족상담	가족(집단)상담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상담사업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 접근과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단위의 통합적 접근을 포함 가족단위의 면접 상담 유도 연간 상담실적이 100명 이하인 센터는 가족집단상담을 연간 2건 이상 반드시 포함

(표 III-2-3 계속)

구분	시·군·구 센터 공통사업	세부 내용
가족문화	가족사랑의 날	수요일, 가족이 모두 함께하는 프로그램
	가족친화문화 프로그램	가족캠프, 가족축제, 가족체험활동 등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형의체 참여, 협약 및 연계사업	지역사회 협의체, 유관 기관 네트워크 활용 및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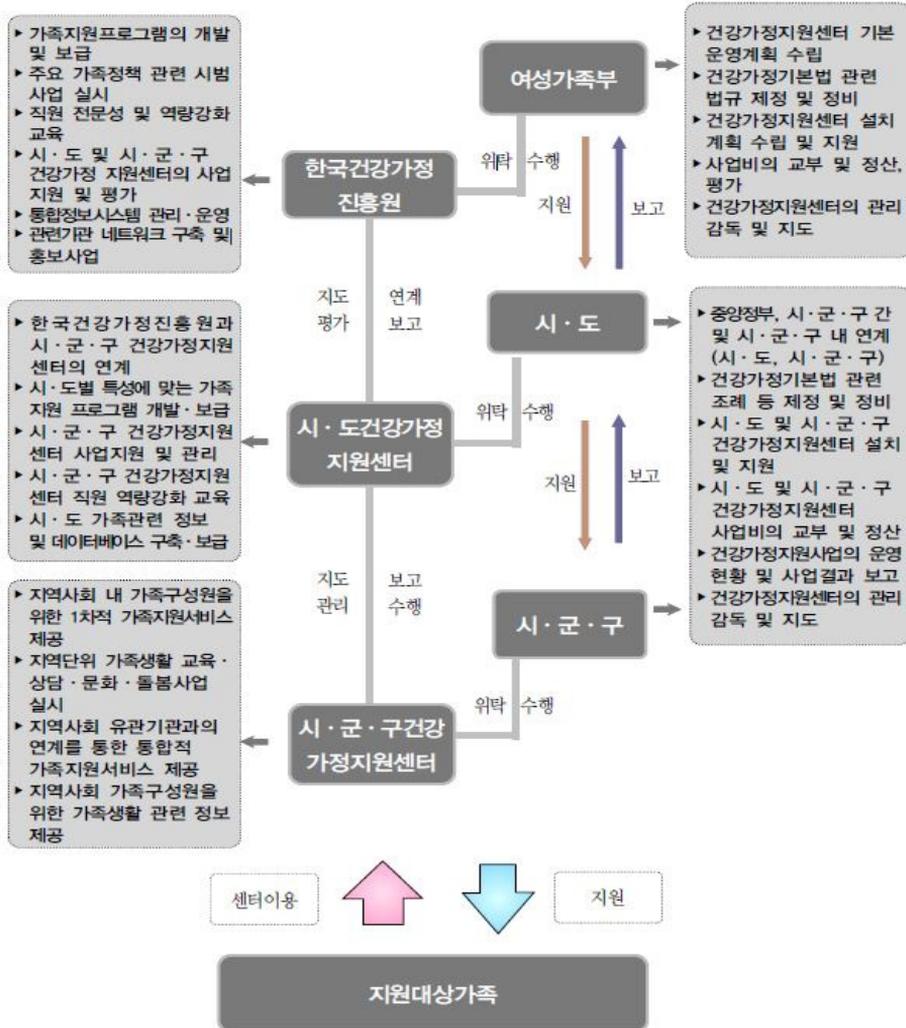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2018b). 2018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pp. 138-139.

2) 추진체계 및 네트워크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은 여성가족부, 시·도 및 시·군·구, 사업지원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의해 추진된다(여성가족부, 2018b: 124-125).

먼저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의해 기본운영계획 수립, 관련 법규 제정 및 정비, 설치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비 교부 및 정산, 평가, 관리 감독 및 지도를 담당한다(여성가족부, 2018b: 124). 사업지원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사업매뉴얼 개발 및 배포, 실적관리 및 평가, 그리고 사업지원을 수행한다. 시·도 및 시·군·구는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지역자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사업과 관련한 정보제공 및 홍보를 담당한다. 사업기관인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가족생활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 및 지원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대상자인 지역주민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정보교류 및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III-2-2 | 건강가정지원센터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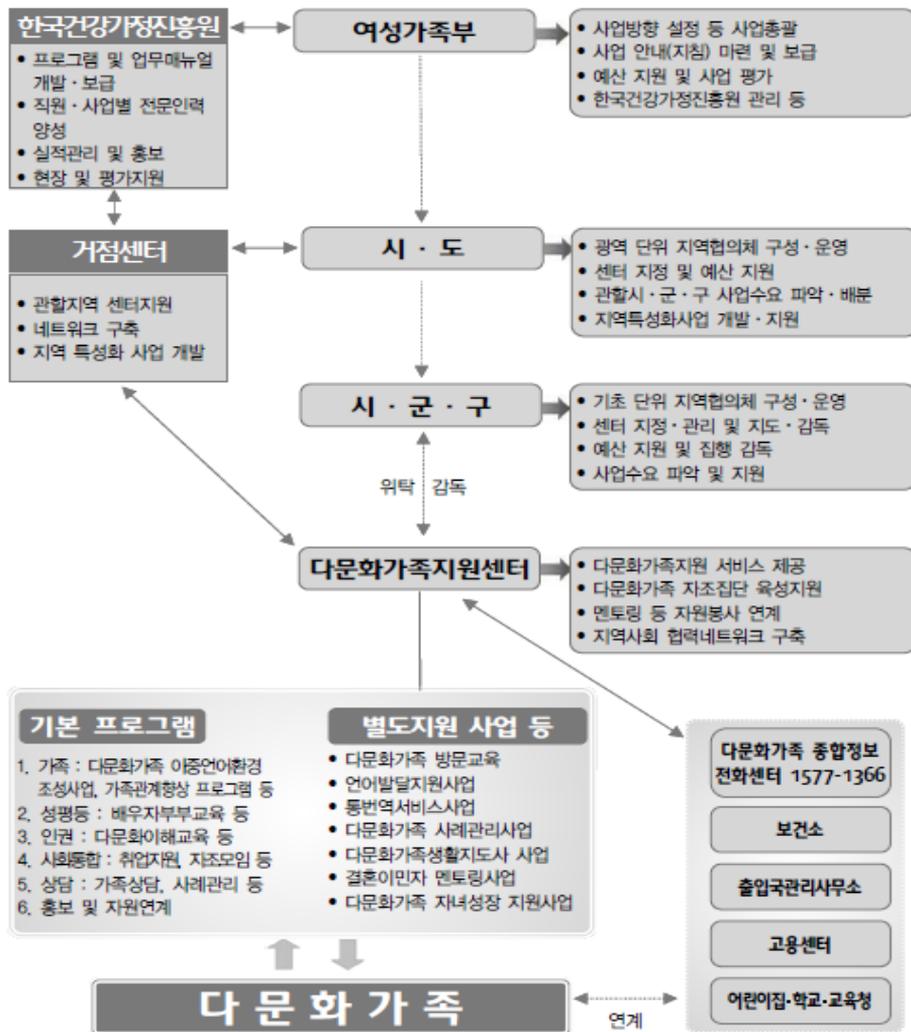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2018b). 2018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p. 126.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지닌다(여성가족부, 2018c: 135).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은 기본 프로그램과 별도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기본 프로그램은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상담, 홍보 및 자원연계를 담당하며, 별도지원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언어발달지원사업, 통번역서비스 사업,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사업,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그림 III-2-3 | 다문화가족사업 추진체계



자료: 여성가족부(2018c). 2018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p. 128.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관할로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거점센터를 바탕으로 각 시·군·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한다. 각 기관별 역할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는 사업총괄, 사업 안내(지침) 마련 및 보급,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관리, 각 시·도에서는 광역 단위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센터 지정 및 예산 지원, 관할 시·군·구 사업 수요 파악·배분, 지역특성화사업 개발·지원을 지원한다. 시·군·구에서는 기초 단위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센터 지정·관리 및 지도·감독, 예산 지원 및 집행 감독, 사업수요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조집단 육성을 지원하며, 멘토링 등 자원봉사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거점센터는 관할 지역 센터지원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특성화 사업 개발에도 참여한다.

라.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8c: 7). 즉 지역사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보호서비스, 재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이다(보건복지부, 2018c: 7).

1) 사업내용

사회복지관은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직업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사람,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판단되는 이들이 우선지원 대상이다(보건복지부, 2018c: 13).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은 지역사회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요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해당 사회복지관의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전하여 수행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8c: 13). 사회복지관의 사업은 기능별로 구분할 수 있다.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이 그것이다. 사례관리 기능은 사례를 발굴하고 사례에 개입하기도 하지만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의뢰하는 서비스 연계 사업도 추진한다(보건복지부, 2018c: 14). 관련 사업으로는 가족기능강화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등이 존재한다. 또한 가사도우미, 간병인, 사무원, 일용직 등 취업을 알선하기도 하고, 지역사회 욕구에 근거하여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개발, 운영하기도 하는 자활지원 등 기타 사업도 수행한다. 지역조직화 기능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등을 통해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사업, 주민교육을 통해 주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하며,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등을 통해 자원개발 및 관리 분야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III-2-4 사회복지관 사업내용

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사례관리 기능	사례 발굴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
	사례 개입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서비스 제공기능	가족기능 강화	1.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강화하는 사업 2. 가족기능보완사업: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3. 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치료·사회복지 지원사업 4. 부양가족지원사업: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 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5.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지역사회 보호	1. 급식서비스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서비스

(표 III-2-4 계속)

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2. 보건의료서비스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대상자들을 위한 보건·의료관련 서비스 3. 경제적지원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일상생활 지원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5. 정서서비스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부양가족이 없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 6. 일시보호서비스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서비스 7. 재가복지봉사서비스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기능	복지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복지기관·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육구조사, 실습지도
	주민 조직화	-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
	자원 개발 및 관리	-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재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 지원하는 사업 - 자원봉사자 개발·관리, 후원자 개발·관리

자료: 보건복지부(2018c).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p. 14-15.

2) 추진체계 및 네트워크 운영

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간에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지역사회복지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인력과 재원이 필요한 시설이므로 지역사회내의 복지 자원을 최대한 동원·활용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8c: 10).

사회복지관의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주민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단체, 관계행정기관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

정기관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협의체에 참여하여 시·군·구청, 사회복지사무소 및 읍·면·동사무소 등 일선 행정기관과 연계하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서 민관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8c: 25).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활용도 중요하다. 사회복지관장은 주민참여를 통해 사회복지관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전문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이들이 사회복지관 사업에 대한 예비지식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 책임을 고양하고, 항상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8c: 25).

3 돌봄서비스 및 유관 기관의 공급 현황 및 지역유형화

앞서 다룬 돌봄서비스 기관 및 유관 기관의 공급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규모별 공급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때 각 시·군·구별 돌봄서비스 기관의 공급은 초등 방과 후 돌봄 위주로 분석하였다.

가. 전국지역의 돌봄서비스 및 유관 기관의 공급 현황

우선 전국지역에 설치된 돌봄서비스 기관으로는 2017년 기준으로 초·중·고등학교 실이 총 11,920개소, 지역아동센터가 4,10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8년 8월말 기준으로 공동육아나눔터는 192개가 설치되어 있다.

경기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 763개소, 초·중·고등학교실 2,760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 지역에서 각각 414개소와 1,666개소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는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이 공히 22개소로 가장 많고, 반면에 제주 지역은 1개소에 불과하다.

아동돌봄 체계 구축 관련한 유관기관으로 사회복지관은 2017년 기준으로 총 464개소, 어린이도서관은 2018년 5월 기준으로 396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어린이도서관의 경우는 지역적 공급 격차가 두드러져, 경기 지역에

115개소가 설치되어 전체의 29.0%를 차지하는 반면, 세종시는 1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어린이도서관이 돌봄 인프라 및 돌봄네트워크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지점이라고 본다.

또한 각 지역별로 서울시에는 사회복지관 99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26개소, 어린이도서관 109개소로, 전반적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고르게 공급된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제주도와 울산시에는 기관 공급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다양한 유관 서비스 기관들이 고르게 분포되지 못한 지역에서는 돌봄네트워크 및 협의체 구성 시에 동원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즉 공공 부문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III-3-1 전국 시·도별 돌봄서비스/유관 서비스 기관 공급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유관 서비스 기관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사회 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전국	4,107 (100.0)	11,920 (100.0)	192 (100.0)	464 (100.0)	151 (100.0)	396 (100.0)			
서울	414 (10.08)	1,666 (13.98)	22 (11.46)	99 (21.34)	26 (17.22)	109 (27.53)			
부산	204 (4.97)	585 (4.91)	11 (5.73)	53 (11.42)	9 (5.96)	15 (3.79)			
대구	199 (4.85)	425 (3.57)	11 (5.73)	26 (5.60)	7 (4.64)	14 (3.54)			
인천	183 (4.46)	538 (4.51)	19 (9.90)	20 (4.31)	9 (5.96)	32 (8.08)			
광주	301 (7.33)	313 (2.63)	6 (3.13)	18 (3.88)	5 (3.31)	12 (3.03)			
대전	145 (3.53)	366 (3.07)	5 (2.60)	21 (4.53)	1 (0.66)	31 (7.83)			
울산	55 (1.34)	273 (2.29)	3 (1.56)	8 (1.72)	2 (1.32)	6 (1.52)			
세종	12 (0.29)	98 (0.82)	8 (4.17)	2 (0.43)	1 (0.66)	1 (0.25)			
경기	763 (18.58)	2,760 (23.15)	22 (11.46)	80 (17.24)	32 (21.19)	115 (29.04)			
강원	168 (4.09)	617 (5.18)	9 (4.69)	19 (4.09)	7 (4.64)	9 (2.27)			
충북	184 (4.48)	431 (3.62)	7 (3.65)	13 (2.80)	4 (2.65)	9 (2.27)			
충남	226 (5.50)	706 (5.92)	24 (12.50)	19 (4.09)	10 (6.62)	11 (2.78)			
전북	286 (6.96)	720 (6.04)	6 (3.13)	17 (3.66)	6 (3.97)	7 (1.77)			
전남	384 (9.35)	621 (5.21)	7 (3.65)	15 (3.23)	9 (5.96)	4 (1.01)			
경북	258 (6.28)	802 (6.73)	13 (6.77)	14 (3.02)	9 (5.96)	6 (1.52)			
경남	259 (6.31)	818 (6.86)	18 (9.38)	30 (6.47)	12 (7.95)	12 (3.03)			
제주	66 (1.61)	181 (1.52)	1 (0.52)	10 (2.16)	2 (1.32)	3 (0.76)			
평균	241.6	701.2	12.0	27.3	8.9	23.3			

자료: 1)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역아동센터 내부자료(2017. 12).
 2) 초등돌봄교실: 교육부(2017b). 내부자료.
 3) 공동육아나눔터: 여성가족부(2018d) 내부자료(2018. 8).
 4) 사회복지관: 보건복지부(2018c).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p. 313-327(2017. 12).
 5)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2017). 2017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pp. 167-170.
 6) 어린이도서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libsta.go.kr/libportal/libThree/libSearch/getLibSearchList.do> [도서관 찾기]-[도서관명: 어린이] (2018. 5. 4. 인출).

다음으로 광역 시·도별로 대상아동 규모를 반영한 이들 기관의 공급률을 살펴 보면, 이하 표와 같다. 돌봄서비스의 공급 수준은 전반적으로 전북, 전남, 그리고 경북 지역에서 높은 반면, 광역시와 경기, 제주 지역에서는 낮은 공급률을 보인다. 기관별로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역별 공급률의 격차가 두드러져, 세종시는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고, 전남과 전남 지역의 경우는 4.011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전남 지역은 가장 높은 수준의 공급률을 나타낸다. 반면에 서울과 경기 지역의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이 동시에 평균에 비해 월등히 낮은 공급 수준을 보여, 광범위한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공동육아나눔터의 공급 수준은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외 서비스 기관에서 어린이도서관은 공급 수준의 격차가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된다. 대전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공급률을 보이며, 돌봄서비스의 공급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전남 지역에서 낮은 공급률을 보였다. 유관 서비스 기관은 돌봄 공간을 제공하거나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특히 돌봄서비스 기관의 공급률이 낮은 지역에 보다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테면 울산시는 돌봄서비스 기관의 공급 수준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이와 동시에 유관 서비스 기관의 공급률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므로,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시에 고유한 민관 협력 방식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표 III-3-2 ▮ 전국 시·도별 돌봄서비스/유관 서비스 기관 공급률

단위: %

구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유관 서비스 기관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계	사회 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계
전국	1.483	4.304	0.069	5.856	0.168	0.055	0.143	0.366
서울	0.912	3.669	0.048	4.629	0.218	0.057	0.240	0.515
부산	1.306	3.746	0.070	5.122	0.339	0.058	0.096	0.493
대구	1.542	3.294	0.085	4.921	0.202	0.054	0.109	0.365
인천	1.139	3.349	0.118	4.606	0.125	0.056	0.199	0.380
광주	3.339	3.472	0.067	6.878	0.200	0.055	0.133	0.388
대전	1.667	4.209	0.057	5.933	0.241	0.011	0.356	0.608
울산	0.822	4.078	0.045	4.945	0.120	0.030	0.090	0.240
세종	0.559	4.564	0.373	5.496	0.093	0.047	0.047	0.187
경기	0.999	3.612	0.029	4.64	0.105	0.042	0.151	0.298

(표 III-3-2 계속)

구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유관 서비스 기관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계	사회 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계
강원	2.146	7.881	0.115	10.142	0.243	0.089	0.115	0.447
충북	2.140	5.013	0.081	7.234	0.151	0.047	0.105	0.303
충남	1.900	5.936	0.202	8.038	0.160	0.084	0.092	0.336
전북	2.851	7.177	0.060	10.088	0.169	0.060	0.070	0.299
전남	4.011	6.487	0.073	10.571	0.157	0.094	0.042	0.293
경북	1.974	6.138	0.099	8.211	0.107	0.069	0.046	0.222
경남	1.365	4.312	0.095	5.772	0.158	0.063	0.063	0.284
제주	1.624	4.454	0.025	6.103	0.246	0.049	0.074	0.369
평균	1.766	4.761	0.095	6.622	0.178	0.057	0.121	0.356

기관수
 주: 1) 공급률: $\frac{\text{각 서비스 유형별 적용대상 아동수}}{\text{각 서비스 유형별 적용대상 아동수}} * 1,000$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2) 공급률 산출 아동수 기준: 만7~12세로 입소기준 일괄 적용함.
 3) 공급률 산출을 위한 각 지역별 아동 수는 <부록1> 참조.
 자료: 1)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역아동센터 내부자료(2017. 12).
 2) 초등돌봄교실: 교육부(2017b). 내부자료.
 3) 공동육아나눔터: 여성가족부(2018d). 내부자료(2018. 8).
 4) 사회복지관: 보건복지부(2018c).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p. 313-327(2017. 12).
 5)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2017). 2017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pp. 167-170.
 6) 어린이도서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libsta.go.kr/libportal/libThree/libSearch/getLibSearchList.do> [도서관 찾기]-[도서관명: 어린이] (2018. 5. 4. 인출).
 7) 연령별 영유아 및 아동수: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2017. 2). (2018. 6. 7. 인출).

나. 지역규모별 돌봄서비스 및 유관 기관의 공급 현황

지역규모별 즉 대도시(광역시), 중소도시, 군 지역으로 구분하여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유관 서비스 기관의 공급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도시 지역

우선 대도시 지역의 경우는 각 지역 내의 공급 수준의 격차가 두드러진다. 서울지역의 경우는 금천구 지역을 제외하면 이외 지역의 공급 수준이 전국 대비 현저히 낮다. 부산 지역은 지역 내 격차가 보다 두드러져, 동구에서는 월등히 높은 공급 수준을 보이며, 해당 지역에서도 공동육아나눔터는 저조한 공급 수준을 보여, 공동육아나눔터가 미설치된 지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외 유관 서비스 기관의 경우는 대체로 고르게 분포된 경향을 보인다. 특히 사회복지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비스 연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어린이도서관의 경우는 부산과 대전시 등에서 미설치된 지역도 존재한다.

표 III-3-3 대도시 지역의 돌봄서비스/유관 서비스 기관 공급률

단위: %

구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유관 서비스 기관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계	사회 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계
전국	1.483	4.304	0.069	5.856	0.168	0.055	0.143	0.366
서울								
강남구	0.068	2.908	0.034	3.01	0.205	0.034	0.068	0.307
강동구	0.950	3.564	0.048	4.562	0.095	0.048	0.095	0.238
강북구	1.680	2.978	0.076	4.734	0.382	0.076	0.305	0.763
강서구	0.659	3.553	0.000	4.212	0.366	0.037	0.293	0.696
관악구	1.668	4.027	0.115	5.81	0.288	0.058	0.000	0.346
광진구	1.126	3.114	0.000	4.24	0.199	0.066	0.000	0.265
구로구	1.043	4.485	0.052	5.58	0.156	0.052	0.469	0.677
금천구	2.921	4.943	0.000	7.864	0.225	0.112	0.337	0.674
노원구	0.612	3.808	0.034	4.454	0.306	0.034	0.068	0.408
도봉구	1.176	4.444	0.196	5.816	0.196	0.065	0.196	0.457
동대문구	0.904	3.964	0.139	5.007	0.139	0.070	0.626	0.835
동작구	1.353	3.999	0.176	5.528	0.353	0.059	0.353	0.765
마포구	0.631	4.130	0.057	4.818	0.115	0.057	0.115	0.287
서대문구	0.604	3.094	0.075	3.773	0.226	0.075	0.453	0.754
서초구	0.226	2.371	0.038	2.635	0.151	0.038	0.038	0.227
성동구	0.960	5.118	0.000	6.078	0.240	0.080	1.120	1.44
성북구	1.178	3.307	0.045	4.53	0.226	0.045	0.226	0.497
송파구	0.468	2.927	0.029	3.424	0.176	0.029	0.117	0.322
양천구	0.837	2.802	0.000	3.639	0.182	0.036	0.109	0.327
영등포구	0.878	4.932	0.068	5.878	0.135	0.068	0.203	0.406
용산구	0.648	3.998	0.000	4.646	0.216	0.108	0.216	0.54
은평구	1.139	3.944	0.000	5.083	0.131	0.044	0.263	0.438
종로구	1.996	4.158	0.000	6.154	0.166	0.166	0.832	1.164
중구	1.194	5.731	0.000	6.925	0.716	0.478	0.955	2.149
중랑구	1.485	4.889	0.062	6.436	0.248	0.062	0.371	0.681
부산								
강서구	0.440	5.131	0.000	5.571	0.293	0.000	0.000	0.293
금정구	1.508	4.322	0.000	5.83	0.201	0.101	0.000	0.302
남구	1.308	3.308	0.000	4.616	0.231	0.000	0.077	0.308
동구	5.997	4.873	0.000	10.87	0.750	0.000	0.375	1.125
동래구	1.353	3.156	0.150	4.659	0.150	0.000	0.000	0.150
부산진구	1.432	4.363	0.000	5.795	0.273	0.068	0.136	0.477

(표 III-3-3 계속)

구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유관 서비스 기관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계	사회 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계
북구	1.012	3.687	0.289	4.988	0.651	0.072	0.145	0.868
사상구	2.201	4.951	0.000	7.152	0.440	0.110	0.110	0.66
사하구	1.136	3.007	0.200	4.343	0.334	0.067	0.067	0.468
서구	1.294	5.696	0.000	6.99	0.518	0.000	0.518	1.036
수영구	0.753	3.011	0.151	3.915	0.301	0.151	0.000	0.452
연제구	1.062	2.656	0.106	3.824	0.212	0.106	0.000	0.318
영도구	2.048	5.461	0.000	7.509	1.138	0.228	0.455	1.821
중구	3.299	4.948	0.000	8.247	0.825	0.000	0.000	0.825
해운대구	1.051	2.697	0.000	3.748	0.320	0.046	0.091	0.457
대구								
남구	2.254	3.944	0.376	6.574	0.188	0.188	0.188	0.564
달서구	1.036	3.390	0.031	4.457	0.220	0.031	0.094	0.345
동구	1.504	3.368	0.060	4.932	0.301	0.000	0.120	0.421
북구	1.781	3.158	0.040	4.979	0.121	0.040	0.081	0.242
서구	5.312	4.218	0.156	9.686	0.312	0.156	0.469	0.937
수성구	0.616	2.356	0.109	3.081	0.181	0.036	0.072	0.289
중구	2.089	5.919	0.348	8.356	0.696	0.348	0.000	1.044
인천								
계양구	1.276	3.282	0.061	4.619	0.061	0.061	0.061	0.183
남구	0.796	2.442	0.159	3.397	0.159	0.053	0.425	0.637
남동구	1.379	2.759	0.131	4.269	0.131	0.033	0.164	0.328
동구	2.038	4.950	0.582	7.57	0.582	0.291	0.000	0.873
부평구	1.390	3.268	0.150	4.808	0.150	0.038	0.263	0.451
서구	0.915	3.140	0.030	4.085	0.030	0.030	0.061	0.121
연수구	0.688	2.430	0.138	3.256	0.138	0.046	0.321	0.505
중구	0.584	5.400	0.146	6.13	0.146	0.146	0.292	0.584
광주								
광산구	2.079	3.496	0.094	5.669	0.094	0.031	0.126	0.251
남구	3.823	3.345	0.239	7.407	0.239	0.080	0.000	0.319
동구	6.052	4.323	0.288	10.663	0.288	0.288	0.000	0.576
북구	4.849	3.772	0.290	8.911	0.290	0.041	0.166	0.497
서구	2.686	2.961	0.219	5.866	0.219	0.055	0.219	0.493
대전								
대덕구	2.934	5.262	0.000	8.196	0.405	0.000	0.405	0.81
동구	2.321	4.973	0.000	7.294	0.414	0.000	0.166	0.58
서구	0.990	3.393	0.071	4.454	0.212	0.000	0.283	0.495
유성구	0.933	3.987	0.127	5.047	0.085	0.042	0.212	0.339
중구	2.891	4.870	0.000	7.761	0.304	0.000	0.913	1.217

(표 III-3-3 계속)

구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유관 서비스 기관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계	사회 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계
울산								
남구	0.627	3.817	0.114	4.558	0.057	0.057	0.114	0.228
동구	1.002	4.007	0.000	5.009	0.200	0.000	0.000	0.2
북구	0.717	3.156	0.072	3.945	0.072	0.000	0.215	0.287
중구	0.652	4.400	0.000	5.052	0.081	0.000	0.081	0.162
평균	1.573	3.888	0.080	5.541	0.273	0.073	0.222	0.568

기관수
 주: 1) 공급률: $\frac{\text{각서비스유형별적용대상아동수}}{\text{각서비스유형별적용대상아동수}} * 1,000$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2) 공급률 산출 아동수 기준: 만7~12세로 입소기준 일괄 적용함.
 3) 공급률 산출을 위한 각 지역별 아동 수는 <부록1> 참조.
 자료: 1)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역아동센터 내부자료(2017. 12).
 2) 초등돌봄교실: 교육부(2017b). 내부자료.
 3) 공동육아나눔터: 여성가족부(2018d). 내부자료(2018. 8).
 4) 사회복지관: 보건복지부(2018c).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p. 313-327(2017. 12).
 5)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2017). 2017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pp. 167-170.
 6) 어린이도서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libsta.go.kr/libportal/libThree/libSearch/getLibSearchList.do> [도서관 찾기]-[도서관명: 어린이] (2018. 5. 4. 인출).
 7) 연령별 영유아 및 아동수: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2017. 2). (2018. 6. 7. 인출).

2) 중소도시 지역

중소도시 지역에서는 앞서 광역 시도별에서 높은 공급 수준을 나타낸 강원 지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평균 보다 높은 고른 공급 수준을 보였다.

특히 강원 태백시는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의 공급률이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고, 공동육아나눔터와 사회복지관의 공급은 저조한 반면, 어린이도서관의 공급 수준은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경기 지역의 공급 불균형도 두드러진다. 이를 테면 여주시의 경우는 돌봄서비스를 모두 합한 공급률이 10.033으로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나, 용인시는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공동육아나눔터의 공급 수준이 평균 보다 낮은 수준에 그쳐 중소도시 지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주시는 사회복지관과 어린이도서관의 공급률이 저조하여 돌봄 공백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유사하게 충남 계룡시는 돌봄서비스 전반의 공급 수준이 매우 낮고,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어린이도서관 모두 공급되지 않아 지역 내 돌봄 인프라의 확보와 이외 서비스와의 연

계 전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반면에 경남 통영시는 초등돌봄교실의 공급 수준이 월등히 높은 가운데, 지역아동센터는 물론 공동육아나눔터의 공급 수준도 평균보다 높아, 전체 돌봄서비스 공급률은 34,399로 전국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게다가 통영시에서는 유관 서비스 기관의 공급도 고르게 이루어져 돌봄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유리한 환경으로 진단된다.

표 III-3-4 중소도시 지역의 돌봄서비스/유관 서비스 기관 공급률

단위: %

구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유관 서비스 기관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계	사회 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계
전국	1.483	4.304	0.069	5.856	0.168	0.055	0.143	0.366
경기								
고양시	0.613	3.254	0.017	3.884	0.119	0.017	0.221	0.357
과천시	1.133	2.549	0.000	3.682	0.283	0.283	0.283	0.849
광명시	1.442	2.935	0.000	4.377	0.149	0.050	0.050	0.249
광주시	1.377	3.337	0.000	4.714	0.000	0.053	0.053	0.106
구리시	1.398	3.263	0.093	4.754	0.186	0.093	0.373	0.652
군포시	0.921	2.948	0.000	3.869	0.184	0.061	0.246	0.491
김포시	0.691	4.108	0.038	4.837	0.038	0.038	0.077	0.153
남양주시	1.169	3.440	0.000	4.609	0.090	0.022	0.157	0.269
동두천시	2.601	5.387	0.000	7.988	0.000	0.186	0.000	0.186
부천시	1.515	3.504	0.024	5.043	0.237	0.024	0.142	0.403
성남시	1.005	2.759	0.020	3.784	0.177	0.020	0.158	0.355
수원시	0.862	2.858	0.000	3.72	0.086	0.029	0.158	0.273
시흥시	1.559	3.236	0.156	4.951	0.234	0.039	0.078	0.351
안산시	1.748	3.576	0.000	5.324	0.134	0.027	0.376	0.537
안성시	1.020	7.416	0.093	8.529	0.093	0.093	0.000	0.186
안양시	0.750	2.675	0.000	3.425	0.130	0.033	0.326	0.489
양주시	1.341	5.213	0.149	6.703	0.074	0.074	0.074	0.222
여주시	2.112	7.569	0.352	10.033	0.000	0.176	0.000	0.176
오산시	0.642	3.020	0.000	3.662	0.193	0.064	0.064	0.321
용인시	0.405	2.777	0.014	3.196	0.014	0.014	0.098	0.126
의왕시	1.318	3.236	0.240	4.794	0.120	0.120	0.000	0.24
의정부시	1.108	3.154	0.043	4.305	0.043	0.043	0.085	0.171
이천시	1.137	5.306	0.000	6.443	0.000	0.076	0.227	0.303
파주시	0.732	5.995	0.035	6.762	0.035	0.035	0.139	0.209
평택시	1.169	4.332	0.000	5.501	0.069	0.034	0.172	0.275
포천시	1.350	7.156	0.000	8.506	0.135	0.135	0.135	0.405
하남시	0.855	2.955	0.078	3.888	0.156	0.078	0.078	0.312
화성시	0.579	3.550	0.037	4.166	0.075	0.019	0.093	0.187

(표 III-3-4 계속)

구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유관 서비스 기관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계	사회 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계
강원								
강릉시	1.897	5.311	0.095	7.303	0.095	0.000	0.000	0.095
동해시	2.721	3.304	0.583	6.608	0.194	0.194	0.000	0.388
삼척시	3.746	8.173	0.341	12.26	0.341	0.341	0.000	0.682
속초시	1.474	4.915	0.000	6.389	0.246	0.246	0.246	0.738
원주시	1.543	5.825	0.000	7.368	0.199	0.050	0.050	0.299
춘천시	2.176	4.880	0.066	7.122	0.198	0.000	0.264	0.462
태백시	4.675	8.075	0.000	12.75	0.000	0.000	0.425	0.425
충북								
제천시	1.378	5.357	0.306	7.041	0.153	0.153	0.000	0.306
청주시	1.539	3.477	0.060	5.076	0.160	0.020	0.100	0.28
충주시	3.309	4.821	0.095	8.225	0.095	0.095	0.189	0.379
충남								
계룡시	0.856	2.852	0.000	3.708	0.000	0.000	0.000	0.000
공주시	1.901	10.982	0.211	13.094	0.634	0.211	0.000	0.845
논산시	3.947	10.811	0.000	14.758	0.172	0.172	0.172	0.516
당진시	0.912	4.864	0.405	6.181	0.304	0.101	0.000	0.405
보령시	1.819	8.490	0.202	10.511	0.404	0.202	0.000	0.606
서산시	1.274	4.803	0.098	6.175	0.196	0.000	0.098	0.294
아산시	1.926	3.288	0.141	5.355	0.235	0.047	0.188	0.470
천안시	1.454	3.469	0.255	5.178	0.051	0.026	0.102	0.179
전북								
군산시	3.139	5.399	0.000	8.538	0.126	0.063	0.000	0.189
김제시	2.988	13.853	0.000	16.841	0.815	0.000	0.000	0.815
남원시	5.892	11.784	0.000	17.676	0.236	0.236	0.000	0.472
익산시	2.818	6.064	0.123	9.005	0.184	0.061	0.245	0.49
전주시	1.685	4.288	0.051	6.024	0.128	0.026	0.077	0.231
정읍시	5.286	9.114	0.000	14.400	0.182	0.182	0.000	0.364
전남								
광양시	1.923	4.702	0.107	6.732	0.000	0.107	0.107	0.214
나주시	4.754	6.141	0.000	10.895	0.198	0.000	0.000	0.198
목포시	2.824	4.506	0.067	7.397	0.202	0.067	0.067	0.336
순천시	2.767	4.592	0.059	7.418	0.118	0.059	0.000	0.177
여수시	2.644	4.495	0.000	7.139	0.264	0.066	0.000	0.330
경북								
경산시	1.788	4.042	0.155	5.985	0.078	0.000	0.000	0.078
경주시	2.149	6.283	0.083	8.515	0.083	0.000	0.000	0.083
구미시	1.864	3.317	0.112	5.293	0.075	0.037	0.000	0.112
김천시	1.808	7.081	0.151	9.040	0.151	0.151	0.151	0.453
문경시	3.343	7.690	0.000	11.033	0.334	0.000	0.000	0.334
상주시	1.891	13.240	0.000	15.131	0.236	0.236	0.000	0.472
안동시	1.353	6.025	0.123	7.501	0.123	0.123	0.246	0.492

(표 III-3-4 계속)

구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유관 서비스 기관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계	사회 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계
영주시	1.946	7.784	0.000	9.730	0.195	0.195	0.000	0.39
영천시	1.622	7.570	0.000	9.192	0.270	0.000	0.000	0.27
포항시	2.164	3.227	0.037	5.428	0.110	0.037	0.073	0.22
경남								
거제시	0.576	3.631	0.115	4.322	0.115	0.000	0.000	0.115
김해시	0.923	3.161	0.028	4.112	0.056	0.028	0.000	0.084
밀양시	4.299	6.561	0.226	11.086	0.226	0.226	0.000	0.452
사천시	1.090	5.137	0.000	6.227	0.467	0.000	0.467	0.934
양산시	0.811	2.838	0.051	3.700	0.101	0.000	0.051	0.152
진주시	1.149	4.046	0.000	5.195	0.150	0.050	0.250	0.45
통영시	9.280	24.748	0.371	34.399	0.742	0.371	0.247	1.36
창원시	0.137	0.584	0.034	0.755	0.034	0.017	0.000	0.051
제주								
제주시	0.846	3.937	0.033	4.816	0.228	0.033	0.098	0.359
서귀포시	4.039	6.058	0.000	10.097	0.303	0.101	0.000	0.404
세종								
세종시	0.559	4.564	0.373	5.496	0.093	0.047	0.047	0.187
평균	1.942	5.406	0.084	7.432	0.171	0.081	0.100	0.352

주: 1) 공급률: $\frac{\text{기관수}}{\text{각서비스유형별적용대상아동수}} * 1,000$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2) 공급률 산출 아동수 기준: 만7~12세로 입소기준 일괄 적용함.
- 3) 공급률 산출을 위한 각 지역별 아동 수는 <부록1> 참조.

자료: 1)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역아동센터 내부자료(2017. 12).

2) 초등돌봄교실: 교육부(2017b). 내부자료.

3) 공동육아나눔터: 여성가족부(2018d). 내부자료(2018. 8).

4) 사회복지관: 보건복지부(2018c).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p. 313-327(2017. 12).

5)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2017). 2017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pp. 167-170.

6) 어린이도서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libsta.go.kr/libportal/libThree/libSearch/getLibSearchList.do> [도서관 찾기]-[도서관명: 어린이] (2018. 5. 4. 인출).

7) 연령별 영유아 및 아동수: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2017. 2). (2018. 6. 7. 인출).

3) 군 지역

군 지역의 경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돌봄서비스 공급 수준이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인다. 특히 초등돌봄교실의 공급 수준이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여,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지역은 강원 증평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아동센터의 공급 수준도 대부분 지역에서 높으나, 공동육아나눔터의 공급 수준은 전반적으로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들 지역의 높은 돌봄서비스

공급률은 대상아동의 규모가 적은데 기인하므로, 이들 지역에서 돌봄서비스의 지리적 접근성은 여전히 우려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군 지역에서는 서비스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돌봄서비스의 공급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돌봄 공백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유관 서비스 기관의 공급률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아 아동돌봄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어린이도서관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된 경향이 뚜렷하여 대부분의 군 지역에서는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이를테면 전북 지역의 경우는 어린이도서관이 설치된 곳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관이 미설치된 지역도 다수 존재하여 군 지역의 특성에 반영된 민관 협력 방식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III-3-5 군 지역의 돌봄서비스/유관 서비스 기관 공급률

단위: %

구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유관 서비스 기관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계	사회 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계
전국	1.483	4.304	0.069	5.856	0.168	0.055	0.143	0.366
경기								
가평군	1.503	9.773	0.000	11.276	0.000	0.376	0.000	0.376
양평군	0.900	6.484	0.000	7.384	0.180	0.180	0.180	0.540
연천군	1.597	15.966	0.000	17.563	0.000	0.532	0.000	0.532
강원								
고성군	3.949	14.808	0.000	18.757	0.000	0.987	0.000	0.987
양구군	0.874	20.979	0.000	21.853	0.874	0.874	0.000	1.748
양양군	4.933	29.600	0.000	34.533	0.987	0.000	0.000	0.987
영월군	6.018	12.036	0.669	18.723	0.669	0.669	0.000	1.338
인제군	1.238	10.523	0.000	11.761	0.619	0.000	0.000	0.619
정선군	2.565	17.313	0.641	20.519	0.641	0.000	0.000	0.641
철원군	1.258	10.482	0.000	11.740	0.000	0.000	0.000	0.000
평창군	2.233	22.892	0.000	25.125	0.000	0.000	0.000	0.000
홍천군	1.323	10.911	0.000	12.234	0.331	0.000	0.331	0.662
화천군	1.729	19.023	0.000	20.752	0.865	0.000	0.865	1.730
횡성군	2.233	21.217	0.558	24.008	0.558	0.000	0.000	0.558
충북								
괴산군	7.898	16.674	0.000	24.572	0.000	0.000	0.000	0.000
단양군	5.133	13.687	0.000	18.820	0.000	0.000	0.000	0.000
보은군	5.766	17.298	0.000	23.064	0.000	0.000	0.000	0.000
영동군	4.857	11.333	0.000	16.190	0.000	0.000	0.000	0.000
옥천군	1.332	8.433	0.000	9.765	0.000	0.000	0.000	0.000

(표 III-3-5 계속)

구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유관 서비스 기관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계	사회 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계
음성군	3.729	9.322	0.000	13.051	0.000	0.000	0.414	0.414
증평군	1.819	2.729	0.000	4.548	0.910	0.000	0.000	0.91
진천군	1.680	5.760	0.240	7.68	0.240	0.240	0.000	0.48
충남								
금산군	5.470	9.678	0.421	15.569	0.000	0.000	0.000	0.000
부여군	2.292	10.313	0.382	12.987	0.000	0.000	0.000	0.000
서천군	6.073	18.725	0.000	24.798	0.000	0.506	0.000	0.506
예산군	3.495	15.886	0.000	19.381	0.000	0.318	0.000	0.318
청양군	2.837	22.695	0.000	25.532	0.000	0.000	0.000	0.000
태안군	3.047	11.046	0.381	14.474	0.000	0.381	0.381	0.762
홍성군	1.618	8.271	0.180	10.069	0.180	0.180	0.000	0.36
전북								
고창군	2.554	11.069	0.000	13.623	0.426	0.000	0.000	0.426
무주군	5.405	13.514	0.901	19.82	0.000	0.000	0.000	0.000
부안군	2.822	16.459	0.000	19.281	0.470	0.000	0.000	0.47
순창군	2.288	18.307	0.000	20.595	0.000	0.000	0.000	0.000
완주군	2.397	11.062	0.184	13.643	0.000	0.184	0.000	0.184
임실군	5.188	19.023	0.000	24.211	0.000	0.000	0.000	0.000
장수군	6.760	15.451	0.000	22.211	0.000	0.000	0.000	0.000
진안군	12.461	18.692	0.000	31.153	0.000	0.000	0.000	0.000
전남								
강진군	7.703	11.905	0.700	20.308	0.000	0.000	0.000	0.000
고흥군	7.809	10.106	0.000	17.915	0.000	0.000	0.000	0.000
곡성군	7.630	10.491	0.000	18.121	0.000	0.000	0.000	0.000
구례군	5.413	11.728	0.000	17.141	0.902	0.902	0.902	2.706
담양군	6.353	10.801	0.000	17.154	0.000	0.000	0.000	0.000
무안군	3.078	5.002	0.000	8.080	0.192	0.000	0.000	0.192
보성군	7.473	13.587	0.679	21.739	0.679	0.000	0.000	0.679
신안군	3.602	19.811	0.000	23.413	0.000	0.000	0.000	0.000
영광군	5.446	6.703	0.000	12.149	0.000	0.000	0.000	0.000
영암군	6.922	8.075	0.000	14.997	0.000	0.000	0.000	0.000
완도군	5.553	13.420	0.000	18.973	0.000	0.463	0.000	0.463
장성군	7.161	8.696	0.000	15.857	0.000	0.512	0.000	0.512
장흥군	6.934	11.346	0.630	18.91	0.630	0.630	0.000	1.26
진도군	5.564	13.514	0.000	19.078	0.000	0.000	0.000	0.000
함평군	10.729	11.623	0.000	22.352	0.000	0.000	0.000	0.000
해남군	8.904	9.893	0.000	18.797	0.330	0.330	0.000	0.66
화순군	5.122	7.682	0.320	13.124	0.000	0.000	0.320	0.32
경북								
고령군	3.976	11.133	0.000	15.109	0.000	0.000	0.000	0.000
군위군	1.848	25.878	0.000	27.726	0.000	0.000	0.000	0.000
봉화군	0.943	22.642	0.000	23.585	0.000	0.000	0.000	0.000

(표 III-3-5 계속)

구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유관 서비스 기관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계	사회 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계
성주군	3.056	15.279	0.000	18.335	0.764	0.000	0.000	0.764
영덕군	2.392	13.557	0.797	16.746	0.000	0.000	0.000	0.000
영양군	3.503	14.011	0.000	17.514	0.000	0.000	0.000	0.000
예천군	3.147	13.113	0.525	16.785	0.000	0.000	0.000	0.000
울릉군	3.268	35.948	0.000	39.216	0.000	0.000	0.000	0.000
울진군	0.919	14.243	0.459	15.621	0.000	0.000	0.000	0.000
의성군	4.489	14.216	0.000	18.705	0.000	0.748	0.000	0.748
청도군	1.652	16.522	0.826	19.000	0.000	0.826	0.826	1.652
청송군	0.000	18.923	0.000	18.923	0.000	0.000	0.000	0.000
칠곡군	1.396	5.304	0.000	6.700	0.000	0.140	0.000	0.140
경남								
거창군	4.928	7.884	0.329	13.141	0.329	0.000	0.000	0.329
고성군	2.194	9.655	0.000	11.849	0.439	0.000	0.000	0.439
남해군	4.735	12.175	0.676	17.586	0.676	0.000	0.676	1.352
산청군	3.397	15.287	0.849	19.533	0.000	0.849	0.000	0.849
의령군	3.434	19.462	0.000	22.896	2.290	1.145	0.000	3.435
창녕군	3.508	10.086	0.877	14.471	0.000	0.439	0.000	0.439
하동군	3.387	13.548	0.564	17.499	0.564	0.564	0.000	1.128
함안군	1.344	6.718	0.537	8.599	0.269	0.000	0.000	0.269
함양군	2.973	9.512	0.000	12.485	0.595	0.595	0.000	1.190
합천군	7.000	15.401	0.000	22.401	0.700	0.000	0.000	0.700
부산								
기장군	0.668	4.582	0.000	5.250	0.095	0.000	0.095	0.190
대구								
달성군	2.052	3.884	0.073	6.009	0.073	0.073	0.073	0.219
인천								
강화군	4.152	13.965	0.377	18.494	0.000	0.377	0.000	0.377
옹진군	1.406	28.129	0.000	29.535	1.406	0.000	0.000	1.406
울산								
울주군	1.213	5.155	0.000	6.368	0.227	0.076	0.000	0.303
평균	3.874	13.513	0.168	17.555	0.233	0.172	0.062	0.467

- 기관수
- 주: 1) 공급률: $\frac{\text{각서비스유형별적용대상아동수}}{\text{아동수}} * 1,000$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2) 공급률 산출 아동수 기준: 만7~12세로 입소기준 일괄 적용함.
- 3) 공급률 산출을 위한 각 지역별 아동 수는 <부록1> 참조.
- 자료: 1)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역아동센터 내부자료(2017. 12).
- 2) 초등돌봄교실: 교육부(2017b). 내부자료.
- 3) 공동육아나눔터: 여성가족부(2018d). 내부자료(2018. 8).
- 4) 사회복지관: 보건복지부(2018c).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p. 313-327(2017. 12).
- 5)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2017). 2017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pp. 167-170.
- 6) 어린이도서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libsta.go.kr/libportal/libThree/libSearch/getLibSearchList.do> [도서관 찾기]-[도서관명: 어린이] (2018. 5. 4. 인출).
- 7) 연령별 영유아 및 아동수: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2017. 2). (2018. 6. 7. 인출).

4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전국지역의 돌봄서비스 및 유관 서비스 기관의 공급 수준을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 시도별로 공급 수준의 격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지역규모별로는 도시 지역 특히 대도시 지역의 공급 수준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반면, 군 지역의 돌봄서비스 공급 수준은 전국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군 지역에서 특히 초등 돌봄교실의 공급률은 대도시 지역의 약 4배에 달하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도 도시 지역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공급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군 지역의 지리적 접근성은 매우 낮아 광범위한 돌봄 사각지대가 우려된다.

이 같은 돌봄서비스 기관의 지역간 공급 격차에 의하면, 지역중심 돌봄공동체의 수요는 돌봄서비스의 공급 수준이 낮아 돌봄 공백이 빈번하게 야기되는 지역과 돌봄서비스의 지리적 접근성이 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들 지역은 학교 중심의 돌봄서비스의 강화 이외에도 지역중심의 돌봄체계의 구축 노력이 보다 절실히 요구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돌봄서비스의 공급 수준 이외에도 유관 서비스의 분포도 지역별로 그 양상이 다양하였다. 군 지역에서는 유관 서비스 기관의 유형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공급 수준이 낮은 수준인 반면, 대도시 지역에는 기관유형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여 다양한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이 용이한 지역 환경으로 진단된다.

표 III-4-1 지역유형별 평균 돌봄서비스/유관 서비스 기관 공급률

단위: %

지역규모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유관 서비스 기관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계	사회 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계
전국	1.483	4.304	0.069	5.856	0.168	0.055	0.143	0.366
대도시	1.573	3.888	0.080	5.541	0.273	0.073	0.222	0.568
중소도시	1.942	5.406	0.084	7.432	0.171	0.081	0.100	0.352
군 지역	3.874	13.513	0.168	17.555	0.233	0.172	0.062	0.467

주: 1) 공급률: $\frac{\text{기관수}}{\text{각서비스유형별적용대상아동수}} * 1,000$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2) 공급률 산출 아동수 기준: 만7~12세로 입소기준 일괄 적용함.

- 3) 공급률 산출을 위한 각 지역별 아동 수는 〈부록1〉 참조.
 자료: 1)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역아동센터 내부자료(2017. 12).
 2) 초등돌봄교실: 교육부(2017b). 내부자료.
 3) 공동육아나눔터: 여성가족부(2018d). 내부자료(2018. 8).
 4) 사회복지관: 보건복지부(2018c).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p. 313-327(2017. 12).
 5)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2017). 2017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pp. 167-170.
 6) 어린이도서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libsta.go.kr/libportal/libThree/libSearch/getLibSearchList.do> [도서관 찾기]-[도서관명: 어린이] (2018. 5. 4. 인출).
 7) 연령별 영유아 및 아동수: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2017. 2). (2018. 6. 7. 인출).

다음으로 돌봄서비스 기관의 공급 수준에 따른 각 지역별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지역규모별로 전국 상위 10%와 하위 10%에 해당하는 지역을 각각 선별하되, 상위 10%와 하위 10%에 선정되었으나, 해당 지역의 전체 평균보다 낮은 지역과 평균보다 높은 지역(전체 공급률 합계 기준은 현황 1 / 돌봄서비스 유형별 적용 기준은 현황 2)은 해당 그룹에서 각각 제외하였다.

대도시 지역 중 돌봄서비스 상위 지역으로는 4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역은 각 서비스 기관이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들 기관에서 유관 서비스 기관의 공급 수준은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도서관의 설치에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돌봄서비스 기관의 공급 수준이 높은 지역은 대체로 유관 서비스 기관의 공급 수준도 높은 경향을 보이므로, 이들 기관의 돌봄 공백 해소는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돌봄공동체 활성화에 유리한 지역으로 파악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도시 지역 중 돌봄서비스 공급 수준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과 인천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특히 서울 서초구의 경우는 돌봄서비스 공급 수준이 전국의 대도시 지역들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일 뿐만 아니라, 유관 서비스 기관의 공급 수준도 가장 낮아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부모들의 고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표 III-4-2 ▮ 대도시 지역 중 돌봄서비스 공급 상위 10% 지역 현황 1

단위: %

구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유관 서비스 기관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계	사회 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계
전국	1.483	4.304	0.069	5.856	0.168	0.055	0.143	0.366
부산 동구	5.997	4.873	0.000	10.87	0.750	0.000	0.375	1.125

(표 III-4-2 계속)

구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유관 서비스 기관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계	사회 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계
부산 중구	3.299	4.948	0.000	8.247	0.825	0.000	0.000	0.825
대구 서구	5.312	4.218	0.156	9.686	0.312	0.156	0.469	0.937
대구 중구	2.089	5.919	0.348	8.356	0.696	0.348	0.000	1.044
광주 동구	6.052	4.323	0.288	10.663	0.288	0.288	0.000	0.576
광주 북구	4.849	3.772	0.290	8.911	0.290	0.041	0.166	0.497
평균	1.573	3.888	0.080	5.541	0.273	0.073	0.222	0.568

주: 1) 공급률: $\frac{\text{기관수}}{\text{각서비스유형별적용대상아동수}} * 1,000$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2) 공급률 산출 아동수 기준: 만7~12세로 입소기준 일괄 적용함.
 3) 공급률 산출을 위한 각 지역별 아동 수는 <부록1> 참조.
 자료: 1)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역아동센터 내부자료(2017. 12).
 2) 초등돌봄교실: 교육부(2017b). 내부자료.
 3) 공동육아나눔터: 여성가족부(2018d). 내부자료(2018. 8).
 4) 사회복지관: 보건복지부(2018c).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p. 313-327(2017. 12).
 5)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2017). 2017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pp. 167-170.
 6) 어린이도서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libsta.go.kr/libportal/libThree/libSearch/getLibSearchList.do> [도서관 찾기]-[도서관명: 어린이] (2018. 5. 4. 인출).
 7) 연령별 영유아 및 아동수: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2017. 2). (2018. 6. 7. 인출).

표 III-4-3 대도시 지역 중 돌봄서비스 공급 상위 10% 지역 현황 2

단위: %

구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유관 서비스 기관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계	사회 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계
전국	1.483	4.304	0.069	5.856	0.168	0.055	0.143	0.366
대구 서구	5.312	4.218	0.156	9.686	0.312	0.156	0.469	0.937
대구 중구	2.089	5.919	0.348	8.356	0.696	0.348	0.000	1.044
광주 동구	6.052	4.323	0.288	10.663	0.288	0.288	0.000	0.576
광주 북구	4.849	3.772	0.290	8.911	0.290	0.041	0.166	0.497
평균	1.573	3.888	0.080	5.541	0.273	0.073	0.222	0.568

주: 1) 공급률: $\frac{\text{기관수}}{\text{각서비스유형별적용대상아동수}} * 1,000$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2) 공급률 산출 아동수 기준: 만7~12세로 입소기준 일괄 적용함.
 3) 공급률 산출을 위한 각 지역별 아동 수는 <부록1> 참조.
 자료: 1)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역아동센터 내부자료(2017. 12).
 2) 초등돌봄교실: 교육부(2017b). 내부자료.
 3) 공동육아나눔터: 여성가족부(2018d). 내부자료(2018. 8).
 4) 사회복지관: 보건복지부(2018c).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p. 313-327(2017. 12).
 5)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2017). 2017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pp. 167-170.
 6) 어린이도서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libsta.go.kr/libportal/libThree/libSearch/getLibSearchList.do> [도서관 찾기]-[도서관명: 어린이] (2018. 5. 4. 인출).
 7) 연령별 영유아 및 아동수: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2017. 2). (2018. 6. 7. 인출).

【 표 III-4-4 】 대도시 지역 중 돌봄서비스 기관 공급 하위 10% 지역 현황

단위: %

구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유관 서비스 기관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계	사회 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계
전국	1.483	4.304	0.069	5.856	0.168	0.055	0.143	0.366
서울 강남구	0.068	2.908	0.034	3.010	0.205	0.034	0.068	0.307
서울 서초구	0.226	2.371	0.038	2.635	0.151	0.038	0.038	0.227
서울 송파구	0.468	2.927	0.029	3.424	0.176	0.029	0.117	0.322
대구 수성구	0.616	2.356	0.109	3.081	0.181	0.036	0.072	0.289
인천 남구	0.796	2.442	0.159	3.397	0.159	0.053	0.425	0.637
인천 연수구	0.688	2.430	0.138	3.256	0.138	0.046	0.321	0.505
평균	1.573	3.888	0.080	5.541	0.273	0.073	0.222	0.568

- 주: 1) 공급률: $\frac{\text{기관수}}{\text{각서비스유형별적용대상아동수}} * 1,000$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2) 공급률 산출 아동수 기준: 만7~12세로 입소기준 일괄 적용함.
 3) 공급률 산출을 위한 각 지역별 아동 수는 <부록1> 참조.
 자료: 1)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역아동센터 내부자료(2017. 12).
 2) 초등돌봄교실: 교육부(2017b). 내부자료.
 3) 공동육아나눔터: 여성가족부(2018d). 내부자료(2018. 8).
 4) 사회복지관: 보건복지부(2018c).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p. 313-327(2017. 12).
 5)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2017). 2017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pp. 167-170.
 6) 어린이도서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libsta.go.kr/libportal/libThree/libSearch/getLibSearchList.do> [도서관 찾기]-[도서관명: 어린이] (2018. 5. 4. 인출).
 7) 연령별 영유아 및 아동수: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2017. 2). (2018. 6. 7. 인출).

다음으로 중소도시 지역의 경우는 상위지역 10% 지역 중 평균 보다 높은 지역은 통영시가 유일하여, 전반적으로 저조한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공급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돌봄서비스 기관의 공급 수준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지역은 총 7개 지역으로, 대체로 돌봄서비스 전반의 공급이 취약하고, 공동육아나눔터의 공급이 전무한 지역이 포함 된다. 이들 지역은 전반적으로 돌봄서비스 공급이 취약하여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나, 지역 내에 동원할 수 있는 유관 서비스도 취약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테면 계룡시의 경우는 공동육아나눔터의 미설치를 포함하여 돌봄서비스 전반의 공급 수준이 전국 대비 턱없이 낮은 수준에 그칠 뿐만 아니라(0.856), 사회복지관 등 유관 서비스 기관의 공급도 저조하여 동원 가능한 지역 내 자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파악된다.

표 III-4-5 중소도시 지역 중 돌봄서비스 공급 상위 10% 지역 현황 1

단위: %

구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유관 서비스 기관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계	사회 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계
전국	1.483	4.304	0.069	5.856	0.168	0.055	0.143	0.366
공주시	1.901	10.982	0.211	13.094	0.634	0.211	0.000	0.845
논산시	3.947	10.811	0.000	14.758	0.172	0.172	0.172	0.516
김제시	2.988	13.853	0.000	16.841	0.815	0.000	0.000	0.815
남원시	5.892	11.784	0.000	17.676	0.236	0.236	0.000	0.472
정읍시	5.286	9.114	0.000	14.400	0.182	0.182	0.000	0.364
상주시	1.891	13.240	0.000	15.131	0.236	0.236	0.000	0.472
통영시	9.280	24.748	0.371	34.399	0.742	0.371	0.247	1.360
평균	1.942	5.406	0.084	7.432	0.171	0.081	0.100	0.352

- 기관수
- 주: 1) 공급률: $\frac{\text{각서비스유형별적용대상아동수}}{\text{각서비스유형별적용대상아동수}} * 1,000$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2) 공급률 산출 아동수 기준: 만7~12세로 입소기준 일괄 적용함.
- 3) 공급률 산출을 위한 각 지역별 아동 수는 <부록1> 참조.
- 자료: 1)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역아동센터 내부자료(2017. 12).
- 2) 초등돌봄교실: 교육부(2017b). 내부자료.
- 3) 공동육아나눔터: 여성가족부(2018d). 내부자료(2018. 8).
- 4) 사회복지관: 보건복지부(2018c).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p. 313-327(2017. 12).
- 5)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2017). 2017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pp. 167-170.
- 6) 어린이도서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libsta.go.kr/libportal/libThree/libSearch/getLibSearchList.do> [도서관 찾기]-[도서관명: 어린이] (2018. 5. 4. 인출).
- 7) 연령별 영유아 및 아동수: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2017. 2). (2018. 6. 7. 인출).

표 III-4-6 중소도시 지역 중 돌봄서비스 공급 상위 10% 지역 현황 2

단위: %

구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유관 서비스 기관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계	사회 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계
전국	1.483	4.304	0.069	5.856	0.168	0.055	0.143	0.366
통영시	9.280	24.748	0.371	34.399	0.742	0.371	0.247	1.360
평균	1.942	5.406	0.084	7.432	0.171	0.081	0.100	0.352

- 기관수
- 주: 1) 공급률: $\frac{\text{각서비스유형별적용대상아동수}}{\text{각서비스유형별적용대상아동수}} * 1,000$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2) 공급률 산출 아동수 기준: 만7~12세로 입소기준 일괄 적용함.
- 3) 공급률 산출을 위한 각 지역별 아동 수는 <부록1> 참조.
- 자료: 1)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역아동센터 내부자료(2017. 12).
- 2) 초등돌봄교실: 교육부(2017b). 내부자료.
- 3) 공동육아나눔터: 여성가족부(2018d). 내부자료(2018. 8).
- 4) 사회복지관: 보건복지부(2018c).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p. 313-327(2017. 12).
- 5)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2017). 2017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pp. 167-170.
- 6) 어린이도서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libsta.go.kr/libportal/libThree/libSearch/getLibSearchList.do> [도서관 찾기]-[도서관명: 어린이] (2018. 5. 4. 인출).
- 7) 연령별 영유아 및 아동수: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2017. 2). (2018. 6. 7. 인출).

【 표 III-4-7 】 중소도시 지역 중 돌봄서비스 공급 하위 10% 지역 현황

단위: %

구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유관 서비스 기관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계	사회 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계
전국	1.483	4.304	0.069	5.856	0.168	0.055	0.143	0.366
과천시	1.133	2.549	0.000	3.682	0.283	0.283	0.283	0.849
안양시	0.750	2.675	0.000	3.425	0.130	0.033	0.326	0.489
오산시	0.642	3.002	0.000	3.662	0.193	0.064	0.064	0.321
용인시	0.405	2.777	0.014	3.196	0.014	0.014	0.098	0.126
계룡시	0.856	2.852	0.000	3.708	0.000	0.000	0.000	0.000
양산시	0.811	2.838	0.051	3.700	0.101	0.000	0.051	0.152
통합창원시	0.137	0.584	0.034	0.755	0.034	0.017	0.000	0.051
평균	1.942	5.406	0.084	7.432	0.171	0.081	0.100	0.352

주: 1) 공급률: $\frac{\text{기관수}}{\text{각서비스유형별적용대상아동수}} * 1,000$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2) 공급률 산출 아동수 기준: 만7~12세로 입소기준 일괄 적용함.
 3) 공급률 산출을 위한 각 지역별 아동 수는 <부록1> 참조.
 자료: 1)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역아동센터 내부자료(2017. 12).
 2) 초등돌봄교실: 교육부(2017b). 내부자료.
 3) 공동육아나눔터: 여성가족부(2018d). 내부자료(2018. 8).
 4) 사회복지관: 보건복지부(2018c).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p. 313-327(2017. 12).
 5)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2017). 2017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pp. 167-170.
 6) 어린이도서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libsta.go.kr/libportal/libThree/libSearch/getLibSearchList.do> [도서관 찾기]-[도서관명: 어린이] (2018. 5. 4. 인출).
 7) 연령별 영유아 및 아동수: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2017. 2). (2018. 6. 7. 인출).

【 표 III-4-8 】 농어촌 지역 중 돌봄서비스 공급 상위 10% 지역 현황

단위: %

구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유관 서비스 기관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계	사회 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계
전국	1.483	4.304	0.069	5.856	0.168	0.055	0.143	0.366
양평군	0.900	6.484	0.000	7.384	0.180	0.180	0.180	0.540
증평군	1.819	2.729	0.000	4.548	0.910	0.000	0.000	0.910
진천군	1.680	5.706	0.240	7.680	0.240	0.240	0.000	0.480
무안군	3.078	5.002	0.000	8.080	0.192	0.000	0.000	0.192
칠곡군	1.396	5.304	0.000	6.700	0.000	0.140	0.000	0.140

(표 III-4-8 계속)

구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유관 서비스 기관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계	사회 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계
기장군	0.668	4.582	0.000	5.250	0.095	0.000	0.095	0.19
달성군	2.052	3.884	0.073	6.009	0.073	0.073	0.073	0.219
울주군	1.213	5.155	0.000	6.368	0.227	0.076	0.000	0.303
평균	3.874	13.513	0.168	17.555	0.233	0.172	0.062	0.467

기관수
 주: 1) 공급률: $\frac{\text{각서비스 유형별 적용대상아동수}}{\text{기관수}} * 1,000$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2) 공급률 산출 아동수 기준: 만7~12세로 입소기준 일괄 적용함.
 3) 공급률 산출을 위한 각 지역별 아동 수는 <부록1> 참조.
 자료: 1)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역아동센터 내부자료(2017. 12).
 2) 초등돌봄교실: 교육부(2017b). 내부자료.
 3) 공동육아나눔터: 여성가족부(2018d). 내부자료(2018. 8).
 4) 사회복지관: 보건복지부(2018c).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p. 313-327(2017. 12).
 5)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2017). 2017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pp. 167-170.
 6) 어린이도서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libsta.go.kr/libportal/libThree/libSearch/getLibSearchList.do> [도서관 찾기]-[도서관명: 어린이] (2018. 5. 4. 인출).
 7) 연령별 영유아 및 아동수: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2017. 2). (2018. 6. 7. 인출).

군 지역의 경우는 상위 10%지역 모두에서 공동육아나눔터가 미설치되는 등으로 평균보다 공급률이 낮아 해당 지역이 전무하였다. 돌봄서비스 공급 하위 10% 지역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의 공급 수준이 해당 지역 내 평균에 비해 월등히 낮고,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도 낮은 공급률을 보이며, 공동육아나눔터가 미설치된 지역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앞서 다룬 바와 같이 전국 대비 군 지역의 돌봄 서비스 공급 수준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여, 해당 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 그리고 이들 기관을 종합한 돌봄서비스 공급 수준이 전국대비 높은 지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돌봄서비스 기관의 공급이 해당 지역 내는 물론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지역(증평균)의 경우에도 사회복지관의 공급 수준은 높아 돌봄 인프라 설치 등 돌봄체계 구축 전반에서 해당 기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III-4-9 농어촌 지역 중 돌봄서비스 공급 하위 10% 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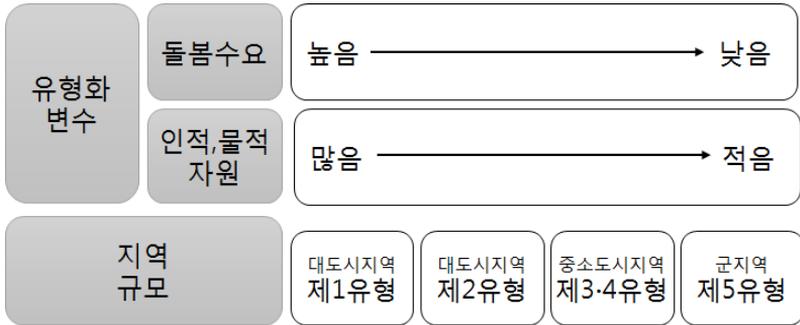
구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유관 서비스 기관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계	사회 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계
전국	1.483	4.304	0.069	5.856	0.168	0.055	0.143	0.366
양평군	0.900	6.484	0.000	7.384	0.180	0.180	0.180	0.540
증평군	1.819	2.729	0.000	4.548	0.910	0.000	0.000	0.910
진천군	1.680	5.760	0.240	7.680	0.240	0.240	0.000	0.480
무안군	3.078	5.002	0.000	8.080	0.192	0.000	0.000	0.192
칠곡군	1.396	5.304	0.000	6.700	0.000	0.140	0.000	0.140
부산 기장군	0.668	4.582	0.000	5.250	0.095	0.000	0.095	0.190
대구 달성군	2.052	3.884	0.073	6.009	0.073	0.073	0.073	0.219
울주군	1.213	5.155	0.000	6.368	0.227	0.076	0.000	0.303
평균	3.874	13.513	0.168	17.555	0.233	0.172	0.062	0.467

주: 1) 공급률: $\frac{\text{기관수}}{\text{각서비스유형별적용대상아동수}} * 1,000$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2) 공급률 산출 아동수 기준: 만7~12세로 입소기준 일괄 적용함.
 3) 공급률 산출을 위한 각 지역별 아동 수는 <부록1> 참조.
 자료: 1)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역아동센터 내부자료(2017. 12).
 2) 초등돌봄교실: 교육부(2017b). 내부자료.
 3) 공동육아나눔터: 여성가족부(2018d). 내부자료(2018. 8).
 4) 사회복지관: 보건복지부(2018c).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p. 313-327(2017. 12).
 5)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2017). 2017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pp. 167-170.
 6) 어린이도서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libsta.go.kr/libportal/libThree/libSearch/getLibSearchList.do> [도서관 찾기]-[도서관명: 어린이] (2018. 5. 4. 인출).
 7) 연령별 영유아 및 아동수: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2017. 2). (2018. 6. 7. 인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각 지역의 돌봄서비스 수요와 지역 내 자원(물리적 공간, 인적 자원)에 따라 민관 협력 방식을 구분하여 제시하면 이하의 그림 III-4-1과 같다.

돌봄서비스 공급 수준이 낮은 지역이 지역중심 돌봄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이므로,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을 기준으로 지역규모별로 제1~5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대도시 지역의 경우 돌봄 수요가 높으나, 이외 서비스 기관의 공급 수준은 높은 지역(제1유형)과 낮은 지역(제2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중소도시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분된다(제3, 4유형), 군 지역의 경우는 적은 영유아 규모로 돌봄서비스 공급 수준이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실제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군 지역에서 이외 서비스 기관의 공급 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으므로 한 가지 유형만으로 구분할 수 있다(제5유형).

|| 그림 III-4-1 || 돌봄 수요와 지역 내 자원에 따른 지역 유형화



IV

지역 중심 돌봄공동체 지원 및 운영 사례

1. 사례 유형 1
2. 사례 유형 2
3. 사례 유형 3
4. 사례 유형 4
5. 사례 유형 5
6. 소결



IV. 지역 중심 돌봄공동체 지원 및 운영 사례

이 장에서는 아동 돌봄의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 돌봄공동체 지원 및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민관 협력의 차별화된 방식에 주목하여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사례들은 앞 장에서 지역규모별 돌봄서비스 및 지역 내 주요 자원(유관 서비스 기관)의 공급수준에 따른 지역유형들을 고르게 선정되었다(표 IV-1 참조). 우선 대도시 지역에 속하는 서울 S구, N구, M구 지역은 모두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공급 수준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아 돌봄 수요가 높으나, M구 지역은 유관 서비스 기관의 공급 수준도 동시에 낮다(제2유형). 그리고 중소도시 지역에 해당하는 경기 G시, GM시, S시는 모두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이나 GM시와 S시는 유관 서비스 기관의 공급 수준도 동시에 낮다(제4유형). 마지막으로 충북 D군은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공급 수준은 높으나 군 지역의 특성상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돌봄 공백이 우려되며, 유관 서비스 기관의 공급 수준은 매우 낮다(제5유형).

▮ 표 IV-1 ▮ 사례조사 지역의 돌봄서비스 및 유관서비스 공급 현황

유형	지역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유관 서비스 기관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계	사회 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계
	전국	1.483	4.304	0.069	5.856	0.168	0.055	0.143	0.366
1	서울 S구	1.178	3.307	0.045	4.530	0.226	0.045	0.226	0.497
	서울 N구	0.612	3.808	0.034	4.454	0.306	0.034	0.068	0.408
2	서울 M구	0.631	4.130	0.057	4.818	0.115	0.057	0.115	0.287
3	경기 G시	1.133	2.549	0.000	3.682	0.283	0.283	0.283	0.849

(표 IV-1 계속)

유형	지역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유관 서비스 기관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계	사회 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계
4	경기 GM시	1.442	2.935	0.000	4.377	0.149	0.050	0.050	0.249
	경기 S시	0.862	2.858	0.000	3.72	0.086	0.029	0.158	0.273
5	충북 D군	5.133	13.687	0.000	18.82	0.000	0.000	0.000	0.000
	평균	1.570	4.753	0.019	6.343	0.166	0.071	0.129	0.366

주: 1) 공급률: $\frac{\text{기관수}}{\text{각서비스유형별 적용대상아동수}} * 1,000$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2) 공급률 산출 아동수 기준: 만7~12세로 입소기준 일괄 적용함.
 3) 공급률 산출을 위한 각 지역별 아동 수는 <부록1> 참조.
 자료: 1)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역아동센터 내부자료(2017. 12).
 2) 초등돌봄교실: 교육부(2017b). 내부자료.
 3) 공동육아나눔터: 여성가족부(2018d). 내부자료(2018. 8).
 4) 사회복지관: 보건복지부(2018c).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p. 313-327(2017. 12).
 5)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2017). 2017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pp. 167-170.
 6) 어린이도서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libsta.go.kr/libportal/libThree/libSearch/getLibSearchList.do> [도서관 찾기]-[도서관명: 어린이] (2018. 5. 4. 인출).
 7) 연령별 영유아 및 아동수: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2017. 2). (2018. 6. 7. 인출).

1 사례 유형 1

가. 서울 S구(1)

서울 S구청 내부자료(2018)와 S구 아동청소년센터 실무자, 틈새돌봄센터(꿈터 작은도서관) 사업 운영자와의 심층면담 결과는 이하와 같다.

1) 추진 배경 및 경과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서울 S구의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은 사회적으로 방과후 및 방학중 돌봄 수요가 증가되면서 사회적 돌봄망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모색되었다(서울 성북구청, 2018: 14). 2017년 S구 사회조사에 따르면, S구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설학원 이용율이 높고,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고등학생이 77.2만원, 중학생 48.7만원, 초등학생 33.8만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S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수는 1,632명으로 S구 지역 내 초등학교의 약 7.4%를 차지하여 돌봄망이 절실하다고 진단된다. 이에 따라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망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서울 성북구청, 2018: 4-5).

나) 주요 경과

서울 S구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확대와 분절적인 돌봄체계 통합을 위해 2013년에 S아동청소년센터를 설치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에는 ‘S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맞벌이 가정을 우선돌봄 대상에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센터와 구립돌봄센터 업무를 추진해왔다(서울 성북구청, 2018: 5). 2012년부터 2014년에는 권역별 구립돌봄센터 4개소를 설치하여 지역아동센터의 거점 기능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였다(서울 성북구청, 2018: 5). 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마당, 소통의 공간 조성 등과 ‘우리마을 도서관과 함께하는 돌봄’사업,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통합 아동 돌봄망 확대 운영’을 추진하였다(서울 성북구청, 2018: 6).

2016년 이후로는 지역사회(공동체) 연계 협력을 강화하였다. 돌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S강북돌봄협의체를 구성하고 S강북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담당하였다. 워크숍 및 연수를 통한 돌봄실무자 역량 강화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권역별 협의회의 돌봄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나눔 공부방’을 운영하였다. 또한 촘촘한 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해 지역 돌봄기관 간의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

2016년부터 2017년에는 안전한 마을품 틈새돌봄 사업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추진단을 운영하였으며, 2018년에는 지역사회 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협력기구로서 S구 돌봄망 구축을 위한 T/F를 설치하고 틈새돌봄추진단과 관련기관 전문가 1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서울 성북구청, 2018: 7). 2015년부터 2018년에는 아동돌봄박람회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돌봄기관(초등돌봄교실 포함)이 모두 모여 돌봄기관 간에 주민들 대상으로 정보 공유 및 연계 협력을 강화하였다(서울 성북구청, 2018: 7-8).

2) 주요 사업내용

서울 S구는 시간대 별 촘촘한 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한 돌봄체계로서, 울타리형과 등지형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울타리형은 방과 후부터 17시까지 안전한 마을 및 학교울타리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돌봄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등지형은 대부분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간인 17시부터 학부모의 귀가시간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돌봄프로그램을 통한 안전한 보호중심의 돌봄이다(서울 성북구청, 2018: 3).

S구는 마을권역 내 돌봄시설 간 통합 운영협의체 구성하여 실질적인 돌봄 수요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이용시설을 매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중장기적인 돌봄시설의 확대 계획도 수립하였다(서울 성북구청, 2018: 3).

▣ 표 IV-1-1 ▣ 서울 S구_온종일 돌봄망 구축 전략 및 목표

전략	목표
돌봄시설의 확대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목표: 총50개소, 1,250명(틈새돌봄기관 전환 10개, 초등돌봄 20개, 어린이집 전환 20개) - 1단계(2018년): 기존 틈새돌봄기관의 정비와 확대를 통한 시설 확대 - 2단계(2019년): 초등돌봄교실의 확대 - 3단계(2020년): 어린이집의 구립돌봄센터로의 전화유도(관련 조례제정을 전제)
돌봄 수요조사 및 시설 연계방안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통계학적·돌봄수요 변화 추이에 기반한 중장기적 돌봄망 구축 계획 수립 □ 모든 대상 아동의 입학·새학년 시작 전 사전 돌봄수요 조사와 사전 돌봄 이용시설 매칭 - 미취학 아동 수요조사 □ 학부모 중심의 돌봄시설 견학프로그램 운영
온종일 돌봄마을 통합망 구축 및 시스템 혁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권역내 돌봄시설간 통합 운영협의체 구성 - 돌봄시설간 서비스 격차 해소: 보편성 기반위에 다양성·차별화 추진 - 년차별 공동사업계획 수립 및 공동·연계·교차 프로그램 확대 □ 돌봄체계 및 구조 혁신 - 방과후 ~17:00: 울타리형 돌봄으로 통합 - 17:00~21:00: 등지형 돌봄으로 정립

자료: 서울 성북구청(2018). 내부자료: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사업계획서. p. 3.

돌봄 인프라의 확충은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이외에도 S구 특화사업인 틈새돌봄사업을 통해 추진해왔다. 이에 더하여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였으며 미지원 민간시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돌봄시설의 지역 자산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돌봄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청소년의 숲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소년전용 돌봄시설을 지원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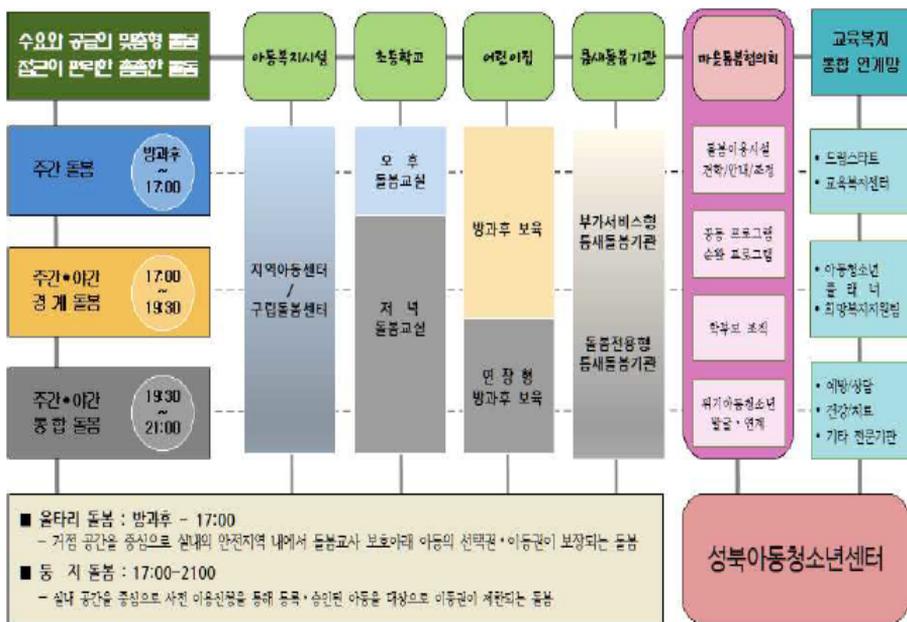
고, 장애아동 통합돌봄 운영시설인 ‘나무와 열매 사회적협동조합’의 구립센터화 컨설팅을 진행하였다(서울 성북구청, 2018: 11). 그 밖에도 S돌봄/복지/문화·예술/정서/공공기관 기관정보, 프로그램 정보 공유 플랫폼인 아동청소년통합정보망 (<http://cnyinfo.sb.go.kr>)을 구축하여 630여개(어린이집 320여개 포함) 자원 정보, 지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서울 성북구청, 2018: 12).

3) 추진체계 및 서비스 연계

가) 추진체계

서울 S구는 분절적인 돌봄체계를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통합하여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돌봄 전담조직(아동청소년센터)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돌봄 전담조직은 돌봄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업무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였다(서울 성북구청, 2018: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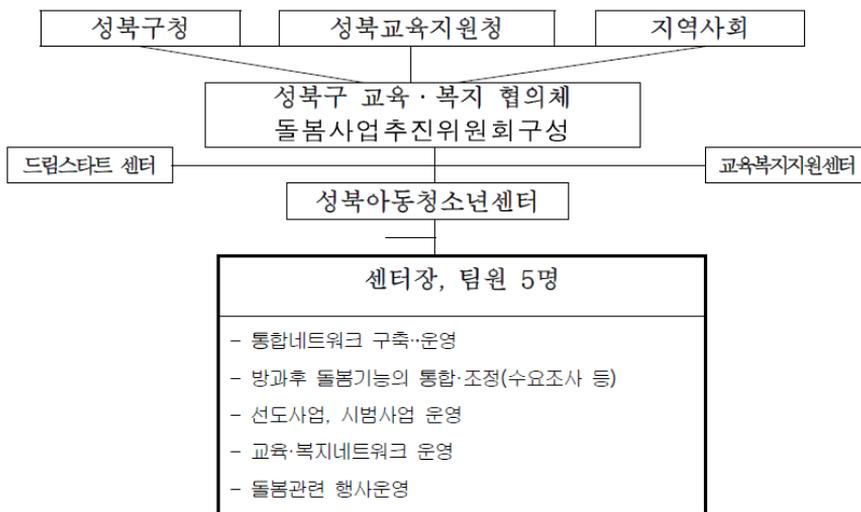
그림 IV-1-1 서울 S구_개별 아동·학교·마을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모델



자료: 서울 성북구청(2018). 내부자료: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사업계획서. p. 2.

이와 더불어 사업추진위원회를 신설하였는데,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고,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돌봄협의회의 기능과 연계 또는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지원청(국장) 위원 및 학교장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서울 성북구청, 2018: 14-15).

■ 그림 IV-1-2 ■ 서울 S구_돌봄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조직개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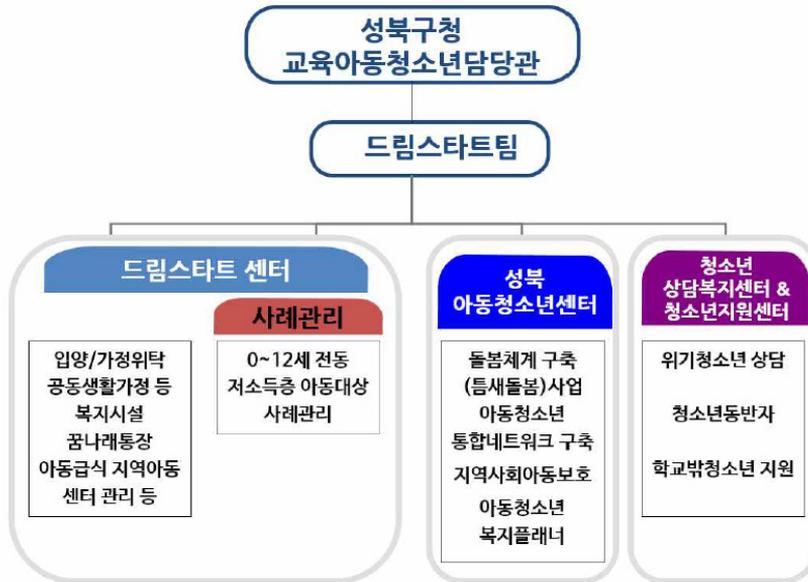


자료: 서울 성북구청(2018). 내부자료: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사업계획서. p. 34.

나)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S구는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통해 양성된 틈새돌봄 기관 및 프로그램 지원 인력 (마을교사 등)등 인프라를 연계, 활용하여 S형 혁신교육프로젝트 ‘학교-마을 연계 S형 돌봄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IV-1-3 서울 S구_아동청소년센터 조직도



자료: 서울 성북구청(2018). 내부자료: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사업계획서. p. 34.

2016년 예비 혁신교육지구 사업부터 2018년 서울형 혁신교육사업을 통해 틈새돌봄사업을 육성하여 2015년 9개소에서 2018년에는 15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서울 성북구청, 2018: 8). 이외에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사각지대 아동 발굴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아동청소년복지 플래너’를 모든동에 배치하여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공무원에 의한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확장을 기하였다(서울 성북구청, 2018: 9).

4)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향후로는 사업평가를 위한 관련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매년 1월 중에 전년도 사업평가 및 당해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돌봄 관련자 및 시설 전체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내 지속가능한 돌봄망 운영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간의 방과후 돌봄 및 방

과후 학교의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서울 성북구청, 2018: 20).

또한 S구청은 모든 초등학교에 별도 마을돌봄협의체와 아동·학교 중심의 마을 권역 내 모든 돌봄시설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중 공동사업 계획의 수립 및 추진하고, 공동·교차·연계 프로그램 수행, 학부모 모임을 공동 구성하여 돌봄서비스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다(서울 성북구청, 2018: 16-17). 초등돌봄교실·지역아동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틈새돌봄 전용 기관 등 모든 등지 돌봄시설의 통합운영 매뉴얼과 울타리형 돌봄 운영매뉴얼도 개발할 예정이다(서울 성북구청, 2018: 17). 그 밖에도 슈퍼바이저 배치, 돌봄종사자 자조모임의 구성 및 운영 지원, 돌봄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등도 계획하고 있다(서울 성북구청, 2018: 16-17).

나. 서울 S구(2)

서울 S구 ‘별별재미난교실’(우리동네키움센터, 이하 별별교실) 내부자료(2018)와 별별교실의 운영자(S구 민관 협력 사회적경제특구추진단), 돌봄교사와의 심층면담 결과는 이하와 같다.

1) 추진 배경 및 경과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S구 사회적경제특구 사업은 ‘마을사회적경제 융합형 도시재생’을 목표로 하며, 그 핵심은 지속적 도시재생을 위한 수익 모델을 구축하여 이와 연계된 지역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 지역인 장위1동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새로 들어서지 못하여 돌봄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또한 비정규직 형태의 소득활동이 많아 저소득층 위주의 돌봄시설 이용자격을 증빙에도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존재한다. 대상지역 내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의 수용인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이용시간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진단된다(성북구 사회적특구추진단, 2018: 2-3).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역은 저층주거 밀집 지역으로 일자리와 교육, 돌봄 문

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목표가 강조된다(성북구 사회적특구추진단, 2018: 1).

이에 따라 동 사업은 지역돌봄 수요를 확인하고 돌봄시설의 확충의 필요성을 공론화하여, 지역돌봄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체를 발굴, 육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놀이와 돌봄을 결합한 대안적인 방과후 돌봄 활동을 통해 도시재생지역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성북구 사회적특구추진단, 2018: 1). 이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내 돌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 내 아동안전망을 구축하고, S구 마을사회적 경제조직들과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성북구 사회적특구추진단, 2018: 3).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경제활동을 지원하며, 돌봄 및 연계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추구한다(서울 성북구 사회적특구추진단, 2018: 2).

나) 사업 추진 경과

S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한 틈새돌봄사업은 S구 조례에 근거한 마을사회적경제센터가 운영한다. 이들 조직은 2015년 이후 마을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허브 센터가 통합된 것으로, 2016년부터는 돌봄교실의 운영해왔으며, 이 사업의 지속하기 위해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도시재생 지역에서 주민들의 힘을 조직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3개년 동안 사회적경제특구사업을 진행해왔으며, 해결 과제 중 하나로서 초등학생 돌봄 문제가 포함되었다. 2016년 당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모 조직화를 기하였으나,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없는 형편의 가정들이 많아, 공동육아 방식이 힘든 상황으로 진단되었다. 기존의 틈새돌봄교실은 사회적경제센터의 특구사업으로 2018년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돌봄 수요는 지속되어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작년 말부터 그 해법을 찾고 있었으나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부모주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6월부터 초등틈새돌봄 시범사업단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2017년 1월에 지도교사 1인을 추가로 채용하였으며, 2017년 2월 신입생 학부모 설명회, 2017년 11월 1

학년 신입생 모집과 별별교실 학부모 회의 등을 개최하였다(서울 성북구 별별재미난교실, 2018: 2-5).

2) 주요 사업내용

우리동네키움센터(별별재미난교실)은 운영 시작 이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을 보완하고, 이용자를 모집하였으며, 올해 7월에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다. 돌봄 인프라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였으며, 이때 안전시설 등을 개선하였다. 사업 대상은 별도 자격의 제한없이 지역 내 초등학교 1~6학년 재학생 45명으로, 한 달에 3번 이하 이용 시는 정원에서 제외되며 재이용 신청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13시부터 18시까지 이고, 방학 중에는 12시부터 18시까지이며, 토요일을 비롯한 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이 지역에 봉제공장이 많고 성수기가 따로 있어 토요일 근무가 많아 야간과 토요일봉 수요도 존재하므로 토요일에는 다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있다고 한다.

서비스 내용은 생활지도, 놀이지도, 숙제지도, 독서지도, 간식 제공 등이다. 화, 목요일은 외부 강사에 의해 진행되는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강사와 플래닝 코치라고 해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강사를 활용하고 있다. 이들 강사에 대해서는 1시간 반에서 2시간당 5만원을 지급하고, 놀이 해주는 선생님은 2시간에 2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저녁 시간대는 2시간 근무하는 교사는 정기적으로 아이들과 놀아주고, 이외 교사들은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추진체계 및 서비스 연계

가) 추진체계

돌봄교실은 S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채용한 상근 1인과 시간제 2인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센터가 운영하는 돌봄센터의 장점으로는 특히 도시재생지역의 경우 공동체가 해체되어 온 과정을 경험한 지역이므로, 공동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부활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로 생겨난 공간을 돌봄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광

역시의 공모사업은 지역 내 서비스 연계 시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언급된다. 이를 테면 별별재미난교실이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지정된 이후로는 학교와의 다양한 연 계가 가능해졌다고 한다. 돌봄센터의 교사에 의하면, 돌봄 수요의 파악과 돌봄센 터의 홍보, 그리고 아이들 정보의 공유 등에서 학교와의 연계가 일차적으로 강조 한다.

한편 구체적인 운영체계는 이하와 같다(서울 성북구 사회적특수추진단, 2018: 1). 즉 학부모와 돌봄교사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교사회의, 후원회 등이 조직되어 있으며, 2016년 이후 초등틈새돌봄시범사업단이 각종 지원과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 표 IV-1-2 ▣ 서울 S구 ‘별별재미난교실’ 운영체계

구 분	구성 위원
운영위원회	학부모, 돌봄교사, 마을교사, 전문가, 운영기관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
교사회의	학부모, 돌봄교사, 마을교사, 전문가, 운영기관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
후원회	돌봄교사와 마을교사 공동 참여. 실무 역할 분담 및 현안 대응
초등틈새돌봄 시범사업단	S구사회적경제특구 추진단에서 별별재미난교실 운영을 담당해 온 조직으로, 우리동네 키움센터 전환 후에는 운영에 대한 지원 및 자문 담당

자료: 서울 성북구 별별재미난교실(2018). 내부자료. p. 1.

돌봄교실의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다. 운영 규정은 S구 아동청소년센터, S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돌봄교사, 그리고 마을교사 조직과 프로그램 준비, 홍보와 연락 및 모집은 S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와 돌봄교사가 담당한다. 그 밖에도 개소 식 겸 후원행사 준비는 S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돌봄교사, 마을교사, 장위도시재 생주민협의체, 장위도시재생지원센터가 담당하였다.

나)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돌봄교실의 연계 인원은 상시 봉사자 20여명 외 비정기적 봉사자 다수와, 돌봄 활동 보조, 간식 및 교구 후원, 기타 재능기부활동에 참여하는 학부모, 마을교사 는 지역 주민, 예술가, 강사 등의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중고생, 대학생, 일 반인들은 자원봉사, 오카리나 연주 교육, 댄스 교육, 페이스페인팅 등 개능 기부

자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위원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참여한다.

S구청에서는 지역 차원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돌봄 수요가 있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키움센터와 틈새돌봄은 어떤 역할을 하며, 그 외에 도서관이나 새마을문고나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틈새를 메꿀 것인지, 이들을 전체 설계하고,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신청가능한 공모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인력을 지원해주는 등 각종 자원의 동원과 지역 내 다른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때 S구에서는 각 기관별 운영위원회에 교차로 참여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를테면 돌봄교실이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협력을 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S구청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면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서 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재능기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약속을 해서 돌봄 보조 업무를 수행하거나 프로그램을 소그룹 형태로 진행하는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의 측면에서 별별재미난교실의 개소에는 특히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와 작은도서관 협의회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S구는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한 틈새돌봄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돌봄사업에 관한 다양한 컨설팅이 지원되었으며, 다른 돌봄기관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둘러보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교내 학부모 조직과의 협력도 강조된다. 초등학교내 학부모회라든지 학부모동아리 등은 새로이 개소한 돌봄교실이 신뢰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한다. 돌봄교실 운영회의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는 지역 내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네트워크, 도시재생지원센터, 작은도서관네트워크, 교육복지공동체, 마을교육복지협의체 등이 포함된다.

4)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가) 주요 성과 및 애로사항

주된 성과로는 종전에 추진해온 틈새돌봄사업과 비교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은 학교와의 원활한 협조가 가능하였다는 점이 강조된다. 종전의 틈새보육사업

시에는 학교에서 지역돌봄에 대한 안내문에 돌봄센터를 포함하는 일이 없었으나 키움센터로 선정되면서 학교와의 협력이 원활하여 모집공고가 나가는 등 돌봄서비스가 보다 공식화된 기반을 갖춘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돌봄교실의 운영상 어려움으로는 교사 배치 및 안정적인 확보, 교사의 전문성 미흡, 업무 매뉴얼 미흡 등을 들고 있다. 현재 지원되는 인건비는 종일제 근무자 1인과 시간제 근무자 2인 수준이므로,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교사와 돌봄교실 운영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에 추가적으로 시간제 교사의 낮은 임금으로 인력 채용 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그 밖에도 교사 전문성이 취약하여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문기구로서 초등특새교실 시범사업단을 별도로 운영하였다고 한다. 그 밖에도 운영 시 참고할 수 있는 업무 매뉴얼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타 기관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가 부여되는 등 컨설팅 지원 요구도 제기되었다.

나)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S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S구 사회적경제특구 추진단)와 S구 아동청소년센터에서는 2018년 사업 종료 시까지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사업관리 및 운영유지를 책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중 2019년 이후 사업 지속관리 및 운영 유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로는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형성되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간제 돌봄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의 마을,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지역돌봄 문제의 해결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 지원할 예정이다.

다. 서울 N구

서울 N구 다함께돌봄센터 사업계획과 센터 운영자(N구 민관 협력 사회적경제특구추진단), 돌봄교사와의 심층면담 결과는 이하와 같다.

1) 추진 배경 및 경과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동 센터의 추진 배경으로는 양육환경 변화로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의 사각 지대가 존재하고 부모 여건에 맞는 맞춤형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에 따른 것이다. 즉 맞벌이가정의 주 양육자의 경제가 모호해짐에 따라 방과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현재 돌봄제공 기관은 수용에 한계가 있어 저소득 가정에 한하여 선별적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일반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돌봄서비스 욕구에 맞추어 기존의 저소득 가구 중심의 종일제 돌봄과는 다른 방식이 요구되며, 양육자의 낮은 귀가로 방치되는 초등학생 대상의 일시 돌봄 수요도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은 자녀 양육과 부모의 사회생활이 양립될 수 있도록 초등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나) 사업 추진 경과

N구는 월계문화복지센터를 신규 설치하면서 해당 시설에 돌봄 인프라를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시설에는 1층에 어르신복지센터, 2층에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3층에는 어린이도서관이 운영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와 동일한 층에 위치하나, 이용자격의 측면에서 소득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월계문화복지센터의 위탁체는 센터의 모든 사업을 관장하므로 센터장이 다함께돌봄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개소 과정에서 센터내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는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등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또한 유사 사례로서 도서관과 함께 운영되는 돌봄기관을 한 차례 방문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사업 설명회 지원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강조된다. 사업 초기에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간담회 방식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어 아동 모집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2) 주요 사업내용

사업 대상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아동이며, 저학년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월계문화복지센터, 2018: 1). 이용 비용은 간식비 월 5만원이며, 정원은 총 20명이다.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오후 1시반부터 오후 6시반까지이며, 휴일은 운영하지 않으나, 방학에는 평일과 동일한 시간에 운영한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집중돌봄교실과 여가돌봄교실로 구분된다. 집중돌봄은 아동 보호 및 학습지도 위주이며, 여가돌봄은 독서프로그램 등 방과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들 프로그램은 모두 다함께돌봄센터의 교사가 담당하며, 시간제 교사의 경우도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였다. 동센터의 특화 프로그램으로는 인성발달 프로그램, 우리동네 예체능, 쓱쓱 독서교실을 들고 있다.

현재 이용 아동은 초등돌봄교실이 1, 2학년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초등 3학년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초등 6학년까지 이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위치한 3개 초등학교 정문에서 센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 표 IV-1-3 】 서울 N구 월계문화복지센터 부설 다함께돌봄센터의 서비스 내용

구분	프로그램	세부사항
집중 돌봄교실	보호 프로그램	아동보호, 일상생활지도, 위생지도
	교육 프로그램	학교생활준비, 숙제지도, 기초학습지도
	놀이 프로그램	신체놀이, 토레놀이
여가 돌봄교실	독서 프로그램	독서교실(장, 단기 독서프로그램), 글쓰기 지도, 작품전시회(독후감 공모, 그림책 전시 등), 독서토론, 자율독서
	여가 프로그램	음악, 미술, 요리, 체육, 공연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어린이 도서관 연계, 도서관 행사, 센터 행사 등

자료: 월계문화복지센터(2018). 2018년도 다함께돌봄센터 사업계획서. p. 2.

3) 추진체계 및 서비스 연계

가) 추진체계

동 센터의 인력은 상근하는 풀타임 교사 1인(팀장)과 시간제 돌봄교사 2인이 근무하고 있다. 시간제 돌봄교사 중 1인은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6시간 근무하

고, 다른 1인은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근무하고 있다.

■ 표 IV-1-4 ■ 서울 N구 월계문화복지센터 부설 다함께돌봄센터 인력 배치

구분	직위	근무시간	담당 역할	자격
전일제 교사	팀장	상근(10-19시)	인사 및 재정 관리 지역사회연계 아동지도 및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사 1급 보육교사 2급
시간제 교사 1	돌봄교사	시간제(13-19시)	아동지도 프로그램매 운영	보육교사 3급 (경력 1년 이상)
시간제 교사 2	활동교사	시간제(15-19시)	아동지도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사 1급 보육교사 2급

자료: 월계문화복지센터(2018). 2018년도 다함께돌봄센터 사업계획서. p. 2.

월계문화복지센터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하나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 주간회의가 매주 개최되며, 이때 각 사업별 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월례회의에서는 익월의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나)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서비스 연계 기관으로는 다른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소개받은 바 있으며, 월계문화복지센터장을 포함한 다른 인력들의 프로그램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행사시에도 타 부서 담당자들이 도울 수 있고, 행사 관련 연계도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다. 이를테면 노인의 날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날인 경우, 아래 층에 데코를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들이 다 만드는 등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청소 등 시설관리 사항은 월계문화복지센터 전반을 관리하는 인력이 일괄 담당하여 처리하며, 전기세 등 운영관리비도 센터의 운영관리팀에 의해 일괄 이루어지므로, 별도 자원봉사자 등 외부 인력을 활용한 기관운영의 필요성이 덜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리모델링을 위한 업체를 연계하고, 리모델링을 모두 담당해주었다. 그 밖에도 홍보 지원이 이루어졌다. 아동 모집에 관한 사항을 구청 홈페이지 게시하거나 구 소식지에 해당 소식을 싣고, 추가적으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들 기관의 체계적인 협력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는 학교 돌봄교실 선생님과 학부모 모임, 자원봉사 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상담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신규로 설치되는 돌봄센터에 아동 모집, 프로그램 운영 및 연계, 돌봄 인프라의 물리적 환경 구성 등에 이르는 전반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이 강조되었다. 그 밖에도 지역 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은 학부모 설명회 시에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4)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가) 주요 성과 및 애로사항

돌봄센터 운영 시의 애로사항으로는 차량운행 지원 미비, 업무 매뉴얼 및 실무자 대상 사업 설명회 미흡, 인력 부족으로 인한 학년별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이 지적되었으며, 실무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었다. 월계문화복지센터는 주택 밀집지역이나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된 돌봄 인프라들과는 달리, 차량이 운행되지 않을 경우는 접근성이 매우 낮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센터형인 경우는 차량운영비가 별도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초등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모두 이용 중이어서 학년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요구되나, 아동들의 센터 이용시간대가 다양하여 특정 학년 대상의 프로그램을 일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현행 인건비 지원 수준으로는 학년별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운영한다고 해도 담당 인력을 배치할 수 없다고 우려된다. 또한 시간제 교사 2인은 출근 시각이 달라, 3시가 넘어야 비로소 회의가 가능한데, 해당 시간대는 아이들이 센터이용이 시작되므로 현실적으로 교사회의가 힘든 실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잠시 잘 시간을 주고, 교사 회의는 전달사항만 간략히 처리하며, 행정업무는 상근교사가 전담하는 상황이다.

보다 근본적인 요구로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이 제때 하달되었으면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올해 사업 중간에 하달된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별도 교육이 없이 하달되어 내용을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된다. 또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문점 등을 일괄 해결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나아가 같은 지역 내에 다수의 돌봄센터가 확충될 경우는 실무자 위주의 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월계문화복지센터는 3층에 어린이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향후 돌봄센터의 아이들이 책을 많이 보고 독서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동 센터는 안정적인 돌봄 인프라의 확보 측면에서 매우 유리할 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내에 위치한 도서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서관련 방과후 프로그램을 연계하는데도 이점을 지닌다.

다시말해 아동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인프라가 보장되며,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독서를 하며, 도서관에 크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 도서를 대여하여 아래층에서 읽으면서 자기 의견도 말해보는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2 사례 유형 2

서울 M구 “친한친구 공동체 방과후”(우리동네키움센터, 이하 친친 방과후) 내 부자료(2018)와 친친 방과후 운영자, 돌봄센터장과의 심층면담 결과는 이하와 같다.

가.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및 목적

서울 M구는 ‘친한친구 공동체 방과후’ 라는 비영리단체를 통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동 사업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학교 후에 갈 곳이 없어 학원으로 내몰리는 아이들에게 쉽고 돌봄의 공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또한 마을공동체 환경을 제공하여 아이뿐 아니라 부모에게 이웃사촌

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도 지닌다. 이로써 마을에서 아이를 함께 키우는 좋은 모델을 확장하고자 한다.

2) 주요 경과

돌봄센터의 운영 주체는 민간 비영리단체로, 2013년부터 공동육아를 추구하는 부모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2018년에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돌봄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그간의 공동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놀이 위주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주요 사업내용

1) 돌봄 인프라 설치 및 운영

동 단체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이전에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부모들끼리 일정 금액을 출자하여 공간을 임대하여 돌봄 인프라를 독자적으로 운영해왔다. 이때 미흡하였던 돌봄 공간을 서울시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육실, 출입문, 방음용 장판, 씽크대 등을 개보수하였으며, 전기 승압공사, 소방안전 설비 설치로 안전 기준을 강화하였다. 기존의 협동조합이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자가 됨에 따라 지역 내 비조합원이 방학 혹은 부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협동조합에서 공유하던 공동육아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

2) 서비스 내용

서비스 이용비용은 종일 돌봄의 경우는 월 10만원, 부정기적인 이용을 하는 아이들은 1일에 1만원이다. 프로그램은 크게 방과후 돌봄과 시간제 돌봄으로 나뉘는데 학기 중에는 알림장숙제지도, 간식제공, 체험활동, 하원지도(인근학교 저학년), 방학 기간에는 간식(중식)제공, 학습지도, 방학특강, 체험활동 등을 진행한다.

시간제 돌봄은 긴급 돌봄 필요 아동에 대한 일시돌봄 서비스(1일 약2~3시간)로 세부 프로그램은 운영위원회(단체, 교사, 학부모)에서 협의하여 마련하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인근 공원과 숲으로 걸어서 나들이(주 1회), 아빠와 함께 한강 둘레에 만들어진 자전거길을 달리며 생태 탐험(월 1회), 몸으로 함께 노는 놀이를

통해 즐거운 놀이문화를 배우는 마당(격주 1회, 총 14회) 등이다(서울 마포구 친한친구 공동체 방과후, 2018, 내부자료).

다. 추진체계 및 서비스 연계

1) 추진체계

해당 사업의 운영주체는 사업주체인 친한친구 공동체 방과후(비영리단체)이고 센터시설운영에 관한 총괄 책임을 해당 단체가 진다. 대표는 센터 시설운영 및 센터장을 관리하며 비상근이다.

센터장은 운영·관리 총괄,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아동돌봄지도 등을 담당하며 상근한다. 센터장 이외에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은 상근하는 교사이고,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돌봄지도 등을 실시한다. 상주 교사 이외에 외부강사를 계약을 통해 활용하는 데 아동에 대한 학습 및 지도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그 외에도 지역 내 자원봉사자는 아동안전·돌봄 지원봉사 및 학습지도 등 재능기부를 통해 역할을 분담한다.

▣ 표 IV-2-1 ▣ 서울 M구 '친한친구 공동체 방과후' 인력 배치 현황

운영주체 (대표/회원)	종사자			기타인력		
	계	센터장	교사	계	외부강사 (학습지도)	자원 봉사자
1 (회원 13명)	3	1	2	6	4	2

자료: 서울시 마포구 친한친구 공동체 방과후(2018). 내부자료.

2)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친친 방과후는 서비스 연계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조합원과 외부 강사 정도만으로 운영된다. 인근 지역의 초등학교에 운동장 개방, 도서관 개방 등의 협력을 요구한 바 있으나 무산된 바 있으며, 지역 내 공공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별도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업 주체, 종사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협의체)를 통해 센터의 운영관리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진다. 기존의 공동육아를 운

영하는 협동조합을 토대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부모간 운영 협의와 교사 참여 등이 원활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장점을 지난다.

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1) 주요 성과 및 기대효과

친친 방과후는 기존에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해온 공동육아를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통해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격을 지역 내 아동으로 개방하여 공동육아의 가치를 보다 확장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기존의 협동조합의 가치는 1) 사교육 없는 세상, 아이들이 행복한 마음 만들기 에 기여, 2)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 3) 돌봄센터에서 익힌 아이들의 다양한 재능을 지역사회 활동에 발휘하는 것으로 현재 해당 취지가 더욱 확장되고 다양화 되는 기회를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부모가 참여하는 시설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향후 계획 및 개선과제

개선과제로는 돌봄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부모들의 돌봄 수요가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요조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즉 초등 방과후 돌봄 수요는 간식 공간, 방과후 학원 가기 전 임시 거처, 학원을 대신하는 공동체 공간 등 서비스 내용과 시간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 수준에 대한 상향조정 요구도 높았다. 즉 현행 지원되는 인건비는 종일제 교사 1인과 시간제 교사 2인의 급여에 불과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종일제로 근무하는 센터장 1인 만으로는 다양한 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우려하였다.

3 사례 유형 3

경기 G시 내부자료(2018)와 G시 “마을돌봄나눔터” 지원사업 담당자, 위탁기관 사업 운영자와의 심층면담 결과는 이하와 같다.

가.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및 목적

G시는 저출산의 원인을 육아 및 돌봄에 대한 어려움으로 파악하고 ‘마을돌봄나눔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G형 마을돌봄나눔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방과 후 돌봄교실은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여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모두 수요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며, 이용시간대와 출입자격 요건 등이 제한되므로 무조건적인 돌봄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G시의 마을, 아파트 단위 유희 및 공용공간에 조성한 초등 방과후 돌봄터를 통해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절실한 아동을 마을공동체에서 돌봐주는 G형 돌봄 공간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2) 주요 경과

G시는 2015년 10월부터 약 2개월에 걸친 토론회 및 설명회를 통해 초등 방과 후 돌봄 문제에 대한 시민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 이후 해당 연령대의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및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마을돌봄나눔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수요 조사 이후 각 마을 단위의 유희공간을 물색하면서 3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사업협조 요청을 하였는데, 이때 지역 사회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여 참여를 촉진하였다. 이에 G시 마을돌봄나눔터 1호가 3단지 래미안슈르 주민공용 공간 내에 2016년 2월 27일 개소하게 되었다. 1호 사례의 성공으로 부림동 주민센터 내에 마을돌봄나눔터 2호가 2016년 12월 27일 개소하기에 이르렀는데, 아파트가 아닌 관공서에 공간을 마련함에 따라 상이한 성격으로 운영된다. 2017년에는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나. 주요 사업내용

1) 돌봄 인프라 설치 및 운영

우선, 해당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2개소 기준 시설비 및 운영비는 약 9천만원이 책정되어 전액 시비로 시행되었다.⁶⁾ 그 중 시설비가 절반 이상이고, 향후에는 시설비를 제외한 운영비와 인건비, 사업비 등이 소요될 예정이다. 2017년 기준으로 2개소 운영비는 4,500만원이 책정된 바 있다.⁷⁾ 간식비는 별도로 학부모가 부담한다(경기도 과천시, 2018: 1).

설치 장소는 앞서 언급한 마와 같이 마을과 아파트 단위 유희 및 공용공간인데, 현재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와 부림동 주민센터 양자 공간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라면 제한이 없는데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을 우선 순위로 배정하여 우선권을 부여한다. 한 개 센터 당 초등학생 약 30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3시부터 1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마치는 시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다른 방과후 교실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시간을 고려하여 운영 시간을 마련하였다. 방학 중에도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방학 중에는 9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여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돌봄센터 한 개소 당 전담인력 1명과 보조인력 1명이 각 4시간의 한도 내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담당한다. 마을돌봄나눔터가 구성되어 있어 핵심적인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2) 서비스 내용

동 센터에서는 틈새시간 활용, 학원챙겨 보내기, 간식 등이 주로 제공된다.

6) 시설비 53,617 / 인건비 18,819 / 운영비 4,218 / 사업비 13,346(경기도 과천시, 2018: 1)

7) 인건비 37,045 / 운영비 6,211 / 사업비(홍보비, 프로그램비 등) 1,744(경기도 과천시, 2018: 1)
- 사업수입(월5만원) 19,565(보조교사 22,834, 프로그램비 3,164)

표 IV-3-1 G시 마을돌봄나눔터 운영 현황(2017. 12)

구분	1호(레미안슈르 마을돌봄나눔터)	2호(부림동 마을돌봄나눔터)
이용면적	115㎡(34.8평) (공동주택단지 내)	74㎡(22.4평) (주민센터)
개 소 일	2016년 2월 27일	2016년 12월 27일
이용인원	30명 (철저한 출결 관리)	
운영시간	학기 중 : 13:00~19:00 방학 중 : 09:00~19:00	
운영인력	각 2명 (전담1, 보조1)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교육과정 외 지식과 창의력을 위한 다양한 내용 진행(아트뮤지엄, 소프트웨어 코딩, 과학교실, 정보과학도서관활동, 잉글리시타운, 역사문화산책 등) • 인성교육: 아이들의 인성덕목을 주제로 개인 및 집단활동 진행(성품학교 등) • 신체활동: 신체는 물론 심리, 정서적인 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 진행(창의신체활동, 바른 자세교육 등) • 놀이: 다양한 놀이활동을 통한 사회성 증진 지원(보드게임, 어울림놀이마당, 생태활동, 미술놀이 등) • 숙제 및 준비물, 학원시간, 등 하원 챙겨주기 • 급, 간식 제공(학부모회 주관) 	

자료: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2018). 과천시 초등돌봄 마을돌봄나눔터. p. 8.

구체적으로는 숙제, 준비물, 학원시간, 등하원 등 챙기기, 간식 먹기, 인성 및 놀이 프로그램 등(전래놀이, 창의신체활동, 우쿠렐레 배우기, 아트뮤지엄, 인성교실, 과학교실 등)등이 운영된다(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8: 8). 이는 아동이 방과 후 집에서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편하게 있을 공간임을 표방한다. 또한 학부모가 해주기 힘든 숙제 및 준비물 챙기기 등을 도와주어 부모의 양육 부담을 현실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방학 중에는 특별 야외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인근 미술관, 동물원 등의 관람이 주로 진행된다.

다. 추진체계 및 서비스 연계

1) 추진체계

해당 사업은 G시 행정복지국 내 사회복지과가 추진하되 학부모, 지역기업, 아파트 등의 협력체계로 운영된다.

그림 IV-3-1 G시_마을돌봄나눔터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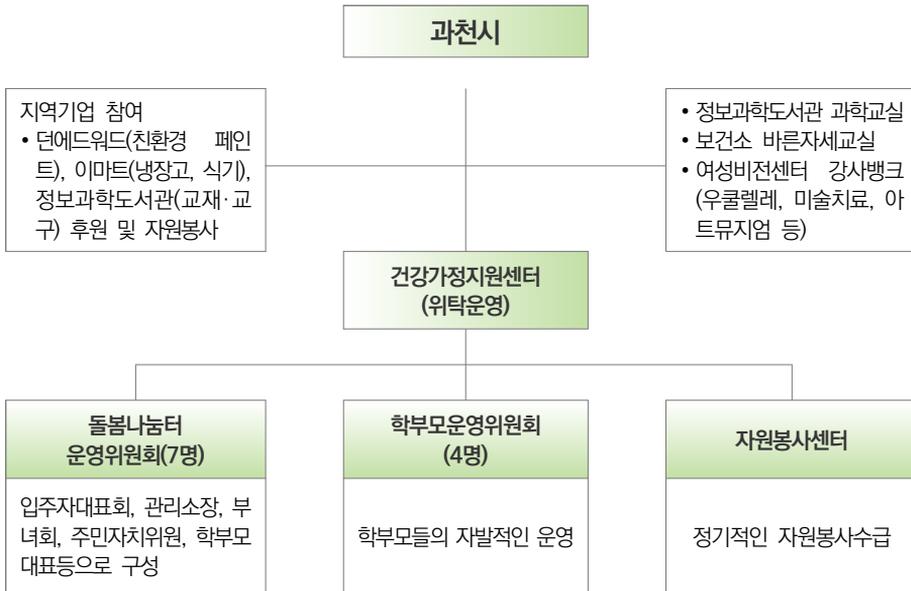
자료: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2018). 과천시 초등돌봄 마을돌봄나눔터. p. 11.

G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팀, 노인복지팀, 여성행복팀, 안심보육팀/드림스타트센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을돌봄나눔터는 여성행복팀 소속의 주무관 1명이 담당한다(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8: 11). G시는 마을돌봄나눔터 사업을 G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실질적 운영 및 행정에 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동 센터 운영에 대한 각종 의사결정은 마을돌봄나눔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2) 위원회 및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과천시 마을돌봄나눔터는 의사결정 주체로 ‘돌봄나눔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림 IV-3-2 G시_마을돌봄나눔터 협의기구



자료: 경기도 과천시(2018). 내부자료. p. 2.

해당 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 아파트 관리소장, 부녀회, 주민자치위원,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여 운영 사항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데, 공간 마련이 아파트를 통한 것이어서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절차를 중시 여기는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는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 문제점과 예외사항,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 및 수렴한다.

3)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서비스 내용과 관련하여 지역 기업의 후원으로 친환경페인트, 교재교구 일체, 빔프로젝트, 냉장고 및 식기 등 지원 받고 있다. 그 외에 학부모들이 자원봉사 혹은 재능 기부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간식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기청정기, 아이들이 사용할 가구 직접 만들기 등을 주도하여 운영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학부모 이외에도 교사 및 프로그램 강사를 활용하는데, 지역 경력단절 여성 및 재능기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입주자대표 회의에서는 장소 제공 및 공과금, 자

원봉사지원 등을 통해 공동나눔터 업무에 협조하며, G시는 시설설치지원 및 운영비 지원, 각종 교육문화 인프라 연계를 통해 전체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1) 주요 성과 및 기대효과

해당 서비스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마을과 전문교사의 안정적 돌봄을 통해 방과 후 공백을 안정적으로 매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부모는 안심하고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신뢰와 만족은 학부모와 마을의 지원, 그리고 시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위탁기관에 의한 운영 성과 분석에 의하면, 센터 이용자는 2016년에 3,635명이었다가 프로그램 횟수 등의 증가에 따라 2017년에는 18,500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서비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이용아동은 4.75점, 학부모는 4.86점으로 나타난다(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8: 12).

돌봄 인프라의 경우, 아파트는 사유재산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지역 기반의 돌봄사업의 신뢰감 형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G시만의 성과로 인하여 중부권의 우수 시책으로서 인근 시군의 벤치마킹 1호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사업에도 선정되어 지역사회에서 돌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는 돌봄의 주체가 마을 전체로 전환하였다는 것이다. 각자의 가정에서 개별적인 돌봄으로 이루어졌던 예전에 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시가 협력하여 이웃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향후 계획 및 개선과제

향후 과천시는 이용자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하여 마을돌봄나눔터를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 도착 시 문자 알림서비스는 높은 만족도를 얻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체계화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마을돌봄나눔터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마을과 학부모, 그리고 과천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돌봄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과정으로서 아파트 공간 뿐 아니라 공공기관 내지 관공서에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따라서 3호는 공무원 관사를 활용하여 운영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재건축 및 행복주택 건설 시에 마을돌봄나눔터를 설치 계획을 포함하여 지역사회내 돌봄 기능을 '마을 협력'을 중심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4 사례 유형 4

가. 경기 GM시

경기 GM시 내부자료(2017)와 GM시 아이안심돌봄터 지원 사업 담당자와의 심층면담 결과는 이하와 같다.

1) 추진 배경 및 경과

GM시는 맞벌이 부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GM시 아이안심돌봄터' 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동 사업은 'GM시 생애주기별 돌봄사업'의 정책 대상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지역아동센터, GM 혁신교육의 정책 대상과 중복되나 집 가까운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특징점을 가진다.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동 사업은 다른 여타의 돌봄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인프라로 해소되지 않는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시작하였다. GM시에서는 저출산 극복 사업으로 미혼남녀간의 행사 마련, 임신출산육아 전문가 방문파견사업, GM 전통시장 시간제 보육실 운영, GM시 고교 무상급식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이에 더하여 추진된다(경기도 광명시, 2017: 11).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다른 여타의 사업으로도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은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 운영되고 있다.

나) 주요 경과

GM시 아이안심돌봄터는 GM시의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조례를 2016년 6월 제정한 이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출범하였다. 정책 발굴을 통해 아이와 맘 편한 위원회에서 정책 심의 후 신규 사업을 확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이 계속 되는데, 2016년 10월 이후 사업을 논의, 2017년 2월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4월 GM시 내의 18개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후 2개소를 선정하여 돌봄터 사업 운영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8개 기관의 업무 협약 이후 12번에 걸친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 회의를 거쳐 2017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돌봄터 사업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때,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아동이 생활할 공간은 아동의 눈높이에 따라 설계한다는 원칙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 2017년 9월 전국 최초로 ‘GM시 아이안심돌봄터’ 를 개소하였다.

2) 주요 사업내용

가) 돌봄 인프라 설치 및 운영

‘GM시 아이안심돌봄터’ 는 현재 민간 시설인 GM시 행정 구역내의 일반 아파트를 두 군데 선정하여 시범 운영 중이다. 아파트를 시범 선정함에 있어 가장 고려한 점은 ‘접근성’ 이었다. 따라서 GM시 내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수 및 맞벌이 가정 수를 산출하여 가장 아동들이 밀집하여 있고, 맞벌이 가정이 모여 있는 지역을 구분한 후 해당 지역의 아파트 단지와 협의 끝에 장소⁸⁾를 마련하였다.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두 군데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아파트 단지 및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이는 시범사업이므로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한정적이나, 향후 아이안심돌봄터를 지역별로

8) 2018년 5월 25일 시청 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 결과, 돌봄 인프라 확보가 사업 시행의 주된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추가적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월-금 17시부터 21시로 방학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해당 시간에 전문인력인 돌봄교사 2명이 상주한다.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교실이 운영 중이나 전체의 11% 정도가 이용을 하고, 그 이외에는 학원을 가거나 17시 이전까지 개인별 활동이 잦아 운영 시간을 17시로 정하게 되었다. GM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해당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상주하는 돌봄교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채용하는 과정을 거친다. 단, 채용 시 GM시청이 채용 공고를 내는 것을 수월하게 도와주고 면접 시에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GM시 자체의 사업적 목표를 반영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사업 담당 인력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내 해당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관리 담당자 1인을 공개 모집하여 전적으로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해당 전문인력은 각 돌봄터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돌봄교사들 및 학부모와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실질적 운영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 담당자로 기능한다.

아이안심돌봄터의 이용 대상은 소득수준과 무관한 모든 아이들이며, 단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아이들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현재 해당 대상의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한데 따른 것이다. 저소득층의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에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등으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각 센터 당 약 25명의 아동이 이용 중이며 정원은 38명이라 모두 충족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서비스 이용비용은 무료이며, GM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하지만 간식의 질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8년 하반기부터 간식비 월 6만원 중 50% 지원, 프로그램 비용 지원 등을 부과하기로 협의한 상황이다. 해당 사업 예산은 1개소 당 약 2억원이며, 공공요금⁹⁾은 아파트에서 지불한다.

나) 서비스 내용

주요 서비스로는 안전한 돌봄을 위주로 하면서 간식 제공 및 소규모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보다는 돌봄 공백이 발생한 시

9) 가스비, 전기, 난방, CCTV, 전화기, 정수기 비용 등

간대에 ‘안전하게’ 휴식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의 주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상시 시스템과 수시 시스템을 같이 도입하고 있는데, 상시는 월 이용료를 내고, 수시는 이용료를 하루에 5천원 비용을 지불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시간대별로 오는 아이들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현재 이용 중인 약 25명의 아이들 중 20명은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시간대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에 책과 교구를 구비하여 또래 집단 활동, 개별 활동을 권장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주로 인근 대학 학생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특히 과학 창의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므로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놀이활동을 진행한다.

3) 추진체계 및 서비스 연계

가) 추진체계

해당 사업은 GM시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하되, 아파트, 경인교대, 보건복지부와 협업으로 진행한다. GM시는 복지돌봄국 내에 여성가족과의 출산정책팀 차원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정책팀, 출산정책팀, 아동친화팀, 드림스타트팀, 다문화가족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출산정책팀의 팀장 1인과 주무관 1인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동 사업을 GM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한 이후에도 매번 위원회를 통해 상호 협의 하는 등 협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위원회 및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아이안심돌봄터와 관련한 운영위원회는 돌봄센터 이용자 부모, 아파트 관계자, 시 담당 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경기도여성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관내에 있는 학교장으로 구성하여 10명-12명 정도로 구성된다. 서비스 내용,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건, 서비스 비용 등을 협의 및 조정하며 특히 학교장이 참여하여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공백을 매우는 역할을 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다)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돌봄서비스의 협력 사항 중 하나로서 아파트 지역주민은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가스 및 CCTV를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을 자부담하여 민간의 역할이 상당부분 부각된다. 경인교대는 과학탐구, 독서 프로그램 등 학생 자원봉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프로그램의 질적인 부분을 책임진다(경기도 광명시, 2017: 8). 보건복지부는 중앙에서 지역사회 돌봄과 관련한 정책적 자문을 진행하며, GM시의 경우 인력 모집 및 채용에 있어 함께 절차를 진행하며 퇴직교사 등의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고 진행한다.

그림 IV-4-1 | GM시 아이안심돌봄터 협력체계



자료: 경기도 광명시(2017), 내부자료, p. 8.

4)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가) 주요 성과 및 기대효과

동 사업의 주요 성과는 우선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을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수요자가 많음에 비해 이용자는 약 10% 선에 머무르고 있어 수요를 모두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때 생기는 공백을 해당 사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아파트(민)-시(관)-학교가 지역사회 돌봄에 있어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현재까지

는 매우 높고, 향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는 민간의 역할이 상당부분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사유지를 돌봄의 영역으로 제공하면서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다.

마지막으로 GM시는 단순히 예산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예를 들어, 돌봄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캠핑을 시에서 주도하여 건강가정센터와 함께 운영하는데, 관이 나서지 않으면 정규적인 돌봄센터 과정 이외의 프로그램은 성사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나) 향후 계획 및 개선과제

향후에는 관공서를 위주로 돌봄 공간을 발굴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역량에 맡기고 있는 부분이 많은 탓에 새롭게 시도해볼 수 있는 부분도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접근성을 계산하여 다양한 장소를 모색 중이다. 또한 향후에는 대상층을 확대하여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초등학교에서 대상층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방학 중에는 이용이 불가하나,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방학 중 수요가 높아 향후로는 방학 중에도 운영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공간 제공 문제는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아파트 공간이 접근성 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아파트를 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육아 나눔터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관공서의 경우 관에서 장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확보되나 접근성의 측면에서 주거지보다는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으므로 양자를 적절히 조화하여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 참여자의 인식 전환은 핵심적인 과제로 보여진다. 민관 협력 이전에 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의 주체 의식과 수요자 입장에서 신뢰감 형성은 향후 사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나. 경기 S시

경기 S시 “맘오니” 운영자, S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및 실무자와의 심층면담

결과는 이하와 같다.

1) 추진 배경 및 경과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S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맘카페’가 지역 육아 커뮤니티의 역할을 하고 있는 특징을 가진다. 해당 커뮤니티를 통해 부모들의 교류, 영유아들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맘카페를 통해서 교류하게 된 몇몇 부모들은 ‘맘오니’라는 모임을 결성하여 공동육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때 S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부모 교육을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부모와 지역 내 공공 서비스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육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해당 단체는 ‘함께하는 육아, 자연스러운 공동체 활동’을 지향한다. 기존의 보육 및 교육기관에서 충족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세대 나눔, 교류 등을 공동육아를 통해 실현하고, ‘엄마가 행복한 육아’를 위해 엄마들의 교류를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 주요 경과

S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맘카페에서 2013년 이후 교류를 시작한 부모들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맘오니’ 활동을 시작하였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부모들이 스스로 부모 역량을 키워가면서 육아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시작한 것이 모임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 이후 안정적인 돌봄 공간과 교육에 대한 욕구를 S시를 통해 충족하고 싶은 생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였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원은 별도 사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센터장의 의지에 의해 가능하였는데, 현재까지는 공간 지원, 예산 일부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한 S시 마을르네상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한편 이는 품앗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맘카페 이용에 있어서도 품앗이 그룹이 형성되면 활동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된다.

2) 주요 사업내용

가) 돌봄 인프라 설치 및 운영

S시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맘카페의 품앗이 활동이 시초이다. 맘오니는 공동육아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시작한 S시 사업으로 놀이기구 대여, 육아 전문가의 상담 등을 바탕으로 맘오니가 주체가 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초창기에 공동육아 모임을 진행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공간을 대여하여 간식 제공,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이들 공간은 부정기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어 지역 내 공동육아나눔터, 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맘오니는 참여 부모의 가정을 근거지로 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원할 경우 공간 제공을 하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공간이 언제든지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활동을 함에도 제약을 가지기에 일정한 시간에 해당 가정에 모여서 공동육아를 시행한다.

해당 인프라는 방과후 돌봄이나 돌봄 공백을 매우기 위한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되는 특징을 가진다. 함께 모여 공동육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돌봄 교사 내지는 지원 인력이 전무하고 오로지 부모가 중심이 되어 운영한다. 예를 들면 A학부모의 경우 노래교실 담당, B학부모의 경우 미술 활동 담당, C학부모의 경우 악기 담당으로 순환하여 프로그램 구성한다. 다시말해 재능기부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활동비에 대한 보조는 교구비로 사용하고 있다.

나) 서비스 내용

서비스 이용자는 현재 약 30명 정도로 인성교육, 놀이, 예체능 등을 다양하게 프로그램화 하여 진행하고 있다. 최초에 시작은 7명으로 시작하여 소모임 운영, 행사 진행 등으로 홍보가 된 후 참여 회원이 확대되고 있다.

초창기에는 주 2회 정도 모여서 식사와 놀이 위주로 별다른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이 진행되었으나 월 4회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가지고 육아를 진행하고 있다.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예산의 제약 상 다양하게 운영

하고 있지 못하고 연간 475만원의 S시 마을르네상스 사업비 중 가족 체험행사, 프로그램 재료 구입 등으로 활용한다.

3) 추진체계 및 서비스 연계

가) 추진체계

맘오니의 운영체계는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다. 일단 S시의 마을르네상스 사업에서 지원금을 지원 받고 있으나 육아 전담 지원사업이 아니어서 ‘마을공동체’ 형식의 지원으로 운영하는 데 각종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서비스 정보 공유 및 유관기관 연계, 강사 소개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체계성이 결여되어 결국은 공동육아 주체인 부모들만의 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위원회 및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위원회 및 협의기구는 맘오니 소속 부모 5인으로 구성하여 서로 간 의견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돌봄교사 내지는 운영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에 엄마들끼리 순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협회가 이루어진다.

다)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지역 내 협력 및 서비스 연계는 사실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원이 유일한 실정이다. 맘오니의 시작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맘카페 프로그램을 통한 것이었고 현재에도 센터장의 의지로 각종 정보의 수집, 공간 지원, 활동비 지원 등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즉 S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담당 실무자가 대관 정보, 가정양육지원사업 프로그램 연계 등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해당 단체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맘오니는 이외 사례들과는 달리 부모주도로 운영되며, 자발적인 모임에서 출발함에 따라 지역 내 돌봄서비스 기관이나 이외 유관 서비스 기관과의 정보 교류 등에 어려움이 있고, 각종 공식 협의체 등의 참여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부모가 주도하는 돌봄공동체는 형성 단계에서는 정부와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이는 지속가능성 및 확장 측면에서 필수적인 지점으로 판단된다.

4)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가) 주요 성과 및 기대효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한 육아 품앗이그룹의 장점은 육아전문가의 조언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S시 ‘맘오니’의 경우 자발적인 공동육아의 형태로 시작하였고 해당 아동의 연령층도 다양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 존재하였으나 향후 재정적인 지원, 공간 지원 등이 병행된다면 다양한 연령층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기반 공동육아를 활성화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해당 아동이 기관에 다니는 여부를 떠나 함께 육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육아에 대한 정보 교류, 자발적인 공동체 형성으로 ‘엄마와 아동이 주체가 되어 함께하는 육아’를 표방한다는 점은 맘오니의 주된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나) 향후 계획 및 개선과제

맘오니 운영 시의 주된 어려움은 안정적인 돌봄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점이다. 공동육아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돌봄 공간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유일하게 지원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관련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의 마련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경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때 단체의 확산 및 긍정적인 기능의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 연계가 절실하다. 현재 해당 단체는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되었으나, 프로그램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주일에 1회기로 운영됨에 따라 분절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도 공간의 확보는 일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5 사례 유형 5

충북 D군 내부자료(2017)와 D군 “아이키움온마을돌봄” 사업 담당자와의 심층 면담 결과는 이하와 같다.

가. 추진 배경 및 경과

D군은 말벌이 가정의 비율이 약 80% 이상인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주로 자영업자와 사무직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는 특징을 지닌다. D군은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 추진 배경 및 목적

D군은 담당 공무원의 개인적 역량이 사업을 좌우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내 사례로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사업에 응모하면서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D군의 경우 영유아 관련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가장 주된 추진 배경이었다. 그 외에도 기관에서의 시간 연장 보육에 대한 학부모 불안, 아이돌봄지원사업의 한계 등을 극복하고자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초등돌봄교실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지역 내 돌봄 수요를 충족시킬 공간과 자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شط터를 활용한 공동체 돌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출산 가정의 돌봄 편의 증진 및 문화 혜택 제공 등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D군의 재정 지원으로 아이키움온마을사업 계획이 마련되었다.

2) 주요 경과

D군 아이키움온마을사업은 2017년 4월부터 시작하여 시행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전담부서 및 인력이 모호한 실정이다. 당초 사업 계획을 수립한 보건소 담당 공무원에 의해 돌봄 인프라의 발굴, 타 지역 벤치마킹, 사업 컨설팅 등을 거쳐 기존 지역아동센터내에 리모델링을 통해 분리된 돌봄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아동센터장이 겸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주요 사업내용

1) 돌봄 인프라 설치 및 운영

현재의 돌봄센터의 발گ은 군 지역의 특성상 초등학교 인근에 있어 아동들이 도보로 이동하기 편리하여 방과후 이동이 용이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해당 시설은 친환경 목재와 교구와 함께 아동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하였고, 아동들이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율적으로 숙제를 하거나 학원을 다녀오는 등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운영시간은 오후 4시부터 8시로 지역사회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공백을 책임지고 있다. 이용자격은 모든 초등학생으로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내에 위치한 탓에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돌봄교사는 총 2명으로 센터장과 보조인력으로 이루어진다. 센터장은 지역아동센터장이 겸임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특이점을 보이고 있다. 해당 사업 예산은 총 1억 5천만원으로 특별교부금 5,000만원과 D군에서 1억원을 지원한다.

2)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 운영은 품앗이에서 비롯된 자발적 모임, 그리고 자원봉사 등을 통해 진행된다. 독서, 운영, 과학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변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자원봉사로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를 통해 영어와 수학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비스 이용자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영어와 수학 등 학습적인 부분에 대한 튜터 역할을 하여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온마을 커뮤니티가 마을 공동육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군 차원에서 부모 자조모임 공간을 제공하여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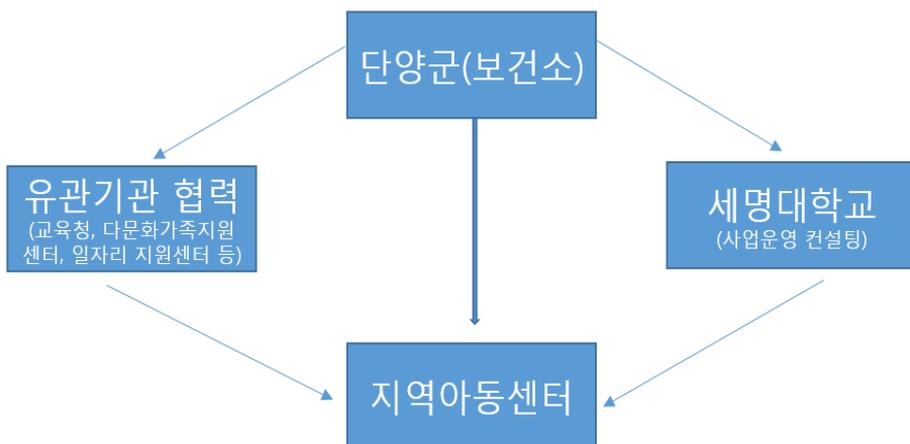
다. 추진체계 및 서비스 연계

D군 온마을돌봄사업은 D군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진행된다. 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거나 모자보건 사업을 위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본 사업을 시행하였던 담당 공무원이 보건소로 전보하면서 담당 사업을 보건소로 이관해서 생긴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D군의 온마을돌봄사업은 보건소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로부터 다함께돌봄사업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연간 2,000만원의 비용지원을 받아 전액 시설 리모델링비로 사용되었다. 그 이외 인건비, 시설 운영비는 D군에서 지원하고 있다.

사업 전담부서의 지정이 이루어지 않고, 관련 사업 부서들간의 협력도 미흡한 실정이며, 다양한 서비스 기관도 부재하여 지역아동센터가 유일한 서비스 연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센터 운영은 지역아동센터협의회의 지원이 유일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의 정서적 지원과 프로그램 지원, 여성발전센터의 베이커리 지원, 지역아동센터협의체의 간식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그 밖에 노인 인력도 활용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관 사업의 일환으로 서비스를 연계하여 청소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그림 IV-5-1 ■ 충북 D군 아이키움온마을사업 협력체계



자료: 충청북도 단양군(2017). 내부자료. p. 19.

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1) 주요 성과 및 기대효과

우선 아이들이 편안하게 있을 공간이 마련되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초등 방과 후 돌봄 공백이 일부 해소되어 방과 후에 길거리를 전전하는 아이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또한 학원을 가더라도 잠시 머물 공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빈 가정에 머물다 가는 경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동 센터가 일시돌봄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동 센터의 가장 큰 장점인 학교와의 접근성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D군이 계획도시여서 해당 지역의 장점을 활용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2) 향후 계획 및 개선과제

중앙정보 차원의 매뉴얼, 예산 지원 등의 부재는 D군과 같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공간의 확보 문제도 시급하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내의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라는 또 다른 돌봄의 기능을 가진 서비스 시설과 한 공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개별 사업의 성과 측면이 의문시되므로 별도 인프라 발굴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건비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향후 사업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이 돌봄센터의 장을 실질적으로 겸직하는 상황은 지역 사회 내 인적 자원의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향후 노인일자리,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및 재취업과 연계하여 인력 풀을 구성하고,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연계 노력이 요구된다.

D군은 이후 시설 확보를 위해 마을회관, 면사무소의 한개 층 혹은 복합 돌봄 공간 등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사용할 공간이므로 안정성에 대한 고려, 환경에 대한 고려가 그 무엇보다 중요시된다는 점에서 리모델링 시 최소 시설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사업 역량의 측면에서 지역사회 돌봄지원 사업을 인구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점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들 부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작년에 주로 신설되어 인력규모나 전문성 차원에서 업무 추진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해당 부서의 인력증원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6 소결

앞서 살펴본 사례들을 종합하여 지역유형에 따른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 운영 체계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지역중심 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지역중심 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시사점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주요 사업 목적 및 대상의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아동 돌봄의 공백이 온전히 해소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특히 초등 방과후 돌봄의 지원대상을 일반 아동으로 확장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내용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간식제공, 학습지도 등을 주로 제공하되, 서비스 유형은 크게 정기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일시돌봄 또는 틈새보육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사례들은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방과후 돌봄 보다는 틈새보육 위주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사업의 돌봄센터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초등학교나 학원 등 방과후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동 센터가 초등 방과후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로, 공동육아 경험을 공유하거나 돌봄관련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지역에서 가능한 서비스 유형으로 여겨진다. 앞서 다룬 사례들 중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육아를 추구해 온 서울 M구의 ‘친한친구 공동체 방과후’, 마을 및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서울 S구의 ‘별별재미나교실’, 그리고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육아품앗이 활동을 이어온 경기 S시의 ‘맘오니’ 사례가 이에 속한다.

한편 지원대상 아동연령 범위와 서비스 운영시간은 각 사례별로 차이를 보였다. 이를테면 광역시의 ‘아이안심돌봄터’는 방학에는 운영되지 않고, N구의 ‘다함

깨돌봄센터'는 토요일돌봄이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광역시에서는 지원대상 아동 연령을 초등 전(全)학년이 아니라 초 1~3학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돌봄 공백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돌봄서비스가 요구되는 대상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용대상을 초등 1~6학년까지 포괄할 경우에 비해 프로그램 운영이나 교사 배치 등에서 어려움이 덜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중심 돌봄지원의 대상아동 연령범위는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은 사업 배경 및 목적이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관된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테면 방학에 운영되지 않고, 토요일보육이 제공되지 않으며, 야간돌봄을 포괄하지 못할 경우 돌봄 공백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지역유형별 민관 협력 운영 방식의 특징

지역중심 돌봄 강화를 위한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 운영 방식의 특징과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유형 1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전담부서 및 인력을 배치하고, 민간 부문의 다양한 돌봄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사례이다. 먼저, 아동 돌봄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로서 지적되어온 다부처간 사업의 추진은 돌봄 업무를 위한 전담조직(S아동청소년센터)을 구성하고 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들 전담부서에는 지역 내의 돌봄 수요를 파악하며 이때 시간대별 수요까지 포괄하여 공백 해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각 시기별 돌봄센터 확충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N구 사례에서도 확인되는데, 타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동 돌봄 관련 사업들을 총괄하는 전담부서의 신설과 전담인력의 배치, 그리고 유관 부서들과의 업무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기구 설치가 요구된다. 이때 사업추진위원회에는 교육청이 운영하는 돌봄협의체 기능과 연계하기 위해 학교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돌봄협의체와 지역 내 돌봄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계획하고, 돌봄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운영 매뉴얼을 제작, 지역 내 돌봄종사자의 교육과 자조모임 구성 및 지원이 계획되었다.

이하에서는 각 사례유형별로 민관 협력의 특징을 다루었다.

사례유형 1-①은 사회적경제조직이 돌봄센터의 중간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도시재생지역과 같이 지역 내 다양한 서비스 기관이 부족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중간지원 조직으로 하여 지역 내 돌봄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이 유용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방식은 도시재생 지역 등 돌봄 서비스 기관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동체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돌봄 공간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돌봄 공간의 안정적인 확보는 지역중심 돌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일차적인 요건으로, 도시재생의 결과물로서 획득된 돌봄 인프라는 해당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사례유형 1-②는 다기능센터에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신규로 설치되는 구립 복합복지시설에 돌봄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해당 시설내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해당 시설의 각종 운영관리 사항 및 인력, 타 유관 사업들과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한 모델로 파악된다. 특히 동일 시설내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는 신규로 설치되는 돌봄센터의 설치 운영 전반에 걸친 지원을 제공하며, 부설 어린이도서관은 독서프로그램 등 안정적인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용이하고, 어르신 복지공간은 노인 일자리 활용 등의 여지를 담고 있다. 단 도시지역의 대규모 센터의 설치에 주택가 외곽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아 지리적 접근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차량운행비를 추가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례유형 2는 공동육아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이 주도하여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협동조합 방식의 지역사회 돌봄센터 운영은 지역 내 다양한 인적 자원의 부족한 지역에서도 참여성에 기반하여 사업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모형이다. 단 이때 돌봄센터의 이용자격은 기존의 조합원 이외에도 비조합원을 포함해야 하므로, 협동조합의 가치를 조합원을 넘어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례유형 3은 지역주민 등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돌봄나눔터 운영위원회에는 시청 담당자 이외에도 아파트 입주민, 주민자치단체, 주민센터, 학부모 대표위원회가 포함되며, 위탁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들 운영위원회 이외에도 학부모운영위원회와 자원봉사센

터와의 연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례유형 4-①는 주민이 참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방식이다. 즉 지역 내 아파트는 공간과 공과금을 지원하고, 운영위원회는 부모, 아파트 관계자, 시 담당 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이외에도 특히 관내 초등학교장이 포함되어있다. 사례유형 3과 마찬가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모든 자치구에 1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고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돌봄공동체 사업을 이해하는 데 유리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 돌봄센터는 공통적으로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이 활용되므로, 입주자 회의와 주민 참여 등은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시의 핵심 요소이다.

사례유형 4-②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지원과 돌봄지원 사업의 위탁 운영이 없이, 공동육아를 추구하는 부모들이 주도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고, 지역 내 공공 서비스 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의 비공식적 지원이 일부 제공된다. 영유아 자녀를 데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카페 이용한 부모들이 공동육아 가치에 기반하여 초등 방과후 돌봄 활동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비공식적으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영유아 대상으로 한 기관이므로, 자발적인 부모 모임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지역 내 민관 협의기구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사회복지관 이외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포함되어 영유아 자녀의 육아에 대한 공동체 경험이 초등 방과후까지 확장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례유형 5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아동센터에 돌봄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방식이다. 해당 지역은 군 지역으로서, 돌봄 공백에도 불구하고 동원 가능한 이외 유관 서비스 기관과 인적 자원이 부족한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타 지역에 비해 공급 수준이 높은 초등학교나 지역아동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시도할 만하다. 또한 군 지역에서 지역중심 돌봄센터는 비교적 아동이 밀집되고 초등학교 등이 인접한 지역에 한하여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는 민간이 주도하는 협의기구의 설치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부문의 추가적인 역할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상의 사례에는 중앙정부의 다함께돌봄사업과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센

터 사업에 선정된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가 필요하고, 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지침 및 매뉴얼이 요구된다. 이때 돌봄센터의 리모델링은 전문가풀의 구성을 통한 정부지원과 돌봄교사의 인건비 책정 시 서비스 유형에 따른 차등지원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전일제 교사 1인과 시간제 교사 2인으로는 외부 강사의 투입 없이 정기적인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아동연령대별 돌봄 프로그램 운영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지리적 접근성 보장을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이 요구되는 지역도 존재하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V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의 민관 협력 실태 및 요구

1. 지역중심 돌봄지원 체계 구축 및 개선 요구
2. 돌봄서비스 운영 시의 민관 협력 및 지원 요구
3. 소결



V.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의 민관 협력 실태 및 요구

이 장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중심 돌봄지원 체계 구축 현황 및 개선 요구, 그리고 돌봄서비스 및 유관 서비스 기관의 운영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운영 시의 민관 협력 및 지원 요구를 파악하였다.

1 지역중심 돌봄지원 체계 구축 및 개선 요구

전국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민관 협력 기구, 초등 방과후 돌봄, 마을공동체 사업 등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돌봄 공백 해소 노력, 관련 서비스 연계 및 민관 협력 기구 운영 현황, 돌봄공동체의 지역 수요 및 지원, 민관의 역할 분화 등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바는 다음과 같다.

가. 아동 돌봄 분야의 공백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지방정부가 아동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아동 돌봄 분야 사업에 반영하거나 관련 조직을 개편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조례 제정 등이 추진된 것으로 파악된다. 보다 세부적으로 관련 서비스 기관의 확충 즉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등이 추진되고,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의 활성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 차원의 돌봄공동체 지원은 전반적으로 미흡하거나 관심도가 낮은 가운데,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다함께돌봄사업)에의 참여가 주를 이루었다.

표 V-1-1 아동 돌봄의 공백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지역규모별	추진 노력
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개편 고려,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중소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아동돌봄 확대 방안 모색,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아동돌봄 운영사업 반영 - 공공기관의 조직개편(부서 신설) 지원센터 건립, 아동드림스타트 조직 개편 - 조례 제정 등
군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함께돌봄사업' 추진 중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중 - 공립지역아동센터 조례 제정 공동육아나눔터 조례 제정 협의체 운영 추진 - 조직 개편 사항 없음. 부족한 현재 인력에 업무 과중. 행정과 인구정책담당에서 진행하는 육아커뮤니티와 아동담당 어린이집 등 업무 협력 및 협의를 통해서 향후 24시간 보육센터 운영 예정 -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농어촌 놀이터 사업 추진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육아품앗이 사업 지원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활용한 공동 육아품앗이 - 조례 재개정(영유아 보육조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자료: 이 연구의 '아동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공무원용' 결과임.

나. 아동 돌봄 분야 네트워크 운영 및 애로사항

1) 돌봄네트워크 및 협의체 운영 현황

아동 돌봄 분야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 또는 협의의 가구를 운영하는 지역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6%에 그쳤다. 특히 아동 돌봄의 공백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대도시 지역의 해당 비율이 45.1%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다양한 인적 자원이 부족한 군 지역에서 50%로 조사되어, 지역규모와 상관없이 민관 협력기구의 전반적인 활성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표 V-1-2 아동 돌봄서비스 연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기구 또는 조직 운영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48.6(52)	51.4(55)	100.0(107)
광역시	45.1(14)	54.9(17)	100.0(31)
중소도시	50.0(18)	50.0(18)	100.0(36)
군 지역	50.0(20)	50.0(20)	100.0(40)

자료: 이 연구의 '아동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공무원용' 결과임.

지역규모별로 현재 운영 중인 아동 돌봄 분야의 서비스 연계 및 네트워크 현황을 살펴보면, 각 기구 및 조직의 주요 역할로는 돌봄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와 지역 내 돌봄 정보 공유, 취약계층 아동 및 가구의 사례관리가 주를 이룬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를 위주로 구성되는 지역돌봄 협의체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초등학교가 비협조적이거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초등학교의 낮은 이해도, 그리고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와의 역할 분담이 모호한 점 등이 지적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 도시 지역에서는 아동, 보육, 아동청소년, 아동돌봄 분과 등 다양한 명칭의 실무분과가 운영되는 것을 알수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 즉 지방자치단체 돌봄실무팀이 협의기구의 주도하는 데, 여기에는 학교, 교육부, 구청교육 담당자, 지역사회복지사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주된 애로사항으로는 담당자의 잦은 교체 문제가 지적되는 데, 이 점은 관이 주도하는 민관 협의기구의 대표적인 한계점으로 인식된다.

다음으로 중소도시 지역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돌봄협의회의 구성이 보다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여기에는 건강증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애로사항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서 해당 기구가 보건복지부 소관여서 여성가족부 주관 사업의 현안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어 양 부서간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된다.

군 지역에서는 별도 기구 없이 드림스타트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이 많고, 운영 시 어려움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인적 자원의 부족이 언급된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를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분과에 지역아동센터는 참여하나 초등 방과후 돌봄에 관한 안건은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된다. 그리고 이때 농촌 지역에서 지역 돌봄 인프라와 초등돌봄교실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지리적 접근성 보장을 위한 차량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아동 돌봄 분야의 서비스 연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로는 별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전담 인력의 확충과 관할 부서를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강조된다. 또한 각자 해당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

고 있어 민관 협력기구의 공통사업이 부재한 경우는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표 V-1-3】 아동 돌봄서비스 연계 및 네트워크 운영 및 애로사항_광역시

기구(협의체)명	구성 (위원 및 소속기관)	돌봄서비스 연계 및 네트워크 운영 시 애로사항 및 활성화의 요건 및 과제
지역돌봄 권역별 협의회	관내 초등학교,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회관	- 학교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어 저녁 돌봄은 대부분 지역아동 센터에 의존하려 하는 경향이 있어,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 가 잘 되지 않음 - 돌봄 협의회를 운영하나, 학교 선생님에게는 지역아동센터 의 역할이 어떠한지 잘 알려지지 않아 연계 협조의 어려움 이 많음 -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간의 적절한 역할 분배가 필요함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아동분과	지역아동센터, 교육청, 교육복지사 등	-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분과 위원이 많이 부족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인력 부족으로 분과 활동에 어 려움이 많음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보육분과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지역아동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 위원들의 활동이 소극적이며 저조함. - 민간주도로 적극적인 활동과 활성화는 힘들 것 같음
협의체 내 아동 청소년 실무분과	아동업무 담당 직원	- 아동사업 추진의 공통과제 도출
아동돌봄협의체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학교돌봄담당자	- 정보공유 부족, 돌봄지원 부족 - 돌봄을 위한 인적, 물적 재원 마련
돌봄 실무추진팀	학교담당자, 교육부 담당자, 구청교육담당자, 지역사회복지사	- 돌봄수요 확대, 돌봄 기관간 정보부족, 돌봄 인력 부족, 돌 봄 공간 부족, 담당자의 잦은 교체 - 일관성 있는 추진

자료: 이 연구의 '아동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공무원용' 결과임.

【표 V-1-4】 아동 돌봄서비스 연계 및 네트워크 운영 및 애로사항_중소도시

기구(협의체)명	구성 (위원 및 소속기관)	운영 시 애로사항 및 활성화의 요건 및 과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경찰서 등	- 애로사항 없음 - 개선과제 : 더 촘촘한 돌봄안전망 구축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사회복지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복지에 - 관여하고 있지만 돌봄기능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역할이 없음

(표 V-1-4 계속)

기구(협의체)명	구성 (위원 및 소속기관)	운영 시 애로사항 및 활성화의 요건 및 과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아동돌봄분과)	공무원,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등에 대한 - 논의와 대책으로 시민들이 체감할수 있는 서비스 제공 필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아동분과 보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관련종사자	아동분과위원	- 협의체 분과의 역할은 일부이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관의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00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지역사회복지시설 기관장	- 보장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주관 기관으로 볼 수 있어 사업 추진 시 여성가족과의 현황을 다루는 데 제약이 있음. - 시군구 단위보다는 시도 또는 중앙정부 단위로 올라갈수록 분리되어 일원화하기 어려움 - 복지에 육아 또는 아동 분야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 두 부서 간에 협력이 매우 필요함
아동복지기관 협의체	지역아동센터, 월드비전,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보건소, 교육청, 장학센터	- 다수의 수혜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대상자 입장에서 타기관과 비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서비스 질적 향상 및 중복 서비스 지원 지양
지역돌봄협의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 지방자치단체 돌봄서비스 전담부서 마련 필요
지역돌봄협의회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지역아동센터, 건강증진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소극적임
아동청소년분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센터	- 각 기관별로 개별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보니(예산, 인 력 부족 등) 공통의 돌봄 분야를 구성하기 위한 정책제안 이나, 공동 사업을 제안하는 데는 참여의 어려움이 있음.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 아동 돌봄 분야의 다양한 위원들이 구성한 후 역량 강화 교육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이 필요

자료: 이 연구의 '아동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공무원용' 결과임.

표 V-1-5 아동 돌봄서비스 연계 및 네트워크 운영 및 애로사항_군 지역

기구(협의체)명	구성 (위원 및 소속기관)	운영 시 애로사항 및 활성화의 요건 및 과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 분과 위원 소속 기관 간 협의 시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 에 의존하고 있음. 제도적으로 통합 운영방안 등 제시

(표 V-1-5 계속)

기구(협의체)명	구성 (위원 및 소속기관)	운영 시 애로사항 및 활성화의 요건 및 과제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지원업무 총괄	- 군 지역여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할 인적자원 부족
사회보장협의체	00군청	- 군청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아동 돌봄 분야의 네트워크 부재 - 아동부서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성 노력 필요
지역돌봄협의체	교육청, 군담당자, 지역아동센터, 민간돌봄관련 기관 등	- 지역돌봄협의체 애로사항- 상시적인 협의체가 아니다 보니 연말, 연초 아동돌봄계획 수립 등 1회성 업무에 그치는 경 우가 많음 - 활성화 요건: 민간 협의체로 직접적인 정책결정과 관련된 기관이 참여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 는 조직 및 인력구조 필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00군청, 00장애인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실무자	-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잘 할 수 있도록 집단교육 및 선 진지 견학을 하고 있음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아동분과	군 담당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기관 등	- 우리 지역의 민간 돌봄 중심기간 역할 수행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군, 교육청, 지역아동센터,	- 부어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분과로 아동청소년분과로 운 영되어져왔고, 위원으로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는 기관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교육청 의 초등돌봄과는 연계가 되지도 않고 그럴 계획도 없음. 그 러니 교육청의 초등돌봄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서 학교로 협조 또는 지시공문을 내려 주어 초등돌봄과 연 계 할 수 있으면 다함께돌봄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다함께돌봄사업에 참여하는 아동들이 학교에서 돌봄센터 로 올 때 교육청 등학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되 었으면 함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보육 실무분과	- 사업 예산 편성
군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드림스타트팀	- 예산의 부족, 지원대상이 취약계층으로 한정 - 참여위원들의 전문성 강화 교육,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군돌봄협의체, 00교육지원청 내 구성, 돌봄체계 의 개선방안, 문제점등 논의	00군돌봄협의체	- 교육청, 행정으로 나누어 아이들의 돌봄사업이 나뉘게 되 어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이며, 특히 방과후 아이들이 행정 에서 하는 돌봄기관에 다시 데려와야 하는 점에서 위험과 부모님들의 번거로움, 비용이 과다함 - 초등학생들은 학교 내 시설 구비로 돌봄 시간 확대 및 학 습적인 서비스 등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봄
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지역 아동센터협의회, 00애육원, 청소년문화의 집 등	- 운영 시 애로사항: 기관, 시설종사자로 구성되어 있어 본인 의 업무처리로 필요 시 회의, 협력 - 활성화의 요건 및 개선과제: 정기모임 정례화, 분과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원(국비)

(표 V-1-5 계속)

기구(협의체)명	구성 (위원 및 소속기관)	운영 시 애로사항 및 활성화의 요건 및 과제
여성아동 청소년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0광역새로일하기 센터,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드림스타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운영 시 애로사항: 각 기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 본연의 업무처리에 바쁨 - 활성화의 요건 및 개선과제: 분과원들이 모임과 분과사업 을 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국비)으로 분과 활성화

자료: 이 연구의 '아동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공무원용' 결과임.

2) 돌봄네트워크 및 협의체 미운영 사유

아동 돌봄 분야 네트워크의 미운영 사유로는 전반적으로 필요성 인식 및 관심도가 낮은 가운데, 담당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현재 아동돌봄 분야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분과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초등 방과후 돌봄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지역에서는 영유아 및 보육 문제에 한정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게다가 해당 기구에 돌봄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돌봄 분야의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동 돌봄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간의 업무 협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된다.

한편 군 지역에서는 노인에 비해 아동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지역 내의 민간 자원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상대적으로 공급 수준이 높은 초등학교 중심의 지역돌봄협의체를 보다 확장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보여진다.

표 V-1-6 아동 돌봄서비스 연계 및 네트워크 미운영 사유_광역시

아동 돌봄 네트워크 및 협의기구의 미운영 사유
-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음, 관련 정보 부족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직 원활히 운영되지 않아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돌봄 분야 기능을 같이 하고 있어 별도 기구가 필요치 않다고 봄
- 향후, 돌봄사업 추진 등과 관련하여 운영 예정
- 아직 기관에서 별도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없음
- 돌봄 분과가 따로 운영되지는 않고 아동 분과에서 총괄함
- 재정 부담 및 담당자의 의지, 지역주민의 참여 및 문제의식 부족함
- 교육부와 복지부간 업무 협의체 구성 미비함
- 인력 부족함

자료: 이 연구의 '아동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공무원용' 결과임.

【 표 V-1-7 】 아동 돌봄서비스 연계 및 네트워크 미운영 사유_중소도시

아동 돌봄 네트워크 및 협의기구의 미운영 사유
- 돌봄협의체 초기 운영으로 아직 미흡한 단계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아동돌봄분과는 올해 분과로 구성하여 운영 할 예정이며, 그 전에는 보육아동 분과로 운영하며 독자적인 돌봄협의체는 없었으나 실무분과 중심으로 네트워크활동 및 소통, 업무연찬 등은 원활히 진행했음
- 사업에 대한 체계 확립 미흡함
- 돌봄협의체는 없으며 가족여성 분과에서 민간 실무자로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참여하고 있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육종사자 없음
- 돌봄사업은 논의 단계일 뿐 아직 현실적인 업무 절차를 밟아가고 있지 못한 상황임
- 구성 중에 있음
- 보육 분야에서 추진 중이며 민간 협력사업으로는 미추진

자료: 이 연구의 '아동돌봄 분야 민간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공무원용' 결과임.

【 표 V-1-8 】 아동 돌봄서비스 연계 및 네트워크 미운영 사유_군 지역

아동 돌봄 네트워크 및 협의기구의 미운영 사유
- 시골지역으로 아동수가 많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으로 소화,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필요하다고 생각됨
- 돌봄 수요 미미
- 협의체를 두더라도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없고, 다른 사업에 밀려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
- 아동분야에 대한 관심 부족, 기타 저소득층인 노인인구가 아동 인구에 비해 월등히 많음, 노인인구 비중이 커서 아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음
- 추진 전담인력 부족
- 자원의 부재, 돌봄관련 민간 인프라 부족

자료: 이 연구의 '아동돌봄 분야 민간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공무원용' 결과임.

3) 돌봄네트워크 및 협의체 구성 관련 요구

지역 내 돌봄 네트워크 및 협의체 구성 시의 참여 위원 및 그 포함 사유로는 다음이 제기되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인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를 제외하면, 이외 공공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 경찰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서비스 기관들의 총괄 기능을 적합하며, 주민자치센터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경찰서는 위기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 개입할 수 있다고 인식되었다. 공공 서비스 기관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수행하고,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으며, 돌봄센터의 컨트롤 기능을

수행하는 데도 적합하다고 인식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돌봄 분야의 전문성을 견지하고 육아정보 제공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등이 언급된다. 이외에도 아동상담소는 아동 문제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으며, 마을 단위 대표 또는 학부모 단체 대표 등은 돌봄 인프라 확보 시에 마을 단위의 협조가 필요하고, 돌봄 수요를 파악하는 데도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된다.

【표 V-1-9】 아동 분야 돌봄 네트워크 및 협의체 구성 위원 및 사유

구분	포함 사유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설에서 돌봄대상 아동의 파악 및 돌봄서비스 접근성이 가장 가깝고, 이미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나 계획이 있는 민간기관에서도 의견을 모아 통합적인 돌봄센터 설립 혹은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동의 일상지원 및 교육에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 - 교육청 주도하에 방과후돌봄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경찰서, 지구대, 자율방범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및 개입할 수 있는 기관이 연계되어 있으면 좋을 것이라 사료됨
건강가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돌봄에 있어서는 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내 아동 관련 유관기관이 함께 해야 함 - 지역의 아동 및 가정과 밀접하게 접근이 가능한 기관이기 때문 -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 - 해당 시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연계하여 돌봄정책을 수행하기가 쉽기 때문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 - 읍면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의견수렴 및 접근성에 용이 함 - 다문화 가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지역주민에게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돌봄과 직접 관련됨
육아종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정보센터에서 육아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함 -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정보가 필요함 - 육아와 돌봄에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임
주민자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하고 있음
학교 (초등돌봄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복지사들이 아이들의 특성과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음 - 교육시설에서 돌봄대상 아동의 파악 및 돌봄서비스 접근성이 가장 가깝고, 이미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나 계획이 있는 민간기관에서도 의견을 모아 통합적인 돌봄센터 설립 혹은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저소득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 등 모든 아동이 이용 할 수 있는 시설 필요 - 지역 내 유관기관과 초등학교의 아동수 감소에 따른 공간 활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함 - 학교 내 돌봄교실이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으며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소득재산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고, 아동이 정규 수업 하고 후 이동 거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임 - 지역의 아동 및 가정과 밀접하게 접근이 가능한 기관이기 때문

(표 V-1-9 계속)

구분	포함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을 통해 전문적인 보육을 받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서는 전문적인 돌봄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등돌봄 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의 확대로 전문적인 돌봄기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교육부와 행자부, 보건복지부의 담당업무가 분리되어 각 자원의 공유가 더욱 힘들기 때문임 - 아동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저소득으로 국한된 일부아동의 돌봄사업만 추진 중에 있어 맞벌이 아동 등 일반아동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돌봄사업 대상 확대가 필요함 - 군은 농촌지역으로 면단위의 6개 면의 경우 초등학교전교생, 병설유치원생 포함하여 40명도 안 되는 경우로 별도의 시설운영이 비효율적임 - 지역 내 돌봄체계는 자발적 운영 형태로 본다면, 당연히 해당 부모가 주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지역 내 노인인력 활용을 통한 서비스 인력해소를 위해 지역 내 노인단체 회원이 가입되어야 효율적이라고 봄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 등 모든 아동이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 - 지역 내 돌봄 수행기관이기 때문 - 지역 내 유관기관과 초등학교의 아동수 감소에 따른 공간 활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함
지역아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가 밤 9시까지 운영한곳이 일부 있어서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함-지역 내 돌봄 수행기관으로써 아동을 직접 만나는 일선의 기관이며, 평소 아동 돌봄이 이루어지는 기관임 - 역의 아동 및 가정과 밀접하게 접근이 가능한 기관임 - 현재 취약아동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비교적 접근이 용이함 -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협의체 운영에 적합함 - 지역 저소득층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관계 기관(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이 협의기구에 포함되어야 함 - 지역 내 유관기관과 초등학교의 아동수 감소에 따른 공간 활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함 - 영유아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을 통해 전문적인 보육을 받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서는 전문적인 돌봄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등돌봄 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의 확대로 전문적인 돌봄기능이 이루어져야 함 - 아동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교육시설에서 돌봄대상 아동의 파악 및 돌봄서비스 접근성이 가장 가깝고, 이미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나 계획이 있는 민간기관에서도 의견을 모아 통합적인 돌봄센터 설립 혹은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아동심리 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상담을 통해 아동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부모와 함께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아동 돌봄에 있어서는 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내 아동 관련 유관기관이 함께 해야함 - 아동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양육자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임
아동드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 가구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동돌봄을 통한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지역기관 확대가 필요함
마을단위 대표, 학부모 단체 대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확보 등을 위해 마을단위 협조가 필요하며 돌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학부모 등이 포함되어야 함

자료: 이 연구의 '아동돌봄 분야 민간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공무원용' 결과임.

다음으로 지역 내 돌봄공동체 지원 및 컨설팅 지원에 적합한 기관으로는 지역 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사회복지관, 드림스타트로 파악된다.

이들 기관은 공통적으로 돌봄 수요 아동의 발굴 및 연계를 실시하며, 각 기관별로 지역아동센터는 돌봄공동체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지원, 드림스타트는 취약가정 연계 및 보호자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지원, 아동삼리상담센터는 전문상담서비스와 심리상담 및 치료,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 대응 및 협력이 가능하다고 인식된다.

▶ 표 V-1-10 ▶ 지역 내 돌봄서비스 기관 연계에 적합한 기관

단위: %(명)

기관유형	서비스 연계 협력내용
지역아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아동돌봄 및 급식지원 - 돌봄공동체 교육 및 컨설팅 - 숙제 및 문화체험활동 - 아동발굴 연계 - 문화체험 및 돌봄
초등돌봄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방과후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아동 돌봄 역량 강화 - 돌봄이 필요한 아동 연계 및 추천 - 프로그램 진행 및 상담 - 교육, 문화 정서, 보호지원 - 방과후 돌봄 서비스 - 아동 발굴 및 서비스 의뢰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지원 - 가정 양육환경 지원 - 돌봄필요아동 발굴 및 연계 - 교육, 간식제공, 노인일자리 제공 등 - 사각지대 아동 발굴 및 서비스 연계 - 돌봄서비스 직접 운영, 돌봄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등 - 아동정서지원
드림스타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교육, 치료, 문화체험 등 - 아동복지교사파견 - 상담/취약 가정 연계 보호자 상담 및 가정 지원 - 사례관리, 지역자원연계 - 학습, 돌봄서비스 연계(학교) - 아동사례관리 및 돌봄기관연계 - 사각지대 아동 발굴, 의뢰

(표 V-1-10 계속)

기관유형	서비스 연계 협력내용
아동심리상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 상담 서비스 제공 - 아동의 정서적 안정 도모 - 아동 심리검사 및 프로그램 연계 - 심리상담 및 치료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 아동의 연계 및 홍보 - 사각지대 아동발굴 및 수요파악 - 사례 관리 및 위기 아동 대응 협력 가능
교육복지센터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체계 구축 - 아동 상담 및 교육
건강가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및 가정에 필요한 자원연계 - 돌봄사업 및 가족상담(다문화 등) - 아동 사례발굴 및 논의, 서비스 개입, 사후관리 등 - 가족구성원별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 다문화 및 소외계층 아동 돌봄
기타 (자율방범대, 푸드뱅크, 작은도서관, 장애인부모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 유해지역 순찰 - 결식아동푸드지원 - 장애아동 이해와 지원

자료: 이 연구의 '아동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공무원용' 결과임.

지역 내 돌봄서비스 연계에 적합한 기관으로는 지역아동센터가 57.3%로 가장 높게 평가되며, 그 다음으로는 학교 25.7%, 드림스타트 21.8%,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사회복지관은 각각 18.8%와 16.8%로 나타난다. 그런데 지역규모별로 드림스타트의 경우는 광역시 지역의 응답율이 낮고, 군 지역에서는 사회복지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저조한데, 이는 이들 기관의 낮은 공급률과 관련된다고 보여진다.

표 V-1-11 지역 내 돌봄서비스 연계에 적합한 기관

단위: %(명)

구분	돌봄서비스 연계에 적합한 기관											계(수)		
	지역 이동센터	사회 복지관	학교	드림 스타트	상담 센터	기타	지자체	청소년 문화의 집	건강가정 지원센터	돌봄 협의체	민간 재단		도서관	사설 기관
전국	25.5	19.1	16.5	12.8	9.0	8.0	6.9	5.9	4.8	3.7	3.2	2.1	1.1	0.5
서울	50.0	50.0	0.0	0.0	50.0	25.0	0.0	0.0	0.0	0.0	0.0	0.0	0.0	100.0(4)
부산	72.7	27.3	27.3	27.3	27.3	9.1	0.0	0.0	0.0	0.0	0.0	0.0	0.0	100.0(11)
대구	33.3	44.4	22.2	22.2	33.3	0.0	11.1	22.2	0.0	0.0	0.0	0.0	0.0	100.0(9)
인천	0.0	33.3	0.0	66.7	0.0	33.3	0.0	0.0	33.3	33.3	0.0	0.0	0.0	100.0(3)
광주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1)
대전	60.0	60.0	20.0	20.0	4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5)
울산	50.0	0.0	0.0	0.0	0.0	50.0	0.0	0.0	0.0	50.0	0.0	0.0	0.0	100.0(2)
경기	58.3	33.3	8.3	25.0	16.7	16.7	8.3	0.0	8.3	16.7	8.3	0.0	0.0	100.0(12)
강원	46.2	15.4	30.8	0.0	7.7	7.7	15.4	15.4	15.4	0.0	7.7	7.7	0.0	100.0(13)
충북	40.0	60.0	20.0	20.0	0.0	0.0	0.0	0.0	0.0	0.0	20.0	0.0	20.0	100.0(5)
충남	71.4	14.3	28.6	14.3	0.0	0.0	42.9	0.0	0.0	14.3	0.0	0.0	0.0	100.0(7)
전북	100.0	0.0	0.0	40.0	0.0	40.0	0.0	20.0	0.0	0.0	0.0	0.0	0.0	100.0(5)
전남	66.7	0.0	33.3	0.0	0.0	0.0	0.0	0.0	0.0	0.0	0.0	33.3	0.0	100.0(3)
경북	55.6	11.1	22.2	11.1	22.2	11.1	0.0	0.0	22.2	0.0	11.1	11.1	11.1	100.0(9)
경남	66.7	8.3	41.7	25.0	16.7	0.0	0.0	16.7	0.0	8.3	0.0	0.0	0.0	100.0(12)
광역시	60.0	40.0	16.7	20.0	30.0	10.0	3.3	3.3	0.0	6.7	0.0	0.0	0.0	100.0(30)
중소도시	53.1	25.0	25.0	9.4	15.6	6.3	12.5	6.3	6.3	12.5	6.3	3.1	3.1	100.0(32)
읍면지역	59.0	15.4	23.1	25.6	7.7	12.8	5.1	10.3	10.3	0.0	5.1	5.1	2.6	100.0(39)

자료: 이 연구의 '이동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 공무원용' 결과임.

다.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자원 현황

각 지역별에서 아동 돌봄 공백의 해소를 위한 돌봄센터 또는 지역 내 거점 기능을 수행할 공간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아 43.4%,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9.2%로 높게 나타난다. 돌봄센터 인력의 충분성에 대해서도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율이 54.7%에 불과하였다. 특히 돌봄센터를 지원할 인력은 도시 지역에 비해 군 지역에서 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V-1-12】 지역 내 돌봄센터 활용 공간 충분 정도

단위: %, 점(명)

구분	매우 부족함	부족함	보통	충분함	계(수)	평균(5점)
전체	29.2	43.4	24.5	2.8	100.0(106)	2.01
지역규모						
광역시	20.0	50.0	23.3	6.7	100.0(30)	2.17
중소도시	36.1	36.1	27.8	0.0	100.0(36)	1.92
군 지역	30.0	45.0	22.5	2.5	100.0(40)	1.98

자료: 이 연구의 ‘아동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공무원용’ 결과임.

【표 V-1-13】 지역 내 돌봄센터 인력 활용 충분 정도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충분하지 않음	충분하지 않음	보통	충분함	계(수)	평균(5점)
전체	17.0	54.7	22.6	5.7	100.0(106)	2.17
지역규모						
광역시	16.7	46.7	33.3	3.3	100.0(30)	2.23
중소도시	13.9	52.8	25.0	8.3	100.0(36)	2.28
군 지역	20.0	62.5	12.5	5.0	100.0(40)	2.03

자료: 이 연구의 ‘아동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공무원용’ 결과임.

라. 돌봄공동체 부모 수요 및 요구

1) 부모 수요

각 지역에서 부모가 참여하는 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부모들의 수요

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40% 수준으로 나타난다. 지역규모별로는 도시 지역에 비해 군 지역에서 수요가 낮다고 평가되었다.

지역사회 돌봄공동체의 수요층으로는 초등학생 자녀가 52.3%로 가장 높고,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정이 36.4%로 조사되었다. 광역시와 군 지역에서는 초등 방과후 돌봄의 공백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 표 V-1-14 ▣ 지역 내 부모참여 돌봄센터에 대한 부모 수요 정도

단위: %, 점(명)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높음	매우 높음	잘 모르겠음	계	평균 (5점)	(수)
전체	6.6	26.4	36.8	4.7	25.5	100.0	2.53	(106)
지역규모별								
광역시	6.7	16.7	33.3	6.7	36.7	100.0	2.63	(30)
중소도시	8.3	13.9	52.8	5.6	19.4	100.0	2.69	(36)
군 지역	5.0	45.0	25.0	2.5	22.5	100.0	2.32	(40)

자료: 이 연구의 '아동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공무원용' 결과임.

▣ 표 V-1-15 ▣ 부모참여 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수요층

단위: %(명)

구분	초등 방과후 돌봄	영유아를 둔 가정내 양육 가구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 (시간연장형 보육 등)	기타	계(수)
전체	52.3(23)	9.1(4)	36.4(16)	2.3(1)	100.0(44)
지역모별					
광역시	58.3(7)	-	33.3(4)	8.3(1)	27.3(12)
중소도시	42.9(9)	19.0(4)	38.1(8)	-	47.7(21)
군 지역	63.6(7)	-	36.4(4)	-	25.0(11)

자료: 이 연구의 '아동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공무원용' 결과임.

2) 부모참여 돌봄센터에 대한 지원 요구

부모가 참여하는 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요구로는 다음이 제기되었다.

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력지원 즉 공간 마련(리모델링비)을 위한 비용, 인건비, 운영비 지원과 돌봄센터의 이용을 위한 이동수단 즉 차량운행

비 추가지원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이들 돌봄 인프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 지원 및 운영규칙 등 세부 운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업 추진 시 교육부와 연계하고,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부서를 명확히 지정하며,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인적 자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는 인력지원 및 동원을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나아가 돌봄센터의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등에 관한 모니터링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되었다.

표 V-1-16 | 부모참여 돌봄센터의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요구

부모가 참여하는 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원 요구
- 공간 확보(자유 공간, 식사 공간, 학습 공간 등), 상근인력 지원(행정업무, 사회복지사, 식사 제공 등), 비상근인력 지원(특화교육 등)
- 예산(공간, 인건비,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
- 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충분한 운영비(차량지원 및 인솔)지원
- 새로운 돌봄센터를 만들 경우에는 이동수단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이동수단없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 원거리의 돌봄센터 이용자는 근거리 거주자로 극한될 수 밖에 없으며 초등학교와 돌봄센터간 셔틀이 필요함)
- 법적근거 마련
- 안전매뉴얼 및 관련법규 마련
- 운영비 등 관련예산 지원 운영규칙 등 세부지원 기준안 마련이 필요함
- 교육부와 연계하여 사업실시가 요구됨
- 돌봄센터는 초등학교내 설치 지원함
- 지역 내 인적자원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경우 정부 차원의 인력지원 방안 강구 예시) 경기도 연천군 지역 주둔 군인을 활용한 돌봄(학습지원) 제공관련 국방부 등 중앙부처 차원에서 협의 및 제도적 지원장치 마련이 필요함
- 돌봄프로그램 및 기관, 시설 모니터링이 필요함
- 근무자 처우개선이 필요함
-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기관 지정, 충분한 수행인력 교육이 필요함
- 돌봄센터 설치 운영을 하기 위한 교육지원

자료: 이 연구의 '아동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공무원용' 결과임.

마.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 시 민관 역할 및 분화

초등 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시의 민관의 역할로는 다음이 제기되었다.

중앙정부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되, 전체 아동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사업의 운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돌봄센터 운영 지침과 매뉴얼을 개발하며, 이때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우수사례 발굴 노력을 기울인다. 돌봄 인프라 설치 비용(리모델링비)과 돌봄교사의 인건비, 이외 운영비를 지원한다. 돌봄 관련 부서들 간의 역할 및 돌봄체계 일원화를 기하고, 부서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된다.

지방정부는 돌봄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 내 돌봄 수요를 분석하고, 사업 홍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국비와 매칭할 수 있는 지방비 예산을 편성하고 돌봄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기관간의 업무 조정 등과 협업을 위한 민간 자원을 포함한 네트워크를 구축 및 지원한다.

▣ 표 V-1-17 ▣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시 중앙정부의 역할

중앙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에서 실행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함 - 전체 아동을 아우르는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입안 - 종합계획에 의거 일관성 있는 총괄 추진 및 정책의 수립 -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 수립과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함 - 사업의 지속 및 영구 운영이 요구됨 - 통합적인 돌봄센터 설립 추진 및 운영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향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지원(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등지원 포함)을 담당해야 함 - 지역 거점 아동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건립비 지원(건물매입비 포함) 필요함 -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공공에서 지원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함 - 돌봄센터의 가이드라인 제시 법적 설치의 마련, 지침 및 세부기준 제시 - 지방 실정에 맞는 사업기준 마련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업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지역별 적용가능한 사업운영의 표준화 모델을 제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센터 시범 운영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한 방과후 돌봄의 확충 추진 - 지자체의 균형적인 돌봄서비스 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함 - 부처간 협업과 교육부와 사업 공동추진이 요구됨 - 돌봄사업이 부처별로 많은데 한곳에서 통합하여 수행해서 부서간에 충돌이 없어야 함 - 주관부서(교육부, 복지부, 여가부)의 역할 및 돌봄체계에 대한 일원화

자료: 이 연구의 '아동돌봄 분야 민간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공무원용' 결과임.

【 표 V-1-18 】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시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정부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수행기관에 대한 점검 및 지원이 요구됨 - 지역단위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체계 구축 및 적절한 지도감독 필요함 - 실무자 교육, 운영체제 점검 등 지도 점검이 요구됨 - 실시기관 선정 및 지속적인 관심, 정기적 점검이 요구됨 - 지원조례 제정 및 이용자 모집 및 홍보가 필요함 - 지역의 수요에 맞는 돌봄센터 설립 추진 및 돌봄공백 수요 조사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수립, 예산확보 필요함 - 국비와 함께 매칭할 수 있는 지방비 예산 지원이 요구됨 - 공공기관 활용 및 자체사업 예산 확보가 중요함 - 지방정부는 사업을 공모할 때 유사 기존사업과의 연관성을 먼저 고려하고 사업 실시될 때 필요한 인력적, 물질적, 지역적 여건도 함께 고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기관 및 장소 선정이 필요함 - 돌봄허브 역할 및 기관별 업무 조정이 필요함 - 돌봄체계 구축 지원 및 자원 협력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특성에 맞는 돌봄시설 및 정책 확충이 요구됨 - 대상자 관리 및 대상자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등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수요 파악 및 돌봄센터 운영 지원이 필요함 - 돌봄아동 발굴 및 돌봄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지역주민육구 파악 등 필요함 - 마을 단위별 수요조사 및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부녀회 등을 통한 돌봄사업 운영 시 간식 제공 등) - 읍면동별 돌봄교실 이용자를 파악하여 지역별 이용시설 확보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네트워크 구축, 선진우수 추진 사례 공유, 교육 실시 등이 요구됨 - 민간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및 전문성 역량 강화 - 민관 자원 연계와 협력제도 구축이 필수. 특히 자원연계부분이 매우 필요함 - 민관 협의체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됨 - 민간부분과 연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사업 취합해야함 -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거 지역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구단위 종합센터 설립이 필요함 - 가장 필요한 지역 우선순위 선정 및 지원이 요구됨 - 공간 확보, 총괄부서, 교육, 워크숍이 필요함 - 부모교육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모)는 돌봄사업에 직접적인 참여보다는 간접적인 안전이나 귀가 등에 참여하고 직접적인 돌봄 학교내에서 추진해야함 - 사업 홍보가 필요함

자료: 이 연구의 '아동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공무원용' 결과임.

다음으로 공공 부문에서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인력 배치 및 프로그램 개발, 수요자 발굴 및 연계, 홍보 등을 담당하는 등 거점 기능을 수행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돌봄 수행기관에 대한 협조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돌봄 관련 정보를 교류한다. 또한 돌봄기관에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을 제공하고, 마을단위의 주민공동체 결성 등을 통해 돌봄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표 V-1-19 】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시 공공 부문의 역할

공공 부문의 역할
- 돌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평가 등이 필요함
- 돌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원 배치와 실행이 요구됨
- 돌봄사업 추진관련 협력이 필요함
- 기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 사업 강화 및 학교와 연계 등이 필요함
- 지역 자원으로서의 관련 기관 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 인적자원 발굴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함
- 학교와의 협조체계를 구성해야함
- 상호 유기체제로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정보공유가 필요함
- 인력 확보가 요구됨
- 다양한 돌봄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 발굴아동의 기관 연계, 돌봄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취약계층 등 돌봄 수요자를 파악하고 연계해야 함
- 사각지대 아동 발굴신고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지원 및 모니터링이 요구됨
- 민간에 홍보를 철저히 해야함
-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주민들 관심유도와 자원봉사 참여 권유 등 필요함
- 부모교육이 필요함
- 아동 돌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어야 함

주: 이 연구의 '아동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표 V-1-20 】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시 민간 부문의 역할

민간 부문의 역할
- 민간 부문의 역할은 공공 부문의 추진 정책을 따라주며 수정 및 보완할 부분 지적 요구됨
- 정보교환 및 교류가 요구됨
- 돌봄수행 기관에 대한 협조와 모니터링이 필요함
- 돌봄 기관 운영에 대한 이해 협조가 필요함
- 인력 풀을 제공해야함
- 지역 돌봄사각지대 아동 발굴, 돌봄제공이 필요함

(표 V-1-20 계속)

민간 부문의 역할
- 돌봄 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각 기관 및 개인이 가진 역량과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와 제공 활성화
- 공공기관과 협력이 필요함
-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 돌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마을단위의 주민공동체 결성, 활용공간 마련이 요구됨
- 돌봄사업에 적극 참여해야함
- 재능기부가 요구됨
- 자원봉사, 지역인적자원 활용이 가능해야함
- 공공의 지원이 배제된 사각지대 수혜자 발굴하여 지원해야 함
- 부모도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초등돌봄 이외시간 돌봄프로그램 제공이 요구됨
- 돌봄주체로 참여해야 함
- 재정 부담이 요구됨
- 모니터링 참여해야함
- 지방정부의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함
- 자원모집 및 교육, 파견 등이 필요함
- 협력체계 구축(교육, 돌봄)이 필요함
- 민간자원 활용 및 서비스 구축이 필요함
- 의견 제시 및 협력이 필요함
- 부모와 아동들의 수시 욕구 파악 및 수요 파악이 필요함

자료: 이 연구의 '아동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공무원용' 결과임.

2 돌봄서비스 운영 시의 민관 협력 및 지원 요구

전국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와 사회복지관, 청소년아카데미의 돌봄 네트워크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돌봄지원사업 위탁운영 시 애로사항, 아동 돌봄 분야 서비스 연계 및 지원 요구, 돌봄센터 설치·운영시의 적합한 역할 등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가. 지역중심 돌봄공동체 지원 기관의 애로사항 및 요구

1) 돌봄서비스 위탁운영의 애로사항

돌봄서비스 위탁 경험이 있는 기관들은 위탁 사유로서, 돌봄 아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질 높은 강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인근에 학교가 위치하고 봉사자들과의 규칙적인 연계 등을 들고 있다.

위탁 운영 시의 애로사항으로는 돌봄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 프로그램 운영비만 지원하고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등이며, 참여대상 아동의 모집이 어렵고, 낮은 교사임금 수준 및 채용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 표 V-2-1 ▣ 위탁기관의 역할과 운영 시 애로사항

위탁 운영 시 애로사항
- 사업지속을 위한 자원 마련
- 프로그램 운영비만 지원이 가능하고, 그 외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대한 지원은 없음
- 지원금에 대한 사후 증빙작업이 까다로워 담당 직원의 업무과부하가 유발되고 있음
- 과도한 행정 업무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아동들을 돌보는데 집중하기 어려움
- 프로그램 운영비만 지원이 되고 있음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의 지원이 다소 어려움
- 기본운영비로는 운영이 어려워서 후원금을 지원받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부족함
- 비현실적인 운영비
- 참여 대상 모집 시 어려움
- 교사 최저임금, 인력을 구하기 힘들
- 공간 부족으로 협소함
- 아동 사례관리 시 부가되는 비용
- 보조금의 부족으로 인해 아동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움
- 필요한 물품 구입에 대한 제약이 많음
-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질 높은 돌봄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기본적 돌봄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음

자료: 이 연구의 '아동 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실무자용' 결과임.

2) 지역중심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개선 요구

이동 돌봄 공백의 해소하거나 틈새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공동체 지원사

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요구로는 돌봄센터에 대한 지원(돌봄 인프라와 인건비, 운영비, 급식 종사자 인건비 등) 지원, 다양한 분야 프로그램 지원, 행정업무 간소화, 토요돌봄 사업 확대, 일반아동 대상 지원 그리고 돌봄체계의 일원화 등이 제기되었다.

표 V-2-2 지역중심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요구 및 개선 과제

사업 활성화 위한 정부지원 요구 및 개선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공간(놀이공간)에 대한 지원(공간, 인건비 등) - 운영비 및 인건비 인상,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원 - 행정업무의 단순화(문서화 작업 간소화) - 인력지원 및 사무직 종사자 필요 - 다양한 분야 프로그램 지원 - 복지 사각지대 놓인 청소년 발굴 및 지원 - 고용의 안정성 - 자율적 운영 허용 - 이용아동 제한 폐지 - 돌봄체계의 일원화 - 토요돌봄 사업 확대 - 호봉제 도입, 인력증원 -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 - 학습프로그램, 정규프로그램 지원

자료: 이 연구의 '아동 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실무자용' 결과임.

나. 아동 돌봄 분야 네트워크 운영 및 애로사항

1) 돌봄 네트워크 및 협의체 운영 현황

지역 내 아동 돌봄 분야의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및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기구 또는 조직에의 참여 현황 및 애로사항으로는 다음이 지적된다. 우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는 학부모 참여가 저조하며, 지역사회돌봄협의체는 복지부 등 돌봄 분야 담당부서가 상이하여 일원화된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교육지원청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영되며, 비상근 또는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져 체계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된다. 교육복지네트워크협의체는 방임 아동에 대한 개입이 어렵고, 지역돌봄협의체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들고 있다.

표 V-2-3 지역 내 아동 돌봄 분야의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 현황 및 애로사항_전반

기구명 (협약체)	구성 (위원 및 소속기관)	주요 역할	운영 시 애로사항
지역사회 보장 협약체	사회복지관 지역주민 지역아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개발관리 및 배분 - 아동복지기금 사업논의 및 진행 - 주거관련 정책 제안 - 청소년마을축제, 청소년 정책창안대회 등 청소년 활동 지원 -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 발굴·조사·도움·지역사회 내 이웃돕기 기획·진행·연계 및 협의·자원 개발 - 지역주민, 기관들과 네트워크활동, 지역주민어울한 마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협력이 중요시되어야 하는데 형식적인 모임이 되어 활성화가 어려움 - 관의 활동이 소극적이고, 일방적인 운영주도가 있음 - 회의의 논의점이 범위가 넓고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형식적인 회의진행 - 협약체 위원 및 구성원들이 유관단체 관계자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좋으나, 실제 학부모들의 참여가 저조해 아쉬움이 있음 -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통해 학부모 참여를 안내, 홍보한 적이 있으나, 참여율 저조 - 공동사업이나 공동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단순 기관사업만 공유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음 - 모임, 회의 외에 활성화가 어려움
지역사회 돌봄 협약체	학교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관련 네트워크 구성 - 돌봄네트워크 효율성 연계 프로그램 활동 -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유기적 협조 - 방과후 프로그램 공동계획, 각 기관별 프로그램 실시 - 돌봄아동 정보 공유, 의견제시 - 사례관리 및 지원, 사업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은 형성이 되나 문제 해결에 있어 한계가 많음 - 인원수는 많은데 비용 부족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복지부 등 돌봄운영 부서가 제각각이어서 중복이 많고 하나도 탄실한데가 없어 돌봄 운영체제 통합이 과제라 생각됨 - 일회성 사업이 많고, 예산이 안정화 되어 있지 않음 - 교육지원청 주관 협약체로 권역구성 일방적, 현장의견 반영 전무, 형식적 사업수행, 학교 돌봄 종료 후 센터와의 연계 단절(보호자 안내 부족) - 각 부처 및 기관별 운영기관 입장과 생각이 상이하하며, 의견조율 시 입장차 발생 - 비상근 또는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아동 돌봄에 한계가 있음
교육복지 네트워크 협약체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구성 - 학교-지역간 교류 -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유기적 협조 - 혁신교육지구 사업 전반적인 협의 - 아동·청소년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임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자 개입이 어려움 - 돌봄협약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부족
사회복지 협약회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서비스제공 - 감사 - 행정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협약체가 구·동으로 확산 되면서 지역자원의 쏠림현상이 생기고 역할에 대한 중복·자원연계의 어려움

자료: 이 연구의 '아동 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실무자용' 결과임.

한편 이들 기관 및 기구의 세부 역할로는 네트워크 연계사업의 개발, 공동 및 협력사업의 수행 및 의견 제시, 연계 프로그램 활동, 기관 연계 및 정보 공유, 자원 개발 및 관리 등이 제시된다.

각 지역별로는 대학생 봉사관련 단체 및 모임과의 교류 필요성이 제기되며, 업무 연계나 관리를 위한 별도 전담인력(간사 등)이 부족한 점, 공동사업의 추진없이 모임만 운영될 경우 실효성이 낮으므로 공모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그 밖에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역할을 명료화하고 중복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 표 V-2-4 ▣ 지역중심 돌봄서비스 연계 및 네트워크 기관의 주요 역할

주요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연계사업 개발, 협력사업 진행 및 의견제시 - 협의체 구성 - 협의체 위원, 지역 내 아동청소년 관련 활동 논의 - 아동청소년 관련 이슈 논의 및 캠페인 등 공동사업 추진 - 아동, 청소년 돌봄서비스구축 - 자원개발관리 및 배분 - 지역 내 돌봄관련 회의, 학교, 복지관, 센터와의 연계 - 지역복지 아이디어 발굴 - 관청과의 소통, 연계사업 세부논의 - 방과후 돌봄 - 청소년 마을축제 및 대회 등 청소년 활동 지원 - 혁신교육지구 사업 전반적인 협의 - 공동사업 추진 - 사례관리 및 지원, 사업네트워크 구축 - 현안공유, C사업 등 공동사업 기획 운영 - 공동사업, 현안 의제 선정 등 - 관내 기관 연계 및 정보 공유 - 아동청소년분과 실무위원 참여 및 활동 - 돌봄 네트워크 효율성 연계 프로그램 활동 - 저소득층 생필품 등 지원 -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유기적 협조(학교, 지역 간 교류)

자료: 이 연구의 '아동 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실무자용' 결과임.

▣ 표 V-2-5 ▣ 아동 돌봄 분야의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 구성 및 애로사항_광역시

기구(협의체)명	구성(위원 및 소속기관)	운영 시 애로사항
아동청소년분과	종합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회 모임으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많음 - 개별 기관 업무우선으로 참여율 다소 저조 - 활성화 요건 및 개선과제 - 각 기관과 연결된 구체적 활동 개시 필요

(표 V-2-5 계속)

기구(협의체)명	구성(위원 및 소속기관)	운영 시 애로사항
아동청소년분과	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 역할에 대한 각 기관과의 차이 등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분과	사회복지관	- 분과위원들이 만날 수 있는 일정을 잡기 어려움. - 공동사업이나 공동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단순 기관사업만 공유에 머무르고 있음
방과후돌봄 협의회	방과후돌봄 종사자	- 학교와 아동센터, 청소년시설들이 모두 운영방식이 달라 회의 시 서로간에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음
지역돌봄협의체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의 급여와 후생 복지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운영비 지원
구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지역아동센터	- 연계 업무를 중계해 줄 인력 없어서 센터업무와 중복되어 과중함(회비부담이 너무 크거나 양질의 인력채용의 어려워 단계적으로 일하고 그만두는 일이 많음 - 구 단위 지역아동센터 협의체에 인력 및 장소 제공 또는 현재 배정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사활용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 인력필요 - 회비로 충당하니 후원금으로의 지출이 지나치게 비싸고 그렇지 않으면 유능한 인력을 구할 수도 없음 - 안정된 인력과 장소를 지원하여 지역아동센터간업무소통과 구청과의 소통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함(예, 현재 배정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사활용문제)
00지역돌봄 협의체	초등학교 돌봄교실	- 초등학교 돌봄교실 선생님들의 협의체라서 지역아동센터는 별 도움이 안됨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구청담당자	- 정보공유에만 그치는 것이 아쉬움 - 다양한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구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 민관에 비해 관의 활동이 다소 소극적임 - 아동청소년분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적음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00구, 00교육지원청, 청소년수련관 등	-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다소 소극적임 - 학교 위주로만 지원이 많아서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적음
00청소년지도사 실무협의회	00시립청소년 수련관 등	- 시립 청소년시설 부장단으로 구성되어 구립청소년시설의 참여가 제한적임 - 실제 연합 활동이 없음
지역돌봄협의체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 지속적인 연계가 아닌 단편적인 연계활동에 그침 - 실제 현장을 중심으로 한 연계 필요에 따른 예산 등의 지원 필요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청소년수련관	-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 및 공동 사업이 없이 회의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공모사업 또는 공동사업이 필요함.
지역보장협의체	지역아동센터 등 기관모임	- 공동업무를 추진하기 보다는 개별기관의 당장의 이익을 우선시 함

(표 V-2-5 계속)

기구(협의체)명	구성(위원 및 소속기관)	운영 시 애로사항
아동복지 네트워크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복지관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개입 및 의뢰의 목적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의뢰되는 경우가 드물 - 돌봄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각 기관의 명확한 업무분장이 안되고, 기관별로 대부분 비슷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중복되고 있음
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지역주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 차원의 돌봄서비스 부족
00네트워크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운영은 하고 있으나, 각 기관별 고유업무가 바쁘다 보니, 주관부서가 불명확하여 사업 추진 실적 저조
돌봄협의회	학교돌봄, 지역아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청 주관 협의체로 권역구성 일방적, 현장의견 반영 전무, 형식적 사업수행, 학교 돌봄 종료후 센터 연계 단절(보호자 안내 부족) - 학교 돌봄 학년 종료 후 센터돌봄 적극연계
00네트워크	학교교육복지, 사회복지관, 경찰서, 구청, 주민센터사회담당, 드림스타트, 교육청, 아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참여기관으로 논의 범위 및 관련 포괄적임 - 사례 중심 연계기관 간 심화된 논의구조는 제한적임 - 월1회 전체회의에서 세분화된 사례중심 논의 구조 형성이 필요함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여성가족분과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산하, 여성가족부 산하로 구분되어 지는 시설들간의 정보교류와 사업형태 등의 차이

자료: 이 연구의 '아동 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실무자용' 결과임.

표 V-2-6 아동 돌봄 분야의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 구성 및 애로사항_중소도시

기구(협의체)명	구성(위원 및 소속기관)	운영 시 애로사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지역의 아동을 동단위로만 지원할 수 있어서 지역 아동센터 내의 아동을 지원 할 때도 구분해서 지원가능한 아동을 뽑아서 지원하고 있음 - 지역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기획해도 지방자치단체(구/동)별로 지원대상을 한정하여 연계 사업진행이 어려움 지방자치단체와 보장협의체 활동이 잘 사는 구/동 등으로 자원이 쏠리는 현상이 있어서 지역간의 갈등과 차별을 야기함 - 같은 아동이나 교육부·여가부·복지부 산하 기관의 협치가 예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대상을 소속기관으로 한정하여 진정한 돌봄과 협치는 어려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의 협력체제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관은 회의에 거의 나오지 않고 민간 중심으로 운영됨

(표 V-2-6 계속)

기구(협의체)명	구성(위원 및 소속기관)	운영 시 애로사항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사회복지관	- 관은 필요시만 참여함 -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정책과제들은 대부분 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관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
지역돌봄협의체	지역아동센터	- 모임을 자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음 - 돌봄을 주제로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으면 함
학교돌봄	지역아동센터장 학교장 교육청담당자	- 인원은 많은데 비용 부족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학교 돌봄-교육청 지역아동센터-복지부 등 돌봄운영 부서가 제각각이어서 중복이 많음 - 돌봄운영체제 통합이 과제라 생각됨
지역사회돌봄 협의체	지역아동센터	- 각자의 돌봄업무량이 많아 시간을 내어 함께 활동하기 어려움 - 기관의 특성이 강하여 함께 하려는 의지가 약함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사회복지관	- 공공영역에서 제시한 목표값이 담당자가 바뀔 경우 수행되지 않음. - 민간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함(공공에서 참여가 소극적임) - 제4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내 목표값 설정 시 민관의 의견 적극 반영
방과후돌봄 협의체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 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간 시간 배분이 맞지 않은 점 -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 공유와 예산의 공동분배,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서로간의 노력이 필요
지역사회돌봄 협의체	지역아동센터	- 비상근 또는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음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아동 돌봄에 한계가 있음

자료: 이 연구의 '아동 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실무자용' 결과임.

표 V-2-7 아동 돌봄 분야의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 구성 및 애로사항_군 지역

구성(위원 및 소속기관)	운영 시 애로사항
사회복지관	- 형식적인 모임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미흡한 상태임 - 지역사회문제에 일부 권한을 부여 - 예산을 배정 - 관심있는 다양한 현장전문가들로 구성되면 더욱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됨
지역아동센터	- 초등학교 외의 기관들에서 참여도가 매우 낮음 - 연계되는 사업이 없어서 아쉬움 - 아동인원 감소 및 지역전문 인력 부족 - 부처 간 연계 및 지원사업 중복 전문 인력 부족 - 운영비 부족 - 현실적인 욕구상태와 놓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협의 후 구체적인 결과물 얻기 힘들 - 협의체 후 연락이나 소통을 안하게 됨

(표 V-2-7 계속)

구성(위원 및 소속기관)	운영 시 애로사항
00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예산 부족 - 직원 부족
학교장.돌봄교사,아동센터장	- 운영비 부족 - 현실에 맞는 운영이 어려움
군교육청돌봄협의체	- 같은 아동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교육과 문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유기적인 협조가 안됨

자료: 이 연구의 '아동 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실무자용' 결과임.

2) 돌봄 네트워크 미운영 사유

돌봄 네트워크 미운영 사유로는 광역시 지역의 경우는 기관별 정보의 부족, 학교와의 협력 어려움 등이 지적되며, 중소도시에서는 돌봄 분야의 필요성이나 홍보 미흡, 군 지역에서는 열악한 환경과 지역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아 지역사회 연계가 어렵고,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한 점 등을 들고 있다.

표 V-2-8 돌봄 네트워크 미운영 사유_광역시

네트워크 미운영 사유
- 각 지역의 특징이 다름(각 세부적인 지역의 필요 요소가 다름)
- 지역적 특성에 따라 주 서비스 제공 대상이 저소득 노인에 집중되어 있음. 아동이 많지 않음
- 민관 협력기구를 하나로 합칠 필요성이 있음
- 각 사업별, 혹은 정부 부처별로 협력기구가 산발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부처별 사업도 산발적으로 이루어짐
-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부족
- 원활한 회의 참석이 안되고 학교 역시 담임선생님들이 추가로 업무를 맡아 하시므로 애정을 가지고 운영하기 쉽지않음.
- 기관별 담당자 및 기관장이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부족
- 지역아동센터는 협력가능하나, 학교와 네트워크가 어려움
- 실질적 돌봄 연계 비율이 낮고 협력 내용의 수준 및 정도가 낮음
- 형식적이고 홍보적인 모임이라 참여하지 않게 됨
- 소식 공유 및 전달체계 미숙
- 의견 불일치
- 각 센터별 기관장 특성이 달라 네트워크가 어려움

자료: 이 연구의 '아동 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실무자용' 결과임.

▣ 표 V-2-9 ▣ 돌봄 네트워크 미운영 사유_중소도시 지역

네트워크 미운영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면서 무늬만 협의하고 있음 - 기존 교사는 업무의 가중으로 돌봄교실 교사는 한시적이라 권한이 없음 - 운영은 되고 있으나 민간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큰 성과가 나지 않음 - 돌봄 분야에 대한 필요성이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음 - 돌봄기관 중심의 네트워크가 지역의 돌봄이 아닌 각 실무기관의 업무에 맞추어 진행됨 - 지역협의체가 있으나 정원 초과로 참여할 수 없음 - 정보 공유가 서로 원활하지 않음 - 농촌형 소도시의 경우 인구가 줄어가고 있으며 아동복지 분야보다는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음 - 아동은 투표권도 없고 아동숫자도 작기 때문으로 사려됨 - 절차의 복잡함과 정보 부족, 민관 기관의 관심부족 등 - 주민센터, 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의 소속부처가 다르고 관리도 이원화 되어있어 네트워크가 운영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지역 내 돌봄체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통일된 목적의식 필요 - 여러 돌봄협의체가 함께 하는 행사 등을 개최하여, 서로간의 이해를 돕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함

자료: 이 연구의 '아동 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실무자용' 결과임.

▣ 표 V-2-10 ▣ 돌봄 네트워크 미운영 사유_군 지역

네트워크 미운영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4권역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각 부서 및 기관별 운영형태가 상이함 - 긴밀한 협조 및 네트워크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지역사회의 관심 부족, 수동적인 문제해결 방식 - 열악한 환경과 지역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아 지역사회연계가 어렵고 특히 네트워크운영이 되지 않음 - 각 기관들이 생각하는 관심분야가 다름 - 협의체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지원 또한 너무 열악함 - 협의체 구성도 정해진 틀 안에서만 받을 수 있으므로 큰 영향을 받기에는 부족 - 예산 및 인력부족 - 지역사회의 아동에 대한 관심 부족 - 핵심주체의 부재 - 학교에서의 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가 활성화되면서 이용자가 줄고 있음 - 협의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운영되어 경직성이 있음 - 업무 과다

자료: 이 연구의 '아동 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실무자용' 결과임.

3) 돌봄 네트워크 및 협의체 구성 관련 요구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마을중심 돌봄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기구에 포함해야 할 기관으로는 다음이 제기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의 주체이며, 경찰서 등은 안전귀가,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초등학교는 공식적인 위치를 돌봄 분야에서 확보할 수 있다. 주민센터는 지역 여건과 상

황을 잘 알고 있다고 평가된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종합 서비스가 제공되며, 청소년수련관은 활동 공간, 인력 등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된다.

표 V-2-11 아동 돌봄 분야 돌봄 네트워크 및 협의체 구성 위원 및 사유

구분	아동 돌봄 네트워크 및 협의체 구성 위원 포함 사유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결정 및 예산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기관간의 업무 조율
경찰서, 지구대 자율방범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확보, 귀가지도, 안전교육 등 - 마을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 및 예방을 위한 정보와 예방교육 필요함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이용 시 아동의 건강검진이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통한 건강검진이 실시되기 위함. 아동의 질병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임
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 가정, 학교에서의 역할 및 어려움에 대해 논의를 하기에 지역의 조건, 상황을 알고 있는 주민센터 담당자의 참여가 필요 - 지역 아동 파악 및 연계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학교와의 소통 중요 - 방과후 아동 돌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아동돌봄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 -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제일 쉽게 접할 수 있고 이용률도 높음 - 협의에 공식적인 위원직함을 가짐으로 업무 연계상의 공식성 확보 -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이 중복되어 함께 협의기구에 참여하면 아동관리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이 높음 -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 생각함 - 아동 돌봄에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진행할 인력이나 역력이 된다고 생각함 - 건강한 가정지원을 위해, 지역의 필요아동 확보 및 많은 경험 축적 -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시는 어머님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의 사업 및 프로그램일 진행한다고 사료됨
다문화가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고, 아이들의 한국문화 이해도 중요하지만 다문화 부모님들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육아종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과 관련된 네트워크로 자원 연계 및 업무 협업 - 아동 돌봄에 특화된 기관이므로 협의기구 구성 및 원활한 소통으로 중복 지원 또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기대할 수 있음
지역아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인 아동 돌봄 장소로서 활동 중에 있음 -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돌봄 네트워크가 구성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마을돌봄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됨 - 아이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표 V-2-11 계속)

구분	아동 돌봄 네트워크 및 협의체 구성 위원 포함 사유
청소년수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발적인 지역 내 협력기구에 대한 창구로 청소년수련관은 활동공간, 인력 등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음 -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 권리보장 및 참여 확대 - 청소년들의 요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에 맞는 전문지도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아동심리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이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을 찾게 하고 체계적인 상담을 필요로 함 - 아동 청소년의 정서안정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음
문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가능
마을 조직(공동체) 주민(주민운영위원회 등) 부모커뮤니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에서 끝까지 감당할 수 없다면,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논의과정에서 기관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주민까지 확대하여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초등학교 학부모회는 돌봄의 주체인 학부모가 협의기구 안에 들어가야 현실적인 돌봄프로그램 기획운영될 것임

자료: 이 연구의 '아동 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실무자용' 결과임.

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내 자원 현황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발굴하여 돌봄서비스 기관에 연계하거나 지역 내 돌봄공동체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으로 드림스타트는 아동 사례관리 및 돌봄기관 연계,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발굴 및 연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구성원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는 사례관리 및 위기아동 대응 시에 협력이 가능한 점 등을 들고 있다.

표 V-2-12 | 지역 내 돌봄서비스 연계에 적합한 기관

구분	돌봄서비스 연계에 적합한 기관													계(수)		
	지역 아동센터	사회 복지관	학교	드림 스타트	상담 센터	기타	지자체	청소년 문화의 집	건강가정 지원센터	돌봄 협의체	민간 재단	도서관	시설 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 지원청
전국	25.5	19.1	16.5	12.8	9.0	8.0	6.9	5.9	4.8	3.7	3.2	2.1	1.1	0.5	0.5	100.0(188)
서울	28.2	20.5	10.3	5.1	12.8	7.7	7.7	15.4	2.6	5.1	2.6	0.0	0.0	0.0	0.0	100.0(39)
부산	28.6	28.6	21.4	21.4	7.1	0.0	7.1	7.1	7.1	14.3	0.0	0.0	0.0	0.0	0.0	100.0(14)
대구	0.0	50.0	0.0	0.0	50.0	0.0	0.0	0.0	25.0	0.0	0.0	0.0	0.0	0.0	0.0	100.0(4)
인천	22.2	33.3	11.1	22.2	0.0	0.0	11.1	0.0	0.0	0.0	0.0	0.0	11.1	0.0	0.0	100.0(9)
울산	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50.0	0.0	0.0	0.0	100.0(2)
세종	42.9	0.0	14.3	0.0	0.0	14.3	14.3	0.0	0.0	0.0	14.3	0.0	0.0	0.0	0.0	100.0(7)
경기	33.3	0.0	16.7	16.7	0.0	0.0	0.0	0.0	16.7	0.0	16.7	16.7	0.0	0.0	0.0	100.0(6)
강원	50.0	0.0	0.0	0.0	5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2)
충북	20.7	27.6	13.8	3.4	10.3	13.8	6.9	3.4	3.4	3.4	3.4	0.0	0.0	0.0	0.0	100.0(29)
충남	20.0	0.0	40.0	20.0	20.0	20.0	0.0	20.0	0.0	0.0	0.0	0.0	0.0	0.0	0.0	100.0(5)
전북	25.0	25.0	12.5	0.0	12.5	12.5	0.0	0.0	0.0	0.0	12.5	0.0	0.0	0.0	12.5	100.0(8)
전남	55.6	0.0	11.1	3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9)
경북	12.5	6.3	18.8	0.0	12.5	18.8	12.5	6.3	6.3	6.3	0.0	6.3	0.0	6.3	0.0	100.0(16)
경남	15.4	23.1	15.4	30.8	0.0	7.7	0.0	0.0	7.7	7.7	0.0	0.0	0.0	0.0	0.0	100.0(13)
제주	7.7	15.4	46.2	30.8	7.7	0.0	15.4	0.0	15.4	0.0	0.0	7.7	7.7	0.0	0.0	100.0(13)
광역시	27.8	23.6	11.1	8.3	11.1	5.6	8.3	8.3	5.6	5.6	4.2	2.8	0.0	0.0	0.0	100.0(72)
중소도시	19.7	19.7	18.0	6.6	9.8	9.8	9.8	1.6	4.9	3.3	3.3	1.6	3.3	1.6	1.6	100.0(61)
읍면지역	29.1	12.7	21.8	25.5	5.5	9.1	1.8	7.3	3.6	1.8	1.8	1.8	0.0	0.0	0.0	100.0(55)

자료: 이 연구의 '아동 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실무자용' 결과임.

표 V-2-13 돌봄서비스 지원에 적합한 기관

기관유형	서비스 연계 협력내용
지역아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아동돌봄 및 급식지원 - 돌봄공동체 교육 및 컨설팅 - 숙제 및 문화체험활동 - 아동발굴 연계 - 문화체험 및 돌봄
드림스타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돌봄서비스 연계(학교) - 아동사례관리 및 돌봄기관연계 - 사각지대 아동 발굴, 의뢰 - 상담 및 교육, 치료, 문화체험 등 - 아동복지교사파견 - 상담/취약 가정 연계 보호자 상담 및 가정 지원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지대 아동 발굴 및 서비스 연계 - 돌봄서비스 직접 운영, 돌봄서비스(돌봄필요아동 발굴) 연계,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등 - 아동정서지원 -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지원 - 가정 양육환경 지원 - 교육, 간식제공, 노인일자리 제공 등
초등돌봄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방과후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아동 돌봄 역량 강화 - 돌봄이 필요한 아동 연계 및 추천 - 프로그램 진행 및 상담 - 교육, 문화 정서, 보호지원 - 방과후 돌봄 서비스 - 아동 발굴 및 서비스 의뢰
건강가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사례발굴 및 논의, 서비스 개입, 사후관리 등 - 가족구성원별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 다문화 및 소외계층 아동 돌봄 - 아동 및 가정에 필요한 자원연계 - 돌봄사업 및 가족상담(다문화 등)
교육복지센터(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체계 구축 - 아동 상담 및 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지대 발굴
아동심리상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 상담 서비스 제공 - 아동의 정서적 안정 도모 - 아동 심리검사 및 프로그램 연계 - 심리상담 및 치료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 아동의 연계 및 홍보 - 사각지대 아동발굴 및 수요파악 - 사례 관리 및 위기 아동 대응 협력 가능
청소년수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진행 - 아동청소년 교육, 문화, 체험 활동 - 프로그램 위주의 보호형태 - 소외계층 청소년 돌봄
기타 (자율방범대, 푸드뱅크, 작은도서관, 장애인부모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 유해지역 순찰 - 결식아동푸드지원 - 장애아동 이해와 지원

자료: 이 연구의 '아동 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실무자용' 결과임.

다음으로 지역 내 돌봄센터 또는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6.1% 그치고 있다. 지역규모별로는 도시 지역에 비해 군 지역에서 돌봄 공간이 충분하다고 인식된다.

또한 이때 돌봄 활용 기관으로는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 이외에 주민센터와 도서관이 언급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 지역에서는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등이 많이 언급되었고, 군 지역에서는 읍사무소, 드림스타트, 폐쇄된 경로당(마을회관) 등이 거론되었다.

표 V-2-14 지역 내 돌봄센터 활용공간 충분성

단위 : %(명),점

구분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충분	매우 충분	계(수)	평균
전국	17.1	36.2	29.8	15.1	0.9	100.0(218)	2.45
지역규모							
광역시	15.1	45.3	26.7	12.8	0.0	100.0(86)	2.37
중소도시	24.6	29.0	31.9	13.0	1.4	100.0(69)	2.38
군지역	14.3	31.7	31.7	20.6	1.6	100.0(63)	2.63

주 1) 자료: 이 연구의 '아동 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실무자용' 결과임.

2) 평균 점수는 '매우 부족하다' 1점~'매우 충분하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표 V-2-15 아동 돌봄 공간 활용 기관

지역규모	아동 돌봄 공간 활용 기관
대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지역아동센터, 동주민센터 유휴공간, 각 기관들별 유휴공간 -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 초등학교 -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초등돌봄교실 - 지역아동센터 - 사회복지관, 아이돌봄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 도서관, 주민센터 -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 초등학교, 주민센터
중소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복지관, 주민센터, 협의체 구성 기관 등 - 주민센터,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 초등학교,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표 V-2-15 계속)

지역규모	아동 돌봄 공간 활용 기관
중소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상가 -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주민센터 - 초등학교, 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등 - 지역아동센터
군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 초등학교 - 초등학교/주민센터 -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 드림스타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읍사무소, 초등학교 -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 도서관, 학교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 지역에 속해있는 지역아동센터 충분히 있음 -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과 학교의 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드림스타트 -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 및 폐쇄된 경로당(마을회관)

자료: 이 연구의 '아동 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실무자용' 결과임.

라. 아동 돌봄 분야 서비스 연계 현황 및 요구

각 응답기관들이 아동 돌봄 분야의 다른 서비스 기관들과 연계하거나 협력하는 사항과 이때 어려움은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는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과 사례 공유 시에 연계하나 예산과 사업 홍보가 미흡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는 공동육아 사업에서 이용자가 중복 문제가 우려된다. 드림스타트와는 사례관리 필요아동의 발굴 및 연계, 위기발생 원안 가정 지원 등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나,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일관된 서비스 정보 등이 부족하고, 일원화된 통합지원서비스 체계가 미흡한 점이 지적된다.

【 표 V-2-16 】 아동 돌봄 분야 서비스 연계 현황_사회복지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 기관명	서비스 연계 및 협력사항	서비스 연계 시 애로사항
건강가정 지원센터	방과후 교실 운영, 연합회의 진행/참석 사례공유	- 예산 문제, 기관과 사업에 대한 홍보의 어려움
육아종합 지원센터	공동육아	- 이용자가 겹치는 경우가 있음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연계, 사례관리 필요 아동 발굴, 위기발생 원인 가정 지원.사업,연계 및 자원공유	- 학교의 교육청과 같이 통합된 서비스 주체가 없어 연계 가능한 사업 홍보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원 연계의 어려움도 있음. 까다로운 절차과정 애매한 케이스는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찾지 못하는 부분
구청, 드림스타트지원센터	아동추천, 지원 서비스 지도감독	- 기관이 가진 서비스나 책임성이 모두 다르기에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서비스 지원이 어렵거나 반복되기 쉬움
구청, 교육청, 작은도서관	방과후 마을학교 진행	- 협력기관간 의사소통, 접근성을 중심으로 한 장소 선정 등
드림스타트	대상자 의뢰, 서비스 연계	- 서비스 제공기관별 일관된 서비스 정보 등이 매우 부족하고, 대상자에게 적시적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괄정보시스템 필요
초등학교	프로그램 연계 대상자 연계 및 긴급상담, 복지관 내 아동돌봄교실 홍보	- 진행 주체의 설정, 대상자 발굴 및 사업인력 부족 - 협력 시 제한적인 개인정보 공유로 인해 적극적 개입이 어려움, 아동들이 다른 유관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중복하여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음.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례의뢰 및 개입협력 확대아동 서비스 의뢰 등 해당아동 발굴 및 연계	- 업무과중으로 개입이 늦어지는 경우 발생 - 현재 많은 아동 관련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어 서비스 연계 및 의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임 - 기초 현황 정보의 공유가 원활하지 못한 점
정신건강 복지센터	아이들 정서 지원	- 협소한 지역에 많은 유관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담당하는 업무가 있어 어려운 사항이 있음

자료: 이 연구의 '아동 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실무자용' 결과임.

지역아동센터는 다문화가족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 드림스타트, 주민센터, 급식관리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센터, 청소년수련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 및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와는 프로그램 연계가 이루어지나, 연계사업의 규모가 제한되고 일회성인 경우가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된다. 사회복지기관과는 주로 프로그램 연계가 이루어

지는 데, 제한된 장소로 인해 참석인원의 제약이 있는 점이 애로사항으로 언급되었다. 보건소와는 정보 연계에 어려움이 있으며, 상담센터는 이동 차량 등이 제공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드림스타트와는 아동 상담 등의 업무 협력이 이루어지며, 주민센터와는 돌봄 수요 아동에 대한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2-17 | 아동 돌봄 분야 서비스 연계 현황_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연계 및 협력기관명	서비스 연계 및 협력사항	서비스 연계 시 애로사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연계 활동	- 인원수나 시간이 제한된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식단 및 체중조절교육	- 연 1회씩 협력하여 교육하고 있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상담	- 필요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강사와 아이들의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움
건강가정지원센터/청소년 진흥원/드림스타트	상담/보호자 치료/취약가정 지원/아동상담	- 다른 서비스 기관과 연계 시 상담 회기가 짧아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기 전 아쉽게 상담이 끝나는 경우가 많고 거리가 멀어 연계 시 정기적인 만남이 필요한데 1회성으로 끝날 때가 있음 - 초등돌봄교실과의 연계는 형식적인 경우가 있음 - 지역사회 연계 시 다양한 정보가 없고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필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건강가정지원센터	급식식단 및, 위생교육, 영양교육	- 기관에 교육이 있어서 이동할 때 어려움이 있음 - 방문교육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음
보건소	건강관리, 치과진료, 건강검진건강검진	- 비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결원 아동을 총원하는 일(학교돌봄교실방문) - 지역아동센터협의회 기관간 필요한사업 진행에 있어서 역할을 담당할 인력 없음 - 지역아동센터연합기관 사업(합창단 등)자금마련 활동 및 자금운영 및 사업집행 인력 없음. - 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지역사회기관 간 연계 시 (사업, 프로그램, 후원물품) 수행할 인력과 차량 없음 - 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지역사회기관간에 체계적인 연계 시스템 및 인력, 장소 없음 - 지역아동센터에서 새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맞는 자원 봉사자 모집이 어렵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도와주는 협력업체 구하기가 어려움
보건소	건강교육	-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생겼을 때에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
보건소	치과검진	-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단기로 제공되는 점이 아쉽고, 정보공유가 미흡함

(표 V-2-17 계속)

서비스 연계 및 협력기관명	서비스 연계 및 협력사항	서비스 연계 시 애로사항
보건소	건강검진	- 건강검진지 가장 중요한 항목인 결핵검사가 미 실시 되고 있음. 아동센터에서는 1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 시간적으로 한꺼번에 실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검진 차량을 지원해 주면 도움이 됨
보건소	아동건강, 치과 주치의 사업	- 자료요구는 하면서 개인정보 신상이라 제공하여 주지 않은 점 - 청소년상담센터나 타상담센터들과 상담을 의뢰하면 일지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 멘토링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궁금함 - 개인적인 일은 비밀이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길 않아 센터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음
보건소, 다문화센터, 주민센터	건강검진, 프로그램지원, 물품지원	- 사업예산이 정해져 있어 참여 가능한 기관의 수가 정해져 있음
보건의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소방서, 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지원, 문화체험 연계	- 프로그램 지원 시 일정 조율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나 기관과 센터가 잘 협의하여 순조롭게 진행하였음
사회복지관, 지역네트워크	자원발굴 및 서비스연계	- 서로 기관에 대한 차이와 이해도
00복지관	치료목적 프로그램	- 많은 인원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함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토요프로그램, 아동가정 지원	- 주로 인적 관계에 대한 연계가 대부분이다. 이전 연계가 없으면 사업의 연계가 쉽지 않음
복지관	-프로그램 및 물품 후원 -교육 연계	- 이미 다른 돌봄을 하고 있는데 중복적으로 학교 방과후 무료 등으로 학교에서도 각종 프로그램이나 수업을 듣게 되는 경우 등 중복지원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기관 협력해야 함 - 강사 부족으로 수업 시간이 짧고 횟수가 적음
드림스타트,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례관리, 생활관리	- 사례관리 담당자 잦은 인력변경 - 사례 연계 시 아동 특성을 이유로 개입 지연 및 거부적 태도 등의 의견으로 담당자 설득 및 협조적 관계 형성의 애로점
드림스타트	경제, 정서적 지원서비스	- 지역연계 시 담당자들의 미숙한 운영
드림스타트	아동상담연계	- 시간과 내용의 중복
드림스타트	초등돌봄, 아동심리상담 및 부모교육, 사례관리	- 민관 협력이 아닌 수직관계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권위식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많음 - 심리치로나 부모상담 등에 대한 부모님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부모님들이 협조적이지 않을뿐더러 더 나아가 내 자식, 내 가정에 대한 참견이라 생각해서 폭력적인 상황이 연출될 때가 많음
드림센터	사례관리	- 정보공유에 있어 한계가 있음 - 서비스 중복

(표 V-2-17 계속)

서비스 연계 및 협력기관명	서비스 연계 및 협력사항	서비스 연계 시 애로사항
드림센터, 다문화지원센터, w센터, 군립도서관, 지역아동센터중 양지원단,	아동상담, 아동외국어학습지원, 문화 학습지원등	- 아동 프로그램을 위한 차량이 없는 관계로 활발한 체험 이나, 현장학습등과 안전한 귀가지도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00급식관리 지원센터	아동 급식시 아동 식단을 통해 체계적인 아동 영양 공급	- 지역아동센터의 이해력 부족.
급식관리지원 센터	영양 교육 및 지원	- 법인이 아닌 개인 기관에는 공공성이 부족하다하여 협력 이 낮은 편
급식지원센터	먹거리제공 및 여름캠프	- 상호간 생각이 달라서 실제적인 돌봄의 시간이 잘 연계 되지 않을 때
급식지원센터	위생관리 및 물품지원	- 지역사회내 서비스 기관들은 대체로 협력이 잘 이루어지 고 있으며, 크게 애로사항은 없음
정신건강복지 센터	프로그램 및 상담 지원	- 이동시 교통편 불편
정신보건증진 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 센터등	심리상담, 사례관리	- 상담분야나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을 시에 전문기 관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있음 - 군에서 위탁한 기관들은 무언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음 - 내담자에게는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직원들 의 교육 부족으로 지역 기관 내에서 상급기관으로 행세 하는 기본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센터내 아동 청소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심	- 제공받고 싶은 사업은 많지만 아동인원수가 정해져 있어 인원수 부족으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인원 수 제한이 없었으면 좋겠음
노인일자리지원 사업, 1388청소년 상담, 문화예술지원사업	센터내 위생관리,아동상담,프 로그램진행	- 센터에 지원되는 분이 어떤 분야에 따라 도움의 정도 가 많이 좌우됨 - 아동의 건강, 정서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고 협 력하고 싶지만 그 과정에서의 절차와 협력을 이루어 내 기까지의 과정이 다소 복잡한 경우가 많음
주민센터	돌봄 희망아동 연계	
상담센터, 보건소,	교육, 상담, 건강검진, 치료	- 예산이 적어 시행하는데 어려움
상담센터	아동상담	- 이동수단 부족
상담소, 주민센터	아동 및 보호자 상담, 돌봄 필요아동 연계 및 지원	- 전담인력이 없이 센터장 혼자서 모든 일을 담당해야 함
학교돌봄교실	필요시 아동 연계,아동의 생활전반 협약·지원	- 비슷한 사업을 학교, 아동센터, 돌봄기관등에서 진행하고 있음 - 서비스의 중복, 서비스 대상자들도 어떤 서비스를 이용 해야할지 잘 모르고 있음

(표 V-2-17 계속)

서비스 연계 및 협력기관명	서비스 연계 및 협력사항	서비스 연계 시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들도 각 서비스의 차이에 대해 정확한 판단과 이해의 부족 - 관할 부서가 나뉘어 있어 연계프로그램 진행의 어려움 - 학교의 문턱이 높아서 교육을 함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민간 운영시설에 대한 신뢰 부족
대학교	아동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이 너무 짧음
굿네이버스	아동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유관기관에 관련된 정보가 취약함 - 아동에 관련된 무수한 문제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관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 - 아동의 가정(부모), 아동의 교육(학교), 또래관계, 건강 및 위생의 문제, 다문화가정의 문제, 가정불화 등 아동 하나를 돌볼 때 각기 다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부족함을 많이 느낌
나눔재단	물품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회기가 정해져 있어 상담 연장을 희망하여도 불가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치료 정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연속성 단절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 지역으로 거리가 멀어 서비스에 한계가 있음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아동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을 의뢰해도 연계기관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음
청소년수련관	타기관 이용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센터마다 특색이 있어서 아동의 부모와 아동의 의지대로 이동하고 싶으나 지역이 협소해 눈치를 살피게 됨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상의 문제, 지원기관 부족
여성상담센터, 00아동청소년 안전협회	성폭력 예방교육, 안전관련 각종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로 연계를 하다 보니 자주 요청은 못하는 실정
성폭력상담 청소년복지지원센터	상담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기관이 한 아동에게만 똑같은 사업내용이 사업명 변경하여 중복지원 하는 경향이 많음
동행, 1365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선택의 어려움, 무작위로 파견하는 강사의 자질 문제
자원봉사센터	후원물품 및 자원봉사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골이라서 아동개별프로그램 자원봉사 강사가 부족함

자료: 이 연구의 '아동 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실무자용' 결과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보건소, 상담센터, 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경찰서 등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는 상담 및 치료 부문의 연계 시에 별도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아 협조 요청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된다.

표 V-2-18 아동 돌봄 분야 서비스 연계 현황_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 연계 및 협력 기관명	서비스 연계 및 협력사항	서비스 연계 시 애로사항
지역아동센터, 교육복지센터	활동 프로그램 제공	- 돌봄 분야 기관에서 수련관 방문 하여 프로그램 진행 시 비용 발생에 대한 문제가 있음 - 무료 제공을 원하고는 있으나, 수련관 내 실비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
청소년수련관	영유아 발달 프로그램, 아동 유아 예술문화 및 신체훈련 프로그램	- 사업 목적의 구체화 및 참여기관들의 의지
보건소	건강검진	
학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기타 돌봄기관	사례관리 및 지원	- 각 부서 및 기관별 운영형태가 상이하며, 한정된 자원(아동, 청소년)으로 인한 과잉경쟁으로 인하여 긴밀한 협조 및 네트워크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상담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주민자치센터	발굴, 상담, 체험활동등	- 대상자 발굴 및 선정, 부모와 지원서비스간의 시각 차이(만족도)
경찰서	위탁교육	- 정보 부족
건강가정 지원센터	상담 및 치료	- 연계 협력 시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협조 요청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전문자원 확보 어려움

자료: 이 연구의 '아동 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실무자용' 결과임.

마. 지역 내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시의 역할 요구

아동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돌봄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할 시에 각 기관의 적합한 역할로는 다음을 언급하였다.

사회복지관은 프로그램 연계와 돌봄 네트워크의 허브 기능, 공간 제공 등이고, 지역아동센터는 프로그램 연계와 아동 발굴 및 보호, 방과후 급식제공, 돌봄 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청소년아카데미는 공간 제공과 프로그램 연계, 네트워크 허브 기능 그리고 강사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V-2-19 지역중심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기관 역할_사회복지관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기관 역할
- 거점기관의 역할이 가능하나, 현재의 인력과 구조에서는 추가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움.
- 별도의 센터나 인력지원을 통한 지역서비스 시행이 수반되어야 함
- 이용아동 추천
- 이용 연계 역할, 아동 중 사례관리 및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아동 발굴

(표 V-2-19 계속)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기관 역할
- 소식 전달 및 활동내용 홍보 등
- 사례 발굴, 자문, 수행기관의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거점기관
- 프로그램 연계 업무 협업 등
- 참여자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복지관의 위치적인 한계로 거점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 이에 돌봄필요 대상 서비스 연계, 인적자원 연계, 자문 등의 역할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 지역자원의 네트워크에서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위기가동에 대한 사례관리
- 돌봄프로그램 연합기획 운영
- 돌봄교사 역량강화 교육 기획 운영
- 장소 제공 또는 아동 돌봄서비스 대상자 모집

자료: 이 연구의 '아동 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실무자용' 결과임.

▮ 표 V-2-20 ▮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지원 시 적합한 기관의 역할_지역아동센터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기관 역할
- 사례관리
- 위기가정 지원
- 자원봉사자관리나 역할에 대한 멘토와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적합한 기관과의 연계 방법 등
-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제공
- 회의참석, 소통 및 정보공유
- 공동협의, 학부모 의견 수렴 등 역할
- 보호, 교육, 정서지원
-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교육,놀이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방과 후 돌봄
- 보호 및 교육
- 프로그램 강사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 원활한 운영에 대한 노하우 전수
- 돌봄 수행 일상적 사례관리 수행
- 돌봄과 생활보호, 정서, 문화, 교육지원
- 아동발굴, 아동보호, 급식 제공
-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의 예체능교육, 학습교육, 급식 제공
- 아동 발굴 및 현장의 목소리 전달
- 아동의 보호 및 급식지원
- 아동의 급식과 프로그램, 아동보호가 중요한 역할임

(표 V-2-20 계속)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기관 역할
- 학교 방과후 아동의 돌봄과 보호
- 부모와 함께 문화체험을 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한 문화체험 기관
- 결식아동 보조 및 영양불균형 해소
-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 아동의 지도 및 관리
- 급식, 프로그램 운영, 토요돌봄
- 아동 방과후 돌봄기관, 아동 방임 예방
- 돌봄 분야 공동체 추진 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할 것임
- 청소년 이용 공간에서 아동 돌봄 보다는 학습이나, 특기적성 및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좋음
- 아동센터나 드림스타트는 초등돌봄이므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학에 필요한 서비스가 충족되어야 할 거 같음
-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허브 역할

자료: 이 연구의 '아동 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실무자용' 결과임.

■ 표 V-2-21 ■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기관 역할_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기관 역할
- 프로그램 연계 협력
- 공간 제공 등
- 돌봄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사업연계 지원
- 강사 지원 연계
- 체험프로그램 등 지원
- 교육문화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
- 공간 제공
- 교육, 놀이문화, 체험 중심의 방과후 돌봄
- 아동,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가능하며,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함
- 연계, 협력, 구축의 자문
- 개별프로그램 진행 시 장소 제공
- 연계 프로그램 강사 및 프로그램(예산포함) 지원과 공동운영
-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 제공

자료: 이 연구의 '아동 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_실무자용' 결과임.

3 소결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아동 돌봄 분야의 서비스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돌봄 분야에 서비스 기관의 연계 및 네트워크 또는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절반 수준에 그치므로, 필요 시 관련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들 기구의 미비는 다양한 유관 서비스 기관의 공급이 저조하여 인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는 군 지역 뿐만 아니라, 지역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도시지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상황이므로, 지역규모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그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내 민관 협력 기구가 운영되는 경우에도 대부분 해당 기구에서 아동 돌봄 문제를 주요하게 논의하는 데는 한계를 지닌 것으로 진단된다. 대표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분과 구성은 아동 청소년 분과로 포괄적이거나, 영유아 및 보육 분과로 포함대상이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게다가 군 지역에는 제한적인 인적 자원으로 드림스타트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해당 부서는 취약계층 통합지원이 핵심이므로 일반 아동을 포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보다 근본적으로 해당 기구는 지역복지 중심이어서 교육청과 지역 내 초등학교가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민관 협력기구를 운영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아동 돌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내 아동 돌봄서비스의 연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와 인력을 반드시 배치하여 운영주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동 돌봄 분야의 민간협의기구를 신설한다고 해도 이를 담당하고 지원하는 전담부서가 모호한 경우는 지역중심 돌봄사업의 일관된 추진은 물론, 해당 기구에 참여하는 다양한 서비스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도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전담부서와 인력을 배정하여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이때 군 지역의 경우는 민간 부문의 인적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제한된 아동수와 지역 내 한정된 인적자원으로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하기 어려

운 경우는, 기존의 드림스타트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되, 일반 아동의 돌봄이 포괄될 수 있도록 담당사업의 범위와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민간 주도의 협의기구 운영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경우에도 전담인력의 배치는 반드시 요구된다. 민간 주도의 협의기구로서, 민간에서 총괄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인력이 소속기관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할 경우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전담인력을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민관 협력기구의 활성화 정도는 지역역량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양한 지원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즉 관련 기구들간에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협의기구의 구성, 공동사업 등 전반에 걸친 컨설팅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군 지역은 노인 인구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 돌봄 분야에서 아동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이들 지역의 민관 협의기구에는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반드시 포함되어 관련 협의체의 지원을 받음은 물론, 타 지역의 협의체와의 협력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중심의 돌봄 인프라의 지원대상은 초등학생과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를 모두 포괄한다. 앞서 다룬 각종 사례들은 모두 초등 방과후 돌봄의 공백에 주목하여 지원대상을 초등학생에 한정하고 있으나, 해당 수요는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에서도 높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각 지역별 여건과 돌봄 수요 분석에 따라, 적용대상을 초등학생 이외에도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정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초등학생과 영유아를 모두 포괄할 경우는 돌봄 공간의 물리적 환경과 프로그램 운영에서 연령별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관련 근거의 마련 시에 아동연령이 반영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중심 돌봄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는 다음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선 중앙정부는 재정지원(리모델링비, 돌봄교사 인건비, 운영비, 차량운영비 등), 중앙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간 협력체계 마련 및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지역중심 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마련, 중앙정부 관련 사업의 설명회 개최와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다음으로 해당 사업은 실제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사업 계획을 마련하며, 해당 사업을 전담

할 부서와 인력을 배치하는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컨설팅과 모니터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내 공공 기관들은 민관 협의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사항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VI

정책 제언

1. 기본 방향과 운영 원리
2.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VI. 정책 제언

이 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아동 돌봄 분야의 서비스 공급 현황에 따른 지역유형화, 지역중심 돌봄공동체 지원 및 운영 사례, 그리고 지역중심 아동 돌봄의 민관 협력 실태 및 요구를 토대로,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 및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다.

1 기본 방향과 운영 원리

그간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은 영유아 대상의 기관보육에 주력해왔으며, 상대적으로 간과된 초등 방과후 돌봄은 초등돌봄교실 위주로 확대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봄 사각지대와 긴급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유아에 비해 돌봄 공백이 보다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초등 방과후 돌봄은 초등돌봄교실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들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어린이집,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충족할 수 없는 다양한 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은 지역사회 돌봄을 통한 사회적 돌봄의 내실화의 추진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의 기본 방향 및 운영원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목표와 기본 방향

사회적 돌봄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역할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을 보장하기에 적합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때 지역사회의 돌봄지원은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주도의 돌봄지원 만으로는 온전히 해소될 수 없는 돌봄 사각지대와 긴급 돌봄 공백을 지역성과 당사자 참여를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민관 협력이라는 명분 하에 아동 돌봄지원의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지역 내 아동돌봄 문제의 해결은 지역사회의 고유한 역할에 기반한 것이지,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완화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각 지역별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하는 ‘지역성’의 강조와 지역주민과 당사자인 부모의 ‘참여성’이 강조되는 돌봄공동체의 형성 및 강화가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다시 말해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은 지역중심 돌봄공동체를 통한 아동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의 대응의 필수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지역 내 아동 및 가족 관련 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킹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단적으로 말해 지역사회의 아동 돌봄은 체계화된 민관 협력에 기반 한다 하겠다. 나아가 이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돌봄을 추구함을 뜻한다.

그런데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는 각 지역의 돌봄서비스 공급 수준과 이의 유관 서비스 기관의 공급 수준, 즉 지역 돌봄 인프라의 설치·운영 시에 동원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자원이 얼마인지에 따라 그 운영 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민관 협력의 주된 목표에 따라 보다 구체화될 수 있다.

아동 돌봄 분야 민관 협력의 일차적인 목표는 1) 아동 돌봄의 공백 해소와 2) 다양한 돌봄 수요에의 대응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중심 돌봄지원은 다음의 목표를 지닌다. 하나는 국가 주도의 돌봄서비스 공급 정책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틈새보육 등 돌봄의 공백 해소이고, 다른 하나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돌봄 수요에의 적극적인 대응이다.

전자의 경우 주된 대상은 기관 중심의 돌봄서비스가 보편화된 영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된 초등학생 특히 초등 1학년에서 3학년이 핵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추가하여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는 이들이 주요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다. 두 번째 목표인 복합적이고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서비스 기관은 물론,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유관 다양한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아동 및 가구에 대한 개별화된 접근과 사례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 운영 원리

아동 돌봄 분야 민관 협력의 운영 원리는 지역 내 돌봄서비스의 공급 및 이용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와 네트워크를 핵심 요소로 하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간의 상호의존성과 동시에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 돌봄 지원에서 공공과 민간 영역은 각자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아동 돌봄 공백의 해소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장점과 한계를 상호 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지역 내 공공 기관 및 단체와 민간 부문의 다양한 서비스 기관들이 연계, 협력을 통해 각자의 우월한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돌봄공동체는 당사자의 참여 즉 주민이나 부모들이 지역 내 돌봄서비스의 소비자로서 뿐만 아니라, 공급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부모 참여를 통한 돌봄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 내 공적 돌봄서비스 기관과 이외 유관 서비스 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이처럼 돌봄 당사자들이 주체적인 돌봄의 생산자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돌봄공동체 형성 시기에 다양한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군 지역 등과 같이 지역 내에 다양한 인적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지역 돌봄 인프라의 설치·운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담당하는 공적 중간지원 조직의 설치를 모색할 수 있다. 또한 민관 협력기구에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2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가. 민관 협력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앞서 다룬 지역별 돌봄서비스 공급 수준 분석결과와 사례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 특성별 다양한 민관 협력의 방식과 개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전제조건 하에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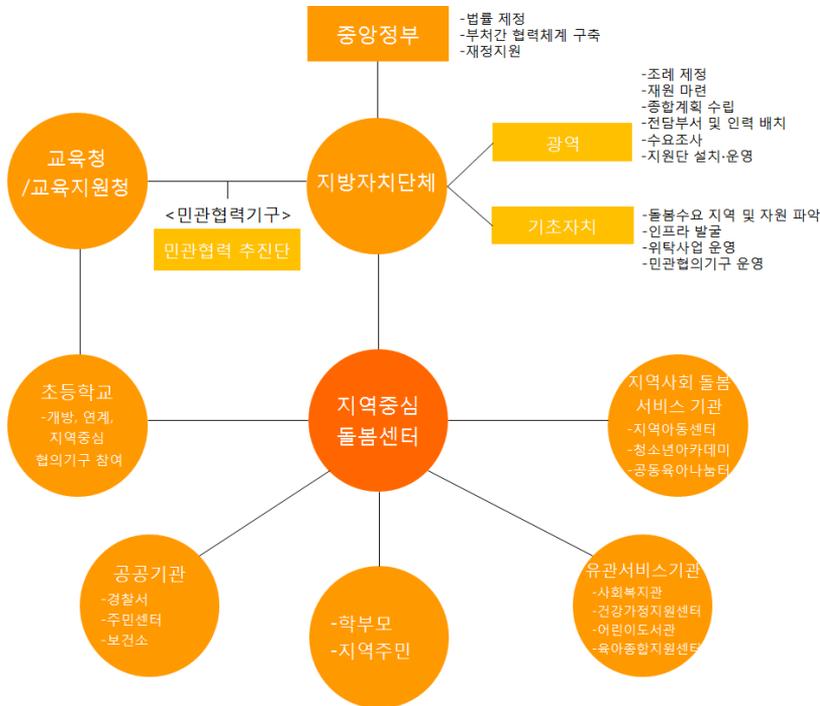
우선 중앙정부는 아동 돌봄 분야 민관 협력이 아동 돌봄의 공백 해소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의 대응을 위한 요건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법적 기반과 부처 간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며, 관련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 즉 근거 법률의 마련 등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처 간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명료화하며, 이때 중앙정부가 해당 사업의 재정지원을 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명문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추진단의 구성을 포함하고, 기초자치단체의 마을돌봄협의체 등 민관 협력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한 필요 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계획 및 세부사업 전략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더하여 관련 돌봄 수요가 높고 인적 자원이 취약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행정체계의 측면에서 아동 돌봄 분야의 중앙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민관 협력의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앞서 다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 시에 중앙부처간의 일원화된 추진체계의 미비가 주된 애로사항으로 지적된다. 2012년과 2013년에 중앙정부 차원의 돌봄정책협의기구가 마련되고, 교육청이 주도하는 지역돌봄협의체 구축 및 운영이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시도는 교육청과 학교 중심의 돌봄에 치중된 측면이 있어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아동 돌봄 사업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기구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아동 돌봄 업무를 총괄 기획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관되고 안정된 돌봄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광역 단위에서 지역사회 돌봄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 또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때 해당 조례의 적용대상 아동 연령과 사업내용은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명시한다.

민관 협력기구 구성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초등학교를 반드시 포함하고, 돌봄서비스 및 유관 서비스 기관 이외에도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해당 기구의 운영 주체를 명료화하기 위해 전담부서 및 담당자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한다. 이에 더하여 아동 돌봄 분야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각종 컨설팅 및 지원을 담당하는 추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그 밖에도 광역 단위에서는 지역 중심 돌봄센터의 운영 매뉴얼과 돌봄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의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그림 VI-2-1 ■ 아동돌봄 분야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요소



기초자치단체는 광역 단위의 법적 근거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전담조직과 인력을 배치하고, 필요시 조직 개편과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 내 돌봄 수요를 분석하고 돌봄 인프라를 발굴하며 위탁사업의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자치구 단위의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이로써 지역중심 돌봄센터는 교육청 및 초등학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종 경찰서 등 공공기관은 물론 지역 내 돌봄서비스 기관과 이외 유관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그리고 지역주민과 학부모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이상에서 논의된 법적·제도적 추진 기반을 토대로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 체계를 제시하면 위의 그림 VI-2-1과 같다.

나. 민관 협력기구의 설치·운영

1) 역할 및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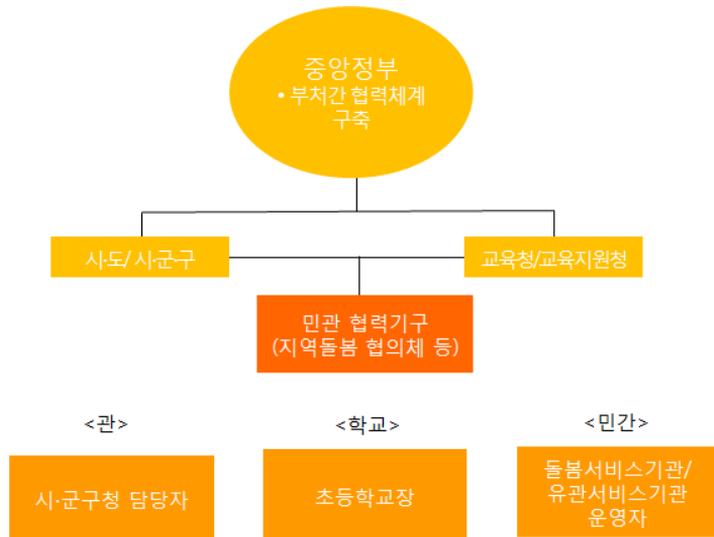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은 지역 내 돌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므로, 이를 위한 민관 협력기구의 설치 운영이 반드시 요구된다. 민관 협력기구의 구체적인 역할로는 주민의 돌봄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및 중복 해소를 위한 스크리닝 그리고 공동사업을 위한 자원의 분배를 위한 기관간의 정보 공유 등을 들 수 있다. 즉 민관 협력기구는 지역 내 돌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1) 기본계획의 수립, 2) 돌봄 수요에 부합하는 돌봄 인프라 공급에 관한 사항, 3)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조정 및 협력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와 같은 민간협력기구의 기능이 지역사회내에서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추진 기반이 요구된다. 즉 아동 돌봄 분야의 사업 관련 부처 즉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우선적으로 관련 사업들을 원활하게 연계하여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토대로 광역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기구를 총괄 운영하는 부서와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운영관련 재정지원의 법적 기반도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 단위의 민관 협력기구에는 시·군·구청(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 및 단위 학교, 그리고 담당 부서를 달리하는 돌봄서비스 및 유관 서비스 기관들이 포함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앞서 살

퍼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관 협력기구의 구성 시에 포함되어야 할 기관 및 그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 부문에서 동 주민센터는 지역 내 아동 및 가구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돌봄 수요를 지닌 아동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돌봄 인프라 제공도 가능하다. 또한 경찰서는 아동의 안전한 귀가와 보호, 보건소는 아동의 건강관리 및 상담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돌봄 인프라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체험프로그램 등 장소 대여, 육아정보 제공서비스 연계 등, 그리고 사회복지관은 돌봄 수요 아동 발굴 및 연계, 돌봄 인프라 제공, 위기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프로그램 연계, 돌봄 네트워크 허브 기능, 그리고 청소년 관련 시설들은 강사풀 제공, 프로그램 제공 시 장소 제공, 프로그램 연계 및 협력 등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VI-2-2 ■ 아동돌봄 분야 민관 협력기구 추진체계



■ 표 VI-2-1 ■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기구의 구성

기관유형	서비스 연계 및 협력내용
지역아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지원 - 돌봄공동체 교육 및 컨설팅 -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및 협력 - 돌봄 필요 아동의 발굴 및 연계

(표 VI-2-1 계속)

기관유형	서비스 연계 및 협력내용
초등돌봄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필요 아동의 발굴 및 연계 -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풀 제공 - 아동 상담 및 정보 제공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아동 사례관리 -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및 협력 - 돌봄 필요 아동 발굴 및 연계 - 교육, 간식제공, 노인일자리 제공 - 돌봄 인프라 제공 - 돌봄서비스 위탁 운영 - 돌봄 네트워크 허브 기능 담당
드림스타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교육, 치료, 문화체험 등 - 아동복지교사파견 - 보호자 상담 및 가정 지원 - 위기아동 사례관리, 지역 자원 연계 - 돌봄서비스 연계(학교) - 돌봄 필요 아동 발굴 및 연계
아동심리상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 상담 서비스 제공 - 아동의 정서적 안정 도모 - 아동 심리검사 및 프로그램 연계 - 심리상담 및 치료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동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 아동의 연계 및 홍보 - 돌봄 필요 아동 발굴 및 수요 파악 - 사례관리 및 위기아동 대응 협력 가능
경찰서, 방범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지역 순찰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 건강교육가
청소년수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진로교육 - 문화 및 체험프로그램 연계 및 협력 - 프로그램 제공 시 공간 제공 -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풀 제공
교육복지센터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체계 구축 - 아동 상담 및 교육
건강가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및 가정에 필요한 자원연계 - 돌봄사업 및 가족상담(다문화 등) - 아동 사례발굴 및 논의, 서비스 개입, 사후관리 등 - 가족구성원별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 다문화 및 소외계층 아동 돌봄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지도 - 프로그램 제공
정신건강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상담 - 프로그램 지원
자원봉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모집 및 제공

2) 운영 원리 및 방식

이들 기구의 기본적인 운영 원리로는 각 지역별로 그 미션과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협의체의 구성 시에 참여 위원간의 역할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돌봄서비스 기관, 이외 유관 서비스 기관 및 단체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또한 협의체의 구성 위원은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이 대응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에 덧붙여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타 지역의 사례공유 등을 통해 협의기구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구체적인 구성 방식은 각 지역별 민간 자원이 주된 변수로 작용한다.

앞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기구는 대표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분과로서 운영된다. 그런데 이때 실무분과는 아동 돌봄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특히 영유아 분과 또는 보육 분과 등은 어린이집 연합회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현행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 분과에서 아동 돌봄 분야가 포괄되는지, 그리고 해당 분과에서는 아동 돌봄 분야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포괄범위에 초등학생이 포함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교육(지원)청 위주인 지역돌봄협의체는 학교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내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학교장의 관심에 따라 지역별로 활성화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지역 내 아동돌봄 분야를 종합하여 논의할 기구를 새롭게 점검하고, 기구 신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3)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이들 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기구를 관할하는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담당자를 배치하며, 민간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담당자 중에서 전담자를 배정한다.

둘째,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 유관 기관과의 협력사항에 관한 지표를 포함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셋째, 돌봄 분야의 공동사업을 기획, 추진하여 실질적인 협업이 가능하게 한다.

넷째, 민관 협력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편성하고, 해당 운영비는 서비스 기관간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차량 이동을 위한 비용을 포함하여 책정한다.

다섯째, 민관의 기본적인 역할에 기반하여 각 소속 위원의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협력 사항을 명료화한다.

한편 민관 협력기구는 지역 내 인적 자원의 공급 수준에 따라 그 운영 방식이 달리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지역 내에 민간 부문의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민관 협력의 경험이 축적된 경우에는 아동 돌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기존의 돌봄 관련 협의기구들을 총괄하는 지원단을 구성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수 있다. 반면에 지역 내에 동원가능한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아동 돌봄 관련 민관 협력의 경험도 미흡한 지역에서는 특히 초기 단계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적 돌봄서비스 기관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시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서 다룬 설문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드림스타트가 민관 협력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해당 조직은 취약계층 아동 및 가구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및 협력을 위주로 하므로, 그 범위를 일반 아동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는 돌봄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일 수 있으므로 지역아동센터의 협의기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의 기능을 보다 확장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다. 민관의 역할 분화

민관의 협력체계에서 민간과 공공 부문의 역할은 명료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는 아동 돌봄 분야에서 각 부문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서비스 기관간의 경쟁을 배제하고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때 각 부문의 적합한 역할은 각 지역의 돌봄 수요와 지역 내 동원가능한 자원의 양을 반영하여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지역적 여건을 반영한 민관의 역할 분담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기한 민관 협력의 기본 방향 및 운영 원리에서와 같이, 일방의 지배 특히 공공 부문이 지배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하며, 미흡한 인적 자원에도 불구하고 부모 당사자를 포함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상의 원리에 따라 민관의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정부는 지역중심 돌봄사업에서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해당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부처간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다양한 부처간 사업들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한 돌봄센터의 운영 지침과 지역특성에 다양한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한다. 재정지원 항목에는 리모델링비, 돌봄교사의 인건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운영비는 이용부모의 자부담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돌봄 인프라가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되지 못한 경우는 차량운영비 지원을 추가로 모색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법적 근거에 따라 지역 내 돌봄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지정 및 인력을 배치한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의 제정과 이에 따른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교육청을 포함한 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역 내 기관간의 업무 조정 및 협력이 가능한 기반을 조성한다. 돌봄사업의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돌봄서비스 제공, 이를 위한 인력 배치 및 프로그램 개발, 수요자 발굴 및 연계, 홍보 등을 담당하고, 민간 서비스 기관은 돌봄사업의 수행, 돌봄 인프라 제공, 돌봄 관련 정보 공유 및 교류, 서비스 연계 및 협력기구 참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지역 내 주민은 공간 제공,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을 통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수행한다.

이상의 역할 분화는 사업 단계를 반영하여 재정지원은 정부가 전담하고, 서비스 제공은 민간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각기 분담하는 방식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동 사업이 전국적으로 보다 확장되고, 궁극적으로 당사자 참여를 포함한 민간의 역량이 제고되면 재정과 서비스 공급 모두를 상호 분담하는 방식으로 보다 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지역유형별 민관 협력체계 및 운영 모형

앞서 제3장에서 다룬 돌봄서비스 및 이외 유관 서비스 기관의 공급 수준에 대

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지역유형별 사례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유형에 따른 민관 협력체계 및 운영 방식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유형은 아동규모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으로 구분되며, 이들 지역 중 돌봄서비스 공급 수준이 낮아 돌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동원 가능한 자원의 양에 따라 표 VI-2-2와 같이 5가지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군 지역은 돌봄서비스 공급 수준이 도시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돌봄 공백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반적으로 지역 내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1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별 민관 협력 방식은 지역 내 자원의 양이 부족한 경우는 정부나 공공 기관이 주도하고, 이와는 반대로 지역 내 자원이 풍부하고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 경험이 많은 지역은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표 VI-2-2 지역유형별 특성 및 민관 협력 운영 방식

구분	지역규모	돌봄 수요	인적·물적 자원	민관 협력 방식
제1모형	대도시 지역	돌봄 수요 높음	인적·물적 자원 많음	민간 주도
제2모형		돌봄 수요 높음	인적·물적 자원 적음	관(공공부문) 주도
제3모형	중소도시 지역	돌봄 수요 높음	인적·물적 자원 많음	민간 주도
제4모형		돌봄 수요 높음	인적·물적 자원 적음	관(공공기관) 주도
제5모형	군 지역	돌봄 수요 높음	인적·물적 자원 적음	관(공공부문) 주도

앞서 다룬 사례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유형별 민관 협력체계의 특징과 운영 방식은 각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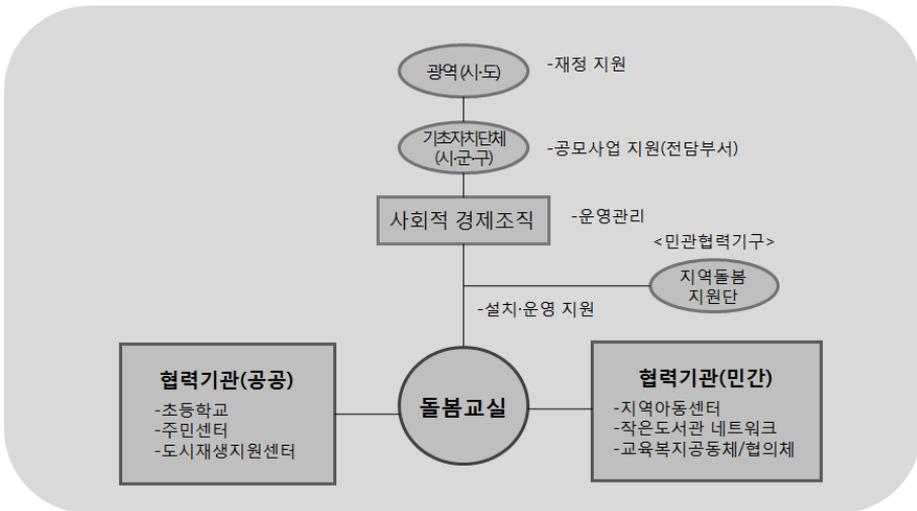
1) 대도시 지역_제1모형

대도시 지역에 속하는 모형 1-①은 돌봄서비스 공급이 부족하여 지역중심 돌봄 지원 수요가 높고, 마을 및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민관 협력의 경험이 축적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사회적경제 관련 협력기구가 중간지원 기관으로 적극적으로 기능함으로써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이 운영된다. 이러한 모형은 도시재생사업 지

역으로 선정되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진행된 경험이 있고, 도시재생사업의 결과물로서 돌봄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잇점을 지닌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선정 시에 자녀돌봄지원사업을 포함하거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자자체가 여성가족부의 공동육아나눔터 또는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사업 등 지역 돌봄 인프라 확충을 신청할 시에 우선 선정하는 등의 조치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림 VI-2-3 | 모형 1-①: 대도시_사회적경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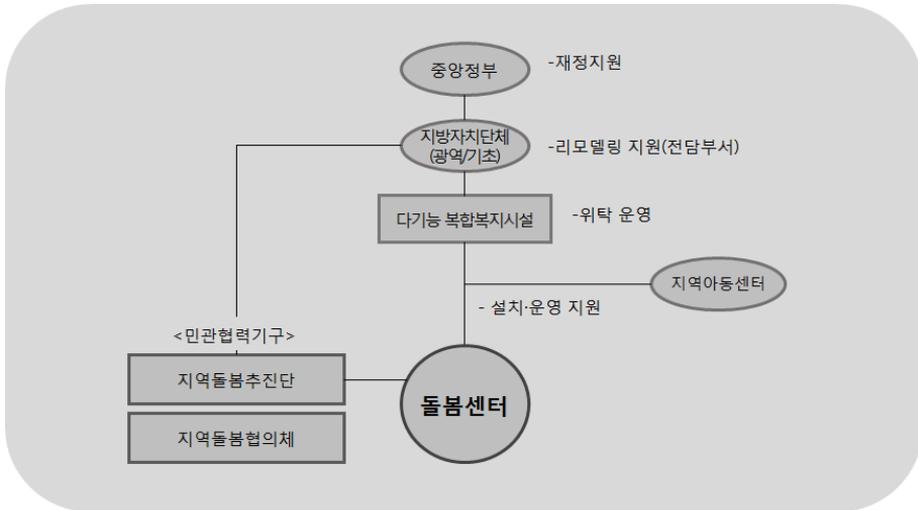


대도시 지역에 속하는 모형 1-②는 모형 1-①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기능 복합복지시설이 돌봄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때 복지시설 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지역 내 돌봄서비스 기관이 설치 관련 컨설팅, 프로그램 및 강사풀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들 복합시설 내 유사기관과의 안정적인 연계 및 협력을 위해 유사기관의 기존 협의기구에 참여하거나 별도 협의가구를 새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복지시설 내의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도서관, 노인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이 용이하고, 복지시설 내 각종 운영 및 시설관리의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재정운영의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단, 인구가 밀

집된 대도시 지역의 특성상 대형복합시설의 설치에 주택가 인근에 위치하기는 어려우므로, 아동들의 지리적 접근성 제고를 위해 차량운행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림 VI-2-4 모형 1-②: 대도시_다가능센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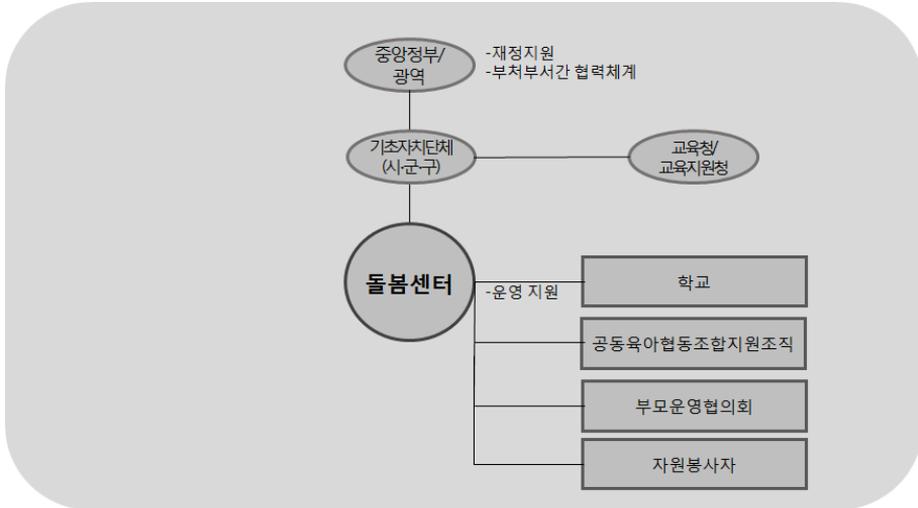
2) 대도시 지역_제2모형

대도시 지역에 속하는 모형 2는 돌봄서비스 공급 수준이 낮아 지역중심 돌봄지원의 수요가 높고, 유관 서비스 기관의 공급 수준도 낮으나, 공동육아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이 주도하는 방식이다. 공동육아의 경험은 지역중심 돌봄센터의 운영에 이점을 지니며, 부모참여가 주를 이루는 운영협의회에 의해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지원조직과 부모주도의 운영협의회에서 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각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돌봄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역 내 자원 특히 학교와의 연계(운동장 활용, 아동 발굴 및 연계와 정보 공유 등)와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부모운영 협의회와 단위학교가 포함된 협력기구의 설치 운영이 요구된다. 이의 추진 및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력이 요구된다.

한편 이 모형의 경우, 부모 출자금 등에 의해 운영되던 종전과는 달리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지역 내 비조합원에게 돌봄센터를 개방해야 하므로, 협동조합의 가치를 지역 내에 어떻게 확산,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 그림 VI-2-5 ■ 모형 2: 대도시_협동조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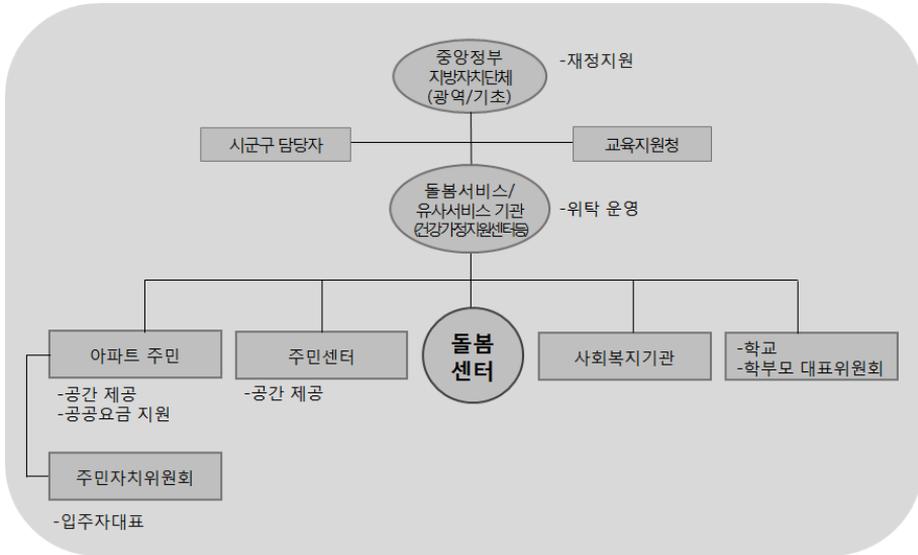
3) 중소도시 지역_제3모형

중소도시 지역에 속하는 모형 3은 돌봄서비스 공급이 부족하여 지역중심 돌봄 지원 수요가 높고, 지역 내 아파트 주민, 입주자 대표, 학부모대표 등 지역주민과 당사자 참여가 주도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역 내 돌봄서비스 및 유관 서비스 기관에서 사업을 위탁운영 한다. 이 모형은 아파트 주민이 협의하여 돌봄 공간을 제공하고, 공공요금을 지원하며, 지역주민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돌봄센터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이 모형은 기존의 서비스 기관에서 위탁 운영을 담당함으로써 지역 내 자원 연계 시에 위탁기관이 확보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 경우 위탁기관이 돌봄서비스를 위주로 제공하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돌봄관련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돌봄서비스를 위주로 운영하는 위탁기관이 아닌 경우는 지역 내 돌봄서비스 기관이나 교육지원청 및

초등학교와의 연계 등이 미흡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 VI-2-6 모형 3: 중소도시_주민참여형



4) 중소도시 지역_제4모형

중소도시 지역에 속하는 모형 4-①은 돌봄서비스 공급이 부족하여 지역중심 돌봄지원 수요가 높고, 지역 내 활용가능한 자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지자체가 주도하고, 민간이 일부 참여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돌봄서비스 및 유관 서비스 기관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위탁운영하며, 지역 내 아파트 주민은 공간을 제공하고, 공과금도 지원한다. 이 경우는 사군구청이 주도하여 지역 내 주민과 협력을 유도하며, 위탁기관이 기존에 속해 있는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소도시 지역에 속하는 모형 4-②는 모형 4-①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만 지원하고, 부모주도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경우는 품앗이 육아에 대한 공통된 지향을 지닌 자발적인 부모모임에서 비롯되었으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운영위원회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다양한 유관 서비스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기구의 구성이 요구된다.

그림 VI-2-7 모형 4-①: 중소도시_지자체 주도+민간참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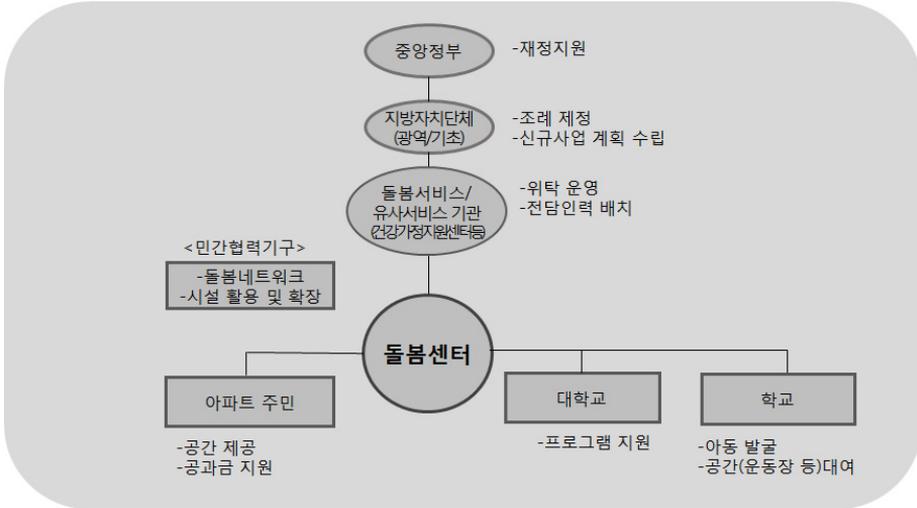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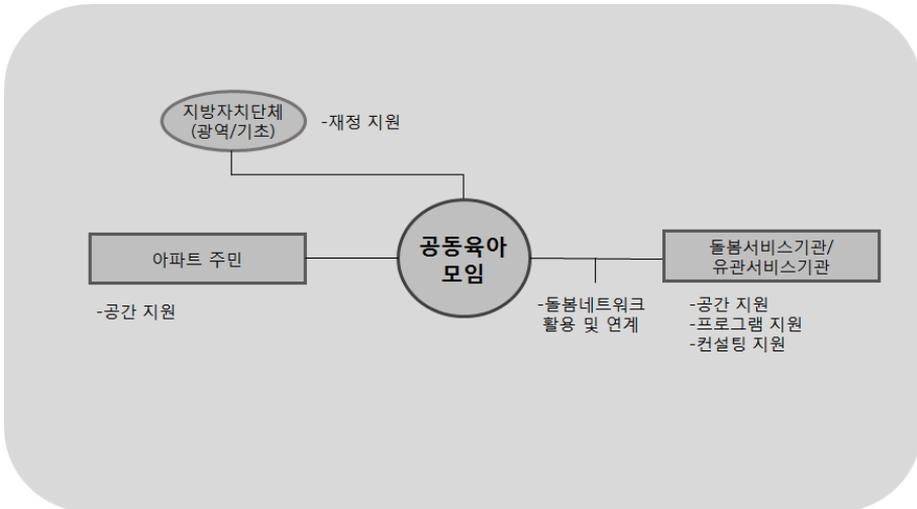


그림 VI-2-8 모형 4-②: 중소도시_부모주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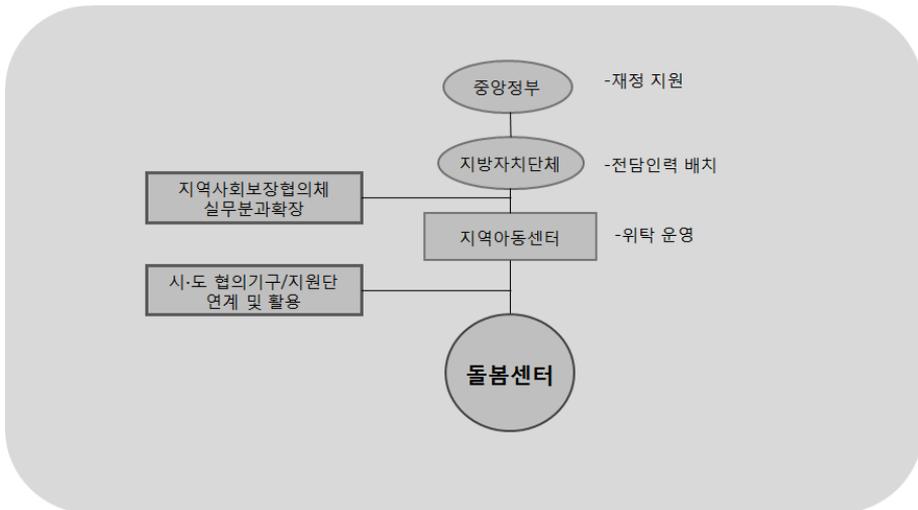


5) 군 지역_제5모형

군 지역에 속하는 모형 5는 돌봄서비스 공급 수준은 높으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지역중심 돌봄지원 수요가 높으나, 지역 내 초등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이외 서비스 기관이 부족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가 협력하는 방식이다. 앞서 다룬 사례 5에서와 같이 해당 사업을 전담할 행정인력이 부재하고 동원가능한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전반과 민관 협력기구를 주도하고, 돌봄센터의 운영은 초등학교 인근의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담당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로는 드림스타트의 조직 확장을 고려하고, 민관 협력기구는 별도 기구를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확장 또는 시·도 협의기구/지원단 연계 및 활용

그림 VI-2-9 모형 5: 군_지방자치단체+지역아동센터형



참고문헌

- 강현주(2017).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협력 연계방안. 희망이슈 32호, 희망제작소.
-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2018). 과천시 초등돌봄 마을돌봄나눔터.
- 관계부처 합동(2016).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16~2020).
- 관계부처 합동(2017a).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범정부 연계 협력 강화 방안.
- 관계부처 합동(2017b). 보도자료: 아이돌봄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부처간 힘 모은다(2017. 12. 28).
- 관계부처 합동(2018a).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기본계획.
- 관계부처 합동(2018b). 보도자료(2018. 5. 3).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10개 시·군·구 공모.
- 관계부처 합동(2018c). 보도자료(2018. 5. 28). 아이돌봄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부처간 힘 모은다.
- 경기도 과천시(2018). 내부자료: 돌봄기관 관련 자료.
- 경기도 광명시(2018). 내부자료: 돌봄기관
- 경기도 광명시(2017). 돌봄기관 관련 자료.
- 교육부(2017a). 보도자료(2017. 1. 11). 학생은 행복하고 부모는 만족하는 “2017년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 발표.
- 교육부(2017b). 초등돌봄교실 현황 자료.
- 김영종(2004).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관계. 한국사회복지행정학 6(1), pp. 1-33.
- 김윤권·김정해·임성근·윤선영·권경환(2016). 정부 3.0 민관 협력 우수사례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김은정(2015).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에서 공동체적 접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연구 46(2), pp. 153-176.
- 김필두·권오철·이태수·안혜영·양창모(2008). 시군구 유형별 민관 협력체계 실태 및 발전모형에 관한 연구. 기획예산처·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문영희(2018).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과 대안.
- 박수지·박세경·이태진·김가희(2013). 사회복지 분야 민관 협력 강화 방안: 2013년 민관 협력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 성북구 별별재미난교실(2018).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17). 보도자료: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첫걸음(2017. 8. 28).
- 보건복지부(2017a).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 보건복지부(2017b).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 보건복지부(2018a). 2018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8b). 2018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8c).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 보건복지부(2018d). 2018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 서울 마포구 친한친구 공동체 방과후 내부자료(2018). 공동체방과후 관련자료.
- 서울 성북구청(2018). 내부자료: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사업계획서.
- 서울 성북구 별별재미난교실(2017). 내부자료: 성북구사회적경제특구 추진단 초등틈새돌봄 시범사업 보고서.
- 성북구 사회적특구추진단(2018). 내부자료: 돌봄센터 관련자료.
- 손문금(2012). 서울시 돌봄사업 확대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돌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 한국여성가족재단.
- 송다영(2018). “돌봄민주주의와 함께 돌봄 정착 방안”. 82년생 김지영 세대와 자녀돌봄과 지역공동체 역할. 2018년 제1차 가족정책포럼.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월계문화복지센터(2018). 2018년도 다함께돌봄센터 사업계획서.
- 여성가족부(2017). 2017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18a). 2018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 여성가족부(2018b). 보도자료: 여성일자리와 맞벌이 가정 초등돌봄 강화에 240억원 규모 민관 협력(2018. 1. 26).
- 여성가족부(2018c). 2018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18d). 내부자료.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8). 2018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메뉴얼.
- 이인희(2012). 지역사회복지의 민관 협력체계 연구. 공공행정연구 13(2), pp. 63-82.
- 임선일·전호성·이선영,(2017).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모델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 장명림·김성희·김옥자·채명숙(2015).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학교중심 실행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
- 정영모(2018). “마을공동체 회복과 공동육아나눔”. 82년생 김지영 세대와 자녀돌봄과 지역공동체 역할. 2018년 제1차 가족정책포럼.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중앙지역아동센터(2017). 내부자료.
- 충북 단양군(2017). 내부자료: 돌봄기관 관련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 홍영준(2017).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민관 협력 갈등에 대한 고찰-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제56호 pp. 133-166.
- Gidron. B., Kramer. R., & Salamon. L. (eds)(1992) Government and the Third Sector: Emerging Relationships in Welfare States. Jossey-Bass.

[사이트]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libsta.go.kr/libportal/libThree/libSearch/getLibSearc>

hList.do (2018. 5. 4. 인출).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 (2018. 6. 7. 인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2018. 2. 28. 인출).

청소년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www.youth.go.kr/yaca/index.do> (2018. 6. 3. 인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hf.or.kr/lay1/S1T103C207/contents.do> (2018. 3. 13. 인출).

Abstract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System in Child Care

Haemi Yoo · Yoonjin Lee · Eunyoung Park

Despite the expansion of financial investment in the field of child care for the low birth rate, child care gaps and blind spots still exist. There is need for child services to include primary school children and more attention paid to community-based child care support. In this light, this study proposes a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for community-based child care to meet the demands of various care support and to solve the gap in child care.

This study undertook a questionnaire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its needs. A sample of 107 civil servants in welfare governance around the country and 218 directors of care services and related service organisations were selected.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finds implications for each type of child services as it examines the cases of community-based child care.

The analysis of the survey is here outlined. Community childcare infrastructure serves dual-income households with primary school children and infants, whilst only half of child care networks and consultative bodies are in operation. As for the support, the central government provides funding (remodeling fee, cost of labor for child care teacher, operation cost, vehicle operation cost, etc.) and establishes links between related government agencies. The survey also suggests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effect regulations and laws for regional centered child care support, establish comprehensive plans, and deploy dedicated departments and personnel. It is essential to identify child care providers with specificity, which requires an establishment of a robust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and a distinct organisation of local departments and personnel.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are based on the analysis given. The fundamental direc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rivate-public cooperation system in childcare is to solve the childcare gap and to provide a range of childcare. Also, the direction of the operating principle suggests that more inclusive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and networking in childcare provision are important. Furthermore, both interdependence and independence amongst the network participators is required. To establish a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in childcare, private-public cooperation institutions should involve the local government, education agents and primary schools. Moreover, it is also essential to identify the specific service provision required with financial support in place. As the role of the private-public administration, the central government has set up a legal basis for local child care support and has established a system which link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is required for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ordinances, designation and staffing in departments. The public sector should oversee the provision of childcare services, resources development and programme development. And lastly, the private sector should administer the provision of the childcare including the infrastructure, the consignment operation of childcare service, the marketing, the information and the participation of all agents.

부록

- 부록 1. 돌봄서비스 및 유관 기관 수/아동 수
-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사업 담당자용
- 부록 3. 심층면담 질문지: 실무자용
- 부록 4. 심층면담 질문지: 부모용
- 부록 5. 설문조사표: 공무원용
- 부록 6. 설문조사표: 실무자용

부록 1. 돌봄서비스 및 유관 기관 수/아동 수

▮ 부록표 1-1 ▮ 전국지역의 돌봄서비스 및 유관 기관 수/아동 수

단위: 개소, 명

구분	초등 돌봄서비스			유관 서비스 기관			연령별 아동 수 (7~12세)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사회 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전국	4,107	11,920	77	464	151	396	2,769,700.0
서울	414	1,666	10	99	26	109	454,044.0
부산	204	585	4	53	9	15	156,179.5
대구	199	425	3	26	7	14	129,015.5
인천	183	538	8	20	9	32	160,622.0
광주	301	313	2	18	5	12	90,141.0
대전	145	366	2	21	1	31	86,964.0
울산	55	273	1	8	2	6	66,941.0
세종	12	98	1	2	1	1	21,474.5
경기	763	2,760	10	80	32	115	764,039.0
강원	168	617	9	19	7	9	78,290.5
충북	184	431	3	13	4	9	85,971.0
충남	226	706	5	19	10	11	118,940.5
전북	286	720	2	17	6	7	100,314.5
전남	384	621	3	15	9	4	95,730.0
경북	258	802	4	14	9	6	130,670.5
경남	259	818	9	30	12	12	189,724.5
제주	66	181	1	10	2	3	40,638.0
평균	241.6	701.2	4.5	27.3	8.9	23.3	307,744.44

주: 1) 자료 기준일자: 지역아동센터(2016. 12), 초등돌봄교실(2016), 공동육아나눔터(2018. 3), 사회복지관(2017. 12), 건강가정지원센터(2018. 1. 1), 어린이도서관(2018. 5. 4), 연령별 영유아 및 아동수(2018. 1)

2) 자료 설명: 지역아동센터(기관 수), 초등돌봄교실(교실 수), 공동육아나눔터(정부지원 사업 수행기관, 정부지원 외 수행기관, 군관사지역에서 운영되는 서비스 기관), 사회복지관(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지방자치단체 직영, 시설관리공단, 의료법인에서 운영되는 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한국가정진흥원을 제외한 사도센터), 어린이도서관(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록된 국공립, 사립,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작은(문고) 중 도서관명에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는 도서관)

자료: 1)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역아동센터 내부자료(2017).

2) 초등돌봄교실: 교육부(2017b). 내부자료.

3) 공동육아나눔터: 여성가족부(2018d). 내부자료(2018. 8).

4) 사회복지관: 보건복지부(2017b).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p. 302-326.

5)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2017). 2017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pp. 167-170.

6) 어린이도서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libsta.go.kr/libportal/libThree/libSearch/getLibSearchList.do> [도서관 찾기]-[도서관명: 어린이] (2018. 5. 4. 인출).

7) 연령별 영유아 및 아동수: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2017. 2). (2018. 6. 7. 인출).

▮ 부록표 1-2 ▮ 대도시 지역의 돌봄서비스 및 유관 기관 수/아동 수

단위: 개소, 명

구분	초등			유관 서비스 기관			연령별 아동 수 (7~12세)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사회 복지관	건가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전국	4,107	11,920	77	464	151	396	2,769,700.0
서울							
강남구	2	85	1	6	1	2	29,225
강동구	20	75	0	2	1	2	21,047
강북구	22	39	0	5	1	4	13,096.5
강서구	18	97	0	10	1	8	27,305
관악구	29	70	1	5	1	0	17,382
광진구	17	47	0	3	1	0	15,091.0
구로구	20	86	0	3	1	9	19,176
금천구	26	44	0	2	1	3	8,901.5
노원구	18	112	1	9	1	2	29,409
도봉구	18	68	1	3	1	3	15,302
동대문구	13	57	1	2	1	9	14,380.5
동작구	23	68	1	6	1	6	17,003
마포구	11	72	0	2	1	2	17,432.0
서대문구	8	41	1	3	1	6	13,249.5
서초구	6	63	1	4	1	1	26,576.5
성동구	12	64	0	3	1	14	12,505
성북구	26	73	0	5	1	5	22,077
송파구	16	100	0	6	1	4	34,171
양천구	23	77	0	5	1	3	27,479.0
영등포구	13	73	1	2	1	3	14,802
용산구	6	37	0	2	1	2	9,255
은평구	26	90	0	3	1	6	22,822.0
종로구	12	25	0	1	1	5	6,013.0
중구	5	24	0	3	2	4	4,188
중랑구	24	79	1	4	1	6	16,158.5
부산							
강서구	3	35	0	2	0	0	6,822
금정구	15	43	0	2	1	0	9,950.0
남구	17	43	0	3	0	1	12,998.0
동구	16	13	0	2	0	1	2,668
동래구	18	42	1	2	0	0	13,306.5

구분	초등			유관 서비스 기관			연령별 아동 수 (7~12세)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사회 복지관	건가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부산진구	21	64	0	4	1	2	14,668.5
북구	14	51	1	9	1	2	13,832
사상구	20	45	0	4	1	1	9,088.5
사하구	17	45	1	5	1	1	14,967.5
서구	5	22	0	2	0	2	3,862.5
수영구	5	20	0	2	1	0	6,642
연제구	10	25	1	2	1	0	9,413.5
영도구	9	24	0	5	1	2	4,394.5
중구	4	6	0	1	0	0	1,213
해운대구	23	59	0	7	1	2	21,877.5
대구							
남구	12	21	1	1	1	1	5,325
달서구	33	108	0	7	1	3	31,857.0
동구	25	56	0	5	0	2	16,625.0
북구	44	78	0	3	1	2	24,702
서구	34	27	0	2	1	3	6,401
수성구	17	65	1	5	1	2	27,588
중구	6	17	0	2	1	0	2,872.0
인천							
계양구	21	54	1	1	1	1	16,454.0
남구	15	46	1	3	1	8	18,838.5
남동구	42	84	1	4	1	5	30,448.5
동구	7	17	1	2	1	0	3,434.5
부평구	37	87	1	4	1	7	26,622
서구	30	103	1	1	1	2	32,799
연수구	15	53	0	3	1	7	21,813.5
중구	4	37	1	1	1	2	6,852
광주							
광산구	66	111	1	3	1	4	31,749.5
남구	48	42	1	3	1	0	12,555
동구	21	15	0	1	1	0	3,470
북구	117	91	0	7	1	4	24,128
서구	49	54	0	4	1	4	18,239.5
대전							
대덕구	29	52	0	4	0	4	9,883

구분	초등			유관 서비스 기관			연령별 아동 수 (7~12세)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사회 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동구	28	60	0	5	0	2	12,065
서구	28	96	1	6	0	8	28,297
유성구	22	94	1	2	1	5	23,577.0
중구	38	64	0	4	0	12	13,142.5
울산							
남구	11	67	1	1	1	2	17,552
동구	10	40	0	2	0	0	9,982.5
북구	10	44	0	1	0	3	13,942.0
중구	8	54	0	1	0	1	12,274

- 주: 1) 자료 기준일자: 지역아동센터(2016. 12), 초등돌봄교실(2016), 공동육아나눔터(2018. 3), 사회복지관(2017. 12), 건강가정지원센터(2018. 1. 1), 어린이도서관(2018. 5. 4), 연령별 영유아 및 아동수(2018. 1)
- 2) 자료 설명: 지역아동센터(기관 수), 초등돌봄교실(교실 수), 공동육아나눔터(정부지원 사업 수행기관, 정부지원 외 수행기관, 군관사지역에서 운영되는 서비스 기관), 사회복지관(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지방자치단체 직영, 시설관리공단, 의료법인에서 운영되는 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한국가정진흥원을 제외한 사도센터), 어린이도서관(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록된 국공립, 사립,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작은(문고) 중 도서관명에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는 도서관)

- 자료: 1)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역아동센터 내부자료(2017. 12).
- 2) 초등돌봄교실: 교육부(2017b). 내부자료.
- 3) 공동육아나눔터: 여성가족부(2018d). 내부자료(2018 8).
- 4) 사회복지관: 보건복지부(2018c).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p. 313-327(2017. 12 기준).
- 5)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2017). 2017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pp. 167-170.
- 6) 어린이도서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libsta.go.kr/libportal/libThree/libSearch/getLibSearchList.do> [도서관 찾기]-[도서관명: 어린이] (2018. 5. 4. 인출).
- 7) 연령별 영유아 및 아동수: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2017. 2). (2018. 6. 7. 인출).

부록표 1-3 중소도시 지역의 돌봄서비스 및 유관 기관 수/아동 수

단위: 개소, 명

구분	초등			유관 서비스 기관			연령별 아동 수 (7~12세)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사회 복지관	건가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전국	4,107	11,920	77	464	151	396	2,769,700.0
경기							
고양시	36	191	1	7	1	13	58,696
과천시	4	9	0	1	1	1	3,531.0
광명시	29	59	0	3	1	1	20,105
광주시	26	63	0	0	1	1	18,878
구리시	15	35	0	2	1	4	10,728
군포시	15	48	0	3	1	4	16,280
김포시	18	107	0	1	1	2	26,044.0
남양주시	52	153	0	4	1	7	44,480
동두천시	14	29	0	0	1	0	5,383.5
부천시	64	148	0	10	1	6	42,243
성남시	51	140	0	9	1	8	50,740
수원시	60	199	0	6	2	11	69,637.0
시흥시	40	83	1	6	1	2	25,650.0
안산시	65	133	0	5	1	14	37,192
안성시	11	80	0	1	1	0	10,787.5
안양시	23	82	0	4	1	10	30,658.0
양주시	18	70	1	1	1	1	13,427.5
여주시	12	43	1	0	1	0	5,681
오산시	10	47	0	3	1	1	15,565
용인시	29	199	1	1	1	7	71,672.5
의왕시	11	27	0	1	1	0	8,345
의정부시	26	74	0	1	1	2	23,460.0
이천시	15	70	1	0	1	3	13,192.5
파주시	21	172	0	1	1	4	28,690.0
평택시	34	126	0	2	1	5	29,088
포천시	10	53	1	1	1	1	7,406.5
하남시	11	38	0	2	1	1	12,860.5
화성시	31	190	1	4	1	5	53,528.5
강원							
강릉시	20	56	0	1	0	0	10,545
동해시	14	17	1	1	1	0	5,146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연구

구분	초등			유관 서비스 기관			연령별 아동 수 (7~12세)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사회 복지관	건가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삼척시	11	24	1	1	1	0	2,937
속초시	6	20	0	1	1	1	4,069.5
원주시	31	117	0	4	1	1	20,086.5
춘천시	33	74	0	3	0	4	15,165.0
태백시	11	19	0	0	0	1	2,353.0
충북							
제천시	9	35	1	1	1	0	6,533.5
청주시	77	174	1	8	1	5	50,037.5
충주시	35	51	1	1	1	2	10,578
충남							
계룡시	3	10	0	0	0	0	595.7
공주시	9	52	0	0	3	1	789.7
논산시	23	63	0	0	1	1	976.8
당진시	9	48	0	1	3	1	1627.7
보령시	9	42	0	1	2	1	823.5
서산시	13	49	0	0	2	0	1695.7
아산시	41	70	0	1	5	1	3493.8
천안시	57	136	1	1	2	1	6515.5
전북							
군산시	50	86	0	2	1	0	15,928
김제시	11	51	0	3	0	0	3,681.5
남원시	25	50	0	1	1	0	4,243
익산시	46	99	1	3	1	4	16,325.0
전주시	66	168	1	5	1	3	39,176
정읍시	29	50	0	1	1	0	5,486
전남							
광양시	18	44	1	0	1	1	9,359
나주시	24	31	0	1	0	0	5,048
목포시	42	67	1	3	1	1	14,870.5
순천시	47	78	0	2	1	0	16,985.0
여수시	40	68	0	4	1	0	15,129
경북							
경산시	23	52	1	1	0	0	12,866.5
경주시	26	76	0	1	0	0	12,097

구분	초등			유관 서비스 기관			연령별 아동 수 (7~12세)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사회 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구미시	50	89	1	2	1	0	26,829
김천시	12	47	1	1	1	1	6,637.5
문경시	10	23	0	1	0	0	2,991
상주시	8	56	0	1	1	0	4,229.5
안동시	11	49	0	1	1	2	8,132.5
영주시	10	40	0	1	1	0	5,139
영천시	6	28	0	1	0	0	3,699.0
포항시	59	88	0	3	1	2	27,270.0
경남							
거제시	10	63	1	2	0	0	17,349
김해시	33	113	0	2	1	0	35,752.0
밀양시	19	29	1	1	1	0	4,420.0
사천시	7	33	0	3	0	3	6,423.5
양산시	16	56	1	2	0	1	19,733.5
진주시	23	81	0	3	1	5	20,021.0
통영시	8	34	1	2	1	0	58,208
통합 창원시	75	200	1	6	3	2	8,081.5
제주							
제주시	26	121	1	7	1	3	30,734.5
서귀포시	40	60	0	3	1	0	9,903.5
세종							
세종시	12.0	98	1.0	2.0	1.0	1.0	3,887.50

주: 1) 자료 기준일자: 지역아동센터(2016. 12), 초등돌봄교실(2016), 공동육아나눔터(2018. 3), 사회복지관(2017. 12), 건강가정지원센터(2018. 1. 1), 어린이도서관(2018. 5. 4), 연령별 영유아 및 아동수(2018. 1)

2) 자료 설명: 지역아동센터(기관 수), 초등돌봄교실(교실 수), 공동육아나눔터(정부지원 사업 수행기관, 정부지원 외 수행기관, 군관사지역에서 운영되는 서비스 기관), 사회복지관(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지방자치단체 직영, 시설관리공단, 의료법인에서 운영되는 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한국가정진흥원을 제외한 사도센터), 어린이도서관(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록된 국공립, 사립,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작은(문고) 중 도서관명에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는 도서관)

자료: 1)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역아동센터 내부자료(2017. 12).

2) 초등돌봄교실: 교육부(2017b). 내부자료.

3) 공동육아나눔터: 여성가족부(2018d). 내부자료(2018. 8).

4) 사회복지관: 보건복지부(2018c).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p. 313-327(2017. 12 기준).

5)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2017). 2017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pp. 167-170.

6) 어린이도서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libsta.go.kr/libportal/libThree/libSearch/getLibSearchList.do> [도서관 찾기]-[도서관명: 어린이] (2018. 5. 4. 인출).

7) 연령별 영유아 및 아동수: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2017. 2). (2018. 6. 7. 인출).

▮ 부록표 1-4 ▮ 군 지역의 돌봄서비스 및 유관 기관 수/아동 수

단위: 개소, 명

구분	초등			유관 서비스 기관			연령별 아동 수 (7~12세)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사회 복지관	건가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전국	4,107	11,920	77	464	151	396	2,769,700.0
경기							
가평군	4	26	0	0	1	0	2,660.5
양평군	5	36	0	1	1	1	5,552.5
연천군	3	30	2	0	1	0	1,879
강원							
고성군	4	15	1	0	1	0	1,013.0
양구군	1	24	1	1	1	0	1,144
양양군	5	30	1	1	0	0	1,014
영월군	9	18	0	1	1	0	1,495.5
인제군	2	17	1	1	0	0	1,616
정선군	4	27	1	1	0	0	1,559.5
철원군	3	25	1	0	0	0	2,385
평창군	4	41	0	0	0	0	1,791.0
홍천군	4	33	0	1	0	1	3,025
화천군	2	22	1	1	0	1	1,157
횡성군	4	38	0	1	0	0	1,791.0
충북							
괴산군	9	19	0	0	0	0	1,139.5
단양군	6	16	0	0	0	0	1,169.0
보은군	7	21	0	0	0	0	1,214.0
영동군	9	21	0	0	0	0	1,853
옥천군	3	19	0	0	0	0	2,253
음성군	18	45	0	0	0	2	4,828
증평군	4	6	0	2	0	0	2,199.0
진천군	7	24	0	1	1	0	4,167
충남							
금산군	13	23	0	1	0	0	392.5
부여군	6	27	0	0	0	0	440.3
서천군	12	37	0	0	0	1	328.8
예산군	11	50	1	0	0	1	521.5
청양군	3	24	0	0	0	0	173.17
태안군	8	29	0	0	0	1	439.3
홍성군	9	46	0	0	1	1	926.5

구분	초등			유관 서비스 기관			연령별 아동 수 (7~12세)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사회 복지관	건가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전북							
고창군	6	26	0	1	0	0	2,349
무주군	6	15	0	0	0	0	1,110
부안군	6	35	0	1	0	0	2,126.5
순창군	3	24	0	0	0	0	1,311.0
완주군	13	60	0	0	1	0	5,424
임실군	6	22	0	0	0	0	1,157
장수군	7	16	0	0	0	0	1,036
진안군	12	18	0	0	0	0	963
전남							
강진군	11	17	0	0	0	0	1,428
고흥군	17	22	0	0	0	0	2,177
곡성군	8	11	0	0	0	0	1,049
구례군	6	13	0	1	1	1	1,109
담양군	10	17	0	0	0	0	1,574
무안군	16	26	0	1	0	0	5,198.0
보성군	11	20	0	1	0	0	1,472.0
신안군	4	22	0	0	0	0	1,111
영광군	13	16	0	0	0	0	2,387.0
영암군	18	21	0	0	0	0	2,601
완도군	12	29	0	0	1	0	2,161
장성군	14	17	0	0	1	0	1,955
장흥군	11	18	0	1	1	0	1,587
진도군	7	17	0	0	0	0	1,258
함평군	12	13	0	0	0	0	1,118.5
해남군	27	30	0	1	1	0	3,032.5
화순군	16	24	1	0	0	1	3,124.0
경북							
고령군	5	14	0	0	0	0	1,257.5
군위군	1	14	0	0	0	0	541.0
봉화군	1	24	0	0	0	0	1,060.0
성주군	4	20	0	1	0	0	1,309.0
영덕군	3	17	0	0	0	0	1,254
영양군	2	8	0	0	0	0	571.0
예천군	6	25	0	0	0	0	1,907

구분	초등			유관 서비스 기관			연령별 아동 수 (7~12세)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사회 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	
울릉군	1	11	1	0	0	0	306
울진군	2	31	0	0	0	0	2,176.5
의성군	6	19	0	0	1	0	1,337
청도군	2	20	0	0	1	1	1,211
청송군	0	13	0	0	0	0	687
칠곡군	10	38	0	0	1	0	7,165
경남							
거창군	15	24	0	1	0	0	3,044
고성군	5	22	0	1	0	0	2,278.5
남해군	7	18	1	1	0	1	1,478.5
산청군	4	18	1	0	1	0	1,178
의령군	3	17	0	2	1	0	873.5
창녕군	8	23	0	0	1	0	2,281
하동군	6	24	1	1	1	0	1,771.5
함안군	5	25	1	1	0	0	3,721.5
함양군	5	16	0	1	1	0	1,682
합천군	10	22	0	1	0	0	1,429
부산							
기장군	7	48	0	1	0	1	10,476.5
대구							
달성군	28	53	1	1	1	1	13,647
인천							
강화군	11	37	0	0	1	0	2,649.5
옹진군	1	20	1	1	0	0	711
울산							
울주군	16	68	0	3	1	0	13,192

- 주: 1) 자료 기준일자: 지역아동센터(2016. 12), 초등돌봄교실(2016), 공동육아나눔터(2018. 3), 사회복지관(2017. 12), 건강가정지원센터(2018. 1. 1), 어린이도서관(2018. 5. 4), 연령별 영유아 및 아동수(2018. 1)
- 2) 자료 설명: 지역아동센터(기관 수), 초등돌봄교실(교실 수), 공동육아나눔터(정부지원 사업 수행기관, 정부지원 외 수행기관, 군관사지역에서 운영되는 서비스 기관), 사회복지관(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지방자치단체 직영, 시설관리공단, 의료법인에서 운영되는 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한국가정진흥원을 제외한 사도센터), 어린이도서관(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록된 국공립, 사립,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작은(문고) 중 도서관명에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는 도서관)
- 자료: 1)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역아동센터 내부자료(2017. 12).
 2) 초등돌봄교실: 교육부(2017b). 내부자료.
 3) 공동육아나눔터: 여성가족부(2018d). 내부자료(2018. 8).
 4) 사회복지관: 보건복지부(2018c).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p. 313-327(2017. 12 기준).
 5)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2017). 2017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pp. 167-170.
 6) 어린이도서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libsta.go.kr/libportal/libThree/libSearch/getLibSearchList.do> [도서관 찾기]-[도서관명: 어린이] (2018. 5. 4. 인출).
 7) 연령별 영유아 및 아동수: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2017. 2). (2018. 6. 7. 인출).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사업 담당자용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 사례_사업담당자(공무원/위탁체)용

1. 사업 추진 배경 및 기대효과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배경 및 취지, 사업 목표 - 추진 경과 및 연혁
2) 타 돌봄서비스와의 관계 및 차별화 내용은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대상 및 주요 내용 - 타 돌봄서비스 기관과의 관계: 아동 돌봄 서비스와의 차별화 내용 - 타 돌봄서비스 기관 대비 차별화된 기대효과
2. 사업 내용 및 추진체계	
1) 주요 대상 및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사업 대상: 대상아동 연령 범위, 주요 대상 가구 특성 - 주요사업 내용: 돌봄서비스 주요 내용 - 사업 예산 및 정부지원 내용: 사업 규모, 정부지원 내용
2) 사업 담당 인력 및 역할은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부서 - 담당 인력 규모: 사업 담당자 추가인력 배치 여부, 위탁업체, 돌봄센터장 선발 등
3) 서비스 인프라 설치 운영 및 관리 사항 등 규정 사항은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설치 및 운영관련 규정 - 위탁체 선정 및 운영 방식: 사업 담당자와 위탁체와의 역할 분화 등 - 기타 운영관리 사항
4) 추진체계 및 네트워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체계 전반 - 주요 운영 주체별 역할 분화: 민관 협력의 세부내용 - 지역 내 네트워크 현황 및 협의체 운영 사항, 참여주체별 역할 분화 내용

3. 지역 여건과 사업내용의 차별화
1) 지역 특성 및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 돌봄관련 지역 수요 및 차별화 내용
2) 지역 특성에 따른 지원내용 및 협력 사항은 무엇입니까? - 지역 특성에 따른 정부 지원 및 협력사항 - 지역 특성 반영 돌봄체계 구축 시 고려사항
3) 지역 특성 변수와 반영사항은 무엇입니까? -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 사업 추진 시 고려할 지역 변수 - 지역 특성상 관련사업 추진 시 중앙정부에의 협력 및 지원 요구사항

4.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
1)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추진 과정 시 추가 애로사항 - 사업 추진 시 중앙정부(또는 광역 단위)의 지원 요구사항 - 사업 내실화를 위한 개선 과제
2) 이용 및 참여 부모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어떠합니까? - 이용 및 참여 부모의 만족도 평가 - 이용 및 참여부모의 주된 불편사항 및 개선요구
3) 향후 추진계획 및 개선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향후 사업 추진 계획 및 세부내용 - 개선 계획 및 해당 사유

5.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에 관한 의견 전반
1)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및 지원요구는 무엇입니까?
2)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의 성공 요인 및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3)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활성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p>〈실무자_사업 담당 공무원용〉 심층면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보다 나은 육아지원정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 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일련번호: 사례조사_지역돌봄체계 구축 사업 담당자(공무원/위탁체 사업담당자)</p>

지역	()도 ()시/군 ()구
담당부서	()과/팀
직위/직급	()
재직 기관	()년 ()개월
사업 담당 기간	()년 ()개월
최종 학력	고졸 미만 <input type="checkbox"/> 고졸 <input type="checkbox"/> 대졸 <input type="checkbox"/> 대학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성별 / 연령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연령	만 ()세

부록 3. 심층면담 질문지: 실무자용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사업(돌봄공동체) 운영 사례_실무자(센터장)용

<p>1. 지역 중심 돌봄공동체 참여 동기 및 필요성</p>
<p>1) 돌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어린이집 등)과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여부별 동기 - 모의 취업 여부별 동기: 취업모/미취업모 참여 동기 - 자녀 연령별 동기: 영아/유아/초등 저학년
<p>2) 현재의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 어떤 경로로 지원하게 되셨습니까? (정부사업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경로 - 접근성 강화 방안
<p>3) 정부의 돌봄서비스 지원(영아 무상보육, 누리과정 지원, 초등돌봄교실 등)에도 불구하고, 돌봄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경험 있는 경우: 프로그램/비용/만족도 전반의 차별성(부모협동어린이집 비교) - 이용 경험 없는 경우: 어린이집 등 기존의 기관 미 이용 사유
<p>4) 영유아 및 초등자녀를 둔 부모들의 돌봄공동체에 대한 관심도와 필요도는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판단되십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를 둔 부모의 관심도와 필요도, 기존 정부지원 사업(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가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등)과의 차별성 - 초등자녀를 둔 부모의 관심도와 필요도, 기존 정부지원 사업(초등돌봄교실 등)과의 차별성

2. 운영자 역할 및 운영체계
1) 센터 운영자의 주요 역할은 무엇입니까? - 주요 역할 및 필요성 - 참여 부모와의 역할 분화 내용 - 정부 및 서비스 기관과의 역할 분장 사항
2) 센터의 주요 활동은 무엇입니까? - 주요 활동 내용/프로그램 내용 - 기존 육아지원서비스와의 차별성 여부 및 주요 내용
3) 현재 공동(체)육아의 지원내용은 무엇입니까?
4) 정부 및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서비스기관과의 협력 및 서비스 연계내용은 무엇입니까? ※ 정부 지원사업 여부 확인 - 주체별 역할 분화 및 서비스 연계 내용 및 효과 - 정부 지원 및 협력사항에 대한 만족도 및 평가 - 추가 협력 및 연계를 희망하는 지역 내 서비스 기관 및 지원내용 /해당 사유

3. 활동 시 애로사항
1) 센터 운영 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2) 참여부모의 주요 만족/불만족 사항은 무엇입니까?
3) 주요 개선 계획은 무엇입니까?

4. 개선 및 요구 사항
1) 현재 돌봄공동체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현재 돌봄공동체 육아지원의 개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3) 지역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요구는 무엇입니까?

〈운영자(센터장)용〉
 심층면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보다 나은 육아지원정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
 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련번호: 사례조사_센터 운영자(센터장)

지역/센터명	()도 ()시/군 (센터명:)		
현재 센터의 근무 기간	()년 ()개월		
최종 학력	고졸 미만 <input type="checkbox"/>	고졸 <input type="checkbox"/>	대졸 <input type="checkbox"/> 대학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성별 / 연령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연령	만 ()세		
(현) 재직 기간	()년 ()개월		
근무 시간	주당 근무일수	주당 근무일수 ()회 / 주당	
	근무시간	시작 (시 분) ~ 종료 (시 분)	
자녀 현황 (자녀연령/재학)	자녀 연령/재학(기관)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어린이집, 도우미, 휴직 중 등)
	첫째	()세	
	둘째	()세	
	셋째	()세	
	해당사항 없음 ()		

부록 4. 심층면담 질문지: 부모용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 사례_부모용

<p>1. 지역기반 돌봄공동체 참여 동기 및 필요성</p>
<p>1) 돌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어린이집 등)과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여부별 동기 - 모의 취업 여부별 동기: 취업모/미취업모 참여 동기 - 자녀 연령별 동기: 영아/유아/초등 저학년
<p>2) 현재의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을 어떻게 알고 이용하게 되셨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경로, - 접근성 강화 방안
<p>3) 정부의 돌봄서비스 지원(영아 무상보육, 누리과정 지원, 초등돌봄교실 등)에도 불구하고, 돌봄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경험 있는 경우: 프로그램/비용/만족도 전반의 차별성(부모협동어린이집 비교) - 이용 경험 없는 경우: 어린이집 등 기존의 기관 미 이용 사유
<p>4) 영유아 및 초등자녀를 둔 부모들의 돌봄공동체에 대한 관심도와 필요도는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판단되십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를 둔 부모의 관심도와 필요도, 기존 정부지원 사업(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가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등)과의 차별성 - 초등자녀를 둔 부모의 관심도와 필요도, 기존 정부지원 사업(초등돌봄교실 등)과의 차별성

2. 참여 현황과 지원 내용
1) 참여 빈도 및 주요 활동시간은 어떠합니까? - 아동 특성별(연령, 출생 순위, 총 자녀수 등) 이용 현황 - 이용 시간: 1회 활동시간/주 참여 시간대 - 이용 빈도: 정기적/비정기적, 주/월 평균 참여 횟수
2) 주요 활동은 무엇입니까? - 주요 활동 내용/프로그램 내용 - 기존 육아지원서비스와의 차별성 여부 및 주요 내용
3) 활동 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3) 현재 공동(체)육아의 지원내용은 무엇입니까?
4) 정부 및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서비스기관과의 협력 및 서비스 연계내용은 무엇입니까? - 주체별 역할 분화 및 서비스 연계 내용 및 효과 - 정부 지원 및 협력사항에 대한 평가 - 추가로 협력하거나 지역 내 서비스 기관과 연계를 희망하는 내용 및 그 사유

3. 만족도(아동/부모) 및 주요 효과
1) 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용 시간 및 빈도/프로그램/비용 등
2) 돌봄공동체 참여의 주된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아동 발달/부모의 일·가정 양립지원/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등 - 기존 보육서비스와 비교하여 그 효과는 어떠합니까?
3) 향후 돌봄공동체 육아의 참여 의향은 어떠합니까? - 향후 지속 참여 의향 여부 및 그 이유 - 주변 권유 의향 여부 및 그 이유

4. 개선 및 요구 사항
1) 현재 돌봄공동체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현재 돌봄공동체 육아지원의 개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부모 주도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요구는 무엇입니까?

부록 5. 설문조사표: 공무원용

아동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 _공무원용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아동 돌봄의 공백 해소 또는 틈새보육 등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지원 사업 및 관련 지원체계 현황(돌봄네트워크, 지역돌봄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 협력의 기관 및 세부내용, 개선 과제,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요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제33조와 제34조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육아정책 연구소 소장

〈조사대상 확인 사항〉

1. 귀하는 현재 이하 보기의 업무 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문 2번으로**
- ② 아니오 ☞ **조사 중단**

〈보 기〉	
① 지역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③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⑤ 방과후 돌봄/마을학교/학교네트워크 ⑦ 민관 협력 사업 및 연계 관련 업무 ⑨ 마을공동체 또는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 협력 기구 담당 ④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⑥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및 민간협의체 담당 ⑧ 복지전달체계, 복지허브화, 희망복지

2. 귀하는 문 1번의 업무 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지 3개월이 넘었습니까?

- ① 예 ☞ **문 2번으로**
- ② 아니오 ☞ **조사 중단**

I.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3. 귀하가 담당하는 지역(도/시군구)에서는 아동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거나 틈새보육(또는 긴급 보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 ※ 중앙정부(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의 공모사업(다함께돌봄사업 등), 중앙정부 사업인 공동육아나눔터, 드림스타트 사업을 제외하고, 자체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 ※ 현재 시범사업 중인 경우는 사업 추진 중에 포함하여 “예” 라고 응답합니다

- ① 예 ☞ **문 3-1번으로**
- ② 아니오 ☞ **문 4번**
- ③ 잘 모르겠다 ☞ **문 4번**

3-1. 문 3번에 해당하는 사업명 및 세부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 해당 사업이 2건 이상인 경우는 각각 구분하여 모두 작성합니다.
- ※ 동일사업이나 각 세부 사업대상(돌봄센터)별로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이 다른 경우는 종합하여(연간 900만원~1,200만원) 또는 세부 항목(1호, 2호)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구분	3-1. 사업명	3-1-1. 주요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아동연령/소득기준 등)	3-1-2. 지원내용(리모델링비, 운영비 등) /지원수준(지원금액/연간)
1			
2			
3			

3-1-2-1. 문 3-1-2번의 지원내용 중 보조금 지원 등 재정지원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교육, 컨설팅, 돌봄협의체 운영 및 지원 등)이나, 사후관리 내용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모두 적어주십시오.

※ 해당 사업이 2건 이상인 경우는 각각 구분하여 모두 작성합니다.

구분	사업명	세부 지원내용(재정지원 이외 지원) 및 사후관리 사항
1		
2		
3		

3-2. 문 3-1번 사업의 1) 사업 담당자와 2) 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 (위탁인 경우는 위탁기관 명, 직영인 경우는 직영이라고 표기합니다)

※ 해당 사업이 2건 이상인 경우는 문 3-1번의 번호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모두 작성합니다.

구분	사업명	사업 담당부서명	사업 실무자 직영/위탁기관명(건강가정지원센터 등)
1			
2			
3			

3-3. 문 3-1번 사업의 돌봄서비스는 어디에서 제공되고 있습니까?

※ 돌봄센터의 구체적인 명칭과 서비스 공간의 유형(작은도서관 등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한 가지 사업에서 돌봄센터가 2개 이상 운영되는 경우는 해당 공간의 유형을 각각 모두 적어주십시오.

구분	사업명	돌봄센터명	서비스 공간(돌봄 인프라) 유형 (작은도서관, 주민센터,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학교 등)
1			
2			
3			

4. 귀하가 근무하는 지역에서는 아동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거나 틈새보육(또는 긴급보육) 등을 지원하려는 목적의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이 과거에 추진되었거나 향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 ① 과거에 추진된 적이 있다. ☞ 문 4-1번으로
- ② 향후 추진할 예정이다. ☞ 문 4-2번으로
- ③ 과거에 추진된 적이 있고, 향후에도 추진될 예정이다. ☞ 문 4-1번으로
- ④ 과거에 추진된 적이 없고, 향후에도 추진 계획이 없다.

4-1. (문 4번에서 ①, ③번에 응답한 경우) 귀하가 근무하는 지역에서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이 과거에 추진되었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업명과 사업중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4-2. (문 4번에서 ②번에 응답한 경우) 귀하가 근무하는 지역에서 아동 돌봄 공백 해소 등을 목적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의 1) 적용대상(아동연령, 초등학생 등)과 2) 지원내용(지원금액, 컨설팅 지원 등 포함)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현재 시범사업 중인 경우는 문 3번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응답합니다.

※ 추진 예정인 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는 각각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구분	사업명	적용대상	지원내용
1			
2			
3			

5. 귀하가 근무하는 지역에서는 아동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추진 중(또는 추진예정인)인 제도적 개선(조례 개정 및 개정, 조직 개편 등) 노력이 있습니까?

※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근거규정 마련 노력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① 예 ☞ 문 5-1번으로

② 아니오 ☞ 문 6번으로

5-1. 문 5번에서 아동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무엇입니까?

해당 제도적 개선 사항을 모두 적어주십시오.

구분	사업명	제도적 개선 노력 (주요 제개정 내용, 조직개편 사항 등)
1		
2		
3		

Ⅱ. 지역사회 돌봄네트워크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

6. 귀하가 근무하는 지역에는 해당 지역 내 아동 돌봄 분야의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및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기구 또는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시: 지역돌봄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세부 분과 등)

- ① 예 ☞ 문 6-1번으로
 ② 아니오 ☞ 문 7번으로

6-1. (문 6번에서 ①번에 응답한 경우) 해당 기구의 1) 위원 구성과 2)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관련 기구가 2개 이상인 경우는 각각 구분하여 적어주십시오.

구분	기구(협의체)명	구성(위원 및 소속 기관)	주요 역할
1			
2			
3			

6-2-1. 문 6-2번에서 응답한 위원 중 지역사회내 돌봄 및 유관 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관은 어디라고 판단되십니까?

※ 해당 기관을 중요도 순으로 최대 1, 2, 3순위까지 표기하고, 그 사유를 각각 적어주십시오.

중요도 순위	구성위원명(소속기관)	중요하다고 판단한 이유
1		
2		
3		

6-3. 문 6-1번에서 운영 중인 아동 돌봄 분야의 네트워크(및 협의체)의 운영 시 1) 애로사항, 2) 활성화의 요건 및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구분	기구(협의체)명	운영 시 애로사항	활성화의 요건 및 개선과제
1			
2			
3			

7. 귀하가 근무하는 지역에서(시군구)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 기구(돌봄협의체) 또는 네트워크가 운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 귀하께서 근무하는 지역에(시군구) 향후 아동 돌봄의 공백 해소 등을 위한 마을중심 돌봄지원 체계를 구축을 위해 1) 아동 분야 돌봄서비스 및 유관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한 협의기구에 위원으로 포함해야 할 기관(또는 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2)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지역 내(시군구)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해주시시오.

구분	기관 유형 (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등)	협약기구 포함 사유
공공기관		
민간기관		

Ⅲ. 아동 돌봄 분야 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 및 지원 요구

※ 이하 질문은 아동 돌봄 분야의 공백 해소 등을 위해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 및 지원요구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의 업무 경험을 감안하여 판단이 가능한 항목에만 응답해주시시오.

9. 귀하께서 판단하시기에 귀하가 근무하는 지역 내(시군구)에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발굴하여 돌봄서비스 기관에 연계하거나 지역 내 돌봄공동체의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돌봄서비스 또는 유관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 해당 기관을 생각나는대로 모두 적어주시시오.

구분	기관명/기관유형(작은도서관 등)	서비스 연계 및 협력내용
돌봄서비스 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이외 유관 기관		

10. 귀하가 근무하는 지역에는 아동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돌봄센터 또는 지역 내 거점 기능을 수행할 공간으로 발굴할만한 장소가 얼마나 충분하다고 판단되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 ② 부족하다
- ③ 보통
- ④ 충분한 편이다 **☞ 문 10-1번으로**
- ⑤ 매우 충분하다 **☞ 문 10-1번으로**

10-1. (문 10번에서 ④번 또는 ⑤번에 응답한 경우) 아동 돌봄 공간으로 발굴할만한 장소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생각나는대로 기관유형으로 응답하시면 됩니다(예시: 초등학교, 주민센터 등)

구분	기관명
1	
2	
3	

11. 귀하가 근무하는 지역에는 아동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돌봄센터 또는 지역 내 거점 기능을 수행할 공간에서 활동할 인력(돌봄교사,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 등)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판단되십니까?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② 충분하지 않다

③ 보통

④ 충분한 편이다 ≡ 문 11-1번으로

⑤ 매우 충분하다 ≡ 문 11-1번으로

11-1. (문 10번에서 ④번 또는 ⑤번에 응답한 경우) 아동 돌봄센터 등에서 활동할 인력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인력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 귀하께서 생각나는대로 기관유형을 응답하시면 됩니다(예시: 초등학교, 주민센터 등)

구분	아동돌봄 센터 활동인력
1	
2	
3	

12. 귀하가 근무하는 지역에는 부모가 참여하는 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부모들의 요구가 어느 수준이라고 판단되십니까?

① 부모 수요가 전혀 없다.

② 부모 수요가 거의 없다

③ 부모 수요가 높은 편이다 ≡ 문 12-1번으로

④ 부모 수요가 매우 높다 ≡ 문 12-1번으로

⑤ 잘 모르겠다

12-1. (문 12번에서 ④번 또는 ⑤번에 응답한 경우) 귀하가 근무하는 지역에서 아동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부모가 참여하는 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에서 주도하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공동체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을 생각나는대로 모두 적어주십시오. ,

12-2. (문 12번에서 ④번 또는 ⑤번에 응답한 경우) 부모가 참여하는 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가구라고 생각되십니까?

- ① 초등 방과후 돌봄
- ② 영유아를 둔 가정내 양육 가구
- ③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시간연장형 보육 등)
- ④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3. 귀하는 상대적으로 간과된 초등 돌봄 공백의 해소를 위해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시에 정부와 민간(부모)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각각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지방정부가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주요 역할 및 협력내용
중앙정부	<hr/> <hr/> <hr/> <hr/> <hr/> <hr/>
지방정부 (광역/기초)	<hr/> <hr/> <hr/> <hr/> <hr/> <hr/>
공공 부문 (공공서비스기관)	<hr/> <hr/> <hr/> <hr/> <hr/> <hr/>
민간 부문 (민간 기관/부모)	<hr/> <hr/> <hr/> <hr/> <hr/> <hr/>

부록 6. 설문조사표: 실무자용

아동돌봄 분야 민관 협력 현황 및 요구 조사 _실무자용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아동 돌봄의 공백 해소 또는 틈새보육 등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지원 사업 및 관련 지원체계 현황(돌봄네트워크, 지역돌봄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 협력의 기관 및 세부내용, 개선 과제,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요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제33조와 제34조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사대상 확인 사항〉

1. 귀하는 현재 이하 보기의 업무 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문 2번으로**
 ② 아니오 ☞ **조사 중단**

〈보 기〉	
① 복지네트워크	②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③ 지역사회복지	④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⑤ 마을공동체/마을만들기 사업 운영	⑥ 기관연계 사업
⑦ 주민조직화	⑧ 교육복지 협력

2. 귀하는 문 1번의 업무 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지 3개월이 넘었습니까?

- ① 예 ☞ **문 2번으로**
 ② 아니오 ☞ **조사 중단**

I.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3.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은 아동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거나 틈새보육(또는 긴급보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중앙정부(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의 공모사업(다함께돌봄사업 등), 중앙정부 사업인 공동육아나눔터, 드림스타드 사업을 제외하고, 자체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 현재 시범사업 중인 경우는 사업 추진 중에 포함하여 “예” 라고 응답합니다

- ① 예 ☞ **문 3-1번으로**
 ② 아니오 ☞ **문 4번**
 ③ 잘 모르겠다 ☞ **문 4번**

3-1. 문 3번에 해당하는 1) 사업명 2)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3)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 해당 사업이 2건 이상인 경우는 각각 구분하여 모두 작성합니다.
 ※ 동일사업이나 세부 사업대상(돌봄센터)별로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이 다른 경우는 종합하여(연간 900만원~1,200만원) 또는 세부 항목(1호, 2호)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구분	3-1. 사업명	3-1-1. 주요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아동연령/소득기준 등)	3-1-2. 지원내용(리모델링비, 운영비 등) /지원수준(지원금액/연간)
1			
2			
3			

3-1-2-1. 문 3-1-2번의 지원내용 중 보조금 등 재정지원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 (교육, 컨설팅, 돌봄협의체 운영 및 지원 등)이나, 사후관리 내용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모두 적어주십시오.

※ 해당 사업이 2건 이상인 경우는 각각 구분하여 모두 작성합니다.

구분	사업명	세부 지원내용(재정지원 이외 지원) 및 사후관리 사항
1		
2		
3		

3-2.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이 위탁기관으로서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위탁받아 수행(또는 수행 예정) 중인 업무를 모두 적어주십시오.

3-3. 문 3-1번 사업의 돌봄서비스는 어디에서 제공되고 있습니까?

※ 돌봄센터의 구체적인 명칭과 서비스 공간의 유형(작은도서관 등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한 가지 사업에서 돌봄센터가 2개 이상 운영되는 경우는 해당 공간의 유형을 각각 모두 적어주십시오.

구분	사업명	돌봄센터명	서비스 공간(돌봄 인프라) 유형 (작은도서관, 주민센터,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학교 등)
1			
2			
3			

3-4. 문 3-1번 사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초등 방과후 돌봄 등)

3-5.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이 문 3-1번의 사업을 위탁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예시: 주요 사업내용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서, 주요 서비스 내용의 연계에 유리해서 등)

3-6. 문 3-1번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해당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적어주십시오.

3-7. 문 3-1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에 대한 지원 요구 또는 개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구분	지원 요구/개선과제 세부내용
정부 지원요구	
개선과제	

II. 지역사회 돌봄네트워크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

4.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은 해당 지역 내 아동 돌봄 분야의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 (및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기구 또는 조직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시: 지역돌봄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세부 분과 등)

- ① 예 ☞ **문 4-1번으로**
 ② 아니오 ☞ **문 5번으로**

4-1. (문 4번에서 ①번에 응답한 경우) 해당 기구의 1) 위원 구성과 2)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관련 기구가 2개 이상인 경우는 각각 구분하여 적어주십시오.

구분	4-1 기구(협의체)명	4-1-1 구성(위원 및 소속 기관)	4-1-2 주요 역할
1			
2			
3			

4-2-1. 문 4-1-1번에서 응답한 위원 중 지역사회내 돌봄 및 유관 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관은 어디라고 판단되십니까?

※ 해당 기관을 중요도 순으로 최대 1, 2, 3순위까지 표기하고, 그 사유를 각각 적어주십시오.

중요도 순위	구성위원명(소속기관)	중요하다고 판단한 이유
1		
2		
3		

4-2. 문 4-1번에서 운영 중인 아동 돌봄 분야의 네트워크(및 협의체)의 운영 시 1) 애로사항, 2) 활성화의 요건 및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구분	가구(협의체)명	운영 시 애로사항	활성화의 요건 및 개선과제
1			
2			
3			

5. 귀하가 근무하는 지역에서(시군구)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 가구(돌봄협의체) 또는 네트워크가 운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6. 귀하께서 근무하는 지역에(시군구) 향후 아동 돌봄의 공백 해소 등을 위한 마을중심 돌봄지원 체계를 구축을 위해 1) 아동 분야 돌봄서비스 및 유관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한 협의가구에 위원으로 포함해야 할 기관(또는 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2)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지역 내(시군구)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해주시시오.

구분	기관 유형 (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등)	협의가구 포함 사유
공공기관		
민간기관		

Ⅲ. 아동 돌봄 분야 서비스 연계 및 협력과 지원 요구

※ 이하 질문은 아동 돌봄 분야의 공백 해소 등을 위해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 및 지원요구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의 업무 경험을 감안하여 판단이 가능한 항목에만 응답해주시시오.

7. 귀하께서 판단하시기에 귀하가 근무하는 지역 내(시군구)에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발굴하여 돌봄서비스 기관에 연계하거나 지역 내 돌봄공동체의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돌봄서비스 또는 유관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 해당 기관을 생각나는대로 모두 적어주시시오.

구분	기관명/기관유형 (작은도서관 등)	서비스 연계 및 협력내용
돌봄서비스 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이외 유관 기관		

8. 귀하가 근무하는 지역에는 아동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돌봄센터 또는 지역 내 거점 기능을 수행할 공간으로 발굴할만한 장소가 얼마나 충분하다고 판단되십니까?

-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 ② 충분하지 않다
- ③ 보통
- ④ 충분한 편이다 ⇨ 문 8-1번으로
- ⑤ 매우 충분하다 ⇨ 문 8-1번으로

8-1. (문 10번에서 ④번 또는 ⑤번에 응답한 경우) 아동 돌봄 공간으로 발굴할만한 장소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 생각나는대로 기관유형으로 응답하시면 됩니다(예시: 초등학교, 주민센터 등)

구분	기관명
1	
2	
3	

구분	서비스 연계 및 협력 기관명 (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서비스 연계 및 협력사항
1		
2		
3		

- 11-1.**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문 11번에서와 같이 지역사회내 다른 서비스 기관들과 연계 하거나 협력을 추진할 시에 겪은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지역 내 아동돌봄 분야의 다른 (서비스) 기관들과의 연계 및 협력 시에 경험한 애로 사항을 생각나는대로 모두 적어주십시오.

- 12.** 아동 돌봄의 공백 해소 등을 위해 지역 내에서 돌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은 어떤 역할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구분	아동 돌봄 분야 공동체 지원사업의 추진 시 기관의 역할
1	
2	
3	

- 13.** 귀하는 상대적으로 간과된 초등 돌봄 공백의 해소를 위해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시에 정부와 민간(부모)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각각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지방정부가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주요 역할 및 협력내용
중앙정부	
지방정부 (광역/기초)	
공공 부문 (공공 서비스 기관)	
민간 부문 (민간 기관/부모)	

IV. 응답자 및 자녀의 일반적 특성

※ 응답 가구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D1. 연령	만 ()세	
D2.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 남	<input type="checkbox"/> ② 여
D3. 최종학력	① 고졸 이하	② 전문(3년제)대학 졸
	③ 4년제 대학 이상	④ 대학원 이상
D4. 현 기관 재직기간	()년 ()개월	
D5. 담당부서	()실/과/팀	
D6. 직급/직위	() / ()	
D7 현재 주요 업무	(예시: 복지네트워크 운영)	
D8 기관유형	① 사회복지관 ③ 청소년아카데미 ⑤ 육아종합지원센터	② 지역아동센터 ④ 건강가정지원센터

D9. 귀하의 근무지가 소재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시/도 ()구/시 ()군

D10.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도시규모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광역시(서울특별시 포함) ② 도 지역_시 지역(중소도시) ③ 도 지역_군 지역(읍면지역)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SBN 979-11-87952-65-7